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0000-000795-10

<http://www.maf.go.kr>

2003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농림부 도서실



0010233



농림부

목 차

제 1 편 2002년도 농업동향

제1장 경제동향	3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3
1. 국내 경제동향	3
가. 경제성장	3
나. 물가와 금리	7
다. 고용과 임금	10
라. 경상수지	12
2. 해외 경제동향	14
가. 경제성장	14
나. 고용 및 물가	15
다. 교역 및 경상수지	16
라. 국제금리 및 환율	17
제2절 농촌 경제동향	19
1. 농업구조	19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19
나. 농경지	20
2. 농가경제	23
가. 소득동향	23
나. 가계지출 동향	28
다. 가처분 소득 및 잉여	28
라. 농가자산 동향	29

마. 농가부채 동향	30
바.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30
사.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31
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32
자.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3
차. 지역별 주요지표	33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34
가. 개 황	34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5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7
라. 농촌임료금	38
4. 농림업 부가가치	39
5. 농업생산성	40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42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수급동향	42
1. 식량작물	42
2. 원예·특용작물	44
가. 채소류	44
나. 과실류	46
다. 화훼류	46
라. 특용작물	47
마. 인삼류	48
3. 축산물과 사료작물	49
가. 축산물	49
나. 사료작물	52

제2절 식품수급동향	54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54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54
나. 소득계층별 식품소비행태	55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56
2. 식품수요와 공급 현황	59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59
나. 자급률 수준	61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63
3. 식품가공산업 현황	65
가. 산업구조	65
나. 생산동향	66
다. 수출입동향	68
제3절 농산물 교역동향	70
1. 농산물 수출입동향	70
가. 수출 동향	70
나. 수입 동향	71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72
가. 농산물 교역규모	72
나. 농산물 교역동향	72
제3장 국제 농업동향	75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75
1. 국제곡물 수급동향	75
가. 개 요	75
나. 쌀	75
다. 밀	75

라. 옥수수	75
마. 대두	76
2. 국제곡물 가격동향	77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79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79
가. 미 국	79
나. 중 국	82
다. 일 본	86
라. 유럽연합(EU)	89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93
가. 미 국	93
나. 일 본	95
다. 중 국	96
라. 캐나다	96
마. 유럽연합	97
바. 중남미국가	98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99
아. 기타국가	101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02
1. WTO 활동	102
가. WTO 일반 활동	102
나. 농업협상관련 활동	103
2. OECD 활동	106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106
나. 최근 활동	107
3. FAO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09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112

5. APEC관련 활동	113
가. 개요	113
나. 주요 활동	114
6. 농업·환경·무역연계 논의동향	116
가. OECD 농업 및 환경회의	116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17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118
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119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120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127
제1절 2002년 예산 중점투자 분야 및 재원확보	127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127
2. 15조원 농특세 사업	129
제2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30
1. 농업·농촌 투융자현황	130
2. 농업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132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132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133
3.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134
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유도 및 규모화 추진	134
나. 소득안정망 구축사업 보완	134
다. 농림사업 추진상의 제한 완화	135
라. 사업집행관리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보강	135

제3절 농림행정 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36
1. 농림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136
2. 농림조직의 개편	137
가. 농림부	137
나. 농촌진흥청	138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139
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139
나.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140
다.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140
라. 농지법중개정법률	141
마.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	141
바.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141
사.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42
아.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	142
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	142
차.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43
카. 축산법중개정법률	143
타. 산지관리법	143
파.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	143
제4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144
1. 협동조합 개혁	144
가.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	144
나. 그 동안의 추진실적	144
다. 농업금융개혁의 지속추진	148
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추진	149
2. 농업기반공사	151
가.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	151
나. 향후 발전방향	154

3. 농수산물유통공사	156
4. 한국마사회	157
가. 급격한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	157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158
제5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60
1. 설치경과	160
2. 위원회 구성	161
3. 위원회 활동	162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165
제1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65
1.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165
가. 농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 추진	165
나.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170
다. 가축공제대상품목 확대	172
라. 재해농가 지원강화	173
2. 쌀의 수급균형과 적정가격 유지	175
가.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175
나. 농지보전 및 관리	176
다. 영농규모화사업 실적	178
라. 수매가 동결	179
마.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의 쌀생산·가공·유통혁신	180
바.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182
3.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183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183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85
다. 밭기반정비사업	186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7
마. 배수개선사업	188
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89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190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190
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191
4.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192
가. 농업기계화	192
나.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201
5.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충	204
가. 논농업직불제	204
나. 경영이양 직불제	207
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207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9
6. 농외소득원 확충	211
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212
나. 농공단지 활성화	213
다. 농촌휴양자원의 개발	214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14
제2절 농업전문경영체 및 여성농업인 육성	216
1. 후계농업인 육성	216
가. 개 요	216
나. 2002년도 추진상황	217
다. 평 가	217
2. 법인경영체 육성	217
가. 영농조합법인	217
나. 농업회사법인	218
다. 법인경영체 육성시책 평가	219

3. 신지식 농업인 육성	220
가. 개 요	220
나. 신지식농업인 육성 방안	221
4.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221
가. 농업인교육	221
나.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224
5. 농업벤처 육성	226
가. 개 요	226
나. 2002년도 추진상황	226
6.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226
가. 추진배경	226
나. 지원내용	227
다. 평 가	228
7. 농업종합자금제 확대 추진	228
가. 추진개요	228
나. 종합자금제의 주요 특징	229
다. 2002년도 종합자금 지원실적	230
라. 추진성과	231
8. 여성농업인 육성	232
가. 개 요	232
나. 주요 추진시책	233
다. 평 가	236
제3절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촉진	238
1. 농업기술 혁신	238
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 재배기술 개발	239
나. 소득증대를 위한 발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241
다. 원예작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243
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246

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248
바. 새로운 소득자원 개발 및 산업화	251
사.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252
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254
자. 농축산물의 생산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개발	256
차.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소득화 기술 개발	259
2. 유용 유전자원의 종합 관리	260
가. 국내외 유전자원의 탐색·수집·보존·정보화	261
나. 주요작물의 Genome 연구확대 및 유용유전자 개발	263
다. 생물정보의 D/B화 및 활용시스템 구축	264
3.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과 유용물질 생산	265
가. 형질전환된 작물의 조기 품종화 추진	265
나. 곤충·미생물 자원에서의 유용물질 대량생산	266
다. 동물자원 유용물질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267
라. 체세포복제소 안정생산 및 수태율 증진기술 확립	268
4.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 및 지원체계 정비	268
가. 농업생명공학 연구 전담기구 설치	269
나. 농업생명공학 연구 지원체계 정비	269
5. 농업정보화 촉진	270
가.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충	270
나. 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	270
다. 인터넷 콘텐츠 확충	272
라.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272
마. 「농촌PC보내기 운동」 추진	273
제4절 수급안정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신유통체계 구축	274
1. 농업관측 강화	274

2. 농·축산물 수급안정	275
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275
나. 과일류 수급안정 지원	276
다.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277
3. 유통협약·명령제 추진	278
4.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279
5.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280
6. 농산물 물류 효율화	281
7. 전자경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제고	282
8.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확대	283
제5절 축산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285
1.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85
2. 양돈·양계 수급안정 및 품질 고급화 추진	286
3. 우유수급안정 대책 추진	287
4.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288
5. 가축개량 추진	289
제6절 농축산물 안정성제고 및 친환경농업기반 마련	291
1.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291
2.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292
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축 추진	292
나. 농업자원 유지·개량시책 추진	293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	294
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추진	295
3.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295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체계 강화	295
나.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296

4.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	296
5.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298
제7절 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300
1. 농산물수출진흥대책	300
가. 개 요	300
나. 해외시장 개척	302
다.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304
2. 수입관리	305
가. 개 요	305
나.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305
다.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입관리 운용	306
제8절 농촌활력 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306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306
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306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307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308
2.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309
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09
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311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제1장 2003년도 농정방향	315
제1절 2003년도 농정목표	315
제2절 2003년도 농정시책 방향	317
1.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317

가. 친환경 농업 본격 육성	317
나. 농업구조의 개편	318
다. 안전·고품질 농산물관리체제 강화	319
라. 농산물 유통혁신	319
마. 농산물 수출확대	320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320
가. 직접지불제 확충	320
나.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321
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	321
라.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322
3.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322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22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323
다.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개선	323
라. 농촌지역개발 및 활성화	324
제3절 2003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324
1. 2003년 농림예산 편성 방향	324
2. 2003년 농림예산 규모	325
제4절 농정추진 체계 개선	326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326
2. 농림사업 투융자 평가 및 제도개선	328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328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개선	328
3. 농림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330
4. 농림조직의 개편	330
가. 농림부	330
5. 농협의 구조개선 추진	333

가. 중앙회 및 일선조합 개혁	333
나.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335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339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339
1.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	339
2. 토양개량사업 추진	340
3.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341
4.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341
가. 축산분뇨의 자원화	341
나. 축산업등록제 추진	342
제2절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344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344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345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346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346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347
4. 가축방역·검역 강화	348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350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350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350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351
다.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352
2. 농업생산기반 확충	354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354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55

다. 받기반정비사업	356
라.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356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357
3. 농업전문인력 육성	359
가. 후계농업인 육성	359
나. 법인경영체의 육성	359
다. 경영컨설팅 지원	359
라. 여성농업인 육성	360
마. 농업벤처 육성	363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363
1. 농업관측제도 정착	363
2. 산지유통의 거점화 · 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	365
3. 농산물물류 표준 · 규격화 확대	366
가. 농산물표준규격화	366
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	367
4. 축산물시장 차별화	367
제5절 농 · 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369
1. 수출여건과 전망	369
2. 농 · 축산물 수출진흥 대책	370
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 공급 체계 구축	370
나. 국가별 · 시장별 여건에 맞는 시장개척 추진	370
다. 수출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규모화를 유도하면서,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372
3. 수입관리 대책	372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372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373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374
라. 동 · 식물 검역기능 강화	374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374
1. 쌀 수급균형 조기 달성	374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374
나.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376
다. 쌀소비 촉진 전개	376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377
2. 쌀생산조정제 실시	378
3.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379
4. 양돈·양계의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 추진	380
<부록> 원유수급 안정화 대책 추진	381
1. 국내 낙농산업현황	381
가. 원유생산 현황	381
나. 원유품질 현황	382
다. 원유 유통현황	383
라. 우유 및 유제품 소비현황	385
마.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도입	388
2. 우유수급 안정대책	389
가. 개요	389
나. 원유생산감축대책	389
다. 우유 수요확대	392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393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393
가. 논농업직불제 제도 개선	393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395
다.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추진	396
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 준비	397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 강화	398
가. 농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 추진	398
나. 상시경영회생 지원제도 도입 추진	401
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403
라.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404
마.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405
제8절 다양한 농의소득원 확충	405
1. 농촌관광 활성화	405
2. 도시자본 농촌투자 유치촉진	407
가. 농촌의 현실	407
나. 농촌활력증진 방안 모색	407
다.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추진	408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408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409
1.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	409
2. 농특세 연장에 따른 관련법 개정	411
3.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412
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412
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412
다. 다양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개발·보급	413
라. 농가주거환경개선	413
마.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414
4. 농촌의 교육·의료·정보화 등 생활여건 개선	415
가. 농어촌 복지증진 종합대책 추진	415
나. 복지지원 개선사항	415
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16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16
마.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417
제10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대응	422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422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422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유지 확보 추진	425
다. 쌀재협상 대책 추진	425
2. 한·칠레 FTA 추진	426
가. FTA 추진경위	426
나. FTA 지원 특별법 제정	428
다. FTA 후속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및 추진	429
3.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431
가. 북한의 식량 농업 상황	431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432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대비 체계	436

표 목 차

제 1 편 2002년도 농업동향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3
<표 1-1-2> 산업별 성장률	4
<표 1-1-3> 소비동향	6
<표 1-1-4>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명목금액)	6
<표 1-1-5> 투자지출 동향	7
<표 1-1-6> 물가동향	8
<표 1-1-7> 수출입 물가	9
<표 1-1-8> 시중실세금리	9
<표 1-1-9> 고용동향	10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11
<표 1-1-11> 경상수지	12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실질 GDP 기준)	15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17
<표 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	18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달러대비)	18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21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22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22

<표 1-1-20> 휴경면적	23
<표 1-1-21> 농가소득	23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24
<표 1-1-23> 농업소득	24
<표 1-1-24> 농업조수입	25
<표 1-1-25> 농업조수입 구성비	25
<표 1-1-26> 농업경영비	26
<표 1-1-27> 농외소득	27
<표 1-1-28> 이전수입	27
<표 1-1-29> 가계비 지출	28
<표 1-1-30> 가처분소득 / 잉여금	29
<표 1-1-31> 농가자산	29
<표 1-1-32> 농가부채	30
<표 1-1-33>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31
<표 1-1-34>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32
<표 1-1-35>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32
<표 1-1-36>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33
<표 1-1-37> 지역별 주요지표	34
<표 1-1-38> 농가교역조건 동향	34
<표 1-1-39>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36
<표 1-1-40>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38
<표 1-1-41> 농촌임료금 동향	39
<표 1-1-42>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40
<표 1-1-43>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40
<표 1-1-44> 농업생산성 지표	41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42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43
<표 1-2-3> 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44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45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46
<표 1-2-6> 화훼산업 현황	47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48
<표 1-2-8> 인삼생산동향	49
<표 1-2-9> 쇠고기 수급동향	49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52
<표 1-2-11>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53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53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54
<표 1-2-1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2년도 평균)	56
<표 1-2-15>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57
<표 1-2-16>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58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60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62
<표 1-2-19>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63
<표 1-2-20>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64
<표 1-2-21>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	66
<표 1-2-22>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68
<표 1-2-23>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69
<표 1-2-24>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70
<표 1-2-25> 농림산물 수입동향	72

<표 1-2-26> 남북교역 동향	72
<표 1-2-27> 반출입 통관실적	73
<표 1-2-28>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73
<표 1-2-29>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74
<표 1-3-1> 세계곡물수급전망	76
<표 1-3-2> 국제곡물가격추이	78
<표 1-3-3> 미국 주요 농업지표	79
<표 1-3-4>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86
<표 1-3-5> EU 농업의 주요 지표(2001)	90
<표 1-3-6> 국제기구별 지원실적 및 목표	113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표 2-1-1> 2002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128
<표 2-1-2>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2002)	130
<표 2-1-3> 2002년도 농업·농촌투융자 재원별 구성	131
<표 2-1-4> 2002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131
<표 2-2-1> 가축공제 추진 과정	173
<표 2-2-2> 생육후기 농작물 대과대 신설내역(특별재해지역)	174
<표 2-2-3> 복구비중 자부담 전환내역(특별재해지역)	174
<표 2-2-4> 최근의 쌀수급 동향	176
<표 2-2-5> 2002년도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내역	177
<표 2-2-6>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178
<표 2-2-7>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79

<표 2-2-8>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181
<표 2-2-9> RPC 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181
<표 2-2-10> RPC유통비율	182
<표 2-2-11>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184
<표 2-2-12>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185
<표 2-2-13> 받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7
<표 2-2-1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8
<표 2-2-15>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89
<표 2-2-1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89
<표 2-2-17>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190
<표 2-2-18>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191
<표 2-2-19>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192
<표 2-2-20>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구입자금지원	194
<표 2-2-21>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195
<표 2-2-22>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196
<표 2-2-23>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197
<표 2-2-24>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198
<표 2-2-25>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실적	200
<표 2-2-26> 면세유 공급실적 및 농가부담경감액	201
<표 2-2-27> 연도별 농약소비 상황(공장출하량 기준)	202
<표 2-2-28> 비료 소비량 추세	203
<표 2-2-29> 2002년 주요 비종별 비료가격(20kg당)	204
<표 2-2-30>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207
<표 2-2-31>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현황	208
<표 2-2-32>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213

<표 2-2-33>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실적	214
<표 2-2-34> 농산물가공공장 연도별 운영상황	216
<표 2-2-35> 농산물가공산업 추진현황(2002년)	216
<표 2-2-36> 2002년 후계농업인 육성현황	217
<표 2-2-37> 대학별 특성화분야	224
<표 2-2-38> 대학별 사업성과	225
<표 2-2-39> 2002년 컨설팅서비스 지원실적	227
<표 2-2-4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229
<표 2-2-41> 농업종합자금 추진 현황('02년)	230
<표 2-2-42>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232
<표 2-2-43> 2002년도 센터별 운영 실적	235
<표 2-2-44> 여성농업인육성 사업추진 현황	237
<표 2-2-45> 2002년도 주요연구성과	239
<표 2-2-46> 2002년도 육성 신제품 현황	239
<표 2-2-47> 유전자원 보유현황(종자, '02. 12 현재)	262
<표 2-2-48>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271
<표 2-2-49>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76
<표 2-2-50>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77
<표 2-2-51> 축산물 가격동향	278
<표 2-2-52>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	283
<표 2-2-53> 농산물 전자상거래 효과	285
<표 2-2-54> 브랜드활성화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289
<표 2-2-55> 2002년도 가축개량 성과	291
<표 2-2-56> 축산물 작업장 HACCP지정 및 대상품목 현황(2002. 12. 31 기준)	297
<표 2-2-57>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대상확대	297

<표 2-2-58>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303
<표 2-2-59> 도로포장 현황	307
<표 2-2-60> 상수도 보급현황(2001년말 현재)	308
<표 2-2-61>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계획	308
<표 2-2-62> 2002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309
<표 2-2-63>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310
<표 2-2-6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310
<표 2-2-65>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311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표 3-1-1> 2003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326
<표 3-1-2> 농·소·정협력지원사업	327
1<표 3-2-> 도축장 HACCP 미 작성 및 운용 등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345
2<표 3-2-> 돼지콜레라 발생내역	348
3<표 3-2-> 2003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계획	351
4<표 3-2-> 2003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352
5<표 3-2->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353
6<표 3-2->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355
7<표 3-2->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355
8<표 3-2->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356
9<표 3-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357
10<표 3-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군 현황	361
11<표 3-2-> 주요농산물 품목별 발표시기	364

12<표 3-2->	2003년도 농·축·임산물 수출전망	369
13<표 3-2->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373
14<표 3-2->	쌀생산조정제 연도별 지원계획	378
15<표 3-2->	최근 5개년 연간 원유생산량	381
16<표 3-2->	최근 5개년 조사료 수입실적	382
17<표 3-2->	축종별 소득을 및 수익률 비교(2001년)	382
18<표 3-2->	2002년도 원유환산량 기준 유제품 유통현황	383
19<표 3-2->	2001년 주요 국가 원유생산비 및 원유가격	384
20<표 3-2->	전국 원유 생산·소비 및 시유소비량	385
21<표 3-2->	연도별 국민 1인당 시유소비량	386
22<표 3-2->	최근 5개년 우유 대체음료 매출액 현황	386
23<표 3-2->	최근 5개년 유제품 생산량	387
24<표 3-2->	2002년도 우유소비홍보 지원내역	387
25<표 3-2->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위원현황	401
26<표 3-2->	가축공제 가입율	404
27<표 3-2->	농산물가공산업 추진계획(2003년)	409
28<표 3-2->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계획	416
29<표 3-2->	2003년도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계획	417
30<표 3-2->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418
31<표 3-2->	농촌 PC보급 및 인터넷 이용률	421
32<표 3-2->	2002/2003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432
33<표 3-2->	2003년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내용	435
34<표 3-2->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규모	435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제1장 경제동향

제 1 절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2002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6.3%로 전년(3.1%)보다 크게 좋아졌다. 3/4분기 건설업경기 둔화로 5.8% 성장률을 보여 소폭 둔화되었으나 그 외 기간에는 6%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이 호조를 보였으며, 소비지출은 준내구재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설비투자도 전년의 마이너스에서 올해 6.8%로 큰 폭 증가하였고, 수출은 전년대비 14.9% 증가하는 등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된 한 해였다.

1<표 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대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GDP		5.0	△6.7	10.9	9.3	3.1	6.3
경 제 활 동 별	전 산 업	5.8	△6.1	11.0	9.8	3.8	6.7
	농림어업	4.6	△6.6	5.4	2.0	1.9	△4.1
	제 조 업	6.6	△7.4	21.0	15.9	2.1	6.3
	서비스업	5.4	△7.2	11.9	9.5	3.9	8.8
재고증가율		4.6	△17.0	2.1	16.1	△1.7	0.3
제조업평균가동율		79.2	68.0	76.4	78.5	73.2	76.9

주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며 금융취급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활동부문별로는 산업전반의 성장률이 6.7%로 전년(3.8%)에 비해 성장세가 호전되었다.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 등의 경공업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전기전자 기기, 반도체 및 통신기기, 비금속광물 등의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전산업의 성장세가 호전된 가운데 농림어업은 쌀과 채소류의 생산 감소와 조업수역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재고증가율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2.1%) 2000년에는 16.1%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1년 들어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재고증가율이 1.7%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1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보다 크게 낮은 73.2%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는 76.9%로 호전되었으며 재고증가율은 0.3%로 다소 높아졌다.

(1) 산업별 생산활동

산업전반은 2002년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져 1/4 ~ 2/4분기 7%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3/4분기에 접어들어 소폭 하락한 연간 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6.3%에 이르러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등의 경공업과 전기전자 기기, 반도체 및 통신기기, 비금속광물 등의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늘어났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여 8.8% 증가하였다.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년(3.9%)보다는 성장세가 대폭 확대되었다.

2<표 1-1>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				
			연간	1/4	2/4	3/4	4/4
산업	9.8	3.8	6.7	7.1	7.1	6.0	6.6
농림어업	2.0	1.9	△4.1	0.7	△3.7	△2.2	△6.3
광업	2.5	0.6	3.9	16.5	△0.9	△6.0	7.3

	2000	2001	2002				
			연간	1/4	2/4	3/4	4/4
제 조 업	15.9	2.1	6.3	4.2	6.6	5.5	8.8
전기 가스 수도사업	14.0	5.1	13.2	13.7	13.1	11.7	14.0
건 설 업	△3.1	5.6	3.2	8.6	3.1	△3.8	6.3
서 비 스 업 ¹⁾	9.5	3.9	8.8	8.1	9.2	9.5	8.6
도소매 음식숙박업	9.8	4.0	5.6	4.1	4.9	6.3	6.8
운수창고및통신업	17.9	10.5	7.4	9.4	8.2	6.7	5.5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9	3.0	10.6	11.2	11.3	11.8	8.3
사회및개인서비스업	5.1	4.5	11.4	12.2	13.8	11.6	8.0
국 내 총 생 산	9.3	3.1	6.3	6.2	6.6	5.8	6.8
국 민 총 소 득	3.6	1.4	4.9	7.7	5.6	2.7	4.1

주 : 1) 수입세 포함, 금융귀속서비스는 공제
자료 : 한국은행

건설업은 민간건설과 정부건설이 각각 4.5%, 0.2% 증가하여 전년대비 3.2% 성장하였다. 민간건설 중에서 토목건설은 부진했으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났다. 건설경기는 1/4분기 8.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점차 성장세가 둔화되어 3/4분기에는 전년대비 3.8% 감소하는 등 경기진폭이 확대되었다.

농림어업은 유일하게 연간 4.1% 성장률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축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업과 어업이 부진한 결과이다. 축산업은 낙농과 양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재배업은 쌀과 채소류의 생산감소로 줄어들었다. 어업은 조업수역 축소 등 어업환경 악화로 감소하였다.

(2) 소비지출

2002년도의 소비지출은 민간소비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정부소비는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2%에 이르렀다. 민간소비는 연중 6.8% 증가하였는데 1/4분기에 8.9%로 정점을 이루다가 4/4분기에는 4.3%까지 위축되었다. 이러한 하반기 소비위축현상은 정부소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3<표 1-1->

소 비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6.7	3.7	6.2	8.4	7.4	5.5	3.8
민간소비지출	7.9	4.2	6.8	8.9	7.9	6.2	4.3
정부소비지출	0.1	0.2	2.9	5.3	4.4	1.5	1.0

자료 : 한국은행

(3) 저축 및 투자

4<표1-1->

총저축 및 총투자 추이(명목금액)

(단위 : 전년대비, %)

	2000	2001	2002
총 저 축	6.8	△3.6	△3.3
민 간	△9.6	△7.6	△6.3
일 반 정 부	46.0	2.3	△0.1
총 투 자	2.0	△2.8	△3.3
민 간	15.4	△3.3	△2.4
일 반 정 부	10.0	7.2	△4.8
투 자 재 원 자 립 도	114.3	112.1	111.8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총저축은 전년대비 3.3% 감소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전년대비 6.3%가 감소하고 일반정부 저축은 0.1% 감소하는 등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설비투자과 건설투자의 정체에 따라 총투자 역시 3.3%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민간부문의 투자는 전년대비 2.4% 감소하였고, 정부부문의 투자는 4.8%로 감소하였다.

2002년 투자지출은 건설투자(3.7%)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설비투자(1.6%)의 소폭 회복세로 인해 전년대비 7.2%증가하였다.

5<표 1-1->

투자지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11.4	△1.7	7.2	7.1	7.3	2.7	11.4
설비투자	35.3	△9.8	1.6	2.2	△0.2	0.4	3.1
건설투자	△4.1	5.8	3.7	10.3	3.8	△2.8	8.0

자료 :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가

2002년 중 소비자물가는 연간 2.8% 상승하여 전년(4.1%)보다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처럼 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임금상승세가 확대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았던 데다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공업제품가격이 소폭상승에 그치고 공공요금이 이례적으로 인하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농축수산물물은 호우,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라 채소류 및 과일류의 작황부진,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일부 축산물의 공급부진 등으로 6.2%상승하여 전년(6.3%)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공업제품 물가는 원화환율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2.6%)보다 둔화된 1.7% 상승에 그쳤다. 연중 공업제품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유가가 12월 들어 이라크 전쟁 위험이 고조되기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데다 2/4분기 이후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이 가세하여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1%대에서 안정되었다. 다만 4/4분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1.6% 상승에 그쳐 전년(1.9%)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농림축수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서비스가격의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가격이 안정된 데다 전력, 수도, 가스요금이 인하된데 따른 것이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6<표 1-1->

물 가 동 향

(단위 : 전기동기대비, %)

	2000	2001	2002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2.3	4.1	2.8	2.5	2.7	2.5	3.3
농축수산물	1.9	6.3	6.2	8.4	6.9	4.6	5.1
공업 제품	1.6	2.6	1.7	0.1	1.3	1.6	3.5
서비스	2.9	4.6	2.8	2.9	2.7	2.7	2.7
생산자물가	2.0	1.9	1.6	△0.2	1.2	1.6	3.9
농림수산물	△2.6	1.0	4.6	5.0	3.6	1.8	8.2
공산품	2.4	1.5	1.1	△1.4	0.4	1.3	3.9
전력·수도·가스	8.5	7.3	△2.3	△1.9	△2.9	△3.0	△1.5
서비스	1.5	2.4	2.9	2.0	3.0	3.0	3.5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농림수산물가격은 기상 악화에 따라 농산물 출하부진, 일부 축산물의 공급 부진 등으로 상반기까지 대체로 높은 오름세를 보인 후 3/4분기 들어 일시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한파에 따른 출하부진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공산품가격은 1.1% 상승에 머물러 전년(1.5%)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연중의 공산품가격 추이를 보면 1/4분기까지는 석유, 화학제품, 반도체, 영상·음향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2/4분기 들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반등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철강업체 감산에 따른 공급부진 등으로 금속제품가격이 올라 오름세로 반전하였으나 상승세는 3/4분기까지 완만하였다. 다만, 4/4분기 들어서 특별소비세 환원에 따른 승용차 가격인상, 석유제품가격의 큰폭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상당 폭 높아졌다.

수출물가는 연평균 7.0% 하락하여 전년(-3.8%)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주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진한데다 생산업체간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원화환율도 강세를 나타낸데 주로 기인한다.

7<표 1-1->

수출입 물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				
			연간	1/4	2/4	3/4	4/4
수출물가	△1.0	△3.8	△7.0	△4.0	△6.1	△7.0	△2.2
수입물가	7.6	3.5	△6.2	△6.2	△5.6	△4.8	0.8
원자재	11.1	4.5	△6.4	△7.4	△6.1	△4.6	2.6
자본재	△4.9	6.6	△6.3	△1.1	△3.2	△4.8	△6.9
소비재	1.0	7.6	△3.1	△2.0	△5.8	△9.9	△4.5

단위 : 한국은행

수입물가는 연평균 6.2% 하락하여 전년의 3.5% 상승에서 큰 폭의 내림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및 소비재도 수요부진과 원화 강세로 가격이 전년에 비해 상당폭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다.

(2) 금 리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호전,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3~4월중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국고채 및 회사채 공급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8<표 1-1->

시중실세금리

(단위 : 연%)

	1999	2000	2001	2002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8.86	9.25	7.04	6.59
CD유통수익률(3년)	6.81	7.08	5.03	4.80
콜금리(1일)	4.92	5.05	4.63	4.16

자료 : 재경부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단기시장금리는 콜금리 목표의 소폭인상 이후 그대로 유지된 데다 자금 운용의 단기화 성향이 지속됨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콜금리(의일물)는 4월말까지 4%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였으나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인상한 5월 7일 이후 연말까지는 4.25%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다. 고용과 임금

(1) 고 용

9<표1-1->

고 용 동 향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증감율(%)
경제활동인구	22,069	22,417	22,877	2.1
경제활동참가율	61.0	61.3	61.9	1.0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8
농림업	2,162	2,065	1,999	△3.2
제조업	4,293	4,267	4,241	△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4,603	15,139	15,841	4.6
건설업	1,580	1,585	1,746	10.2
실업자	913	845	708	△16.2
실업률	4.1	3.8	3.1	△0.7

자료 : 통계청

2002년도 고용사정을 보면 먼저 경기회복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40대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가 2.1%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취업자가 견고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인력의 취업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2.8%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업황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4.6%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전년

제1장 경제동향

중에 거의 늘지 않았던 건설업 취업자수도 10.2% 증가하여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4분기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이농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를 보면 임금근로자중 상시근로자가 2.2%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임시, 일용근로자는 전년의 소폭 감소에서 5.4% 증가로 반전하였다.

(2) 임 금

10<표 1-1>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2002				
			연간	1/4	2/4	3/4	4/4
명 목 임 금 ¹⁾	8.0	5.1	11.2	9.4	11.1	11.2	13.8
실 질 임 금	5.6	0.9	8.2	6.7	8.1	8.4	10.2
제 조 업 노동생산성 ²⁾	10.2	4.9	9.1	8.6	10.5	9.9	7.9

주 : 1) 비농림어업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2) 한국생산성본부의 제조업상용근로자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

자료 : 한국은행

2002년도 근로자 명목임금은 정액 및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연중 11.2% 올라 전년의 5.1%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내역별로 정액급여의 상승률이 경기회복, 연봉제 도입 확산에 따른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정액 급여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의 6.3%에서 12.1%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임금 상승률이 정보통신업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호전됨에 따라 11.9%로 크게 높아졌다. 서비스업중 운수, 창고, 통신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및 여행수요의 확대로 임금상승률이 전년의 1.9%에서 8.4%로 높아졌으며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업황이 호전된 금융, 보험업을 중심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호조지속으로 각각 10.4%와 12.4% 올라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라. 경상수지

11<표 1-1->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	2002
경상수지	244.8	122.4	82.4	60.9
상품서비스수지	277.2	139.8	96.6	67.2
상품수지	283.7	168.7	134.9	141.8
수출	1,451.6	1,759.5	1,512.6	1,625.5
수입	1,167.9	1,590.8	1,377.7	1,483.7
서비스수지	△6.5	△28.9	△38.3	△74.6
소득수지	△51.6	△24.2	△12.0	4.5
경상이전수지	19.2	6.8	△2.3	△10.8

자료 : 한국은행

2002년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1998년 이래의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흑자규모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됨으로서 전년의 82억 달러에서 61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상품수지는 전년의 135억 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142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이는 민간소비의 확대와 수출호조, 설비투자 회복 움직임 등으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다소 회복되면서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는 해외여행경비와 사업서비스로 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년의 38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경상이전수지도 내국인의 해외송금증가로 전년의 2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적자폭이 늘어났다. 한편 소득수지는 대외이자 지급축소에 기인하여 전년의 12억 달러 적자에서 5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 수 출

2002년 중 수출(통관기준, FOB가격)은 1천 625억 달러로 전년의 12.7%

감소에서 8.0% 증가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승용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크게 늘어났으나 섬유류, 철강, 금속제품은 부진하였다.

수출품목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소재 및 부품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전년의 22.6% 감소에서 9.7%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완제품은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컴퓨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의류, 신발류 등의 부진 지속으로 7.3%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소재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한 반면 완제품의 비중은 낮아졌다.

(2) 수 입

2002년 중 수입(통관기준, CIF가격)은 1천 521억 달러로 전년의 12.1% 감소에서 7.8% 증가로 반전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소비재는 국내소비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승용차, 의류,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크게 높은 21.8%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자본제도 반도체, 기계류 등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의 19.7% 감소에서 10.4% 증가로 돌아섰다. 그러나 원자재는 철강재, 화공품 등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이 석유제품 수출 부진에 따른 도입물량 감소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용도별로는 수출용 수입이 원유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수준에 머물렀으나 내수용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12.7% 증가하면서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57.0%에서 59.6%로 상승하였다.

(3) 자본수지

2002년 중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 무역관련신용 도입 및 민간기업의 해외증장기채권 발행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의 33억 달러 유출초에서 15억 달러 유입초로 돌아섰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4) 환 율

2002년도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원화의 엔화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미달러화가 엔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급격한 약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 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연초 1,320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인 원화환율은 3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4월 12일 연중 최고 수준인 1,332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수출호조 등으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1,166원까지 떨어졌으나 국내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됨에 따라 원화환율은 1,264원까지 반등하였다. 2002년 말 현재 전년말의 1,314원에 비해 10.7% 절상된 1,186원을 기록하였다.

2. 해외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2002년 들어 세계경제는 9.11 테러사건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경기진작책에 힘입어 침체에서 벗어났으나 회복세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 연간성장률이 전년의 2.3%에서 3.0%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미국경제는 저금리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전년의 0.3%에서 2.4%로 높아졌으나 분기별로는 큰 기복을 나타내었다. 특히, 2/4분기에는 일부 대기업의 회계부정 파문으로, 4/4분기에는 이라크 전쟁 우려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경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전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에 그치고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0.4%)과 비슷한 0.3%에 머물렀다.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위험 고조,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1.4%)에 못 미친 0.8%를 기록하였다. 신흥시장국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의 3.9%에서 4.6%로 다소 높아졌다. 특히 중국경제가 수출호조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등으로 전년(7.3%)에 이어 8.0%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12<표 1-1->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실질 GDP 기준)

(단위 : 전년대비, %)

	1999	2000	2001	2002
세 계	3.6	4.7	2.3	3.0
선진국	3.4	3.8	0.9	1.8
미국	4.1	3.8	0.3	2.4
일본	0.2	2.8	0.4	0.3
EU	2.8	3.5	1.4	0.8
개도국	3.9	5.7	3.9	4.6
한국	10.9	8.6	2.5	6.1
중국	7.1	8.1	7.3	8.0
라틴아메리카 ¹⁾	△0.2	4.0	0.6	△0.1

주 : 1) 멕시코 제외

자료 : 한국은행

나. 고용 및 물가

2002년중 경기회복 부진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일본 및 유로지역에서도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미국은 기업수익의 회복 지연,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기피함에 따라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4월과 12월에는 1994년 8월(6.0%)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6%를 상회하였으며, 연평균 실업률도 전년의 4.8%에서 5.8%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은 경기부진에 따른 인력감축 등으로 연평균 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인 5.4%를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경기가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여 연평균 실업률이 전년의 8.0%에서 8.3%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경기부진이 심각하였던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연중 선진국의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갔는데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현상을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공산품 및 일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전년의 2.8%에서 1.6%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4/4분기 이후에는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오름세가 2%대로 다시 높아졌다. 일본은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된 데다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제품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기준으로 0.9% 하락하여 1999년 이후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 유로화 강제 등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전년의 2.5%에서 2.2%로 소폭 낮아졌다. 아시아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전년의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며, 홍콩은 계속된 내수 부진으로 물가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중남미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자국통화의 가치하락, 정치 불안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가 보였으며 특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2월 이후 자국통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2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 교역 및 경상수지

2002년 중 세계교역(물량기준)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신장률이 전년의 0.1%에서 2.9%로 높아졌다.

선진국의 수입(물량기준)을 보면 미국은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소비를 바탕으로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4.0% 증가한 반면, 독일은 경기부진으로 수입물량이 전년의 1.0% 증가에서 1.5% 감소로 바뀌었다. 한편 일본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확대에 따른 저가 완성품 수입증대로 1.5% 증가하였다.

제1장 경제동향

2002년 중 선진국의 경상수지를 보면 미국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반면, 일본 및 유로지역은 흑자 폭이 커지는 등 지역간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출은 부진하여 적자규모가 5천 34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GDP(명목기준)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전년의 3.9%에서 4.8%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은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250억 달러 늘어난 1천 12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유로지역도 수입수요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전년 194억 달러에서 72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13<표 1-1>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 십억달러)

	1999	2000	2001	2002
미 국	△324	△445	△422	△503
일 본	107	117	89	112
서 유 럽	47	13	19	72

자료 : 한국은행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2년도 주요 선진국의 단기금리는 미약한 경기회복세,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대응하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추가 인하함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장기금리는 연초에 경기회복 기대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약해지고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전년 중 11차례에 걸쳐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동 금리를 1.75%수준으로 유지하다가 11월에 다시 1.2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단기금리가 소폭 하락하였다. 장기금리는 주가하락, 지정학적 위험증대 등으로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제 2 절 농촌 경제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2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80천가구로 전년의 1,354천가구보다 73천 가구(△5.4%)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591천명으로 전년의 3,933천명보다 343천명(△8.7%)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농가수 감소는 예년('92~'02)의 연평균 감소율 2.4%를 상회하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 농가의 도시전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가인구는 영세 및 고령농가의 탈농과 타산업 전업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감소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 4.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67.3%인 862천가구로 전년의 884천가구(65.3%)보다 22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며,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32.7%인 418천가구로 전년의 469천가구(34.7%)보다 51천가구가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7.4%(478천명), 70세이상 경영주는 19.4%(248천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7,640천명)중에서 농가인구(3,591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전년(8.3%)보다 낮아졌으며, 연령계층별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0~14세 10.7%, 15~64세 63.1%, 65세이상 26.2%로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16<표 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354	1,280	△73	△5.4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933 (8.3)	3,591 (7.5)	△343	△8.7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91	2.80			
연령별 농 가 인 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2,059 (52.4)	1,962 (54.6)	△97	△4.7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874 (47.6)	1,629 (45.4)	△245	△13.1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903 (48.4)	1,748 (48.7)	△155	△8.1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2,031 (51.6)	1,843 (51.3)	△188	△9.3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인구×100)는 244.8로 전년의 216.0보다 크게 높아져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인구의 성별 비중은 남자가 1,748천명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연평균 12.2천ha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13천ha 줄어든 1,863천ha로, 이 가운데 논면적은 1,139천ha로 전년에 비하여 7천ha 감소하였으며, 밭면적은 724천ha로 6천ha가 감소하였다.

제1장 경제동향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6.4천ha), 공공시설(4.4천ha), 기타사유(7.2천ha)로 인하여 총 18.0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간척(3.3천ha), 복구 등(1.2천ha)으로 총 4.5천ha 경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지이용면적은 2,020천ha로 전년보다 69천ha가 감소하였으며,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10.6%에서 107.6%로 낮아졌다. 경지 이용면적 증식량작물은 34천ha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곡·맥류의 감소면적이 잡곡·두류·서류 등의 증가면적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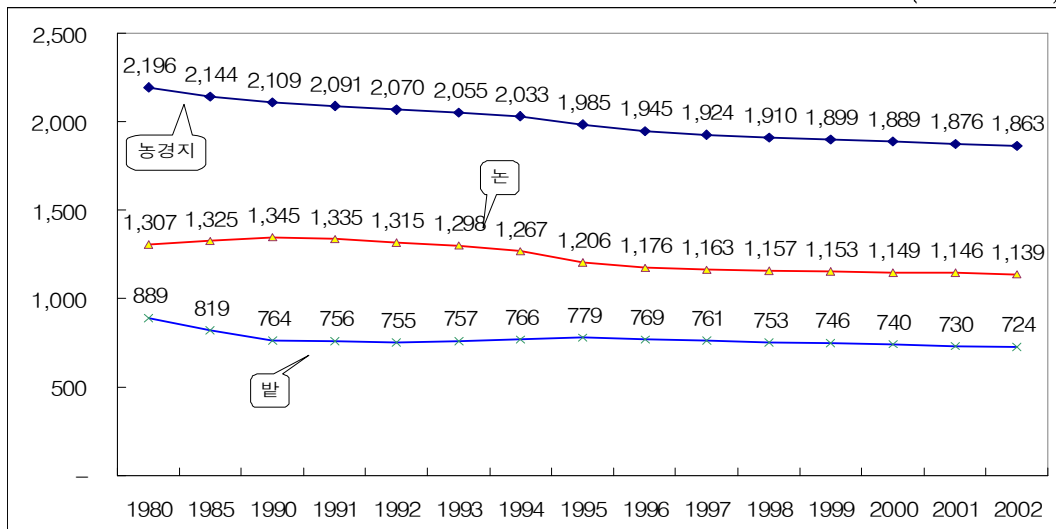
채소·과수 등 경제작물 중 채소면적은 노지고추의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무·배추·마늘·양파 등 많은 품목들의 재배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므로써 채소 전체면적은 32천ha가 감소하였으며, 과수면적은 뽕은 감·복숭아 등의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포도·단감 재배면적의 감소에 영향 받아 전년보다 1천ha 감소하였고, 기타 특용작물 등의 면적이 2천ha 감소하므로써 경제작물 전체적으로는 35천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경면적은 20.0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3.4천ha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미곡 수매가 동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7<표 1-1->

경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18<표 1-1->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 물 건축	공 공 시설	기타	
1991	5.4	1.3	3.3	0.8	23.4	9.0	5.0	9.4	△18.0
19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1996	12.1	8.9	0.5	2.7	51.9	16.8	6.6	28.5	△39.8
1997	10.9	5.5	3.1	2.3	32.9	10.4	7.1	15.4	△22.0
1998	12.3	5.9	3.1	3.3	25.3	6.3	5.9	13.2	△13.0
1999	12.0	8.1	0.8	3.1	23.0	5.0	7.5	10.5	△11.0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19<표 1-1->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지이용면적	2,197	2,097	2,118	2,116	2,098	2,089	2,020
식 량 작 물	1,346	1,315	1,332	1,327	1,318	1,334	1,300
(미 곡)	(1,056)	(1,052)	(1,059)	(1,066)	(1,072)	(1,083)	(1,053)
(맥 류)	(90)	(70)	(83)	(77)	(68)	(92)	(81)
(두류 등)	(200)	(193)	(190)	(184)	(177)	(159)	(166)
경 제 작 물	851	782	786	789	780	755	720
(채 소)	(403)	(364)	(360)	(376)	(386)	(366)	(334)
(과 수)	(174)	(176)	(176)	(174)	(173)	(167)	(166)
(기 타) ¹⁾	(274)	(242)	(250)	(249)	(221)	(222)	(220)
경 지 면 적	1,985	1,923	1,910	1,899	1,889	1,876	1,863
경지이용률(%)	108.1	107.8	110.1	110.8	110.5	110.6	107.6
(논)	(104.1)	(104.8)	(107.0)	(107.2)	(106.3)	(107.9)	(105.9)
(밭)	(114.7)	(112.4)	(114.9)	(116.3)	(116.9)	(114.9)	(110.4)

주 : 1) 특·약용작물, 뽕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20<표 1-1->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휴경면적	68.9	66.5	62.5	64.6	34.3	29.5	22.3	17.0	16.8	16.6	20.0
논	31.0	30.3	31.4	33.5	14.5	10.3	6.2	4.6	4.3	3.8	5.6
밭	37.9	36.2	31.1	31.1	19.8	19.2	16.1	12.4	12.5	12.8	14.4
휴경율(%)	3.3	3.2	3.0	3.2	1.7	1.5	1.2	0.9	0.9	0.9	1.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황영현)

2. 농가경제

가. 소득동향

(1) 농가소득

2002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24,475천원으로서 전년(23,907천원)에 비해 2.4%(568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소득 0.1%, 농외소득 4.0%, 이전수입 5.2%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1<표 1-1->

농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농 가 소 득	21,803 (7.3)	20,494 (△12.7)	23,072 (3.4)	23,907 (3.6)	24,475	568	2.4
○ 농업소득	10,469	8,955	10,897	11,267	11,274	7	0.1
○ 농 외 소득	6,931	6,976	7,432	7,829	8,140	311	4.0
○ 이 전 수 입	4,403	4,563	4,743	4,811	5,060	249	5.2

주 : ()는 전년비 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농가소득 구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46.1%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농업소득 비중은 1.0%p 축소된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비중은 각각 0.4%p, 0.6%p 확대되었다.

※ 우리 나라 농가의 농업의존도(46.1%)는 일본(1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2<표 1-1->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1995	1998	2000	2001	2002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업소득	48.0	43.7	47.2	47.1	46.1
○ 농외소득	31.8	34.0	32.2	32.8	33.2
○ 이전수입	20.2	22.3	20.6	20.1	20.7
< 일 본 >					
○ 농업소득	16.2	14.4	13.0	12.7	13.0

주 :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2)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11,274천원으로 전년(11,267천원)에 비해 0.1%(7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조수입 감소(△242천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농업경영비 감소폭(△250천원)이 컸기 때문이다.

23<표 1-1-> 농 업 소 득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농 업 소 득	10,469	8,955	10,897	11,267	11,274	7	0.1
(농업소득률)	(65.4)	(53.8)	(55.8)	(55.8)	(56.5)	-	-
○ 농업조수입	16,012	16,630	19,514	20,193	19,951	△242	△1.2
○ 농업경영비	5,543	7,675	8,617	8,927	8,677	△250	△2.8

주 : 농업소득 = 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조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업조수입>

농업조수입은 19,951천원으로 전년(20,193천원)에 비해 1.2%(242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과수수입, 기타수입, 축산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곡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4<표 1-1->

농업 조 수 입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농업조수입	16,012	16,630	19,514	20,193	19,951	△242	△1.2
○미곡수입	5,450	6,703	7,758	8,277	7,471	△806	△9.7
○축산수입	3,981	2,050	2,566	2,421	2,554	133	5.5
○채소수입	3,386	4,030	4,765	5,064	5,100	36	0.7
○과수수입	1,542	2,119	2,443	2,407	2,632	225	9.4
○기타수입 ¹⁾	1,653	1,728	1,982	2,024	2,194	170	8.4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업조수입 구조를 보면 미곡은 태풍(루사), 집중호우로 생산량이 격감하여 전년에 비해 비중이 3.6%p 축소되었으며 과수, 축산, 채소, 기타 부분의 비중은 각각 1.3%p, 0.8%p, 0.5%p, 1.0%p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표 1-1->

농업조수입 구성비

(단위 : %)

	1995	1998	2000	2001	2002
농업조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곡수입	34.0	40.3	39.8	41.0	37.4
○축산수입	24.9	12.3	13.1	12.0	12.8
○채소수입	21.1	24.2	24.4	25.1	25.6
○과수수입	9.6	12.7	12.5	11.9	13.2
○기타수입 ¹⁾	10.4	10.5	10.2	10.0	11.0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기호 변화로 1995년 대비 축산수입 비중은 12.1%p 줄어든 반면, 채소 및 과수수입 비중은 각각 4.5%p, 3.6%p 확대되었다.

<농업경영비>

농업경영비는 8,677천원으로 전년(8,927천원)에 비해 2.8%(250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구비, 농업노임, 임차료 지출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양축비, 농업용이자 등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이후 농구비, 농업노임,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어 가는 반면 양축비, 영농시설비 등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6<표 1-1->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액	%
농업경영비	5,543	7,675	8,617	8,927	8,677	△250	△2.8
○ 농 구 비	807	1,224	1,414	1,541	1,596	55	3.5
○ 농 업 노 임	441	495	600	593	635	42	7.1
○ 양 축 비	1,261	1,337	1,175	1,144	944	△200	△17.5
○ 비료, 농약비	695	1,056	1,245	1,281	1,221	△60	△4.7
○ 임 차 료	1,070	1,254	1,613	1,625	1,664	39	2.4
○ 농업용이자등 ¹⁾	1,269	2,309	2,570	2,742	2,617	△125	△4.5

주 : 1) 농업용이자, 종묘비, 영농시설비, 영농광열비, 도정료 등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3) 농외소득

농외소득은 8,140천원으로 전년(7,829천원)에 비해 4.0%(311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겸업소득은 다소 감소(△37천원)하였으나, 사업이외 소득이 크게 증가(348천원)한데 기인한다.

제1장 경제동향

농외소득은 1997년까지 매년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외환 위기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최근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7<표 1-1->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농 외 소 득	6,931	6,976	7,432	7,829	8,140	311	4.0
○ 겸 업 소 득	1,527 (22.0)	1,213 (17.4)	1,435 (19.3)	1,491 (19.0)	1,454 (17.9)	△37 -	△2.5 -
○ 사업이외소득	5,404 (78.0)	5,763 (82.6)	5,997 (80.7)	6,338 (81.0)	6,686 (82.1)	348 -	5.5 -

주 :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소득,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4) 이전수입

이전수입은 5,060천원으로 전년(4,811천원)에 비해 5.2%(249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축·조의금(11.4%)과 공적보조금(23.7%)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이전수입은 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8<표 1-1->

이 전 수 입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이 전 수 입	4,403	4,563	4,743	4,811	5,060	249	5.2
○ 가 족 보 조	706	457	390	291	314	23	7.9
○ 타 인 보 조	3,469	3,688	4,175	4,415	4,602	187	4.2
- 축 · 조 의 금	-	1,323	1,372	1,230	1,370	140	11.4
- 공 적 보 조 금	-	-	197	468	579	111	23.7
- 기 타	-	2,365	2,606	2,717	2,653	△64	△214
○ 퇴 직 일 시 금	228	418	178	105	144	39	37.1

주 : 가족보조는 출타가족 보조금이며, 타인보조는 친인척 및 공적 보조금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나. 가계지출 동향

농가의 가계비 지출은 가구당 17,858천원(월평균1,488천원)으로 전년(18,458천원)에 비해 3.2%(600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교제증여비(△6.9%), 교육·교양오락비(△8.4%) 및 기타지출(△4.6%)이 감소한 반면, 휴대폰 사용 확대에 따른 교통통신비(5.4%)는 크게 증가하였다.

29<표 1-1->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가 계 비	14,782	16,442	18,003	18,458	17,858	△600	△3.2
○ 음식물비	3,118	3,445	3,637	3,752	3,738	△14	△0.4
(엔겔계수)	21.1	21.0	20.2	20.3	20.9	-	-
○ 주거비	1,187	974	1,231	1,242	1,234	△8	△0.6
○ 교육·교양오락비	1,703	1,850	1,985	1,950	1,787	△163	△8.4
- 교육비	1,553	1,706	1,834	1,794	1,629	△165	△9.2
○ 보건의료비	1,001	1,130	1,319	1,492	1,414	△78	△5.2
○ 교통통신비	793	1,053	1,334	1,486	1,566	80	5.4
○ 교제증여비	3,450	4,233	4,582	4,735	4,410	△325	△6.9
○ 관혼상제비	1,755	1,779	1,830	1,636	1,644	8	0.5
○ 기타지출	1,775	1,978	2,085	2,165	2,065	△100	△4.6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54.5	60.5	61.0	63.1	-	-
평균 소비 성향 (가계비/가처분소득)	68.3	81.1	78.8	78.0	73.7	-	-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다. 가처분 소득 및 잉여

2002년도 농가소득에서 조세·부담금을 제외한 농가의 가처분소득은 24,23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비와 분가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5,794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0.2% 증가하였다.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율(2.4%)에 비해 가계비 감소율(△3.2%)이 높아 농가의 잉여금이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농가부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표 1-1->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 가처분소득	21,629	20,277	22,838	23,669	24,236	567	2.4
○ 가 계 비	14,782	16,442	18,003	18,458	17,858	△600	△3.2
○ 분 가지 출	548	329	474	393	584	191	48.6
○ 잉 여 금 ¹⁾	6,299	3,506	4,361	4,819	5,794	975	20.2
○ 농 가 부 채	9,163	17,011	20,207	20,376	19,898	△478	△2.3

주 : 1) 잉여금 = 가처분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라. 농가자산 동향

2002년말 현재, 토지를 제외한 농가의 평균자산은 87,336천원으로서 전년말(82,585천원)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물 등 고정자산은 다소 감소(△1.0%) 하였으나, 예금 등의 유통자산(14.8%)과 재고농산물 등의 유동자산(9.1%)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31<표 1-1->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농 가 자 산	52,727	69,498	78,744	82,585	87,336	4,751	5.8
○ 고 정 자 산 ¹⁾	28,890 (54.8)	41,796 (60.1)	44,687 (56.8)	45,485 (55.1)	45,024 (51.5)	△461 -	△1.0 -
○ 유 동 자 산 ²⁾	4,098 (7.8)	4,611 (6.6)	4,796 (6.1)	4,776 (5.8)	5,209 (6.0)	433 -	9.1 -
○ 유통 자산 ³⁾	19,739 (37.4)	23,091 (33.3)	29,261 (37.4)	32,324 (39.1)	37,103 (42.5)	4,779 -	14.8 -

주 : 1)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농업용시설물, 대농구, 대동·식물 자산

2) 재고농산물, 재고농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3) 현금, 예금, 빌려준 돈 등의 금융자산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마. 농가부채 동향

2002년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19,898천원으로 전년말(20,376천원)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이는 생산성자금(△1.7%), 채무상환용 자금 차입금(△10.9%) 및 가계성자금(△2.5%)이 공히 감소한데 따른 것이나, 특히, 농지, 시설물 등 생산시설투자의 부채가 9.4%(871천원) 감소한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말 현재,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유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6%으로서 전년(63.0%)에 비해 9.4%p 낮아졌다.

32<표 1-1->

농 가 부 채

(단위: 천원, %)

	1995	1998	2000	2001	2002	증 감	
						금 액	%
농 가 부 채 (A)	9,163	17,011	20,207	20,376	19,898	△478	△2.3
○ 생 산 성 자 금 (구 성 비)	7,331 (80.0)	12,958 (76.2)	15,159 (75.0)	15,282 (75.0)	15,024 (75.5)	△258	△1.7
○ 가 계 성 자 금	1,110	2,653	3,882	4,015	3,913	△102	△2.5
○ 채 무 상 환 용	722	1,400	1,166	1,079	961	△118	△10.9
유통 자산 (B)	19,739	23,091	29,261	32,324	37,103	4,779	14.8
단기상환능력[(A/B)×100]	46.4	73.7	69.1	63.0	53.6	-	-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바.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특작농가가 33,294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작농가의 소득은 16,574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0,225천원 으로서 평균 농가소득(24,475천원)의 82.6% 수준이다.

제1장 경제동향

농가자산은 축산농가의 자산이 226,577천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전작농가의 자산은 142,155천원에 불과하였다.

부채비율은 화훼농가, 특작농가, 채소농가가 높은 반면, 논벼농가와 전작농가의 부채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3<표 1-1->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평 균	논벼 농가	과수 농가	채소 농가	특작 농가	화훼 농가	전작 농가	축산 농가
농가구성비 ¹⁾	100.0	55.1	10.7	18.8	2.6	0.8	6.1	5.5
농가소득	24,475	20,225	29,735	23,497	33,294	26,037	16,574	31,512
가계비	17,858	15,898	18,813	18,082	15,513	16,163	14,010	19,471
자산 ²⁾	170,465	156,060	211,644	152,825	139,956	143,298	142,155	226,577
부채	19,898	15,362	28,923	23,975	33,981	40,281	12,628	30,294
- 부채/자산	11.7	9.8	13.7	15.7	24.3	28.1	8.9	13.4

주 : 1) 2002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사.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1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0,12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1종 겸업농가의 69.0% 수준이었다.

농가자산은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195,041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채비율은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고, 「제2종 겸업농가」가 가장 낮았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34<표 1-1->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천원, %)

	평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가구성비 ¹⁾	100.0	67.3	10.9	21.8	-	-	-
농가소득	24,475	20,783	30,122	29,384	84.9	123.1	120.1
가계비	17,858	16,431	19,330	21,391	92.0	108.2	119.8
자산 ²⁾	170,465	159,474	195,041	188,362	93.6	114.4	110.5
부채	19,898	18,879	28,085	19,129	94.9	141.1	96.1
- 부채/자산	11.7	11.8	14.4	10.2	-	-	-

주: 1) 2002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아.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으며 특히 「5.0ha이상」 농가의 소득은 「0.5ha미만」 농가에 비하여 2.5배 높은 수준이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도 크며, 부채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표 1-1->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평균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 5.0ha	5.0ha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35.4	26.9	15.1	8.8	7.7	4.3	1.8
농가소득	24,475	20,088	21,541	23,593	28,026	30,177	36,256	51,087
가계비	17,858	16,073	17,117	17,716	19,709	20,421	22,742	24,986
자산 ²⁾	170,465	127,936	146,408	169,215	191,794	212,175	269,050	289,640
부채	19,898	13,383	16,398	16,226	20,795	26,790	41,616	73,113
- 부채/자산	11.7	10.5	11.2	9.6	10.8	12.6	15.5	25.2

주: 1) 2002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자.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50대 연령층의 소득이 29,475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연령층의 소득은 14,492천원에 불과하였으며, 농가자산은 역시 50대 연령층이 198,327천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반면, 70대 연령층은 121,842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연령층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6<표 1-1->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천원, %)

	평 균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3.9	15.8	23.3	37.4	19.4
농가소득	24,475	22,163	29,313	29,475	22,013	14,492
가계비	17,858	18,879	21,259	22,179	16,330	12,064
자산 ²⁾	170,465	175,662	187,761	198,327	171,348	121,842
부채	19,898	47,365	40,178	25,222	13,086	5,977
- 부채/자산	11.7	27.0	21.4	12.7	7.6	4.9

주: 1) 2002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차. 지역별 주요지표

축산, 화훼 부문이 증가한 경기도의 농가소득(30,750천원)과 과수 부문이 증가한 제주도의 농가소득(29,303천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태풍(루사),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전북(20,906천원), 강원도(21,777천원)가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강원도 16.3%, 전북·전남 1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는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37<표 1-1->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¹⁾	100.0	12.3	5.8	6.6	13.7	9.6	17.1	18.0	13.9	3.0
농가소득	24,475	30,750	21,777	23,569	24,709	20,906	21,180	23,688	25,465	29,303
가계비	17,858	22,310	16,801	15,941	17,417	15,210	16,543	17,257	17,392	21,086
자산 ²⁾	170,465	272,869	150,404	153,410	168,634	130,761	123,142	150,190	150,401	253,732
부채	19,898	21,169	24,575	19,350	16,830	18,708	17,625	19,922	20,623	32,528
-부채/자산	11.7	7.8	16.3	12.6	10.0	14.3	14.3	13.3	13.7	12.8

주 : 1) 2002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지역별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황영현)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가. 개황

200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대비 5.3% 상승한 110.7이고,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대비 3.7% 상승한 109.6으로 농가교역조건은 1.6포인트 호전된 101.0이다.

38<표 1-1->

농가교역조건 동향

(2000=100)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판매가격지수(A)	96.0	93.3	93.0	99.0	100.0	105.1	110.7
농가구입가격지수(B)	81.8	83.7	92.5	95.1	100.0	105.7	109.6
농가교역조건 (A/B×100)	117.4	111.5	100.5	104.1	100.0	99.4	101.0

자료 : 농협중앙회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2년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0.7로 전년의 105.1에 비해 5.3% 상승하였다.

(1) 곡 물

2002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2로 잡곡(3.5%), 두류(2.6%)등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곡($\Delta 2.6\%$), 서류($\Delta 23.9\%$)등이 크게 하락하여 전년 대비 3.4% 하락하였다.

미곡은 일반미($\Delta 1.1\%$)와 찰쌀($\Delta 21.8\%$)이 하락하였고, 잡곡에서는 옥수수(2.3%), 조(42.5%)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두류는 콩(3.2%)과 콩나물콩(10.3%)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팥($\Delta 6.4\%$), 녹두($\Delta 19.3\%$)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서류에서는 감자($\Delta 31.4\%$)가 하락세를 보였다.

(2) 청과물

2002년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8로 채소류(1.7%)와 과실류(29.0%)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9.3% 상승하였다.

채소의 경우는 배추(58.9%), 양배추(18.4%), 시금치(22.7%), 깻잎(19.2%), 부추(20.7%)와 무(129.9%), 당근(9.4%)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엽채류와 근채류가 각각 33.1%와 83.3% 올랐고, 고추($\Delta 28.1$), 마늘($\Delta 8.2\%$), 생강($\Delta 50.0\%$), 양파($\Delta 14.0\%$)와 토마토($\Delta 13.4\%$), 수박($\Delta 20.0\%$), 딸기($\Delta 30.9\%$)등이 하락한 조미채류와 과채류는 각각 19.4%와 2.5% 하락하였다.

과실류는 배($\Delta 8.3\%$), 복숭아($\Delta 12.1\%$), 자두($\Delta 21.0\%$), 매실($\Delta 21.6\%$) 등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사과(41.3%), 포도(120.7%), 감(46.3%), 밤(43.8%)이 오름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9.0% 상승하였다.

(3) 축산물

2002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1.7로 전년대비 13.0% 상승하였다. 가축은 14.7% 상승하였으나, 유란은 0.6% 하락하였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가축은 암소(19.5%), 황소(17.5%), 암송아지(33.3%), 숫송아지(28.1%), 유우송아지(31.4%), 새끼돼지(6.7%) 등이 상승하였고, 닭(△17.8%)과 계란(△13.2%)은 하락하였다.

(4) 기타 농산물

특용작물과 화훼, 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2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8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다.

특용작물은 들깨(△12.4%), 땅콩(△7.9%), 표고버섯(△8.0%), 느타리버섯(△10.0%)등이 내렸으나, 참깨(4.1%), 인삼(15.1%)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0.6% 상승하였다. 국화(△11.9%), 백합(△16.2%) 등이 내렸으나, 장미(46.8%), 카네이션(11.1%), 거베라(4.2%) 등이 올라 화훼류는 전체적으로 19.1% 상승하였으며, 부산물(볏짚)은 지난해에 비해 0.7% 하락하였다.

39<표 1-1->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농가판매가격지수		등락률 (%)
		2001년	2002년	
총 지 수	1000.0	105.1	110.7	5.3
곡 물	388.0	98.6	95.2	△3.4
(미 곡)	349.6	97.5	95.0	△2.6
(맥 류)	10.4	104.0	104.0	0.0
(잡 곡)	4.2	103.5	107.1	3.5
(두 류)	8.4	91.7	94.1	2.6
(서 류)	15.4	121.4	92.4	△23.9
청 과 물	328.2	104.1	113.8	9.3
(채 소)	207.2	119.3	121.3	1.7
(과 실)	121.0	78.2	100.9	29.0
축 산 물	225.2	116.6	131.7	13.0
(가 축)	196.5	118.7	136.1	14.7
(유 란)	28.7	102.3	101.7	△0.6
기 타 농 산 물	58.6	110.3	114.8	4.1
(특용 작물)	45.3	114.5	115.2	0.6
(화 훼)	12.7	95.3	113.5	19.1
(부 산 물)	0.6	111.6	110.8	△0.7

자료 : 농협중앙회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2년 연평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9.6으로 전년의 105.7에 비해 3.7%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2002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8.3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3.2% 상승하였다.

식료품비는 고구마(23.6%), 마른오징어(25.4%), 무(59.5%), 배추(89.9%), 사과(37.6%)등의 상승으로 7.3%, 교육비는 6.7%, 피복 및 신발비는 2.8%, 교통통신비는 2.3%, 교양오락비는 2.1% 상승하였다. 그러나 가구집기($\Delta 1.7\%$), 광열·수도($\Delta 0.6\%$), 보건의료($\Delta 1.5$) 등은 소폭 하락하였다.

(2) 농업용품

2002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6으로 전년대비 4.3% 상승하였다.

비료(0.0%), 농약(0.4%), 농기구(0.1%), 영농자재(1.1%) 등은 전년대비 포함 내지 소폭 상승하였으며, 가축류는 암소(36.7%), 황소(23.9%), 암송아지(33.2%), 숫송아지(28.2%), 유우송아지(27.7%), 새끼돼지(6.7%)등의 가격상승으로 28.8% 상승하였다.

종자는 양과($\Delta 4.6\%$), 감자($\Delta 6.4\%$), 과($\Delta 9.1\%$) 등이 내려 1.4% 하락했으며, 영농광열비($\Delta 3.6\%$), 사료($\Delta 0.5\%$)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40<표 1-1->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락률 (%)
		2001년	2002년	
총 지 수	1000.0	105.7	109.6	3.7
가 계 용 품	559.3	104.9	108.3	3.2
(식 료 품)	100.7	104.2	111.8	7.3
(피 북 및 신 밭)	27.6	102.6	105.5	2.8
(가 구 집 기 등)	42.2	99.1	97.4	△1.7
(광 열 및 수 도)	50.0	105.8	105.2	△0.6
(보 건 의 료)	79.5	110.1	108.4	△1.5
(교 육)	111.1	105.2	112.2	6.7
(교 양 오 락)	7.9	100.0	102.1	2.1
(교 통 통 신)	109.4	104.4	106.8	2.3
(기 타 잡 비)	30.9	104.9	112.3	7.1
농 업 용 품	359.4	107.0	111.6	4.3
(종 자)	19.6	100.1	98.7	△1.4
(비 료)	34.2	100.1	100.1	0.0
(농 약)	39.8	102.3	102.7	0.4
(농 기 구)	93.3	100.0	100.1	0.1
(영 농 광 열)	28.0	102.2	98.5	△3.6
(가 축)	45.8	134.1	172.7	28.8
(사 료)	63.4	112.1	111.5	△0.5
(영 농 자 재)	35.3	100.3	101.4	1.1
농 촌 임 료 금	81.3	105.5	109.6	3.9
(농업 노동 임금)	36.8	106.0	109.4	3.2
(기 타 임 금)	2.2	107.9	116.5	8.0
(도 정 료)	7.4	108.9	111.6	2.5
(농기계 임차료)	34.9	104.2	109.0	4.6

자료 : 농협중앙회

라. 농촌임료금

2002년도 농촌임료금지수는 109.6으로 지난해에 비해 3.9% 상승하였다.

제1장 경제동향

이 중 연평균 농업노동임금은 남자가 53,093원, 여자가 34,839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1.9% 상승하였고, 목수와 미장이의 임금은 86,277원과 83,011원으로 조사되었다.

도정료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농기계임차료는 경운기(7.4%), 트랙터(6.2%), 콤바인(3.4%) 등의 상승으로 4.6%의 오름세를 보였다.

41<표 1-1->

농촌임료금 동향

(단위 : 원/1일, 급식물평가액 포함)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농업노동 임금	남 자	36,156	38,681	37,136	41,612	48,039	50,905	53,093
	여 자	26,349	27,746	25,885	29,232	32,292	34,184	34,839
기타임금	목 수	71,934	73,509	69,408	68,140	73,070	79,404	86,277
	미장이	70,044	71,148	66,987	67,072	73,939	78,086	83,011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조사부 조사역 신준석)

4. 농림업 부가가치

2002년 농림어업 총 부가가치는 1995년 기준금액으로 24,719십억원이며, 실질로는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다. 이중 농업부문 생산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임업부문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농업(農業)은 축산업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재배업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다. 재배업은 쌀과 채소류의 생산량 감소로 줄어들었으나 축산업은 낙농 및 양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어업(漁業)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고, 해면어업이 조업수역 축소 등 어업환경 악화로 감소하였으나 김, 미역 등 양식업은 호조를 보였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42<표 1-1->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단위 : 10억원, %, 1995년 기준년 가격)

		2000	2001	2002
농림어업		24,318	25,789	24,719
농업		22,389	22,597	21,789
실질 증감률	농림어업	2.0	1.9	△4.1
	농업	3.2	0.9	△3.6
	채배업	2.4	2.0	△5.2
	축산업	7.2	△4.7	4.5
	임업	△10.7	△2.4	0.7
	어업	△5.5	12.8	△10.7

자료 : 한국은행,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률, 연구원 김재환)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2년 호당 노동시간은 1,187시간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32,145천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하였다. 이에 반하여 호당 경지면적은 1.44ha로 199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호당 영농 투입시간이 전년에 비해 감소(72시간) 한 요인은 병충해 발생면적이 적어 방제시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3<표 1-1->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영농시간	1,376	1,293	1,219	1,226	1,249	1,253	1,259	1,187
농업자본액	21,323	25,707	25,782	29,057	30,047	31,425	32,661	32,145
경지면적	1.35	1.37	1.36	1.38	1.37	1.41	1.42	1.44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제1장 경제동향

2002년에는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격감하는 등 각종 농작물의 작황부진에 따라 토지생산성은 10a당 1,068천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2,997원으로 전년 12,141원보다 7.1% 증가하고, 자본생산성은 0.48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성 지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2시간으로 전년 88시간에 비해 6.8% 감소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2,225천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하였다.

44<표 1-1>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0,780	9,897	11,263	11,778	12,141	12,997
토지생산성	천원/10a	954	970	880	1,027	1,051	1,074	1,068
자본생산성 ²⁾	원/원	0.61	0.51	0.42	0.47	0.47	0.47	0.48
노동집약도	시간/10a	102	90	89	91	89	88	82
자본집약도	천원/10a	1,575	1,903	2,106	2,194	2,237	2,294	2,225

주 :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황영현)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제 1 절 국내 주요농산물수급동향

1. 식량작물

2002년도의 식량작물재배면적은 2001년도의 1,334천ha보다 35천ha가 줄어든 1,299천ha 수준이었으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1,083천ha보다 30천ha가 줄어든 1,053천ha이었다. 이는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해 밭벼 수매중단에 의한 밭벼 재배 억제, 논에 타작물재배 유도 등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재배비율은 전년도 63.9%에서 64.3%로 조금 증가하였다.

또한 맥류의 경우에도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1천ha 감소하였다.

1<표 1-2->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럡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1	5.5	332	13.7
1995	2,197	1,347	61.3	1,056	90	201	403	18.4	174	7.9	273	12.4
1996	2,142	1,315	61.4	1,050	95	197	389	18.2	173	8.0	265	12.4
1997	2,097	1,315	62.7	1,052	70	193	364	17.4	176	8.4	242	11.5
1998	2,118	1,332	62.9	1,059	84	189	360	17.0	176	8.3	250	11.8
1999	2,116	1,327	62.7	1,066	77	184	376	17.8	174	8.2	239	11.3
2000	2,098	1,318	62.8	1,072	68	178	386	18.4	173	8.2	221	10.6
2001	2,089	1,334	63.9	1,083	92	159	366	17.5	167	8.0	222	10.6
2002	2,020	1,299	64.3	1,053	81	165	334	16.5	166	8.2	221	11.0

주 : 기타는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2 양곡년도에는 총 6,162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994천톤에 비해 168천톤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1년도 1,925만톤 보다 139만톤이 늘어난 2,064만톤으로 사료곡물 증가(98만톤)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쌀의 경우 식용소비는 다소 줄었지만 과잉재고를 처분하여 가격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등 재고특별처리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보다 4만여톤이 늘어난 556만톤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콩 등은 가공용 및 사료용 수요가 다소 늘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고처리 실적 : 대북지원(40만톤), 주정용 공급(14만톤) 등

전체 곡물자급도는 30.4%로 2001년보다 0.7% 감소되었고 사료를 제외하면 전년도 56.8%보다 1.5%가 증가하였다.

2<표 1-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994	6,162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709	14,576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9,248	20,641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9,606	9,755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694	9,670
연말재고	2,179	2,280	3,657	3,119	2,625	3,080	3,177
자급률(%)	56.0	48.4	43.1	29.1	29.7	31.1	30.4
(사료용 제외)	(69.6)	(71.6)	(70.3)	(55.7)	(55.6)	(56.8)	(58.3)
1인당 연간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45.5	144.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한편, 식생활변화에 따라 육류·과일·채소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곡물소비량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2002년도 국민 1인당 양곡 소비량은 2001년의 145.5kg에서 144.0kg으로 1.5kg이 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88.9kg에서 1.9kg가 줄어든 87.0kg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는 가공식품용 수요감소에 따라 0.6kg 감소한 반면, 감자, 고구마 등 서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표1-2>

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6	160.2	104.9	1.6	33.8	3.6	9.3	3.5	3.5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2. 원예·특용작물

가. 채소류

2002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8.9% 감소된 333.6천ha였다.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잦은 강우와 태풍영향 등으로 생산량은 2001년보다 13.4% 감소한 9,796천톤이었고 인구증가 및 수출입 감안시 1인당 소비량은 2001년에 비해 12% 감소한 연간 145kg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37.2천ha로 전년에 비해 19.4%나 감소되어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8.5% 감소한 1,573천톤이었으며, 평년생산량 1,697천톤에 비해 7.3%가 감소하였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0.8천ha로 전년대비 24.5% 감소하여 생산량이 391천톤으로 2001년보다 23.6%가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8.6% 감소되었고, 작황도 좋지 않아 생산량이 1,764천톤으로 2001년 대비 24.3%가 감소하였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72.1천ha로 전년보다 2% 감소하였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2001년 180천톤 보다 7%가 증가한 193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33.2천ha로 전년보다 10.7% 정도 감소되었지만 예년에 비해 양호한 작황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394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2001년 대비 재배면적이 19.4% 감소한 15.3천ha가 재배되어, 생산량이 13.1% 감소된 993천톤이 생산되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2%수준 늘어났다.

특히, 조생종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협약에 의해 35천톤(638ha분)을 산지폐기(3.6~3.20) 하는 등 과잉물량을 시장격리함으로써 4월 이후 양파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4<표 1-2->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요	계	8,697	10,670	10,337	9,957	10,114	10,413	11,502	11,548	10,054
	내수	8,677	10,611	10,302	9,932	10,059	10,350	11,461	11,478	10,004
	수출	20	59	35	25	55	38	41	70	50
공급	계	8,697	10,670	10,337	9,957	10,114	10,413	11,502	11,548	10,054
	생산	8,677	10,586	10,209	9,806	9,984	10,219	11,282	11,310	9,796
	수입	20	84	128	151	130	194	220	238	258
1인당 소비량(kg)	132.6	160.6	152.2	148.2	148.7	154.5	165.9	164.7	(144.8)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순식 기준), '02년 소비량은 추정치

(채소특작과 서기관 송영환)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나. 과실류

과수재배면적은 총 166.3천ha로 전년에 비해 0.6천ha가 감소하였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복숭아는 1.2천ha 증가하였으나, 그 외 과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실 생산량은 생육후기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낙과피해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과실이 양호한 작황과 성과수 면적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2천톤 증가한 2,500천톤이었다. 그러나 수확기 잦은 강우에 따른 품질저하로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과실가격은 예년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5<표 1-2->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수 요	내 수	1,790.4	2,472.7	2,746.7	2,802.4	2,805.6
	수 출	13.0	10.9	20.2	25.0	38.5
공 급	생 산	1,766.2	2,300.1	2,428.7	2,487.7	2,500.1
	수 입	37.2	183.5	338.2	339.7	344.0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59.2	58.8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다. 화훼류

화훼류의 2002년도 재배면적은 6,422ha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배 농가수도 13,575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생산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도에는 7,893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고 소비도 국민소득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1인당 16천원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훼류의 무역수지면에서도 지난 1999년 이후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2002년도의 수출액은 32,121천\$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입금액의 증가폭이 커 흑자규모는 9,259천\$로 2001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주 수출품목은 절화류인 장미, 국화, 백합과 난류이나, 장미와 국화는 다소 감소하였고 난류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6<표 1-2->

화훼산업 현황

구 분	'90	'95	'98	'99	'00	'01	'02
재배농가(호)	8,945	12,509	12,965	12,994	13,080	13,466	13,575
재배면적(ha)	3,503	5,156	5,486	5,824	5,891	6,305	6,321
생산액(억원)	2,393	5,090	5,850	5,965	6,649	6,966	7,893
수출액(천\$)	2,485	6,363	12,220	19,751	28,888	31,849	32,121
수입액(천\$)	10,286	26,728	13,204	17,255	19,472	20,689	22,862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재왕)

라. 특용작물

2002년산 참깨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4.2천ha이었다. 파종기에는 적정 토양수분으로 발아가 양호하였으나, 8월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23.3% 감소한 23.8천톤이 생산되었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6.6천톤이 증가하였고, 자급율은 28%이다.

땅콩 재배면적은 5.5천ha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16.7% 증가한 11.2천톤을 기록하였다. 연간 땅콩 소비량은 전년대비 1.0천톤 감소하였으며, 자급률은 26%이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7<표 1-2->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개								땅 콩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요	계	57.8	88.9	101.3	99.4	101.7	116.1	112.0	44.2	31.1	31.0	44.7	43.2	40.0	39.0
	당년소비	56.8	86.3	89.5	91.9	94.7	98.2	104.8	40.1	26.5	26.1	41.8	41.3	38.0	37.0
	수 출	0.4	-	1.1	-	-	-	-	-	2.3	0.2	0.2	0.4	-	-
	차년이월	0.6	2.6	10.7	7.5	7.0	17.9	7.2	4.1	2.3	4.7	2.7	1.5	2.0	2.0
공 급	계	57.8	88.9	101.3	99.4	101.7	116.1	112.0	44.2	31.1	31.0	44.7	43.2	40.0	39.0
	전년이월	4.7	19.0	13.3	10.7	7.5	7.0	17.9	8.1	3.3	3.7	4.7	2.7	1.5	2.0
	생 산	38.1	27.9	33.4	27.7	24.2	31.7	31.0	28.7	16.8	10.9	13.8	12.4	8.9	9.6
	수 입	15.0	42.0	54.6	61.0	70.0	77.4	63.1	7.4	11.0	16.4	26.2	28.1	29.6	27.4
자급율(%)		67	32	37	30	26	32	28	72	63	42	33	30	23	26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김상경)

마.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의 전통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및 인삼관리 업무의 농림부 이관을 계기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면적이 지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감소로 전환하여 2001년에 비해 1% 감소한 12,873ha가 재배되었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2년 23,430호로 전체농가의 1.8%에 불과하나, 2002년도 인삼수출액은 5,500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3.7%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8<표 1-2->

인삼 생산 동향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면 적	12,184ha	9,375	8,940	9,903	10,349	11,561	13,018	12,873
생 산 량	13,889톤	11,971	10,147	11,259	14,500	13,664	13,215	16,662
농 가 수	36,404호	23,172	23,304	20,399	24,702	23,011	19,310	23,43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강귀순)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산물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동향은 유럽 및 일본지역의 광우병 여파로 감소세를 보인 2001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소비량은 403천톤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여 2000년 수준의 소비량으로 회복하였다.

이중 수입산 소비량은 255천톤으로 16.2% 증가한 반면, 국내산 소비량은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147천톤으로 10.4% 감소하였다.

한편,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8.5kg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였다.

9<표 1-2->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소비량	346	393	402	384	403
- 국내산	260	240	212	164	147
- 수입산	85	153	190	220	255
○1인당소비량(kg)	7.4	8.4	8.5	8.1	8.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산지소값은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계절적인 소비증감의 영향으로 등락현상을 보였다.

2001년 12월 453만원 하던 산지소값은 계절적인 소비둔화로 2002년 4월 321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소비가 회복되면서 7월은 365만원, 추석직전인 9월은 403만원, 연말에는 430만원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산지 평균 큰수소값은 393만원으로 이는 2002년 생산비 287만원 보다 37% 높은 수준이며 산지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다.

또한, 2002년도 한우산업은 1998년 IMF, 2000년 구제역 발생,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로 인한 사육심리 위축으로 한육우 사육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3월 1,371천두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2년 12월에는 1,410천두로 2001년 12월 1,406천두 대비 2.8%가 증가하였다.

반면,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1년 12월 235천가구에서 2002년 12월에는 212천가구로 9.8% 감소하여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1년 12월 6.0두에서 2002년 12월 6.6두로 규모화가 진전되었다. 아울러 암소도축율 감소 등을 감안할 때 2004년부터 본격적인 사육두수 증가가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또한, 돼지고기의 2002년 총소비량은 2001년보다 0.4% 증가한 81만톤으로 늘어났고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16.9kg에서 2002년에는 17.0kg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돈육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8,720천두에서 2002년 12월에는 8,974천두로 2.9% 증가하였고, 2002년 12월 모돈수는 2001년 12월 955천두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사육가구수는 2001년 12월 19.5천가구에서 2001년 12월에는 17.4천가구로 10.8% 감소 현상을 보여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1년 12월 447두에서 2002년 12월 515두로 증가하여 점차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산지 돼지가격은 2001년에는 연간 평균가격이 174천원/100kg이었으나 2002년의 연간 평균가격은 사육두수 증가와 수출중단에도 불구하고 178천원/100kg으로 유지하였다.

(3) 닭고기

2002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38만톤으로 2001년보다 9.4%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9.6%가 증가한 8.0kg에 달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7.3% 감소하여 연평균 1,155원/kg이었으며, 연말기준 전체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0.7% 감소한 102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1년 말에 비하여 12.4% 감소한 18만호였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13.6%가 증가한 578수였으며,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1년보다 6.2% 증가한 1,233호에 달하고, 전체 사육두수 중 전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65.0%로 나타나는 등 점차 규모화, 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4) 계란

계란의 2002년 총 소비량은 537톤으로 2001년보다 9.4%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0.5% 증가한 11.2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12.9%가 감소한 75원(특란기준)이었다.

(5) 우유

2002년 원유 총 생산량은 2,537천톤으로 2001년 2,339천톤보다 8.5% 증가하였으나, 시유소비는 1,663천톤으로 2001년 1,729천톤보다 3.8%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산원유를 사용하는 백색시유의 소비는 1,361천톤으로 2001년 1,466천톤에 비해 7.2% 감소함에 따라 분유재고가 2002년 6월 19.7천톤에 이르는 등 우유수급이 불안정하였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2년말 544천두로서 2001년말 548천두보다 0.7%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농가수도 2001년말 12.8천호에서 2002년말 11.7천호로 8.6% 감소하였으나, 낙농업의 규모화·전업화로 가구당 젖소사육두수는 2002년말 46.4두로서 2001년말 42.7두 보다 8.7% 증가하였다.

(축산경영과 서기관 박병홍, 축산서기관 이상수,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조정래)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나. 사료작물

2002년에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0,290천톤으로 전년(19,529천톤)보다 3.9%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농후사료가 16,458천톤, 조사료가 3,832천톤으로 추정된다. 농후사료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5,795천톤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하였다.

10<표 1-2->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1985	1990	1995	1998	2000	2001 (A)	2002 (B)	증감율 (B/A)
합 계	13,250	17,154	23,302	18,680	19,489	19,529	20,290	3.9
농 후 사 료	7,322	11,211	15,700	15,039	16,097	15,648	16,458	5.2
-배합사료	6,467	10,567	14,856	14,259	15,105	14,974	15,795	5.5
-농가자급사료	855	644	844	780	992	674	663	△1.6
조 사 료	5,928	5,943	7,602	3,641	3,392	3,881	3,832	△1.3
-사료작물및목초류	1,974	2,832	2,498	1,266	992	1,735	1,832	5.6
-산야초, 볏짚등	3,954	3,111	5,104	2,375	2,400	2,146	2,000	△6.8

주 : 조사료는 말린무게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는 비육우용 및 낙농용이 각각 0.3%, 0.4%씩 감소하였으나, 양돈용과 양계용은 각각 7.2%, 4.6%씩 증가하였다. 지난 연도에 비하여 비육우용은 중송아지 및 큰소용은 89천톤이 감소한 반면, 번식용 송아지 및 임신우용이 67천톤 증가를 보여 2003년에 사육두수 증가가 전망된다. 한편, 양돈용은 사육두수 확대로 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400천톤의 생산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2년도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원료 가격안정과 환율하락으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5~6%의 배합사료 가격인하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배합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11<표 1-2->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1985	1990	1995	1998	2000	2001 (A)	2002 (B)	증감율 (B/A)
합 계	6,467	10,529	14,856	14,259	15,106	14,974	15,794	5.5
양 계 용	2,310	3,274	3,766	3,423	3,867	3,874	4,053	4.6
양 돈 용	1,924	3,551	4,725	4,918	5,215	5,549	5,950	7.2
낙 농 용	994	1,790	2,905	1,833	1,892	1,771	1,764	△0.4
비 육 우 용	1,209	1,667	3,681	3,605	3,340	2,760	2,753	△0.3
기 타	30	247	589	480	792	1,021	1,274	24.8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해외곡물가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해외 가격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9월이후 국제곡물가격 인상과 환율상승이 계속됨으로써 안정적인 사료가격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2년에 신규로 127만㎡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12<표 1-2->

초지조성 실적

(단위 : 만㎡,천톤, %)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A)	2002 (B)	증감율 (B/A)
신규조성면적	616	413	882	430	253	228	127	△44.3
관 리 면 적	89,903	66,301	56,715	53,783	51,870	50,367	48,134	△4.4
목 초 생 산 량	742	462	392	371	364	352	358	△1.7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2002년말 현재 초지 총관리면적은 48천만㎡로서 358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전용 등에 따라 관리 제외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서기관 이상수,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이흥철)

제 2 절 식품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2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8.1%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1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3>.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9.1%), 빵 및 과자류(7.7%), 어패류(7.6%), 과일류(7.6%), 낙농품(7.4%), 육류(7.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2.1%), 조미식품(2.6%)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의 경우 1982년 5.9%에서 2002년 41.9%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11.1%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2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9.7%, 어패류 7.2%, 채소·해조류 7.6%, 과일류 5.9%이다.

13<표 1-2->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일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7	1489.5	427.4 (100)	53.5 (12.5)	43.7 (10.2)	17.9 (4.2)	35.0 (8.2)	38.8 (9.1)	30.8 (7.2)	15.8 (3.7)	15.5 (3.6)	15.5 (3.6)	5.1 (1.2)	155.0 (36.3)
1998	1316.2	365.9 (100)	48.4 (13.2)	38.6 (10.5)	19.2 (5.2)	29.1 (8.0)	35.0 (9.6)	22.3 (6.1)	16.2 (4.4)	15.8 (4.3)	14.1 (3.9)	4.5 (1.2)	122.8 (33.6)
1999	1478.9	412.1 (100)	56.6 (13.7)	42.6 (10.3)	19.2 (4.7)	31.3 (7.6)	37.0 (9.0)	25.6 (6.2)	15.8 (3.8)	17.4 (4.2)	15.6 (3.8)	4.6 (1.1)	146.4 (35.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1	1762.1	463.6 (100)	56.6 (12.2)	43.0 (9.3)	20.1 (4.3)	32.9 (7.1)	34.7 (7.5)	28.2 (6.1)	15.1 (3.3)	18.0 (3.9)	17.5 (3.8)	7.2 (1.5)	190.5 (41.1)
2002	1834.8	481.0 (100)	53.3 (11.1)	46.8 (9.7)	18.9 (3.9)	34.8 (7.2)	36.7 (7.6)	28.5 (5.9)	13.9 (2.9)	18.6 (3.9)	18.5 (3.9)	9.5 (2.0)	201.5 (41.9)
'82-'02 증감율	10.5	8.1	2.1	7.2	7.4	7.6	5.6	7.6	2.6	7.7	7.3	18.7	19.1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나. 소득계층별 식품소비 행태

2002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4>.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육류, 과실류, 어패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곡물, 낙농품, 채소·해조류, 조미식품 등이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14<표 1-2->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2년도 평균)

(단위 : 천원, %)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 비 지 출	1147(66.7)	1718(100)	2651(154.3)	1845(107.3)
식 료 품	347(72.5)	478(100)	619(129.5)	481(100.5)
곡류및식빵	45(86.2)	52(100)	58(111.1)	55(106.0)
육 류	33(75.7)	43(100)	56(128.4)	50(116.2)
낙 농 품	16(75.8)	21(100)	23(107.5)	17(81.9)
어 패 류	24(77.3)	31(100)	40(129.2)	39(126.7)
채소·해조류	30(88.3)	34(100)	39(114.3)	40(115.9)
과 실 류	19(69.9)	27(100)	37(139.0)	30(112.1)
조 미 식 품	11(85.6)	13(100)	14(110.6)	15(119.9)
빵 및 과 자 류	14(71.5)	20(100)	24(123.5)	18(89.9)
차·음료,주류	14(75.0)	19(100)	23(119.5)	18(95.8)
외 식	135(64.4)	210(100)	294(140.2)	188(89.5)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비근로자가구는 평균소득 근로자가구에 비해 어패류, 조미식품, 육류, 과실류, 채소·해조류의 지출액은 많은 반면, 빵·과자류, 낙농품, 차·음료와 주류, 외식 등의 지출액은 적은 수준이었다.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 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1,976kcal, 당질 315g, 단백질 71.6g, 지방 41.6g, 철분 12.2mg, 비타민C 132.6mg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15<표 1-2->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당질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 A(I.U/ R.E)	티아민 mg	리보플 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 C mg
1980	2,052	67.2	21.8	396	598	13.5	1,688	1.13	1.08	19.1	87.9
1985	1,936	74.5	29.5	342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316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325	518	23.0	550 ¹⁾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313	538	22.9	535 ¹⁾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301	523	22.4	440 ¹⁾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286	556	22.0	411 ¹⁾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295	531	21.9	443 ¹⁾	1.16	1.20	16.7	98.3
1998 ³⁾	1,985	74.2	41.5	325	511	12.5 ²⁾	625 ¹⁾	1.35	1.09	15.7	123.1
2001 ⁴⁾	1,976	71.6	41.6	315	497	12.2 ²⁾	624 ¹⁾	1.27	1.13	16.9	132.6

-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영양소별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대비 섭취비율을 보면 칼슘은 권장량의 71.0% 수준으로 크게 미달되고 있고, 리보플라빈(91.0%), 비타민A(95.4%)도 과소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조정된 데 기인한다. 반면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단백질(127.0%), 티아민(119.8%), 나이아신(119.4%), 비타민C(197.1%)는 과다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는 최근들어 권장량대비 9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2-16>.

16<표 1-2->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1980	93.5	94.6	81.9	96.4	90.2	128.4	89.3	131.7	176.9
1985	91.1	110.4	93.0	112.0	81.2	122.9	93.8	182.1	125.0
1990	90.0	127.8	82.0	173.3	76.5	109.9	101.4	156.2	154.9
1991	93.1	118.1	82.3	177.3	84.3	120.7	98.9	126.7	175.8
1992	90.0	118.8	85.1	175.1	81.5	114.9	96.0	124.5	194.2
1993	90.0	117.9	84.0	176.0	67.7	140.1	97.3	120.6	175.6
1994	85.0	121.8	91.8	192.0	62.0	109.0	100.2	122.8	176.9
1995	88.6	116.7	75.4	159.5	67.2	108.8	96.0	119.8	185.4
1998	94.5	117.8	72.8	91.91	95.6	126.3	86.2	110.8	234.0
2001	94.8	127.0	71.0	95.2	95.4	119.8	91.0	119.4	197.1

주 : 1)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을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당질 65.6%, 단백질 14.9%, 지방 19.5%이다. 단백질의 경우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으나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2. 식품수요와 공급 현황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1년 민간소비가 연평균 2.8%의 실질 성장을 나타냄에 따라 식품공급 측면에서도 식용곡물 공급은 감소하고 축산물, 수산물, 과실류 등 고단백, 신선식품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2000년 대비 2001년 품목별 공급량 변화는 <표 1-2-17>과 같다.

쌀은 MMA(최소시장접근물량)가 110천톤, 생산량이 28천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2001년 1인당 식용공급량은 전년대비 5.2% 감소하였다.

밀 생산량은 3천톤 수준으로 2000년 대비 1천톤 늘었으나 식용 밀 수입량이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전년대비 4.7% 감소하였다. 밀의 식용공급량은 국제수급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동하며 1995년 이후에는 34~36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감자와 고구마는 1인당 식용공급량이 전년대비 각각 26.6%, 24.6% 감소하였다. 설탕류는 생산 증가로 1인당 공급량이 17.86kg에서 19.95kg으로 11.7% 증가하였다.

2001년 채소류 생산은 전체적으로 4만톤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고추생산 감소와 양파의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고추와 양파의 수입 감소 등으로 1인당 식용공급량은 165.9kg에서 164.8kg으로 0.7% 감소하였다. 과실은 식부면적이 약간 감소했으나 기상 호조로 평년수준 이상을 유지하여 전년보다 생산이 41천톤 증가하였으며, 수입량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은 40.7kg에서 41.9kg으로 3.0% 증가하였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17<표 1-2->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kg, %)

품 목	2000	2001	증가율
곡 류	166.83	158.05	-5.26
쌀	97.86	92.77	-5.20
보리	1.81	1.99	9.94
밀	36.13	34.43	-4.71
옥수수	28.82	26.60	-7.70
기타	2.21	2.26	2.26
서 류	11.76	8.72	-25.85
감자	7.17	5.26	-26.64
고구마	4.59	3.46	-24.62
설탕류	17.86	19.95	11.70
두 류	10.74	10.25	-4.56
콩	8.49	8.24	-2.94
팥	0.74	0.68	-8.11
기타	1.51	1.33	-11.92
견과류	1.49	1.57	5.37
종실류	0.71	0.62	-12.68
참깨	0.55	0.52	-5.45
기타	0.16	0.10	-37.50
채소류	165.94	164.75	-0.72
과실류	40.66	41.89	3.03
육 류	37.51	38.16	1.73
쇠고기	8.31	7.86	-5.42
돼지고기	15.90	16.54	4.03
닭고기	4.91	5.78	17.72
부산물	8.39	7.98	-4.89
계란류	8.58	9.42	9.79
우유류	49.27	54.08	9.76
우유	48.16	52.69	9.41
어패류	30.68	36.18	17.93
어류	20.23	25.61	26.59
패류	10.46	10.57	1.05
해조류	6.05	6.66	10.08
유지류	15.92	16.99	6.72
식물성	15.42	16.48	6.87
동물성	0.51	0.51	0.00
주 류	63.99	65.73	2.7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2.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육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이 37.5kg에서 38.2kg으로 1.7%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생산 감소와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8.3kg에서 7.9kg으로 5.4% 감소하였다. 돼지고기는 쇠고기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생산이 19천톤, 수입이 6천톤 증가하여 1인당 공급량은 2000년 15.9kg에서 2001년 16.5kg으로 4.0% 증가하였다. 닭고기도 광우병에 의한 쇠고기 소비 위축의 반작용과 외식 소비 증가에 힘입어 1인당 식용공급량이 17.7%로 크게 증가하였다.

어류는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수역 확대와 자원조성사업 등으로 해면어업 생산량이 2000년에 비해 180천톤 증가하고 수입량도 434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26.6% 증가하였다. 패류는 생산이 58천톤 감소하였으나 수입이 87천톤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1%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수입 증가로 15.4kg에서 16.5kg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반면, 동물성 유지는 0.5kg으로 2000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나. 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두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2-18>. 곡류자급률은 1980~2001년간 53.3%에서 32.2%로, 두류는 40.1%에서 9.0%로, 유지류는 19.0%에서 2.1%로 크게 하락하였다. 우유류도 같은 기간 109.7%에서 77.4%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다. 어패류는 1999년까지 대체로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여 2001년에는 76.1% 수준을 나타내었다. 쌀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로 자급률이 102.7%로 100%를 넘고 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소비량 및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2001년도 자급률이 각각 90.8%, 76.1%로 하락하였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새로운 칼로리 산정방식¹⁾에 근거할 경우 1970년 79.5%, 1990년 62.6%, 2001년 49.0% 수준으로 1970년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1년 51.7%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18<표 1-2> 연도별 자급률 추이

		1980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p)
공급영양 자급률	칼 로 리	70.0	62.6	50.6	53.6	54.2	49.0	50.6	49.0
	단 백 질	75.2	67.8	57.2	58.1	57.1	54.7	52.8	51.7
	지 방	64.2	30.3	26.8	25.2	27.1	23.6	21.4	20.2
물량기준 자급률	곡 류	53.3	43.8	30.0	31.7	32.7	30.1	30.8	32.2
	쌀	95.1	108.3	91.1	105.0	104.5	96.6	102.9	102.7
	두 류	40.1	24.5	11.7	10.3	11.1	10.7	8.2	9.0
	채 소 류	100.2	98.9	99.2	97.0	97.8	97.4	97.7	98.3
	과 실 류	98.6	102.5	93.2	92.0	94.3	91.1	88.7	88.9
	육 류	97.4	92.9	89.2	92.1	96.4	86.1	83.9	81.0
	쇠 고 기	93.0	53.6	50.8	65.3	76.4	57.8	53.2	42.3
	돼지고기	97.5	100.3	96.6	100.1	104.6	92.9	91.6	90.8
	닭 고 기	100.0	100.0	98.1	93.1	94.0	84.1	79.9	76.1
	계 란 류	100.0	100.0	99.9	100.2	99.8	100.0	100.0	100.0
	우 유 류	109.7	92.8	93.3	81.8	89.0	81.6	81.2	77.4
	어 패 류	132.7	121.7	100.4	98.3	112.5	102.2	87.7	76.1
유 지 류	19.0	8.0	4.8	4.1	4.5	3.3	3.2	2.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2.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2001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조식품기준)은 곡류(168.3kg), 두류(13.2kg), 채소류(187.8kg), 어패류(66.9kg)의 경우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곡류 공급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16.7kg)과 대만(95.6kg) 그리고 파키스탄(155.4kg)에 비교하여도 많은 편이며, 미국과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 과일류(53.1kg), 육류(40.6kg), 계란류(11.0kg), 우유류(54.1kg) 및 유지류(17.0kg) 등은 적은 편이다<표 1-2-19>. 특히, 육류와 과일류의 공급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1/3~1/4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5에 불과하다. 유지류의 공급량은 파키스탄, 일본보다는 많지만 대만, 미국, 독일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19<표 1-2->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kg)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연 도	2001	2000	2000	2000	2000	2000
곡 류	168.3	116.7	95.6	113.6	97.2	155.4
서 류	9.3	35.0	23.6	67.5	79.8	13.8
설탕류	20.0	27.5	28.7	73.2	42.1	29.1
두 류	13.2	13.1	26.4	11.3	9.1	7.9
채소류	187.8	116.6	115.5	125.8	73.9	34.3
과실류	53.1	51.0	136.3	124.8	131.7	32.0
육 류	40.6	43.8	77.8	122.4	84.5	12.4
계란류	11.0	19.3	19.2	14.6	12.2	2.0
우유류	54.1	67.8	56.1	259.5	231.6	149.8
어패류	66.9	66.8	40.3	21.4	14.5	2.5
유지류	17.0	15.3	25.1	32.8	42.3	14.2

주 : 1) 조식품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2.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1년도에는 2,994kcal로서 1980~2001년간 연평균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0.9%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는데,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표 1-2-20>.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98.5g으로 일본의 91.8g, 대만의 97.1g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영양 3요소 중 가장 차가 적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는 적지만 간장, 된장 및 두부 등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많은데 기인된다.

1인 1일당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84.0g으로 1985년의 51.8g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질 공급량은 유럽 국가의 50~60%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에 큰 차가 있기 때문이다.

20<표 1-2->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한 국 ¹	일 본 ¹	대 만 ¹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연 도	2001	2000	2000	2000	2000	2000
에너지(kcal)	2,994	2,762	3,047	3,772	3,451	2,462
전분질(%)	57.1	47.1	-	28.3	28.6	56.0
설탕(%)	7.0	9.4	-	17.9	11.9	11.5
동물성(%)	15.2	18.8	-	24.4	20.3	13.4
유지류(%)	13.9	12.9	-	19.1	23.8	13.3
기타(%)	6.7	11.7	-	10.4	15.4	5.7
단백질(g)	98.5	91.8	97.1	114.0	94.7	62.5
동물성(g)	45.2	51.3	50.2	73.0	57.0	22.2
지방질(g)	84.0	83.1	123.3	151.3	152.3	64.2
유지류(g)	46.5	40.1	-	81.1	92.1	36.8
1인당GNP(\$)	8,900	38,027	14,188	36,222	22,708	378

주 : 1) 한국, 일본, 대만은 순식품공급량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2.

그러나 지방질 공급량은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83.1g)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의 44~66g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계임)

3. 식품가공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식품가공산업은 2001년 생산액이 35조 7,490억원, 부가가치는 14조 4,34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생산액은 6.1%, 부가가치는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음료품의 구성비는 각각 83%, 17%로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중 곡물가공(14.4%), 빵·과자·국수(13.4%), 육가공(11.7%), 기타식품류(11.6%), 유가공(11.4%) 순으로 규모가 크다.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583조 7,92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소폭 증가하였으나, 식품가공산업의 총생산액은 2000년 33조 6,780억원에서 2001년 35조 7,490억원으로 6.1%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에 비해 2.7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8.8% 성장하여 제조업 평균 성장 11.6%보다는 낮지만 농업성장률 2.9%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체당 생산액이 1990년 21억 6천만원에서 5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5배나 성장하였다. 특히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육가공, 유가공, 곡물가공, 식용유지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21<표 1-2>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분류별	연도별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사업체수(개)	
	1990	2001	1990	2001	1990	2001	1990	2001
제조업(전체)	177,309	583,792	70,925	221,860	97,144	105,873		
음식료업	13,104	35,749	5,194	14,434	6,055	6,738		
○ 식료품	10,352	29,814	3,857	11,000	5,557	6,300		
- 육가공	872	4,187	255	1,272	407	608		
- 유가공	1,519	4,078	447	1,483	113	103		
- 수산가공	1,420	2,924	567	1,071	1,804	1,925		
- 과채가공	342	975	134	399	487	590		
- 곡물가공	810	5,136	242	1,025	824	735		
- 식용유지	646	1,212	275	336	76	89		
- 빵·과자·국수	2,411	4,795	1,074	2,343	760	803		
- 식품첨가물	687	2,360	297	1,010	317	356		
- 기타식료품	1,645	4,147	566	2,061	769	1,091		
○ 음료품	2,752	5,935	1,337	3,434	498	438		
- 알콜성음료	1,450	3,095	714	1,939	244	198		
- 비알콜성음료	1,302	2,840	623	1,495	254	240		

주 : 사료가공분야 및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제외
 자료 : 통계청, 「199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2

생산액당 부가가치로 나타낸 부가가치율은 식품가공산업 평균으로 볼 때 1990년 39.6%에서 2001년 40.3%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육가공, 유가공, 식품첨가물, 기타식료품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이들 부문에서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생산동향

2001년도 음식료품 생산은 6.5% 증가하여 2000년도의 3.5%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부분별 동향을 보면 육가공품은 2000년 13.6%, 2001년에도 9.9%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의 활발한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 노력으로 보여진다.

2001년도 유가공업계는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3%이상 증가되었고, 우유총소비는 8%이상 증가하여 국민일인당 우유소비량이 64.1kg로 꾸준한 성장에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유과잉생산과 소비부진에 따른 심각한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인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우유생산조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과채가공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치가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일본의 김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 및 서구화의 진행에 따른 수요감소의 원인을 상품김치나 단체급식 공급 등으로 충당한데 기인하고 있다.

2001년도 김치시장은 업소용 김치가 218천톤, 가정용이 73천톤, 수출용이 20천톤, 포장김치가 25천톤, 상품김치가 350천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치가 2001년 7월 5일 제24차 Codex 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전통김치에 근거한 국제식품규격을 최종 확정됨으로써 자연적인 젓산발효 식품으로서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김치의 국제적인 상품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류시장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며, 시장규모가 1999년을 기점으로 5천억원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간장의 시장규모는 1,400억원, 된장 1,500억원, 고추장 2,400억원으로 보고있다. 간장이나 된장을 직접 담가 먹지 않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소비증가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간장이 국제공인 식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Codex에 간장·된장·고추장 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과채가공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품질 고급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높은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들어서 음료시장은 소비자의 세분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음료의 등장과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음료시장은 비알콜성 음료의 경우 2.5%, 알콜성음료는 1.7%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알콜성 음료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맥주는 2.5%증가, 위스키는 0.5% 증가, 소주는 5.1% 증가했다. 비알콜성음료의 경우 탄산음료는 1.7% 증가, 과즙음료는 2.29% 증가했다.

두유와 스포츠음료, 미과즙음료, 전통음료, 먹는샘물, 차류, 기능성음료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알콜성 음료도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함에 따라 음료시장은 계속 그 규모를 회복·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입동향

2002년도 가공식품 수입은 육가공품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2% 증가한 52억불이었고 수출액은 과자·국수류의 수출증가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20억 2천만불이었다. 무역역조 현상은 2001년도 25억 6천 4백만불에서 2002년도에는 31억 7천 3백만불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하였다.

22<표 1-2->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수 입	2,266	4,021	4,006	2,560	3,603	4,342	4,546	5,193	14.2%
수 출	1,813	2,538	2,548	2,226	2,307	2,099	1,982	2,020	1.9%
무역수지	-453	-1,483	-1,458	-334	-1,296	-2,243	-2,564	3,173	23.8%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2002년도 품목군별 수입구조를 보면 수산가공품(26.5%), 육가공(25.1%), 기타식료품(15.5%), 과채가공(7.8%) 순으로 수산가공품과 육가공품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수산가공품이 47.2%로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빵·과자·국수(17.1%), 기타식료품(14.3%) 및 알콜성음료(7.5%) 등의 순이고 가공식품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품목은 빵·과자·국수류로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천 4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적자 품목군은 육가공(40.3%), 기타식료품(16.3%), 수산가공(13.4%), 과채가공(9.2%) 순이며 유가공, 주류, 식품첨가물 등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23<표 1-2->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유가공	208	193	15	17	△193	△176
육가공	875	1,307	51	29	△ 824	△1,278
수산가공	1,327	1,378	986	954	△ 341	△424
과채가공	373	407	105	114	△ 268	△293
식용유지	243	306	9	23	△ 234	△283
곡물가공	10	7	8	6	△ 2	△1
빵·과자·국수	238	272	322	346	84	74
식품첨가물	76	81	43	51	△33	△ 30
기타식료품	832	806	270	289	△ 562	△517
알콜성음료	326	392	139	151	△187	△241
비알콜성음료	38	44	34	40	△ 4	△ 4
계	4,546	5,193	1,982	2,020	△2,564	△3,173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박준국)

제 3 절 농산물 교역동향

1. 농산물 수출입동향

가. 수출 동향

2002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40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출액 162,471백만 달러의 1.0%를 차지하였다. 2002년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WTO에 가입한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심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년 대비 수출이 3.8% 증가하였다. 수출의 구조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375백만달러(84%), 축산물이 98백만달러(6%), 임산물이 167백만달러(10%)을 기록하였다.

24<표 1-2->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증 감 륜
총 수출	129,715	136,164	132,313	143,685	172,268	150,439	162,471	8.0
농림축산물	1,707	1,759	1,635	1,680	1,532	1,580	1,640	3.8
농축산물	1,424	1,508	1,391	1,412	1,277	1,370	1,473	7.5
임 산 물	283	251	244	268	255	210	167	△20.5

※ 석재류 제외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동시에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459백만 달러로 11.8% 감소하였고, 가공농림축산물 수출은 1,181백만 달러로 11.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김치, 과실류, 화훼류 등의 품목이 호조를 보인 반면, 채소, 인삼, 산림부산물은 수출이 저조하였고 가공식품은 주 수출국인 러시아, 중국 지역의 경기회복 등의 영향에 따라 증가하였다.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590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36.0%를 차지하였으나, 채소, 산림 부산물 수출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7.6%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액은 237백만달러로 1.3% 감소하여 전체수출액 대비 14.5%를 차지하였으며, 대미국 수출액은 214백만달러로 23.9%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수출액의 13.0%를 차지하였고,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13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나. 수입 동향

2002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9,584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입액 152,126백만달러의 6.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8,463백만달러 대비 13.2%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폭이 큰 것은 월드컵 특수 영향으로 원목, 합판을 비롯한 임산물의 수입과 수입 개방의 영향에 따른 쇠고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외에도 곡류, 식물성 유지, 과일 등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농축산물이 총 수입액의 80%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년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사과 14백만달러, 오렌지 148백만달러, 식물성유지 247백만달러, 섬유유관 154백만달러, 쇠고기 947백만달러 등이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된 품목은 채소류 196백만달러, 커피류 84백만달러, 닭고기 102백만달러 등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인 곡물류는 전년과 대비하여 6.5%의 증가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2,471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의 25.8%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1,601.4백만달러로 16.7%, 호주가 802백만달러로 8%를 차지하였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25<표 1-2->

농림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년대비 증 감 륜
총 수 입	135,119	144,616	93,282	119,752	160,481	141,098	152,126	7.8
농림축산물	9,587	10,105	6,403	7,388	8,450	8,463	9,584	13.2
농축산물	6,899	7,619	5,420	5,928	6,783	6,792	7,650	12.6
임 산 물	2,688	2,486	983	1,460	1,667	1,671	1,934	15.7

* 석재류 제외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가. 농산물 교역규모

2002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641.7백만달러로 전년도 402.9백만달러에 비해 59.3% 증가하였다. 이중 농림축산물 교역실적은 207.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71.5%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641.7백만달러의 32.4%를 차지하였다.

26<표 1-2->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 도 별 교 역 실 적		
	2001	2002	증감률(%)
전 체	402.9	641.7	59.3
농림축산물	121.2	207.8	71.5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나. 농산물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2년도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178.4백만

제2장 국내 농산물수급동향

달러로서 전년도 76.7백만달러보다 132.6% 증가하였고, 반입은 29.4백만달러로서 전년도 44.5백만달러 보다 34.0% 감소하였다.

27<표 1-2-> 반출입 통관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1	2002	증감률(%)
반 출	계	76,698	178,386	132.6
	농축산물	76,274	177,283	132.4
	임 산 물	424	1,103	160.1
반 입	계	44,495	29,372	△34.0
	농축산물	38,780	18,840	△51.4
	임 산 물	5,715	10,532	84.3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가) 반출실적

28<표 1-2->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연도별 반출실적		
		2001	2002	증감률(%)
	계	76,698	178,386	132.6
농축산물	비료	47,181	69,125	46.5
	제조담배	5,450	3,382	△37.9
	쇠고기	754	2,394	217.5
	채소류	2,979	353	△88.2
	과실류	12,580	1,684	△86.6
	밀가루	756	670	△11.4
	기타	6,574	99,675	1,416.2
	소계	76,274	177,283	132.4
임 산 물	합판	231	177	△23.4
	재목	120	500	316.7
	기타목재	17	204	1,100.0
	기타	56	222	296.4
	소계	424	1,103	160.1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농림축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62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비료, 제조담배, 쇠고기 등 53개 품목이고 임산물은 합판, 제재목, 밤, 버섯류 등을 포함한다. 농축산물 반출실적은 177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32.4%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1.1백만달러로서 160.1% 증가하였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비료 지원은 69백만달러로서 농림축산물 전체 반출금액의 38.8%를 차지하였다.

(나) 반입실적

농림축산물 반입 총품목수는 42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채유용농산물, 제조담배, 한약재 등 31개 품목이고,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기타 견과류 등 11개 품목이다. 반입실적은 농축산물이 18.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51.4% 감소하였고, 임산물은 10.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84.3% 증가하였다.

29<표 1-2>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연도별 반입실적		
		2001	2002	증감률(%)
계		44,495	29,372	△34.0
농축산물	채유용농산물	12,846	851	△93.4
	한 약 재	4,355	5,142	18.1
	채 소 류	5,153	2,400	△53.4
	잎 담 배	3,589	4,538	26.4
	과 실 류	9,496	2,400	△74.7
	기 타	3,341	3,509	5.0
	소 계	38,780	18,840	△51.4
임 산 물	버 섯 류	3,377	3,532	4.6
	기 타 견 과 류	2,068	3,231	56.2
	기 타	270	3,769	1,295.9
		5,715	10,532	84.3

자료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통일부)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제3장 국제 농업동향

제 1 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가. 개요

2003/2004년도 세계 전체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2.8%(51백만톤)증가한 18억62백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0.7%증가한 19억21만톤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18.4%로 FAO 권장 재고율(17~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쌀

2003/2004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3.4% 증가한 394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보다 0.2%증가한 412백만톤으로 전망된다. 쌀의 기말재고율은 22.0%에 이르고 있다.

다. 밀

2003/2004년 세계 밀 생산량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의 생산감소 예상으로 전년대비 1.8%(10백만톤)감소한 560백만톤(1995/1996년이래 최저)으로 전망되고 소비량은 전년보다 2.2%감소한 584백만톤으로 생산량보다 24백만톤이 많으며, 기말재고율은 24.0%(FAO 권장재고율인 23~26%)로 전망된다.

라. 옥수수

2003/2004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4.5%증가한 626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소비량은 전년대비 1.0%증가한 637백만톤으로 생산량을 11백만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말재고율은 13.5%로 전망된다.

마. 대두

2003/2004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6.1%(12백만톤) 증가한 208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5.7%증가한 203백만톤으로 예상되어 기말재고율은 19.7%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5.7% 증가한 79백만톤으로 예상된다.

1<표 1-3->

세계 곡물수급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01/'02(A)	'02/'03(A)	'03/'04(B) (7월전망)	증△감(%) (B-A)/A
전체곡물	생 산	1,872	1,811	1,862	2.8
	소 비	1,900	1,908	1,921	0.7
	교 역	239	231	226	▲2.2
	재 고	509	412	353	▲14.3
	(재고율,%)	(26.8)	(21.6)	(18.4)	
쌀	생 산	399	381	394(41)	3.4
	소 비	410	411	412	0.2
	교 역	27	27	26(2)	▲3.7
	재 고	136	107	89	▲16.8
	(재고율,%)	(33.2)	(26.0)	(21.6)	
밀	생 산	581	570	560	▲1.8
	소 비	585	597	584	▲2.2
	교 역	108	102	99	▲2.9
	재 고	197	164	140	▲14.6
	(재고율,%)	(33.7)	(27.5)	(24.0)	
옥수수	생 산	599	599	626	4.5
	소 비	622	631	637	1.0
	교 역	76	76	76	0.0
	재 고	128	97	86	▲11.3
	(재고율,%)	(20.6)	(15.4)	(13.5)	

구 분		'01/'02(A)	'02/'03(A)	'03/'04(B) (7월전망)	증△감(%) (B-A)/A
대 두	생 산	184	196	208	6.1
	소 비	184	192	203	5.7
	교 역	53	63	64	1.6
	재 고	32	35	40	14.3
	(재고율,%)	(17.4)	(18.2)	(19.7)	
잡 곡	생 산	892	865	903	4.4
	소 비	905	900	925	2.8
	교 역	104	101	101	0.0
	재 고	175	141	124	▲12.1
	(재고율,%)	(19.3)	(15.7)	(13.4)	

주 : 전체곡물 = 쌀+밀+잡곡(옥수수,대두,수수,보리,귀리,호밀,기장,혼합곡)

자료 : USDA, ERS,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2003.7.11일자료)

USDA, FAS,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2003.7.1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1995/1996년도 밀, 잡곡류의 생산 감소로 기말 재고율이 14%대로 떨어졌고, 이는 1970년대 상반기의 가장 낮은 재고율(15%)보다도 낮은 재고율 수준이었다. 이로 인하여 1996년도 봄부터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국제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그후 1996/1997~1998/1999년도까지 연속 풍작으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제가격이 1996년 이전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1998/1999년도 쌀, 옥수수, 대두생산이 증가한 반면 밀 생산은 줄어들었으나 미국의 곡물생산이 양호하였고, 러시아 및 아시아국가, 브라질 등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주요곡물가격은 1998년도 가을 이후 낮은 추이를 보여왔다

1999/2000년도에는 쌀은 미국 쌀의 대폭적 생산량 증가와 1998년 홍수 피해가 컸던 중국의 생산회복, 그리고 주요수출국의 생산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쌀 생산이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으나, 2000/2001년도는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미국, 중국, 파키스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밀과 옥수수 및 기타잡곡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두는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2001~2001/20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으나 재고율이 FAO 권장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곡물 수입 수요부재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3/2004년도에는 쌀, 밀,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고, 대두 및 기타잡곡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율은 18.4%로 전망되며, 국제곡물 가격은 쌀, 밀, 옥수수는 약상승할 것으로, 대두 및 기타잡곡은 현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표 1-3->

국제곡물가격추이

(단위:달러/톤, FOB)

구 분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7	전년동기 대비(%)
						평균	7월		
밀	131	174	122	110	127	144	132	136	3.0
옥 수 수	109	120	92	92	91	99	101	92	▲8.9
대 두	228	235	186	194	180	200	220	226	2.7
미 국 산 중립종쌀	335	397	501	432	294	289	281	397	41.2
태 국 산 장립종쌀	326	373	256	212	178	179	182	204	12.0

주 : (밀) US Portland 백밀1등급, (옥수수, 콩)US Gulf2등급
(미국 중립종쌀) US California

자료 : USDA, 2003년 7월 발표자료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배상두)

제 2 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가. 미 국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3억 86백만헥타로 2001년 곡물생산은 3억 25백만톤에 이르고, 농산물수출도 528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농업국가이다. 반면 농업인구는 629만명(2000)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9만호로 총가구중 점유비중은 2%로 매우 낮다.

2001년 농산물수출은 527억달러로 2000년 507억달러에 비해 3.9%나 늘었다. 한편 농산물수입은 390억달러로 지난해 389억달러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1년의 미국의 무역적자는 4,266억달러에 달하나, 농산물에서는 유일하게 138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주요 곡물생산은 2000년에 비해 쌀은 11.6%, 옥수수는 0.2% 증가한 반면, 밀은 12.3% 감소하였다.

3<표 1-3->

미국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1	구 분	단 위	2001
○농업인구 -총인구대비	천명 %	6,290(2000) 2.3(2000)	○밀생산량 ○쌀생산량	백만톤 "	53.3 9.7
○농가호수 -총가구대비	천호 %	2,190(2000) 2.0(2000)	○과일류생산량	"	32.6(2000)
○GDP	억달러	98,729	○농산물수출 -총 수출대비	억달러 %	527 7.6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천ha ha	385,983(2000) 176.2(2000)	○농산물 수입 -총 수입대비	억달러 %	390 3.3

자료 : USDA, FAOSTAT, 농림수산 통계(일본농림수산성, 2002년)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2) 농업정책동향

최근 미국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농업이 세계 곡물가격 하락, 아시아지역 등으로의 수출감소 및 가뭄 등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2002년 농업법(Farm Bill)의 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안전망과 관련된 각종 소득안정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1933년 이후 계속 실시해오던 생산조정제도와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율직불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동시에 가격변동이나 수량변동에 대응한 수입보험제도를 확충하여 소득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특히 1998년 이후부터는 생산자율직접지불을 추가하는 형태로 긴급대책을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1996년 농업법의 내용과 긴급지원 형태의 농가지원을 2002년 농업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체하고, 아울러 종전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경기조절지불제(또는 목표가격제) 등 새로운 소득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법안은 2002년 5월 2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작물년도)의 6년간 실시되고 예산 배분은 10년간(2002-11)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농업법에서는 향후 10년간 약 828억불(추정)이 증액되어 총 1,900억 불(추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용자단가”의 인상 및 “고정 중립 직접지불(또는 생산자율직불제)단가”의 인상, 그리고 목표가격을 보장하는 “경기조절지불제도”의 도입 등 정부보조를 증액하는 소득안전망을 강화한 것이 그 주요 특징이다. 그 이외에도 환경보전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과 농촌지역단위의 개발정책을 강화한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제3장 국제 농업동향

2002년 농업법에서 신규로 도입된 경기조절지불제도는 종전의 긴급대책으로 실시하던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payment)을 2002년 농업법에서 제도화한 것이다.

시장손실지불은 1998년 이후 세계 곡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고정적인 생산자율직불제 만으로는 소득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임시대책으로서 생산자율직접지불을 수급하는 농가에게 1998-2001년간 약 185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한 조치였다.

이러한 경기조절지불제도는 종전의 부족불제도의 목표가격을 부활시킨 것이며, 이 목표가격과 ‘고정중립직접지불+시장가격(또는 용자단가)’과의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로서 농가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 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단계를 감시하여 식품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기로 하였고, 1999년 11월 식육 등 축산물생산시설에 대한 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도 공표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안전성기준 및 표시제, 계란 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농무성은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해가고 있다.

셋째, 시장지향성이 강한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FTA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무역협상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향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될 예정이다. 동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재현)

나. 중 국

(1) 농업과 농촌 경제구조

WTO가입과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국면에 직면하여, 중국은 1999년부터 농업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급변 구조조정은 단순히 농산물수량을 증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품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폐쇄식 조정이 아니라,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따라 전국 농업구역 분포를 최적화하는 것이며, 기존 생산력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선진기술로 전통농업을 개량하고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산출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농업생산구조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경제구조도 조정하여 2, 3차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농업구조조정은 첫째, 재배업구조가 한층 최적화되었다. 각 지역은 식량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수익 경제작물과 사료작물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1998년과 2002년을 대비해보면 전국적으로 1.3억무의 식량면적이 줄어들었으며 경제작물과 사료작물은 9,000만무가 증가하였다. 경제작물과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농작물 총 재배면적의 30.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3.75% 증가한 것이다. 재배업은 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작물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기본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야채, 과일, 화훼 발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농민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다. 둘째, 목축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식량공급이 충분한 기회를 이용, 목축업과 수산양식업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1998년과 2002년을 대비하면 전국 육류 생산량은

제3장 국제 농업동향

623만 톤이 증가(10%)하였고 알류 생산량은 269.5만 톤(13.4%) 증가하였으며 수산물도 473만 톤(12.1%) 증가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품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각 지역에서는 품질 향상과 소비가 원활한 우량 가공전용 농산물 생산을 구조조정 중심방향으로 삼고 우량품종을 발전시켰으며 유명 브랜드 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우량 벼의 재배면적은 2.5억 무에 달하는데 우량 품종의 논벼는 총 면적의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우량전용 밀 재배면적은 9,000여만 무로 밀 총 재배면적의 25%를 차지하는데 밀 가공시, 과거 수입 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현상에서 벗어났다. 쌍저유채씨 재배면적은 6,000만 무로, 이는 유채씨 총 재배면적의 56%를 차지하는 수치다. 고유분, 고단백 전용 옥수수는 빠르게 발전하여 재배면적은 7,800만 무에 달한다. 목축, 수산, 과일, 야채 등의 우량화정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농산물위생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져 무공해식품, 녹색식품, 유기식품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넷째,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더욱 집중되었다.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를 이끌어 내었고 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점차 농업의 지역화, 전문화, 분업화가 진행되었다. 장강(長江)유역의 논벼면적은 전국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황회해평원(黃淮海平原, 황하와 회수지역)의 밀 재배 면적은 전국의 60%, 동북지역과 冀魯豫(하북성, 산둥성, 하남성의 약칭) 3성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류작물도 장강유역의 유채, 황회해 지대의 땅콩, 동북지대의 콩으로 분화되었다. 중국농업구조조정은 향후 재배업 지역분포조정을 통해 자원배치를 최적화하고 양곡종합생산능력을 안정화시키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며, 농촌취업구조 조정으로 농촌 잉여노동력을 타 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농민수입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2) WTO 가입후의 중국농업정책 조정

WTO 가입이후 중국 농업정책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수급 관계의 변화이다. 과거 장기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이루었으며 풍년이 들 경우 여유가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동안 중국 농업의 종합 생산능력은 뚜렷히 제고되었는데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었다. 식량생산능력은 1978년의 3억 여 톤에서 약 5억톤 내외로 증가되었다. 5,000만톤을 1단계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모두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년 동안 연 평균 2.4%이상씩 증가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의 인구증가속도보다 1% 더 높은 수치다. 현재 중국 1인당 평균 식량 소비량은 355kg이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목화, 기름(油料), 과일, 육류, 수산물, 야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소비량은 4.2kg, 8.9kg, 51.2kg, 49.7kg, 34.3kg, 336kg 등이다. 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다. 농민 1인당 순 수입은 1978년 133.6위안에서 2002년 2,366 위안으로 증가되었다.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1978년을 100으로 볼 때 2001년은 503.8이다. 농산물 공급 증가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앵겔 계수는 점차 하락하여 1984년 도시 58%, 농촌 59%에서 2002년에는 37.9%와 47.8%로 각각 하락하였다. 농산물 생산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수급 관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118가지 농산물 중 야자기름 외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공급 과잉이며 과거 무엇이든 생산만 하면 판매할 수 있다고 했던 판매자 위주의 시장 특징은 조금씩 사라지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징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2) 농업생산 증가방식의 변화이다. 과거 주로 토지와 노동력에 의존하던 영농방식에서 자본과 기술투자가 생산성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8.5계획내지 9.5계획기간 동안, 농업투입요소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술과 자본이 농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농업노동력은 비농업으로 이동하였다. 9.5계획기간 동안, 농업에 대한 과학 기술 공헌율은 42%에 달했는데, 이는 8.5계획대비 8% 늘어난 것이다.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총 노동력 점유 비중은 8.5계획말(1995년) 47%에서 9.5계획말(2000년)의 47%로 하락했다가, 2001년에는 43.9%까지 하락하였다. 현재 전국의 7.3억명 노동력중 약 2.39억명은 도시에서 취업중이며, 약 2억명은 향진기업에 취업하거나 도시에 나가 일하고 있다. 중앙재정의

제3장 국제 농업동향

농업투입은 8.5계획말 574억 위안에서 9.5계획말 108.5억 위안(1999년)으로 증가되었다. 2002년 재정예산중 농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1,179억 위안이다. 이 같은 생산요소 투입구조의 변화는 농업발전이 과거 대규모 자연자원과 노동력 투입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본투자 및 집약화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농촌경제 운영시스템과 경영방식의 변화, 시장 자원의 재배치라는 기본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을 지향하는 농촌개혁은, 농촌경제 운영시스템을 과거 자원의 계획배치 방식에서 거시적 통제 하에서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이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현재 특정 제품 이외의 농산물은 개방되어 시장에서 수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형성된다. 농산물의 시장화 정도는 90%를 넘어 섰다. 시장기능 중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자에게 상품판매장소를 제공하는 외에 농민들이 생산구조, 투자구조, 취업구조를 조정토록 인도하는 것이며 자원 배치 방식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4) 농산물의 시장경쟁 관계에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국내경쟁에서 국내외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대외개방 정도는 빠르게 세계 농업과의 교류와 합작은 빈번해졌다. 주요 국제 농업조직 및 140여개 국가와 농업 과학기술교류 및 무역관계를 갖고 있다. 20년간 중국 농산물의 수출입 총액은 14.7배 증가되었고 8,000여 개의 외자, 10만여종의 우수품종과 재료 및 1,000여 개 선진기술 항목이 도입되었다. WTO 가입 후 중국농업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과거 단일시장, 단일 자원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복수시장, 복수자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5) 국민경제에 대한 농업과 농촌경제의 기초적 역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기초산업이자 앞으로 내수 진작과 환경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들의 생활이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 小康(여유가 있는)상태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은 국민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는 기초수요를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농업 상품화 정도의 심화에 따라 농산물 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농업, 특히 양식 풍년은 그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농업 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에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따라, 과거 주로 농업 위주로 공업화를 추진해왔던 상황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총 생산액중 농업의 비중이 비록 하락하였지만 이것이 국민 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본적 역할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같은 농업과 농촌경제의 단계적인 변화는, 개혁개방이 심화된 결과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필연적 추세이자 중국 농업정책조정의 기본적인 근거이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다. 일본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1년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8.1%인 10,169천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3.1%인 4,794천ha이다.

4<표 1-3>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1	구 분	단 위	2001
○농업인구 -총인구대비	천명 %	10,169 8.1	○곡물류 생산량 -쌀생산량	백만톤 "	10.0 9.1
○농가호수 -총가구대비	천호 %	3,072 6.4	○과일류생산량	"	4.3
○GDP	억달러 %	52,890	○농산물수출 -총 수출대비	억달러 %	30.2 0.6
○경지면적 -호당경지면적	천ha ha	4,794 1.6	○농산물 수입 -총 수입대비	억달러 %	429.9 10.1

자료 : 농림수산 통계(일본농림수산성, 2002년), FAOSTAT

2001년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480.5억불에 비해 10.5% 감소한 429.9억 달러로 총수입에 10.1%를 차지하고 있다.

(2) 농업정책동향

일본의 농업제도 및 정책은 21세기의 식료·농업·농촌정책의 기본지침이 되고 있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2000년 7월 제정함으로써 그

제3장 국제 농업동향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식료의 안전공급의 확보에 관한 시책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비·생산 양측의 조화를 촉진함과 함께 식량의 자급률 목표(2010년 기준 곡물자급율 45%, 주곡자급율 62%, 열량공급기준 45%)를 책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식료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 품질확보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생활에 있어서 정보제공, 식료의 표시규격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했다. 2000년 6월 강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일본농업표준(JAS)법의 제정과 더불어 2001년 10월부터 절인 양파와 건포도에 대하여 품질표기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가장 기본적 자원인 농지의 양호한 상태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의 생산성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관개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수자원공급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경영의 불확정성을 감소시켜 경지면적확대에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전업 농업인구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도 처음으로 50%를 상회하고 여성비율이 55%에 달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폭 넓은 인재의 확보육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법인경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영을 전개한 외에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행하였다.

농업생산력의 향상, 농산물의 품질·안전성향상, 담당자의 확보·육성 등을 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충실히 강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의 관점에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입각하여 인터넷을 통한 유용한 정보를 배포 및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에 따라 생산, 판매, 병해충피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유용성을 농업분야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요에 맞는 국내농업생산의 유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급 사정 등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보리, 콩, 우유, 유제품 등에 있어서 가격정책을 재평가함과 함께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외 농업이 본래 갖고 있는 자연순환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도모되도록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 등에 의해 바람직한 농업생산 방식의 도입촉진, 가축 분뇨의 적절한 관리, 유기성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행했다. 2000년 현재 500천 농가가 화학비료감축과 퇴비이용 토양개량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일본정부에서도 1999년 지속농업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농업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농촌진흥을 위해 농업생산활동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의 종합적인 진흥을 추진함과 함께 중산간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을 2000년부터 도입했다. 중산간지역은 일본 농산물의 40%를 생산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 지니고 있어 하류지역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농업관련단체의 재편·정비 등에 대한 시책으로 농업협동조합계통조직,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농업공제단체, 토지개량조합 등의 각 단체의 역할을 명확화 함과 동시에 조직의 간소화, 합리화,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 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WTO농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WTO농업협상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주민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촌재건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재현)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1) 농업경제 동향

EU 15개 회원국의 2001년 현재 경지면적은 128백만ha, 농가수 677만호, 호당경지면적 18.7ha, 농수산업 종사자수는 약 670만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2,879억유로 정도이다. 2001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10.2%, 쇠고기 9.1%, 가금류 4.3%, 곡물류 12.1%, 신선채소 7.6%, 신선과일이 6.2% 였다. EU의 2001년 농업 생산에서 회원국들이 비중을 보면 프랑스(22.5%), 이탈리아(15.7%), 독일(15.3%), 스페인(13.4%), 영국(8.5%), 네덜란드(5.3%), 그리스(4.5%), 덴마크(3.2%), 벨기에(2.5%), 포르투갈(2.2%), 아일랜드(2.1%), 오스트리아(1.9%), 스웨덴(1.5%), 핀란드(1.2%), 룩셈부르크(0.1%)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인데 영국(1.4%), 벨기에(1.4%), 룩셈부르크(1.5%), 스웨덴(2.6%)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그리스(16.0%), 포르투갈(12.9%), 아일랜드(7.0%) 등은 높은 편이다. EU 농업생산액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스웨덴(0.6%), 영국(0.6%), 핀란드(0.9%) 등 낮은 국가와 그리스(6.7%), 스페인(3.6%) 등 비교적 높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EU 농산물이 세계 농산물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곡물(쌀제외) 12.2%, 사료곡12.5%, 설탕 16.8%, 쇠고기 10.9%, 돼지고기 36.1%, 가금육 14.3%, 분유 32.5%, 치즈 35.8%, 버터 2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공급증가가 수요확대를 상회하고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곡물과 낙농제품의 과잉현상이 심한 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1%이며 수입은 6.0%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8.0%), 일본(7.1%), 스위스(6.2%), 러시아(5.6%) 등이며 최근에는 구 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5<표 1-3->

EU 농업의 주요 지표(2001)

국 가 (15개국)	농수산업 종사자 (천명, %)	농업총 생산액 (백만EUR)	식량 자급률 ¹⁾ (%)	농식품 무역수지 (백만EUR)	농식품 비중(%)		
					수출	수입	가계비 ¹⁾
벨기에	56(1.4)	7,359	49	△1,078	5.7	6.7	16.8
덴마크	96(3.5)	9,098	119	2,750	20.5	8.1	17.4
독일	956(2.6)	44,490	124	△3,283	2.9	4.8	15.8
그리스	627(16.0)	11,655	75	686	21.8	5.4	21.4
스페인	1,025(6.5)	35,585	87	△840	10.4	8.2	18.5
프랑스	964(4.1)	65,072	200	4,930	7.7	4.7	17.6
아일랜드	120(7.0)	5,879	84	1,891	7.7	3.8	17.2
이탈리아	1,113(5.2)	43,388	81	△946	5.1	6.4	16.9
룩셈부르크	3(1.5)	263	116	△17	1.2	1.2	-
네덜란드	238(3.1)	20,744	23	△2,114	16.4	9.9	10.5
오스트리아	215(5.8)	5,751	95	208	4.3	4.1	15.6
포르투갈	645(12.9)	5,944	33	△825	8.6	11.8	22.5
핀란드	140(4.8)	3,976	126	367	3.6	3.3	18.1
스웨덴	114(2.6)	4,563	122	183	3.1	4.1	16.7
영국	390(1.4)	24,119	112	△3,904	5.1	5.7	13.9
전체	6,701(4.2)	287,886	114	△199	6.1	6.0	17.0

주 : 1)은 2000년 자료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al Statistics

수출품목은 음료를 비롯하여 곡물, 과채류, 육류 등의 비중이 크며,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3.2%), 브라질(13.1%), 아르헨티나(5.6%)
등이며 주로 과채류, 목재, 동물사료, 수산물 및 커피 등이 수입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증가율이 역외 무역증가율보다 높다. 2000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
적자는 122억유로이다.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 15개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및 03년 7월(MTR),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 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개혁('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 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키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타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 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 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07~2008/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 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준응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준응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 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의 경우에 EU의 분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이정삼)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2002년도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에 이행 및 2000년부터 논의되는 WTO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 및 동식물검역 완화 등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WTO협정 및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에 따라 성실히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수입관리를 철폐하는 등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WTO협정 및 국제관례 등에 따라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가. 미 국

우리나라는 2002년에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25억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일본·멕시코에 이어 제4위 수출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인삼, 연초, 면류, 일부 과실류 등이 2002년에 약 2억달러가 수출되어 미국은 일본, 홍콩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다자 및 양자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과 동식물검역 및 저세율 시장접근물량(In-quota)의 수입관리문제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쌀 등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수입산이 국내산에 비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및 국내판매관리, 쇠고기 구분판매 및 보조금지급, 국내산 소비촉진운동,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표시제 시행, 밀·사료용 옥수수·팝콘 등 WTO 이행계획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약속이행, 양벚·사과 등에 대한 시장접근제한, 동식물검역조치를 통한 통관지연, 꿀·분유·보리·감자·팝콘 등의 고관세 문제, 동물약품 수입검사 및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측에 대해 한국산 감귤의 미국내 5개 주(캘리포니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아리조나·텍사스)에서의 반입금지 해제, 참외·오이·호박·수박 등 박과작물류에 대한 수입허용, 단감 및 파프리카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삼계탕 위생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6월 한·미 식물검역전문가회의 및 2002년 8월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산 감귤의 미국내 5개 주 반입허용과 기타 농작물에 대한 수입허용절차 진행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데 2002년도에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여러 차례의 정례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는 2002년 6월 하와이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재현)

나. 일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며,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 통상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발표하면서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농업관련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농업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유지와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로 한·일 농림당국은 농업각료회의를 매년 교환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3월 9일에는 서울에서 제3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차기 농산물협상에 서의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고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양국 농림부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농업분야의 상호협력 및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기로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고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 11월 동경에서 제35차 회의를 갖고 9개 공동과제를 결정하고 전문가 교류 및 기술정보자료교환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재현)

다. 중 국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에 우리나라와의 농산물교역이 급격히 증가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 2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협안협회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무역실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998년 11월 11~15일간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양국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21세기의 한·중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농림분야 협력사업으로서 량광시범 농장건설, 산림보호·조림사업, 병충해 방제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측은 우리와의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측은 2001년도에도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마늘교역합의 이행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측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양국 관련분야의 전문가간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간의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 12월 북경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 7차 회의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종전의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2년 2.3억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쇠고기·돼지고기·치이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제3장 국제 농업동향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켓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2년 약 0.2억달러에 그쳐 양국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시장 편중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정제유에 등에 대한 실행세율을 낮춰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내에 만성소모성질병(CWD)의 발생으로 우리측이 취한 잠정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여 캐나다산 사슴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한국산 배의 검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여 지난 한·캐 식물검역전문가회의시(2001. 10.11)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삼계탕의 수입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캐나다 검역전문가가 방한하여 우리나라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한-캐나다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캐 특별동반자관계회의(SPWG)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데 1999년 5월 제9차 회의가 토론토에서 개최되어 의견해소에 기여했으며, 제10차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11차회의는 2003년 9월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정부는 공식회의 이외에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재현)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농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중요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양측의 농업관련 통상현안은 주로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농업통상에 관련된 협의는 그간 매년 양측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온 한·EU 각료회의 및 고위급협의회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01년 4월 1일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발효로 한·EU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회의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고위급협의회는 폐지하였다. 특히 공동위원회 산하에는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신속한 후속조치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년 개최된 제2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EU측은 수입허용 검토시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우리측은 국제기준의 구체적인 설정 상황과 각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스페인산 오렌지 수입허용요청에 대하여 스페인측의 검역외 요구(검사대기중이거나 수송중인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중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검역요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하였고, 영국산 돼지고기, 이탈리아산 파마산 치즈 및 네덜란드산 화훼구근류의 수입허용에 대하여는 이미 수입 허용되었거나, 완료단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한국과 EU는 NTC를 고려한 점진적이고 신속적인 방식으로 농업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UR 방식의 관세감축 지지에 대한 공조와 Modality 협상과정에서 긴밀한 공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EU측은 우리의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이정삼)

바. 중남미국가

중남미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국내 농작물 및 가축 등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중해과실파리 등이 분포하거나 구제역 등이 발병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으로 우리나라와 농산물교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동식물검역문제가 해소되는 경우 농산물교역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감귤 등 과일류,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및 감귤류, 에쿠아도르는 망고, 브라질은 가금육·쇠고기 및 오렌지, 콜롬비아는 과일류, 페루는 열대과일 등의 수입

제3장 국제 농업동향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브라질은 오렌지쥬스·커피·설탕, 에쿠아도르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동식물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한국의 검역전문가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기 위한 활동을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통상현안은 주로 양국간에 구성된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한-브라질경제공동위는 1998년 12월 상파울로에서 개최되었고 제3차 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11월 제4차 회의에 이어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2000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한-페루경제공동위원회가 1999년 12월 리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는 200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제1차 한-콜롬비아 및 에쿠아도르 경제공동위원회가 양국 수도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한편,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등의 육류 및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동식물 검역현안은 WTO/SPS 규정과 IPPC, OIE 등 국제기준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내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대응해 오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서기관 이재현)

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칠레는 우리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적으며 남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FTA의 첫상대로 선정되었다.

2001년까지 양측간에 농산물시장 개방수준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교착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상태를 보이던 협상이 2002년 2월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다시금 협상이 발동되었다. LA에서 개최된 고위급협에서 양측은 협상재개를 합의하고 양측은 수정된 양허안을 2003년 2월과 7월 각각 교환하였다.

5차 협상은 2002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칠레에서 개최하였는데, 양허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국은 협상의 조기진전을 위해 협상의 핵심분야인 양허안에 대해서만 별도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허안 별도협상이 2002년 9월 11일부터 13일,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2차례의 별도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양허안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협상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6차협상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농산물 및 공산품 분야에서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일부 미결쟁점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였다.

2002년 10월 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그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금융투자와 정부조달 분야는 추가 실무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하고, 양허안 관련 미결쟁점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여 이를 칠레측에 통보하였으며 칠레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한-칠레 FTA가 타결되었다.

2003년 2월 15일 Lagos 칠레 대통령 방한시 양국 외무장관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칠레는 7월 2일, 한국은 7월 8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측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30일이 경과된 후 발효되도록 되어있다.

최종 타결된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과 신선사과 및 배는 FTA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포도는 11월~4월간에 적용되는 관세를 향후 10년간 균등철폐하고 5월~10월간에는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관세가 높거나 국내적으로

제3장 국제 농업동향

민감한 품목은 DDA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맨더린, 자두 등의 품목은 소량의 TRQ를 제공하고 관세인하 문제 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키로 하였다.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한 품목중 국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7년~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기로 하였으며,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이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협정문과 관련해서 우선 양국은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SG: safeguard)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동제도는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는 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에 제한이 없어 부패성있는 농산물에 실효성있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제3국산이 칠레산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축산물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여 칠레에서 도축된 것만을 칠레산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동식물 검역분야에서 양국은 WTO/SPS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김군호)

아. 기타국가

(1)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이며 미작위주의 농업경영을 위주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이면서 우리나라와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대한 관세인하, 동·식물검역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 채소류 농산물수입허용, 동식물검역협정체결요청,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 수입확대요구 등을 통해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할 것을 양자회의 및 농림부 방문 등 개별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양국정상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무역공동위,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통상장관회담 등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동회의를 통하여 품목별관세율은 UR협상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임을 상대국에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입허용 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 장관회의, 한·태국, 한·베트남, 한·튀니지, 한·리비아, 한·모로코, 한·이란, 한·남아공, 한·우즈베키스탄, 한·카자흐스탄, 한·말레이시아, 한·미얀마, 한·방글라데시 등과 정례적으로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 교류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3년에는 한·인도, 한·몽골간 농업협력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이정삼)

제 3 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1. WTO 활동

가. WTO 일반 활동

WTO는 UR협상의 결과로서 잠정적 협정구조인 GATT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이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무역질서를 관할하는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출범하였다.

WTO는 출범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뉴라운드협상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 말에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시애틀)에서 뉴라운드협상 출범을 시도하였으나 협상 의제 범위 및 이행문제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실패하였다. 마침내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외제와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이 출범하였다.

제4차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범 수립, 4개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 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하여 협상하고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협상총괄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하고 산하에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등 8개의 협상그룹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 각 사안별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들간의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안에 있어 이해를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견을 좁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2003년도에도 협상타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분야는 회원국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주요 관심사항의 하나인 개도국 우대 이행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실질적 적용을 위한 검토 등 일부 협상과제는 주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한 상태이다.

나. 농업협상관련 활동

(1) DDA농업협상에 적극대응 및 협상력 강화를 외교활동 추진

농업협상은 농업협정문 제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출범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함으로써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이라는 협상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하는 등 협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02년 3월부터는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Modality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회원국간 입장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미국과 케언즈그룹, 그리고 다수의 개도국이 포함된 농산물수출국들은 UR협상이 농업분야를 다자무역체제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행 결과 농산물 교역확대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UR협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개도국들은 개도국우대의 실질적인 반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결과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DDA 농업협상관련 회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농업협상 추진체계 등을 강화하였다.

농업협상관련한 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정례회의, 소규모각료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세부원칙(modality)협상 논의 과정에서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의 문제점(제13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허용보조의 범위확대와 요건완화 방안(제14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및 “세부원칙 전반” 등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우리 입장과 유사한 수입국, 개도국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한편 허용보조 규율강화, 과감한 관세감축 등을 주장해온 수출국들에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세부원칙관련 종합제안('02.12)”은 그동안 DDA 농업분야 세부원칙 협상 논의결과를 정리하는 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 배포 전에 우리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쟁점별로 기존 입장을 정

제3장 국제 농업동향

리한 종합제안으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에 있어 UR방식 유지, 국내보조의 기본골격(감축보조, 허용보조, Blue Box) 유지, 농업의 특수성과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신축적인 접근방식 등을 세부원칙 작성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관세상한 설정 저지,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정부 지원 허용 등 우리 제안을 세부원칙 의장초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원칙 논의동향에 따라 논의 쟁점에 대한 분석,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원칙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대응 입장을 정리하고 논리를 보완·발전시켰으며 향후 이행계획서(C/S) 작성 및 국내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세율, 국내외 가격차 등에 관한 D/B구축을 추진하였다.

DDA 농업협상에서 주요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교섭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농림부 장관이 WTO 사무총장 및 농업위 위원장을 면담('02.5, '02.12)하여 이번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과 유사한 나라들과의 공조방안 모색과 관세·보조금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EU, 노르웨이 등을 방문('02.12)하는 한편 한·일농림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수입국 입장의 대 개도국 지지기반 확산을 위하여 NTC그룹간 실무 수준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제4차 NTC국제회의('02.6, 로마)를 여타 NTC국가들과 공동주최하였다.

또한, 각국의 협상관련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농림부 고위급이 미국('02.7), 캐나다·멕시코('02.11) 등을 방문하는 등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협상동향의 공개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 추진

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고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동향에 관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하였다. 협상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농림부 홈페이지의 “WTO농업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협상” 코너에 협상동향을 수시로 게시하고 주요 단체 등에 대한 E-mailing 서비스 실시,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농업통상정책 협의회(2회), DDA민관합동 포럼(2회) 등을 통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농업협상 관련하여 농림부내의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WTO농업협상대책반”을 구성('02.1)하여 협상대응 인력을 보강 등으로 협상의 대응능력을 높였고 농업협상과 국내대응을 전담할 고위직 신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통상정책협의회를 “농업분야민관합동포럼”으로 개편하는 한편 동 협의회와 자문단에 비농업계 경제·법률전문가와 정부위원 등을 보강('02.4)하고 주요의제에 대한 실질 토론 위주로 그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였다.

(농업협상과 행정사무관 박수진)

2. OECD 활동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농업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중기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

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 OECD는 WTO농업무역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OECD의 연구가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삭감문제 및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러한 작업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을 비롯하여 세계 농업무역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최근 활동

2002년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2003-04년 농업위원회 활동계획, 농업의 다원적기능, 농가소득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2002년 한해 동안의 회원국 농정개혁을 평가한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및 2003-08년간 세계 농산물 시장을 전망한 『OECD 중기농업전망』이 2003년 상반기에 발간되었다.

2003-04년 OECD 농업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 회원국들은 농정평가 보고서 발간 및 농정평가지표 개선을 포함하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작업, 중기농업전망 작업, 정책평가행렬(PEM) 개발 및 정책의 생산비연계성(decoupling) 분석을 포함하는 정책수단과 목표간의 상관관계 분석, 식량원조의 무역효과 및 개도국우대조항의 개선방향 모색을 포함하는 농업무역자유화의 비용·효과 분석, 변화하는 농·식품경제 환경에 대응한 정책방향 모색, 농업의 환경관련성 측면을 분석하는 지속가능농업 분석, 거래비용연구를 포함하는 정책개혁 달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향 모색 등 7개 분야를 향후 2년간 추진대상 활동분야로 선정했다.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입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비용·효과 관련 작업의 축소 및 다원적기능관련 작업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2003-04년 작업계획에 반영되었다.

OECD는 2002년 5월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보고서는 수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03년 3월 농업정책 및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시장작업반회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되었다. 다원적기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목표지향적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결론이나, 우리나라를 포함 수입국들의 주장으로 일정생산수준까지는 농산물생산량과 식량안보가 직접 연계되며, 거래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 정책이 최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OECD는 농가소득정책관련 기존 연구를 종합한 『농가소득정책보고서』를 작성·발간하였다. 동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이 농가 저소득문제를 해결하거나 농가의 소득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소득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하되, 시장에 의해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문제에 대해서는 농업특정적 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등 일반경제정책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OECD는 2003년 상반기에 발간된 『회원국 농정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통해 2002년 한해 동안 회원국의 농정변화를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OECD는 동보고서에서 2002년 한해 동안 시장보호 수준이나 시장지향성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고 국가별·품목별 지지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국내소비자 및 납세자의 비용 경감,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통합 촉진, 개도국 발전, 농업의 환경압력 감소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지향성을 제고하고 목표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 농정에 대해, 최근의 농업환경보전과 농촌사회를 위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지지수준 감축, 생산 및 무역왜곡이 작은 정책으로의 전환, 시장지향성 제고 등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으며, 몇몇 농산물의 보호수준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포함한 많은 농산물이 세계시장과 괴리되어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2008년까지의 세계농산물 수급 및 가격전망, 2002년 미국 농업법의 시장효과, EU확대의 효과분석을 포함한 『OECD 중기농업전망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3-2008)』을 2003년 상반기에 발표했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곡물과 유지종자의 경우는 북미나 호주의 가뭄 등으로 인한 공급감소로 전망초기에는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생산이 점차 회복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2008년경에는 수요 증대로 인해 다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쌀의 경우는 현재 재고수준이 높아 국제가격이 낮게 유지되다가,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감소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육류 및 낙농품은 최근 가격이 하락했으나 전망기간 동안 생산조정 및 수요 증대로 최근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OECD는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 시행에 따라 미국내 밀과 콩의 생산·수출은 약간 감소할 것이나, 잡곡의 경우에는 생산·수출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분석에 사용된 수준보다 국제가격이 낮아진다면 시장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2002년 새로운 농업법의 생산왜곡효과가 비록 작을 것으로 분석되긴 했으나, 생산 및 무역왜곡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OECD가 추구하는 농정 개혁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시혜)

3. FAO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5년 10월 16일 정식 발족하여 4,500여명의 직원과 18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UN 최초·최대의 상설전문기구로서 각국의 농업, 수산업, 임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각 회원국과 UN기구에 분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UN본부라 할 수 있다.

FAO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비롯하여 지역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정부간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며 FAO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초가 되어 각종 농림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FAO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05만\$, 2003년 600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FAO 분담금 중 1.861%를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차지하고 전체회원국 중 10위(2003년)에 위치하는 주요 기여국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1년 제31차 총회까지 총 27회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해 왔으며, 1966년에는 서울에서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년 임기의 이사국에 6회 진출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2000년에는 최초로 FAO 재정위원회에 진출(2000-2001)하여 FAO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등 주요정책과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지난 1996년 로마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WFS)에서 2015년까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통의 책임과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을 위한 「로마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의 기아극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아극복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치 및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2년 6월 13일 로마에서 38개 국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184개 국가와 81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World Food Summit : five years later, WFS:fy1)」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기아극복을 위한 세계적 연대노력을 강조하는 “국제빈곤퇴치동맹(International Alliance against Hunger)”의 제목하에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의 빈곤과 기아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전세계 차원의 식량안보 달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각국별로 다양한 농업의 특성 또는 기능을 존중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식량안보 추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세계의 식량안보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21세기 세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살려 세계의 농업

개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외 2002년에는 제26차 아·태지역총회(5월, 네팔 카트만두)를 비롯하여 제28차 식량안보위원회(6월, 로마), 제20차 미곡위원회(7월, 방콕), 제123차 이사회(10월, 로마) 등의 회의에 참가하여 세계 및 아·태지역 식량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 농업 및 농촌개발 방안, 「세계 식량정상회의」 행동계획 진전상황, 생명공학기술 개발이용, FAO 사업 및 재정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1996년 FAO 「세계식량정상회의」 요청에 의한 세계기아 극복을 위해 국제적 홍보 및 모금행사로 추진 중인 TeleFood²⁾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TeleFood 전시관을 설치·운영하였다. 동 행사는 경북도가 주관하는 「세계농업한마당」 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기아의 심각성 부각을 통한 식량안보 및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동 전시행사는 기아라는 무거운 주제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관람객들에게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 한·중·일 3개국간의 농업분야 협력을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ASEAN+3 농림장관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의 소개를 통해 역내 농업·농촌 발전과 아국의 위상강화에 기여해 왔다. 2002년 제2차 회의까지 「동아시아비상쌀

2) TeleFood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의 빈곤과 기아극복을 위해 그 회원국(183개국)에 권장하고 있는 캠페인을 말한다. 동 캠페인은 199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세계 기아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한 각국 정상들의 결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FAO 창립기념일(1945. 10. 16)에 맞춰 매년 거행되는 “세계식량의 날”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TeleFood는 소득이 낮고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의 식량증산 활동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모금을 목적으로 음악회, TV 및 라디오 방송, 스포츠 경기,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음악, 스포츠, 영화, 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TeleFood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이탈리아), 세계최고의 축구스타 호나우드(브라질), 영화배우 공리(중국) 등 많은 인사들이 TeleFood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비축시스템], 「지속가능농업 연구개발 심포지엄」, 「연수생초청사업」 등 협력 사업이 채택·추진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2002년에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후속조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과 대 아세안 협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ASEAN역내의 비상시 쌀 비축을 위해 일본이 제안하여 추진 중인 “동아시아 비상쌀 비축 체제 구축 시범사업”논의에 참여(8월, 10월)하였으며, 일본의 또 다른 제안 사업인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 1단계 심포지엄(6월, 인니 반둥)”, 중국 제안사업인 “동아시아 농업기술협력회의(6월, 북경)”, 태국 제안사업인 “ASEAN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제1차 실무회의(8월, 방콕)에 참여하였다.

그 밖에 제25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2월), 제58차 아·태경제사회 이사회(ESCAP) 총회(5월), 제49차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제14차 총회 및 제49차·제50차 집행이사회(9월, 이집트 카이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전파와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수일)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1995년 수해에 따른 긴급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생산성과 북한당국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FAO/WFP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년에는 총수요량 497만톤중 187만톤, 2001년에는 총수요량 496만톤중 16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엔인도지원국(OCHA)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합동호소(Appeal) 목표액은 2억4,684만\$이며, 지원실적은 2002년 10월말 기준으로 2억2,044만\$이었다. 국제기구 대북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WFP를 통한 긴급식량지원은 목표의 87%를 달성했으나 기타 국제기구의 지원실적이 이보다 낮아 전체 지원실적은 목표액의 82% 수준이었다.

6<표 1-3->

국제기구별 지원실적 및 목표

(단위 : 만\$)

기구	제1차 (‘95.9 ~’96.6)	제2차 (‘96.7 ~’97.3)	제3차 (‘97.4 ~’97.12)	제4차 (‘98)	1999	2000	2001	2002		2003 목표	주요 지원내용
								목표	실적*		
WFP	592	2,652	13,434	20,922	17,790	10,096	21,977	21,673	18,895	19,717	긴급식량지원
FAO	-	229	166	90	-	-	-	-	-	-	농작물생산 시설복구
UNDP	136	228	249	0	0	0	0	176	0	-	농경지,도로복구
UNICEF	134	349	1,728	570	616	223	317	1,037	527	1,209	아동영양 개선
WHO	22	6.5	160	117	190	135	136	671	229	523	의료시설 복구
OCHA	-	5.7	5.6	30	84	68	49	96	60	58	행정 및 모니터
FAO/UNDP	-	-	102	244	309	304	144	493	109	407	이모작, 감자생산
UNFPA	-	-	-	-	-	0	10	100	0	58	가족계획
NGO 등	43	-	-	-	0	0	418	437	384	557	학교급식, 감자생산
계 (목표대비%)	927 (46)	3,470 (80)	15,846 (84)	21,973 (57)	18,989 (53)	10,827 (55)	22,694 (59)	24,684	20,204 (82)	22,529	

주 : 1) 1998년부터 OCHA(<http://www.reliefweb.int>)에서 유엔기구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발표

2) WFP(세계식량계획), FAO(세계 식량농업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WHO(세계보건기구), OCHA(유엔인도지원국), NGO(민간지원기구), UNFPA(유엔인구기금)

*10월말 현재의 실적임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수일)

5. APEC관련 활동

가. 개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89년 호주 캔버라 회의에서 태동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고, 각종 APE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식량작업반, 생명공학, AFS(Apec Food System)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초 APEC은 한국,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 국의 12개 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담당한 1991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3개 국이, 19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아, 1994년에는 칠레가 1998년에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각료회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SOM)와 그 산하에 무역·투자위원회(CTI), 농업 기술실무작업반(ATCWG) 등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요 활동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는 “1993년 12월 15일까지 UR협상타결 최대 노력”을 결의하였고, 선진·개도국의 중장기 무역자유화 목표(2010/2020)를 정한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제기한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신축성 원칙(Flexibility)이 반영된 1995년 오사카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을 통해 APEC의 양대 축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TILF: 14개 분야)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13개 분야)의 세부분야별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였고 “인구증가와 소득성장이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과제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식량작업반에서 2년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식량수입국의 입장을 확보하였다.

1996년 필리핀 수빅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 행동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인 마닐라 행동계획(MAPA)이 국가별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공동계획으로 집대성·채택되고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발굴을 검토토록 제시되었다.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을 정하고 임산물, 수산물 등 9개 우선분야(주로 관세분야)를 98년중에 논의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구상이었으나 1998년 11월 각료회의시까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후속 추진분야에 속한 농산물 등 6개분야는 1999년중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시 후속

제3장 국제 농업동향

추진분야에 포함된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은 BIA에 의거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기존입장을 한·일의 긴밀한 공조로 관철시켜 농산물은 APEC에서 어떠한 사전 조건 없이 차기 WTO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각료/정상회의에서는 생명공학의 농업 생산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ATCEG의 지금까지 연구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2000년 6월 통상장관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8년 민간이 제안하여 1999년 8월 고위급회의에서 확정된 APEC Food System을 승인 APEC의 장기과제로서 식량분야의 3개 협력방안(농촌하부구조개발, 식품교역촉진, 진보기술확산)을 균형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0년초 브루나이에서 열린 1차 고위급회의에서 뉴질랜드는 1999년 정상 및 각료 보고서의 지시에 따라 AFS 3개분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Tasking matrix 와 Reporting mechanism을 제안하였고, 6월 호주 다윈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는 ATCEG의 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은 GMO의 투명하고 과학적 접근에 기초한 활용을 강조하였으나, 우리는 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GMO의 식품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사항을 의장 보고서에 관철하였다.

2000년 11월 브루나이 각료/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되어 “충분히 광범위하고 균형된 의제의 뉴라운드가 2001년 중에 출범되어야 한다”는 APEC 회원국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2001년, APEC 논의는 주로 WTO 뉴라운드 기여방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실행관세 모라토리움 및 미국의 상하이차터 제안 등 시장 접근분야에서 무역자유화 진전 노력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미국이 신경제하의 APEC활성화를 위하여 상하이 차터를 수정 제안한 “상하이합의”(Shanghai-Accord)가 2001년 10월 각료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하여 “반테러선언”도 채택되었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WTO/DDA 협상의 기한내 종결을 위한 APEC의 기여를 촉구하였으며, APEC투자성명원칙 이행, 무역과 디지털 경제 정책 이행, 반테러성명이 채택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조기자유화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논의가 WTO협상으로 넘어감에 따라 생명공학에 대한 고위급정책대화 설치, APEC Food System이행촉진, 투명성원칙 등의 확보 등이 주 이슈로 논의되었다.

(통상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6. 농업 · 환경 · 무역연계 논의동향

우루과이라운드이후 농업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라는 명칭으로 농업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의 장려라는 당위성과 함께, 농업보조의 환경효과 및 무역효과를 분석하여 좀더 친환경적이고 무역친화적인 농업정책을 모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이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농업 활동은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연경관보전이나 홍수조절을 통하여 환경에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업 · 환경 · 무역논의는 크게 OECD, WTO, 다자 환경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 OECD 농업 및 환경회의

OECD에서는 경제 · 무역 · 환경정책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개발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OECD는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년 9월부터 2003년 현재까지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분야에 관한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은 농업정책 개혁과 환경과의 관계, 13개 분야별 농업환경지표개발, 낙농 · 양돈 · 경종 농업의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농업정책 목록작성 등이 있다.

제3장 국제 농업동향

우리나라는 동회의를 통해서 OECD회원국과 환경농업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OECD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농업·환경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각국의 농업환경정책의 평가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표는 13가지로서 농업양분지표, 농약사용지표, 농업용수사용지표, 농업용수수질지표, 토지사용 및 국토보전지표, 토양의질 지표, 농업온실가스지표, 농업경과지표, 농장관리지표, 농장재정지표, 농업의 사회문화지표, 생물다양성지표, 야생동물서식지지표 등이다. 그 가운데서 국토이용지표(land conservation indicator)는 주로 논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분 흡착기능, 홍수방지, 토양침식방지 및 산사태방지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력히 주도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02년 4월 개최된 제15차 JWP회의에서는 농업환경지표중에서 비교적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요관심사항인 경관지표 및 국토보존지표에 대하여 수출국들은 의문을 표시하였다. 결국 농업환경지표 논의는 신뢰성있는 데이터 확보가능성·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제 등의 이유로 큰 진전없이 끝났으나 농업환경정책수립 및 평가에는 지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2002년 12월 제16차 회의에서는 농업환경정책에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는 환경채권의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무임승차자의 문제 등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농업환경정책목록화 작업이 회원국의 국내정책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을 쉽게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한편,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환경적 편익”으로써,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년에 2차례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6월 회의에서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수출국들)들은 유기농산물도 환경상품에 포함시켜 저관세 및 무관세품목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설의제인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의 표제하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의 문제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경관보존, 홍수조절 등의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므로 보조금의 감소는 환경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차기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을 지구촌차원에서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이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3장 국제 농업동향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 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 방지를 주요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채택되고 2003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 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의정서는 50개 국의 비준으로 발효되므로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시행법률」이 제정되었고 2002년 국내이행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외교부 및 산자부 주관으로 몇차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수입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망되는 바, 국내법령 및 세부사항 이행을 위한 준비중에 있다.

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국제 환경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992리우회의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한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계획을 채택하기 위하여 194개 UN정부대표, 국제기구, NGO등 총 4만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결과로 채택된 「실천방안 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은 세계 정상들의 합의문인데, 그 자체 국제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향후 WTO 협상을 비롯한 국제무역·환경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발전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의 개혁이 권고되고 있으며,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on-Trade Concern, NTC)을 고려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농업기술 이용을 통한 빈곤층 권익신장, 농약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이행조치, 토지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산악지대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 권고되었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경미)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WTO/SPS위원회는 1995년 WTO출범과 함께 『WTO/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WTO/SPS협정)』에 의거 설치되어 매년 3~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2년에는 3차례의 회의(2002.3-23차회의, 2002.6-24차회의, 2002.11-25차회의)를 개최하였다.

SPS협정의 기본취지가 SPS조치(수입식품 위생검사와 동·식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동·식물 검역조치)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협정 발효이후 SPS관련 농축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행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2001년부터는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의 이행방안에 대하여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양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선진국은 수입국의 입장을 개도국은 수출국의 입장을 보이며 실리를 얻으려는 노력이 심화되었다.

제3장 국제 농업동향

SPS위원회는 2001년도에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 (G/SPS/19, 2001.10.26)」을 채택한 이후 2002년도에는 동 결정문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협정이행을 위한 세부 일반규율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SPS위원회는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아울러 상기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 개도국 특별대우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차가 커진 한 해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동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의 이행문제 등 논의시 SPS협정 대상물품(농산물, 식품 등)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였다.

SPS협정 제4조(동등성)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라는 규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택된 「SPS협정 제4조 이행에 관한 SPS위원회 결정」이 채택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결정을 이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동 결정문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결정문의 제5항(과거 교역경험이 있는 품목의 동등성 판정 신속화) 및 제6항(동등성 인정요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교역중단 사유가 되어서는 안됨)에 대한 구체화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제7항(수입국은 수출국이 제출한 과학적 자료를 동등성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검토)에 대하여는 적정보호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차기년도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

또한 통보절차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종결되었다. 당초 통보절차와 관련되어 제안문서를 작성하였던 뉴질랜드측 안인 지침(Guideline)이 종전과 같이 권고(recommendation)로 제목을 확정하여 문서의 준수수준이

제1편 2002년도 농업동향

약화되었으며, 통보문서 번역 필요시 추가 의견수렴기간 부여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부여하여야 한다”로 권고성격을 보다 강화하였다. 특히 아국은 WTO언어로 통보된 문서와 관련된 번역시의 추가 의견수렴기간 부여 여부 및 동 문서의 성격에 대해 사무국에 공개질의하여, WTO언어로 통보된 문서라 하더라도 추가 의견수렴기간 부여가 정당하다는 것과 동 통보 절차가 단순히 최선의 통보절차를 권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 문서에는 강제성(obligation)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

다만, 개도국 특별대우 부여 여부 항목을 통보문 양식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개도국은 통보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사전 통보방식)을 선진국은 통보후 개도국이 원하는 경우 추가통보하는 형식(사후 통보방식)을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차기년도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생 및 검역과 관련한 무역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SPS위원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조치 등에 대한 수출국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양자차원에서 제기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우리측의 제안으로 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관련 조치의 폐지 등을 통해 관련물품의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제3국간의 관심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관련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식물검역건수 제한조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2001년도에 이어 일측의 조치가 명백한 WTO/SPS협정에 위반하는 조치로서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일본측은 이에 대해 한국 신선야채의 주요 수출항인 시모노세키항에 검역관을 증원하고 가이드라인 이상의 건수를 처리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3장 국제 농업동향

또한 말레이시아의 초생추 수입검역 강화조치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규정개정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음과, WTO/SPS통보 역시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동 조치의 철회를 요청, 말레이시아측이 동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초생추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국 구제역 발생과 관련, 인도네시아가 구제역과 무관한 채소류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하여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채소류는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었다.

2002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하였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전종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제 1 절 2002년 예산 중점투자 분야 및 재원확보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2002년도 예산은 농가경영안정과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정보·기술농업과 선도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고품질·안전농식품 공급기반 확충과 유통효율화의 지속 추진을 목표로,

쌀값안정과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며, 선도적 경영주체 육성 및 기술·정보농업기반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완공위주의 기반정비 강화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문화 및 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2002년도에는 국가전체 세출 수요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워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도 2002년도 농림부문 총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5.4% 증가한 9조 2,85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쌀값안정을 위하여 양곡수매·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쌀값안정대책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전년보다 53.0% 증가된 6,870억원을 책정하였고,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농가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입기반 마련·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예산 반영·농공단지조성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보다 9.0% 증가된 4,432억원이 책정되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수리시설개보수 및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과 용수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기반이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어느 정도 확충된 경지정리사업· 대단위농업개발은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전년보다 1.8% 감소된 2조 1,515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의 구입량 감소추세에 따라 농기계구입자금과 생산지원을 조정하고, 농기계사후관리의 선별적 지원에 따라 전년보다 26.0% 감소된 1,940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산물유통개선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 등 하드웨어(시설)부문의 신규투자보다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산물수출지원, 물류기기이용, 규격화자금 등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보다 27.4% 감소된 5,235억원이 책정되었다.

농가부담 경감과 여성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지원을 확대하고, 농가도우미 지원규모 확대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함에 따라 전년보다 46.3% 증가된 1조 6,198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인력육성사업은 경쟁력 있는 선도적 경영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인력 확보에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774억원이 책정되었다.

1<표 2-1-> 2002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I. 사업성 예산	59,094	62,987	3,893	6.6
	1. 생산 기반 조성	21,908	21,515	△393	△1.8
	2. 농업 기계화	2,623	1,940	△683	△26.0
	3. 생산 및 유통 개선	10,834	8,341	△2,493	△23.0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2,250	2,580	330	14.7
	5. 인 력 육 성	2,855	2,774	△81	△2.8
	6. 농촌소득원개발등	3,984	4,342	358	9.0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7.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11,070	16,198	5,128	46.3
	8. 양 곡 지 원	3,570	5,297	1,727	48.4
	II. 채무상환성 예산	25,820	26,481	661	2.7
	1. 농 특 회 계 채 무 상 환	20,498	19,081	△1,417	△6.9
	2.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4,242	4,672	430	10.1
	3. 적 자 보 전	1,080	2,728	1,648	152.6
	III. 기 본 적 경 비	3,186	3,384	198	6.2
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		88,100 (92,777)	92,852 (94,502)	4,752 (1,725)	5.4 (1.9)
채 원 별	I. 일 반 회 계	24,758	31,624	6,866	27.7
	II.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349	56,342	△3,007	△5.1
	III. 재 정 용 자 특 별 회 계	1,327	2,133	806	60.7
	IV.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15	1,344	29	2.2
	V.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51	1,409	58	4.3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1,586	12,382	796	6.9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2,162	1,849	△313	△14.5

자료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고태수)

2. 15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특세사업은 경기의 침체등에 따라 전년보다 44.5% 감액된 1조 6,578억원이 책정되었다. 2002년 농특세사업 예산중 대구획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1.7%인 8,565억원 이었다.

농촌도로·하수도정비 및 주택개량, 폐수처리, 생활용수개발 등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예산과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료서비스, 공공도서관 건립, 직업훈련, 학자금융자,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 등 농어촌 생활여건개선·농업인복지증진 예산은 8,0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8.3%를 점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2<표 2-1->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2002)

(단위 : 억원)

구 분	15조계획	1994~2000	2001	2002	비 고
1. 생산 기반 정비	43,000	17,947	9,257	2,366	※2002까지 총투자 계획의 90.7%
2. 시설 현대 화	2,000	1,016	106	65	
3. 기술개발 및 정보화	5,040	3,295	520	526	
4. 정 예 인 력 육 성	2,500	1,263	61	65	
5. 유통 구조 개 선	14,550	9,697	4,236	2,414	
6. 생활환경·복지개선	66,225	42,916	11,234	8,013	
7. 어 업 구 조 개 선	13,535	10,031	3,896	2,554	
8. 임 업 구 조 개 선	3,150	3,459	544	575	
합 계	150,000	89,624	29,854	16,578	

주 : 합계금액에는 농특세 회계 채무상환액 제외
 자료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고훈수)

제 2 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 농업·농촌 투융자현황

2002년 농업·농촌 투융자실적은 8조 4,546억원으로 계획 대비 108.9%를 달성하였으며, 그중 지방비, 자부담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투융자 규모는 6조 7,851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농특·국특회계 등 정부예산 5조 3,765억원(79.2%), 농지기금 7,043억원(10.4%), 축발기금 4,905억원(7.2%), 농안기금 2,138억원(3.2%)순이다.

국고 투융자 집행액 6조 7,851억원은 당초 계획 대비 103.6%로 초과집행되었는데, 이는 농업경영자금 등 이차보전,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및 기금사업 등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3<표 2-1-> 2002년도 농업·농촌투융자 재원별 구성

(단위 : 억원)

	계획(A)	예산(B)	집행실적(C)	증△감		비율	
				B-A	C-A	C/A	C/B
계	77,618	91,952	84,546	14,334	6,928	108.9	91.9
국 고	65,512	74,464	67,851	8,952	2,339	103.6	91.1
지방비	7,383	10,928	10,828	3,545	3,445	146.7	99.1
자부담	4,723	6,560	5,867	1,837	1,144	124.2	89.4

자료 :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

지방비는 1조 828억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146.7%, 예산 대비 99.1% 달성하였다. 지방비 집행액이 당초 계획을 초과한 것은 사방사업, 육림사업의 증가로 인한 입엽부분과 농어촌 하수도, 폐기물 처리사업 등에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자부담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는 데 이는 전체 투융자 규모 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투융자를 기능·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표 2-1-> 2002년도 국고투융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계획(A)	예산(B)	집행실적(C)	증△감		비율	
				B-A	C-A	C/A	C/B
계	65,512	74,464	67,851	8,952	2,339	103.6	91.1
농림업공익적기능확충	21,644	25,629	25,562	3,985	3,918	118.1	99.7
건설한농림업경영체육성	11,624	10,854	11,634	△770	10	100.1	107.2
농림업부가가치제고	2,677	3,199	3,108	522	431	116.1	97.2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14,022	10,280	7,625	△3,742	△6,397	54.4	74.2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9,738	6,973	6,742	△2,765	△2,996	69.2	96.7
농업인경영안정지원	5,807	17,529	13,180	11,722	7,373	227.0	75.2

자료 :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

계획보다 집행액이 많은 사업분야는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118.1%),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100.1%), 농림업부가가치제고(116.1%),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227.0%)이며, 계획보다 실제 투자액이 적은 분야는 유통개혁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및 수출확대(54.4%),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69.2%)분야 등이다.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분야 집행실적은 각각 6,397억원, 2,996억원이 적게 집행되었는데, 이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 협동조합합병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등 유통분야 지원규모 감소와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분야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과 농업인 연금지원 규모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강형석)

2. 농업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2002년도 자체평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농업생산·유통체계의 개선” 등 11개 과제를 선정,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농업인·소비자 단체의 민간전문가 21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소비자단체 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였고, 8월에는 평가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농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행계획과 자체평가결과 심의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전체회의를 3회, 소위원회를 평균 3회 개최하였다.

농림부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2002년도의 경우 개선조치사항 총 36개중 조치완료 15개, 정상추진 21개 등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승민)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림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업무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역특화사업 예산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정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정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며, 기존의 하향식 사업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므로써 궁극적으로 농림사업 투자효율성 제고와 지방농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2001년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12개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실태, 농업분야에 대한 자체 지방비 투입실적, 친환경 농업·유통대책·수출촉진·농업정보화·지방농정조직운영, 농지조성비 등 체납 해소 실적 등의 주요 농정시책 추진노력, 농림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규정이행 실태,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의 현장점검결과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였다.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간의 업무추진방식을 상호 벤치마킹하도록 시도간에 관련 공무원들이 상호 교차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농림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지역특화사업비 중 150억원을 차등지원하였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농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03년도 평가지침을 대폭 개선하였다. 농림업무 평가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 평가를 통합하였으며, 차별화된 시책 추진실적, 지역농정 현안대처노력, 이미 지원된 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등을 새로운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한편, 그 동안 평가결과 비교적 양호하게 개선된 관련규정 이행실태평가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등의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형)

3.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농림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하였다.

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유도 및 규모화 추진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농지매매사업을 청장년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연령을 61세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한도도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는 10ha, 우수경영체는 15ha로 상향조정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주산단지·집단화된 밭 30ha이상을 우량지구로 우선 추진토록하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과거에 경지정리하지 않은 지구중 집단화된 농지가 100ha이상인 지구를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등 대규모 지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연령의 상한을 75세로 설정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요건은 완전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도시만 지급하되 5년이상 임대시 영농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71세이상 고령농에 대하여는 임대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소득안정망 구축사업 보완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업의 보완 등 개선을 추진하였다.

직접지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친환경직불 : ('02) 524천원/ha → ('03) 유기·전환유기794, 무농약674
- 경영이양직불 : ('02) 2,810천원/ha → ('03) 2,890
- 사과, 배 재해보험 전국확대(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는 주산지 중심)

또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로 확대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였다.

다. 농림사업 추진상의 제한 완화

3,000만원이상 관광농원, 농촌민박 및 농기계구입지원을 종합자금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신청자격을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완화하였다.

또한,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민간에 허용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한·지원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라. 사업집행관리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보강

실적과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토록 하고, 지도감독 강화 등 사업추진체계를 보완하였다.

- 축산분뇨 : 보조·융자 지원후 시공·납품업체에의 입금확인서 제출 의무화
- 농업컨설팅 : 자부담금 입금 확인후 보조금 지급
- 후계농업인육성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지원이 없더라도 15년간 사후관리
- 농기계구입 : 휴업(사후봉사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힌 업체는 제재조치 (정부지원 농기계 제외 또는 지원한도액 하향조정)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오영)

제 3 절 농림행정 쇄신 · 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1. 농림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1998~2002(5년)간 국민의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3월 1일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4월18일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 규제수를 대폭 감축하고 신설 · 강화하는 규제를 억제하여 당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8년 8월 농림분야 총 등록규제 682개 중에서 규제폐지 등으로 380개가 감소하였고, 신설 · 누락규제 발굴 등으로 188개가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 490개 규제가 등록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농지법 · 령 · 규칙, 농약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 규칙, 식물방역법시행령 · 규칙,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규칙,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시행령 · 규칙 등 24개 법령 및 고시에 대해 신설 18건, 강화 9건, 내용심사 12건 등 총 3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고, 이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9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2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신설규제는 18건이었다.

2002년도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농업분야의 WTO 재협상 등을 앞둔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고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농업관련 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02년 12월 18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 5ha를 폐지하였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소유 허용과 함께 비농업인이 주말 · 체험농장용 농지를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거래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이상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농지의 분할을 허용하도록 농지법 등을 개정 추진하였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허원석)

2. 농림조직의 개편

가. 농림부

(1)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2002년 6월 26일 종전에 책임운영기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농림부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의 정원을 직급별에서 계급별로 변경하고,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의 직급별 정원과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자체내부규정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자체확보 할 수 있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초과수입금을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6666호, 2002.3.2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637호, 2002.6.25)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5호, 2002.6.25)>

(2)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국 조직정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시장개방확대로 축산물수급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으로 전환되는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의한 손실이 축산업은 물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 조직을 보강하는 등 농림부 축산국 일부기구 및 기능을 재정비 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5호, 2002. 8. 24)>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국의 「축산유통과」와 「가축위생과」의 과명칭을 「축산물위생과」와 「가축방역과」로 변경하고 「축산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축산관련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분뇨처리대책 업무를 「축산경영과」로, 「축산경영과」의 가축개량업무를 「축산정책과」로 상호 이관하고, 「축산정책과」에 소·돼지·닭을 제외한 가축사육의 육성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분산관리하던 소·유우·돼지·닭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개선과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기능을 「축산경영과」로 일원화 하였고

「가축위생과」의 축산물관리업무와 「축산경영과」의 사료관리기능을 「축산물위생과」로 이관하여 축산물 및 사료의 위생·품질·안전성관리 기능을 일원화 하였다.

(조직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병은)

나. 농촌진흥청

(1) 농업생명공학연구 전담기구 신설 등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으로 연구기능 재정립과 첨단농업 과학기술개발 연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총무과의 인사업무와 기획관리관실의 조직관리업무를 하나로 묶어 기획관리관소속하에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조직을 개편하였다.

- 농업생명공학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에는 생명공학기획조정과를, 소속기관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생물자원부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각각 신설하고 작물시험장,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각각 생명공학연구 관련과를 신설하였음
- 농촌진흥청 소속인 농촌생활연구소를 농업과학기술원 소속으로 개편하면서 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가공이용과를 신설하여 전통식품자원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제주농업시험장의 감귤시험장을 폐지하고 감귤과와 식물환경과를 신설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하여 1기관 5개과 체제로 개편함

- 영농현장중심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교육직 공무원 9인(교수 5, 조교 4)을 증원함
-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인력 25인, 행정요원 1인, 전산요원 13인, 사서요원 1인을 증원하고 기능직 38인을 감축하였으며 연구사 20인을 연구관으로 직급 격상하였음

(2) 책임운영기관 관련

농촌진흥청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농업기계화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관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7638호, 2002. 6. 25),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16호, 2002. 6. 25)>

(농촌진흥청 행정법무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대환)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 농·축산물의 품질보장과 안전,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농어촌환경 및 자원의 보존 등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농림분야 법령 제·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2002년중 총 13개의 농림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소싸움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등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또한 소싸움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투표권(우권)을 발매할 수 있으며, 소싸움경기장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및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등의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공포 : '02. 8.26, 시행 : '03. 2.27)

나.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현재의 추곡수매제도는 WTO보조금 감축에 따라 매년 수매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국내 수급동향과 국제협상 동향을 감안할 때, 향후 쌀 가격은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에 하락분의 일정 수준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쌀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하였다. 쌀소득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정부와 쌀소득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액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에 일정한 보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다.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기금을 설치하였고 동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농업인 등의 납부금,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다. (공포 : '02.12.11, 시행 : '03. 1. 1)

다.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

농약관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행사하여 왔으나,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업자는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농약품목을 별도의 품목 등록없이 위탁받아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은 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가 사람·가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포 : '02.12.11, 시행 : '03. 6.12)

라. 농지법중개정법률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5ha)을 폐지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여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12.18, 시행 : '03. 1. 1)

마.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

산림조합중앙회는 2003년 5월 1일부터 지역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이 금지되었으나 경합사업 허용기간을 5년 연장하였고, 조합장 선출방법에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총회외의 방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조합의 목적사업에 벌채, 조수보호사업,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등산로, 수렵장조성·관리 등을 추가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포 : '02.12.18, 시행 : '03. 5. 1)

바.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기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공포 : '02.12.26, 시행 : '03. 1. 1)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사.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며,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공포 : '02.12.26, 시행 : '03. 1. 1)

아.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자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공포 : '02.12.26, 시행 : '03. 6.27)

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

농가의 방역의무사항을 명문화 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였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거래시 기록을 유지하게 하고 이동시 검사·주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다. 소독의무화 대상 업체, 차량 등을 확대하고 농장·마을단위로 질병관리 등급 부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출입통제 대상에 사람·차량을 추가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지연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및 사육제한 명령규정을 신설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외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12.26, 시행 : '03. 6.27)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차.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산림안의 목재자원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와 산지목재 비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12.26, 시행 : '03. 6.27)

카. 축산법중개정법률

정액 등처리업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축산업의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공포 : '02.12.26, 시행 : '03.12.27)

타. 산지관리법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법률을 제정하였다. 주요 산줄기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지 등은 산지 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산지전용 허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지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채석허가를 받은 지역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도 산림피해 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 '02.12.30, 시행 : '03.10. 1)

파.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중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염분농도 등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비료생산업자의 범위를 현행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하여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포 : '03. 3.19, 시행 : '03. 6.20)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홍수)

제 4 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1. 협동조합 개혁

가.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직후인 2000년 10월 9일 공동으로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협동조합 2단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단계 협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은 중앙회는 사업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문화·경량화하여 회원조합 및 조합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 체질을 강화하고 경제·유통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27개 개혁과제(중앙회 23개, 회원조합 4개)를 선정하여 2002년말 현재 21개 과제를 완료하고 6개 과제는 추진중이다.

우선, 중앙회의 일부 경제사업장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화하고, 중복 금융점포 통폐합,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 및 잉여인력 구조조정 등과 함께 대표이사별 경영계약제 등을, 일선조합은 부실조합정리,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상임이사제 및 운영평가자문회의 확대 등 경영건전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나. 그 동안의 추진실적

< 농협중앙회 >

2000년 7월 1일 통합이후 2002년 12월말 현재까지 중앙회 조직과 기능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슬림화를 추진하여 인력 899명 감축, 중복금융점포 64개소 폐쇄, 양재동사육 등 고정자산 107건 4,069억원 매각,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조직 및 인력운용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4개 부서, 집행간부 1명 및 정원 854명을 추가로 감축하였다.

농·축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농산물공판장 13개소 및 축산물공판장 4개소를 각각 중앙회내의 단일 분사화 하였고, 전국의 포장육 가공사업소 폐쇄 또는 이양, 수도권 축산물판매장의 (주)농협축산유통으로 일원화 등 유통·경제사업장 정비를 추진하였다.

(주)부산경남유통과 (주)충북유통의 농협중앙회 지분을 (주)농협유통으로 양도하여 (주)농협유통을 지주회사 형태로 하여 농산물 물류 통합과 함께 단계적인 조직통합을 추진하였다.

중앙회 가공공장의 조합 이관 또는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안산사료공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였고, 나머지 8개 사료공장을 단일 자회사화 하였으며, 청양 유가공공장을 매각하고 유가공분사를 폐쇄하였다.

이러한 강도높은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통합 이후 2001년 3,804억원, 2002년 5,935억원 등 3년연속 흑자를 실현하였고, 중앙회 이익금 6천억원 이상을 회원조합 지원에 사용하였다. 신용사업 경영건전성 지표인 BIS비율도 2002년 말에 10.77%로 통합전의 9.12%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일선 조합 >

일선조합도 중복 지사무소 236개소 폐쇄, 인력 2,789명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평가자문회의(473개 조합), 사외이사제(128개 조합) 및 상임이사제(65개 조합) 등을 도입하였다.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부실예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이 2001년 9월 1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공포(2001.12. 15.) 하고, 동 법령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보험요율과 결제성예금의 범위를 고시(2001.12.22.)한 데 이어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적용할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고시(2002. 1.29)함과 동시에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2002. 1.29)을 제정함으로써 일선조합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2002년 1월에는 동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농축협조합장, 농민단체, 정부, 국회, 학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하고,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전담조직으로 농협중앙회에 '조합구조개선단'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일선조합의 부실정리를 위한 제도와 체제가 모두 갖추어짐에 따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결산과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7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고 적기시정 조치를 하였다.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재무구조개선과 합병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총 197개 부실(우려)조합중 47개 조합에 대하여 합병을 권고·요구하거나 명령하였고, 나머지 150개 조합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을 권고하거나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합병권고·요구·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지사무소 폐쇄, 출자금의 감액 등의 합병이행요건을 부과하고,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 등 재무비율 개선, 지사무소 통폐합 및 불용자산 처분 등 재무구조개선 조치,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경영합리화 조치 등을 권고 또는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2002년도에 38개 조합이 합병을 완료하였고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 중 55개 조합이 정상화되었으며, 1개 조합이 사업정지후 파산으로 퇴출 되었다. 또한 조합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1조원의 자금을 자체 조성하여 100개 조합에 5년간 무이자 대출 기준으로 9,025억원(5년 무이자 대출 8,203억원, 출연 222억원)을 지원하였다.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조치내용 >

구 분	발 동 기 준	경영개선조치 내용
경영개선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본비율 0%미만 ○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평가 등급 4등급 ○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평가 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경비절감 ○ 지사무소 운용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 ○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의 진출, 신규 출자의 제한 ○ 자기자본의 증대 및 이익배당의 제한 ○ 합병권고 ○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예금금리 수준의 제한 ○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경영개선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본비율 -7%미만 ○ 경영상태 종합평가결과 평가 등급 5등급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조합 ○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직무정지 ○ 조직·인력의 축소 ○ 지사무소의 폐쇄·통합 ○ 사업의 일부 정지 ○ 합병요구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 등에 관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 ○ 경영개선권고에 의한 조치사항
경영개선 명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본비율 -20%미만 ○ 예금등의 지급,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합병명령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 ○ 경영개선요구에 의한 조치사항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한편, 일선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계약이전, 합병 등의 방법으로 부실조합 정리시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함으로써 조합부실 정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립(2002. 8. 1.)하였다.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등 추진결과 조합의 경영안전성이 제고되어 적자조합이 2001년 110개에서 2002년에는 79개로 감소하였고, 적자규모도 2002년에 1,199억원으로 전년대비 206억원이 감축되었다. 전조합이 2002년말 기준 신용대손충당금을 100%이상 적립하고 조합전체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1,990억원 증가한 4,195억원을 실현하였으며, 자기자본은 5조 49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농업금융개혁의 지속추진

농림부는 「농업금융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내용을 바탕으로 2001년 4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4대분야(상호금융, 정책금융, 농신보 및 인프라, 중앙회 신용분야)에 걸친 농업금융개혁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업금융개혁 방안에 따라 총33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연도별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조합 상호금융개혁과 관련,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시중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였다. 신규대출금리는 2001년 12월 8.66%에서 2002년 12월 7.84%로 $\Delta 0.82\%$ 인하하였으며, 11% 이상인 고금리 운용조합은 특별지도를 통하여 대폭감축('01.12월 : 180개 조합 → '02.12월 : 22개 조합)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 담보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운용되고 있는 농신보담보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조합이 자체적으로 농업용 저금리자금을 공급토록 하여 2002년말 현재 54,796억원(평균금리 8.11%)을 지원하였다. 한편, 회원조합의 선진대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적정보와 과거채무상환형태 등 각종 신용정보를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종합하여 대출상담에서 실행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신용평점시스템(CSS)을 구축하고 200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인하함으로써 농업인의 금리부담을 덜어주었다. 관광농원개발 등 16개 사업의 금리를 8.0%에서 5.5%로, 농지 매입자금 등 2개 사업은 4.5%에서 3%로, 미곡처리장 운영자금은 5.0%에서 0.0%로 각각 인하하는 등 총 19개 사업의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는 농업종합자금 등 37개 사업의 금리를 5.0%에서 4.0%로 추가로 인하하였다. 한편 지난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확충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농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신보 운용배수를 17배에서 20배로 확대하였으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하여 1억원 초과 개인보증시에도 연대보증인 입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형 합병은행의 출범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금융환경 속에서 BIS비율 제고를 위하여 후순위 농업금융채권 5,500억원을 발행하고, 임직원 우선출자 실시 등 자기자본을 증대하는 한편, 위험가중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2002년말 BIS비율은 10.77%로 3년연속 우량은행 수준인 10%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산건전성은 부실채권 상각 및 부실여신의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대비 0.9%p 감소한 1.7% 수준을 유지하여 은행권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력감축, 점포정비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기반구축을 위해 인력양성, 생산성·수익성을 고려한 조직개편, IT(정보기술)투자강화,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추진

농림부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농협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02년 6월 29일 한국금융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농협법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법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연구결과의 국회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신경분리 추진을 위해 각계 대표를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림부는 농협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99년 9월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02년 말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추진협의회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협동조합 관계자·학계·농업인단체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기관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을 선정하고, 그 이후 7차례의 신경분리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연구내용 및 진행과정을 논의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진협동조합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일본, 대만의 협동조합, 네덜란드 라보뱅크, 농업협동조합협의회(NCR),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Credit Agricole), 전국농업신용협동조합연합회(FNCA), 독일 지역협동조합은행(Vereingte Volksbank), 덴마크 협동조합연합회(SDA)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신·경분리에 대한 농업인, 학계, 농업인단체, 협동조합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신·경분리토론회(2001.12.27) 및 신·경분리 간담회(군산 : 2002.1.30, 상주 : 2002.2.1)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현행 농협체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 위주의 경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가 미흡하고 인력·자본·회계책임경영체제 미흡, 전문성 부족, 조직의 비효율성 등이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가 필요하나, 현행 농협중앙회 조직을 당장에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에 제기되는 막대한 자금의 소요 등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현행 농협체제 내에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신용·경제사업의 분리효과를 거두고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 여건이 성숙되면 2단계로 3개 법인(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으로 완전 분리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농협법 규정에 따라 2002년 6월말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의 분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농업인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1단계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2년이내에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류이현, 박범수)

2. 농업기반공사

가.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

2002년은 공사 출범(2000.1.1) 후 2년간 다져온 경영안정화 기반 위에서 전략적 사고의 대전환과 지식·정보화 경영체제를 실용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경영의 중점을 두고 다양한 경영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공사의 사회적 위상을 산업·국토 균형개발의 주체와 지역경제활력의 동반자 역할에 두고, 공익의 봉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활동영역도 부문·지역적인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화부문을 통한 영역확대 등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경영체질개선, 사업구조개선, 고객서비스 혁신 등 4개 부분의 14개 전략과제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재무전략을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수립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내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정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단위 조직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직무분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고정관념과 관습에 의존하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업무추진 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업무처리의 합리적인 개선, 권한위임 등 총 121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부서장의 경영계약제, 책임사업조직제도, 목표관리제도(MBO), 경제적부가가치제도(EVA) 등 선진 경영기법 도입 및 지식경영(KM) 실용화와 함께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에 근거한 정보인프라 구축과 경영관리정보, 인력통합정보, 재무통합정보, 사업지원정보, 조사계획정보, 공사관리정보, 유지관리정보 등 공사의 7대 핵심 기간업무의 정보시스템 통합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경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문화 재정립운동 등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특히, 공사내에 존치된 노조를 2002년 4월 하나로 통합한 새 집행부를 출범시킴으로써 통합초기의 갈등과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고 상생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물관리체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용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서비스 증진과 안정영농 지원은 물론, 기상이변으로 더해 가는 가뭄과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2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하였으나 전 직원이 비상근무 및 “긴급수해복구반”을 가동하여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 동원하는 등 재해복구에 진력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리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시설물 설계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21세기는 환경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환경경영」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조사·설계·시공 등 전 사업과정에 친환경개발 기법을 적용함은 물론, 총 30여 친환경 과제연구와 7건의 환경 친화적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명예환경감시원과 수질오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촌용수 수질오염 방지 및 농지의 오염·훼손 감시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농지오염방지 기초조사사업 추진, 지하수·토양환경 조사·평가·복원사업 참여 등 환경분야 신규사업에도 적극 진출하는 등 친환경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고객만족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고객존중 마인드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전국의 핵심농가 3,903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중심의 고객밀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물관리 운영대의원 참여자를 970명에서 1,31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15,376개소에 용수관리회를 신설하여 고객의 직접참여 유도과 현장 서비스 사후만족도 확인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 농업기반공사는 출범이래 3년간 연평균 10%이상의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함께 통합초기의 여러가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등 경영의 안정화가 조기에 정착되어가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조직정비 및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보화와 연계한 업무혁신 등을 통하여 2002년도 1인당 노동생산성을 통합전 대비 20.9%p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2002년도 고객만족도지수(NCSI)의 경우 65.8점으로 조사되어 2001년 62점보다 3.8점이 향상되었다.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한 이와 같은 경영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개혁의 노력과 성과는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으로부터 공기업부문 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 향후 발전방향

농업기반공사가 21세기 초일류 공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부 경영혁신 노력에 힘입어 경영안정화 기반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영업손익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인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만성적 적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 및 경영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조직으로의 체질개선과 함께 직무능력개발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체계 확립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다.

농업기반공사는 4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특정사업 위주로 매출액 규모가 편중되어 있고 정책사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자율경영 기반이 취약한 실정으로 기업으로서 안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집중화와 함께 자립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개발 및 신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통합공사 출범으로 농업인이 기대하는 서비스 요구수준이 대폭 상승된 만큼 이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면서 농업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공기업”, “21세기를 선도하는 모범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사장직속으로 「비전 2005 위원회」를 설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신뢰·참여·현장농정」을 실행하고 농업·농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과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화 및 자립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의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요 역할이다. 최근 한·수해 등 자연재해 극복과정에서 사전 재해대비 능력강화의 중요성이 증점적으로 부각된 만큼, 공사는 전사적인 재해대책 추진조직을 재점검하고 재해상황 발생을 대비한 가상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돌발사태 대비능력을 키우는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시공중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하여는 이상호우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종합적인 재해관리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있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을 강화하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보강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농업인에게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의 공간이 식량생산 위주에서 환경·관광·휴양 등 다원적 기능의 공간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농촌지역 개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촌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농촌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개발의 주역인 농업기반공사는 그동안 농촌지역개발업무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정부의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 및 입지 등 개발여건에 따라 특성화 유형을 설정하고 소득원개발 등 관련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다양한 모델개발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기반공사가 “21세기 한국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적 농어촌개발·용수관리 전문공기업”이라는 경영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혁신, 그리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인간·기술·환경의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기반공사가 보다 안정화된 경영조직 속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고객지향의 경영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객중심 사고로의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정책과 서기관 이세열)

3.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업기관으로 1998년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 등 4대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성실히 이행하여 작지만 강한 공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전진기지로서 농업분야 전문 전시·컨벤션센터인 aT센터를 개장하여 수출기능을 대폭 강화하였고, aT센터 운영관리, 농산물 국제박람회 참가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비절감과 더불어 핵심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통공사의 수출기능 강화를 통해 2002년 구제역과 사스, 이라크전 등 어려운 대내외 수출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6천만불 상승한 16억4천만불의 농산물 수출을 이루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또한 MMA쌀 도입 업무확대 및 시장개방에 대비한 공사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영무역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쌀과 옥수수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남북간 농산물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핵심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경영혁신 추진을 통해 유통공사는 구조개혁 전인 1997년말 부가가치율이 19%이던 것이 2002년말 54%로 높아졌고, 1인당 부가가치도 47백만원에서 63백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대폭적인 생산성 제고를 가져왔으며, 정책자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138%에서 54%로 크게 낮아지는 등 제반 경영성과 지표가 대폭 호전되었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강상구)

4. 한국마사회

가. 급격한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공정한 경마의 시행과 경마의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는 2001년 1월 농림부 환원을 계기로 마사회 운영방안에 대해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증대된 관심과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2001년 4월~6월에 걸쳐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과제를 설정·추진해왔다.

특히, ① 지방 경마장 및 지점확충을 통한 경마의 전국화·대중화와 경마 인프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경마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한국경마의 국제화를 통해서 경마의 양적, 질적 성장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② 경마 접근 방법 및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경마팬 만족도 제고와 공원기능 강화로 관람 및 놀이문화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여 경마팬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③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이미지 확산을 위한 지속적 홍보와 특별적립금 출연 및 기부금 집행 등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여 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이미지를 혁신하고, ④ 자율적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경영혁신 및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 및 지식경영체계의 도입, 인사관리체계 혁신 및 인재육성 교육체계 개발을 통하여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나. 주요 경영개선 실적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륜, 경쟁, 카지노, 로또복권 등 동종산업내 타 업체의 매출이 크게 신장하는 등 보다 경쟁적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2002년 경마산업 전반에 걸쳐 큰 폭의 경영실적 향상을 실현하였다. 이를 경마의 사회적 기여도 확대, 자율·책임 경영 강화, 경마의 공정·건전성 확보, Customer First 실현, 경쟁우위의 지속적 확보 및 경마의 선진화 추구로 세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마산업의 신장 및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이미지 개선

2002년도 경마사업은 장외발매소 이전·신축의 지속적 추진 및 전화투표시스템 ARS발매회선 확충 등 경마팬의 접근성과 마권구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경마의 대중화 및 매출액의 대폭 증가 등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 2002년도 입장객 : 16,280천명(2001년도 : 12,971천명)
- 2002년도 마권 매출액 : 76,491억원(2001년도 : 60,187억원)

매출액의 증가와 경영개선을 통한 이익금의 증가로 축산발전기금 출연, 농어촌사회복지분야 지원 등 사회환원 규모가 1,593억원으로 전년대비 23.2%증가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세납부금액도 전년대비 24.3%증가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특별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50%→60%)하여 앞으로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02년도 제세납부금액 : 1조 5,499억원

또한 경마공원의 시민 휴식공간화, 장외발매소의 문화교실 확대, 전 지점의 시설을 개방하는 ‘문화센터 운영지침’ 제정, 무료 승마 강습횟수 증대 등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인 유도·탁구·승마선수단의 육성·강화를 통하여 국가 스포츠와 국민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부산아시안게임 승마경기를 지원하여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였다.

(2) 자율·책임 경영 강화

마사회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실현을 위하여 레저세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 및 경마 환급율 인상 등 관련 법규의 개정애 노력하였고, 세부 경주계획에 대한 정부승인 폐지 및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자금차입과 상환, 무료입장범위 등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 2001년 도입한 책임본부장제도를 기초로 책임경영체제 수립, 능력과 성과 중심의 개인평가제도 시행, 직원출신 상임이사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였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 실시,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 실시, 기부금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였다.

(3) 경마의 공정·건전성 확보

착순변경, 실격제도 등 국제적 경주규칙 엄격 적용, 특별감시용 카메라 추가 설치, 금지약물 투여 예방 강화 및 약물검사 수준 향상, 마필관계자와 경마기자들간의 공개인터뷰제 및 마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주마 훈련내용 공개로 정보왜곡 차단, 경마비위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신고포상금 증액, 마주의 등록취소 근거 신설 등 공정경마를 구현하였다.

또한, 「초보자 경마교실」, 「시청각 경마교실」운영하여 건전 경마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경마중독자 재활을 위한 「경마상담실」의 연중 운영, 고대안암병원과 삼성강북병원을 중독치료 위탁병원으로 운영하고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마중독자 재활지원과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4) Customer First 실현

관광마차 및 놀이기구 운영과 벚꽃 축제(4월), 어린이날 시설 개방 및 경마팬의 날 행사(5월), 서울 및 제주 경마공원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월드컵 응원행사개최(6월), 야간경마축제(7-8월) 등 다양한 행사 실시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정문-관람대간 경마팬 이동용 전용도로 설치, 서울경마장의 공원화 조성 추진, 투표환전제도 개선, 경마팬 1일 명예재결위원 제도 도입 등 고객모니터 제도의 활성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경마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마시책에 반영하는 등 고객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 경쟁우위의 지속적 확보 및 경마의 선진화 추구

복연승식 도입과 쌍승식 확대 등 투표방식 다양화 및 환급률 인상 추진, 사내 인트라넷(E-Portal)을 활용한 제안제도 활성화, 부산·경남 경마장 건설, 신관람대(럭키빌)의 개장·운영, 서비스 환경 차별화 및 비수도권 거주 경마팬의 경마관람 접근 용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이전 및 확대 설치, 마권구매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 확충, 신발매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쟁산업에 대한 경쟁우위의 지속적 확보를 도모하였다.

또한, 우량 씨수말을 확보·생산농가에 무상 교배 지원, 농가생산 6개월령마의 조기 수매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경주결과 1~3착 국산마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등 국내 마필 개량 및 경주마 생산을 지원하였다.

- 2002년 경주마 자급률 : 552두로 75%(1994년 : 35두로 8%)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주영)

제 5 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1. 설치경과

2001년 11월 14일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함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의 추가 감축 등 시장개방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불안과 교육·의료·복지여건의 미흡으로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어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농업인, 학계·전문가들과 더불어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대부분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만, WTO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제226회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 발의('01. 12. 19)되었고, 곧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동 법률안이 통과('01. 12. 27)되어, 국무회의 의결('02. 1. 22)을 거쳐 2002년 1월 26일 공포·시행되었다.

2. 위원회 구성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이 위촉(2.7)되었고,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어업인단체 대표 9명, 소비자단체 대표 4명,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9명이 위원으로 위촉(3.6)되었다.

또한 본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3.22)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농어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등 14인으로 구성하였고, 분야별 과제 검토를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제1분과위는 농업 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및 수출촉진 분야, 제2분과위는 직접지불제, 가격안정장치 등 소득안전망 확충 분야, 제3분과위는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 분야, 제4분과위는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분야로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3. 위원회 활동

2002년 3월 6일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수차례 분과위 및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6월 17일 열린 첫번째 본위원회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가격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민간 유통활성화 및 시장안정을 위한 “쌀산업종합대책” 안건이 상정되어 2002년산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수확기 물량 흡수를 위한 수탁판매 지원, 2002년중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 2003년 양곡거래소 개설 등이 의결되었다. 두번째 본회의 안건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농지제도 개선”이 상정되어 농업진흥지역밖에서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300평 미만) 허용 등이 의결되었다.

2002년 7월 24일 제3차 본위원회에서는 수확기 시장안정과 수매에 대비한 창고 확보를 위하여 “쌀 재고처리 특별대책”이 상정되어 쌀 400만석 조속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1998~1999년 고미의 사료용 공급, 북한 식량지원의 계속 추진,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원조 등이 의결되었다.

2002년 9월 18일 열린 제4차 본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발전과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21C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이 농특세 목적에 맞게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추어 보험료 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수확기 쌀가격 하락시 정부와 농업인이 각각 일정액을 각출하여 조수입 감소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상정 논의되었으나, 보전비율 등에 대해 위원들간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생산조정제의 경우도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미합의되어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과 생산조정제의 한시적 실시문제를 추후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 23일 제6차 본위원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특별연구단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농어업특위에서 검토·심의하여 상정한 2011년까지의 중장기 대책인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안)」을 의결하였다. 이 대책은 농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DDA 농산물협상 등 대내외 농정여건이 어려워지는데 대응하여 우리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설치 근거법에 따라 농림부 차관(어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1,2,3,4분과의 각 분과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분과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을 겸하여 분과위원회 검토결과가 상임위원회 심의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1급과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그리고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등 14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차 회의는 2002년 3월 22일 개최하였으며, 총 12차례 회의를 하면서 22개의 안건을 심의하였는 바, 본 위원회에 상정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나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조율하면서 필요시 소관 분과 위원회에서 검토 후, 재상정토록 하였다

분과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제1분과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유통효율화 및 수출촉진분야를, 제2분과는 직접지불제 및 가격안정장치 등의 소득안정망 확충분야를, 제3분과는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분야를, 제4분과는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다루는 기능으로 구분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분과는 분야별(쌀, 원예, 축산, 임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23명의 위원이 2002년 4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해서 2002년 10월 2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쌀산업 대책, 농지제도, 축산, 임업 등 산업별 대책, 농정의 패러다임,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협동조합 발전방향 및 농업금융시스템 등 21개의 핵심과제를 심의하였으며, 제2분과는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직접지불제, 가격안정, 농외소득 개발, 해외농업개발, 농작물 재해보험, 친환경농업, 농가부담경감 등에 대한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2002년 4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7일 제9차 회의까지 분야별로 10개의 안건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접지불제 확충, 농가위험관리 및 경영안정 프로그램과 친환경 농업 등이다.

제3분과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 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개발 및 교육을 포함한 농어촌보건·복지확충 등 23과제를 설정하고 학계, 연구·행정기관,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4월 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18일 제9차 회의까지 총 25개 안건을 심의하여 농어촌 개발거점 육성, 경관보전 협약, 농어촌 학교 개선방안 및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검토 등 여러 가지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제4분과는 수산업이 처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지향적인 수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계의 수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였다. 2002년 4월 4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2002년 10월 11일 제8차 회의까지 47개 안건을 심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확대하는 등 자원관리 강화와 어선감축, 자율관리 어업 등의 과학적 관리·이용체계 구축 및 어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앞으로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농어촌 교육개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농어촌복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농업정책과 서기관 권재한)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제 1 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가. 농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 추진

(1) 수립배경

정부는 UR/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이제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난 1992년부터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자동화, 현대화 등을 위한 농업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말 발생한 IMF 경제위기는 경영비의 대폭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을 초래, 이제 막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던 농업인들은 투자액의 원리금 상환마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 과일가격의 하락, 가축질병(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한 돼지가격 하락,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마늘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IMF이후 국내경기가 위축되어 농산물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농가부채 문제가 심화, 농업인들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도 IMF 경제위기이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대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보증 해소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태풍 등 잦은 자연 재해와 경기위축 등으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농산물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상존하여, 지난 2000년 12월 20일 여·야 합의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2001년 1월 8일 공포·시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2001~2002년도 농가부채대책 내용 및 추진경과

〈 2001년 부채경감특별대책 주요내용〉

- ① 2001~2003년 중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 6천억원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②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9조 6천억원을 연리 6.5%, 5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
- ③ 2000년도에 1조 8천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1조원을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 ④ 주채무자의 파산, 사망, 도주 등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특별자금 5,000억원을 지원
- ⑤ 주 채무자의 연체로 인해 연대보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연대보증인을 위하여, 이 법의 시행으로 채무 연체를 해소할 경우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체
- ⑥ 협동조합 자율로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
- ⑦ 중장기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납부이자의 20%를 환급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농업인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부채문제를 유예하였으나, 농업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차입금에 의존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등 37개 사업의 정책자금 금리를 1%P 인하(5→4%)한 바 있으나, 부채대책의 정책자금은 인하되지 않은 점을 감안,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2002.12.26), 2003년 1월 1일부터 부채대책자금 중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를 연 4~5%에서 1~2%P 인하한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도 연 5%에서 2%P 인하한 3%로 하였다.

아울러, 부채대책으로 지원받은 자금(중장기정책자금, 상호금융저리대체, 농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을 1년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을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부채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였다.

2001년 시행된 농가부채대책은 「玉·石」을 가려, 성실히 영농을 해왔으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부채상환능력이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지원금액 1억원이상 고액부채에 대해서는 실제 자금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농업용 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연체자라도 회생이 가능한 농어업인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농어촌사회의 연쇄도산 고리를 단절하였다.

정상 채무상환 농업인인 경우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농업인의 지원대상자 자격여부와 자금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지원 규모를 심사하였다.

연체농업인의 경우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농업인의 자격여부와 자금용도를 확인하여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협동조합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채권을 정상화 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후 부채대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아울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시 1999.4/4분기중 상환한 금액의 잔액을 포함하였으며, 신청접수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0월말로 두 차례 연장하였다.

또한 중앙회 자금 및 경제사업 채무에 대해 농협자체적으로 분할상환토록 하였고, 농업용 상호금융부채 전액(당초 70%)을 저리자금 대체지원 하였으며, 대출실행기간이 당초 2001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농민단체, 대출취급기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에게 대출실행기간을 2002년 8월말까지 4차례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부적격자 지원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자금회수, 대상자지정 취소 및 재심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여 부채대책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였다.

(가)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중장기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업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통상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정책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단기 회전성 자금(영농자금)과,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주택개량자금 등), 그리고 지원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자금(농지구입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지원대상 자금은 1998~2000년 기간 중 상환 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과 2001~2003 기간 중에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3조 6,113억원(2001 : 13,857, 2002 : 11,261, 2003 : 10,995)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당초 상환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협동조합 자금으로 신규대출 받아 상환하고, 신규대출 받은 자금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하면 된다. 이때 협동조합에서 신규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의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2001년도에 7,900억원이 상환 연기되고, 5,843억원이 인센티브를 받고 정상상환되었다. 당초 상환 도래액의 20% 수준이 정상 상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상상환 인센티브에 대한 호응이 높아 도래액의 42%가 정상상환되었으며, 2002년에는 예·적금 금리인하(5%내외)로 인한 대환금리와의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차이 미미, 상호금융 저리대체, 정상상환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정상상환 비율이 78%로 증가되었다.

(나) 금리 11~12%대의 농어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9.6조원을 5년간 연리 6.5%로 저리대체

당초 특별법 시행일 현재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70%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침을 보완(2001.11)하여 전액 저리대체 지원하였다. 또한 법 시행일 현재 연체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영회생이 가능할 경우, 이후 연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한내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상호금융저리대체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지원자금으로 기한내 이자를 우선 정리토록 하였다.

총 지원액은 계획금액 9조6,300억원 대비 84% 수준인 8조1,190억원으로 이는 안정된 직장 보유자, 금융자산 과다보유자, 가계자금,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고급 자가용승용차 보유자 등이 심사결과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다)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2000년 1.8조원을 지원한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은 부도나 파산위기 등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 자금은 준전업농 규모이상이거나 농업용 대출잔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업경영체로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었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타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한 기존 대출금 대체용, 신규 운영자금, 연체해소용, 대위변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총 지원계획 2조 8,000억 대비 2조 5,000원이 지원(2000년도 1조 8,000억원 지원)되어 89%의 실적을 보였는 바, 이는 연체자일 경우라도 경영평가결과 회생가능 하다고 판정될 경우 지원되는 자금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도 타행자금·비농업용 자금연체, 경제사업 채무 신용한도 초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라) 연대보증 피해 농업인에게 특별자금 5,000억원 지원

2000년 3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인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약 30만호의 농가를 연쇄도산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사망 등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주 채무자의 무자력·파산·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거나 주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신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리 5%(2003년부터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5,000억원 계획에 4,962억원(계획대비 99%)이 지원되었다.

(마)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 지원

특별법 시행일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으나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연체 해소자금 지원을 통해 채권을 정상화시킨 다음 연대보증을 선 농업인의 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을 해소시켰다.

(바) 정상채무 상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채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농어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2001~2003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에게 상환액에 대한 납부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어, 2001년 38억, 2002년에는 71억원의 이자가 환급되었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최재혁)

나.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

(1)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변동의 차가 크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 농가의 경영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2001년에 처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도입하였다.

(2) 추진 경과

1999년 9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가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도입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0년 3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3월 1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3) 추진 실적

2001년에는 피해통계가 어느정도 축적되어 있고, 농가의 전업화가 진진되어 비교적 보험도입여건이 양호한 사과, 배를 대상으로 하여 2001년 3월부터 주산지 중심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행 첫해에는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농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가입 실적이 저조하였다.

- 가입실적 : 8,204농가, 4,114ha(대상면적 대비 가입율 17.6%)
- 지원율 및 지원액 : 순보험료 30%, 운영비 50%, 국고지원 2,337백만원(예산4,646)
- 대상재해 : 태풍·우박, 동상해 등

2002년도에는 포도·단감·복숭아·감귤 품목을 추가 총 6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고지원율을 상향조정(50→70%)하고 지원대상 자연재해 범위에 호우 추가 및 분납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한 결과, 18,620농가가 10,992ha를 보험에 가입(대상면적대비 18.3%) 하여 재해보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 2002년 지원율 및 지원액 : 순보험료 50%, 운영비 70%, 국고지원 8,590백만원
- 보상수준 유형 확대 : ('01)70%, 80%보장 → ('02)70, 75, 80, 85% 보장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특히, 2002년에는 태풍“루사” 피해를 입은 6,953농가에게 34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득섭)

다. 가축공제대상품목 확대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등 가축피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재생산 기반을 조속히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농가 공제금의 50%를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공제는 1997~1999까지 3개년 동안 「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대상축종에 「말, 돼지」, 2002년에는 「닭」을 추가하였다.

2002년에는 가입두수가 11,899천두로, 2001년도 2,318천두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가축공제사업이 축산농가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공제 제도는 각종 사고(수해,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가축에 대해 양축농가에게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으로 폐사가축의 불법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축종별 보상사고 범위중 돼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고에 “설해”, TGE(전염성장염; Transmissible Gastro Enteritis), PED(돼지유행병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ea), Rota(로타바이러스설사병, Rota Virus)등 3개 질병과 “축산휴지(畜産休止)”를 추가하였고, 사고시 가축공제 보상금액도 “가입금액 한도내 80%”까지 보상에서 공제상품의 성격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내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2년도에는 처음으로 공제가입 농가에 대한 무료 가축진료를 실시하여 사고율 저하를 유도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1<표 2-2->

가축공제 추진 과정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상가축	소	소	소	소,말,돼지	소,말,돼지	소,말,돼지,닭
사업조합	70개	93	104	전국	전국	전국
가입두수	35천두	34천두	29천두	632천두	2,318천두	11,899천두
지급건수	355건	1,624	1,078	1,767	3,421	6,691
지급금액	319백만원	1,219	955	1,694	4,163	11,209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종현)

라. 재해농가 지원강화

재해농가의 영농의욕고취와 생계안정도모를 위하여 재해지원 기준단가 인상 등 농업재해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집중호우(8.4~10) 및 제15호 태풍 『루사』(8.30~9.1)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집중호우의 경우 피해지역 일부(김해 한림면, 함안 범수면, 함천 청덕면)와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해서는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였고 농작물 생육후기 대과대 신설, 농작물 대과대 및 농약대 인상, 온실복구지원단가 현실화 및 복구비중 자부담 일부를 보조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등 피해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지난해의 재해를 경험 삼아 예고 없는 기상재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발령 등 전국적인 기상재해가 우려될 경우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피해농가의 복구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해지원이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해지원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2<표 2-2> 생육후기 농작물 대파대 신설내역(특별재해지역)

구 분	단위	생육초기(현행)	생육후기(신설)	인상율
○ 일반작물	천원/ha	1,575	3,149	2.0배
○ 시설채소				
- 엽 채 류	"	2,120	4,140	2.0
- 과 채 류	"	2,800	5,146	1.8
○ 인 삼	"	10,751	13,976	1.3
○ 버 섯	"	30,000	36,000	1.2
○ 화 훼				
- 카네이션	"	37,860	45,432	1.2
- 백 합	"	18,200	23,660	1.3
- 장 미	"	10,500	13,650	1.3
- 선 인 장	"	29,530	35,436	1.2
- 심비디움	"	16,666	21,665	1.3
- 국 화	"	7,836	10,186	1.3
- 글라디올러스	"	13,990	18,187	1.3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3<표 2-2> 복구비중 자부담 전환내역(특별재해지역)

항 목	보 조		자 부 담	
	현 행	특별재해	현 행	특별재해
○ 농경지복구(3ha미만)	60	70	10	-
○ 농림시설(2ha미만)	35	45	10	-
○ 농림시설철거비(2ha미만)	35	45	10	-
○ 농작물 대파대	70	85	30	15
○ 축사·잠실(소규모)	35	45	10	-
○ 가축·누에입식	50	60	20	10
○ 잠업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35	45	10	-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산경영과 서기관 김후동)

2. 쌀의 수급균형과 적정가격 유지

가.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2002년도 연간 국내 양곡의 총수요량 약 2,000만톤중 1,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1,000만톤 수준은 옥수수, 밀, 콩 등 사료용이고, 약 400만톤은 식용으로서 육류소비증가 등으로 사료용 곡물 수요가 수입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616만톤중 90%인 552만톤은 쌀로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쌀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고 밀, 옥수수 등 기타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곡인 쌀의 경우, 2003 양곡년도중 공급량은 2002년도 보다 적은 4,927천톤이 생산되어 총공급량은 6,554천톤으로 예상되며, 수요는 1인당 연간 식용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5,557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년 이월재고 및 MMA 수입쌀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감소된 것은 과잉 재고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제, 밭벼 재배억제 등 정부의 생산감축정책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고량은 FAO 권장수준(소비량의 17~18%) 대비 600천톤 정도를 초과한 1,447천톤 수준으로 여전히 공급과잉 기조에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곡의 자급기조를 확고히 하여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농지의 안정적 보전 등 쌀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품질쌀 생산유도, 유통구조의 혁신과 민간유통의 활성화, 규모화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4<표 2-2>

최근의 쌀수급 동향

(단위 : 천톤)

양곡년도	생 산	수 요	재 고
1995	5,060	5,557	659
1998	5,450	5,216	806
1999	5,097	5,112	722
2000	5,263	5,114	978
2001	5,291	5,151	1,335
2002	5,515	5,157	1,447
2003(P)	4,927	4,978	1,576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아울러, DDA협상 및 쌀 재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개방폭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고품질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RPC 중심의 민간유통 활성화, 식용·가공용 수요기반 확대 등 쌀 소비 촉진,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직불제를 추진하였고 추가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나. 농지보전 및 관리

2002년말 농지면적은 1,863천ha로서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농지보전 시책 추진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02년도 농지면적은 2001년도 대비 0.7%(13천ha)가 감소하였다.

2002년도에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대해 2,000㎡이하로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농업보호구역내 제1종근생시설중 음식점 및 제2종근생시설중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농지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또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 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이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 지정하도록 하는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도로 등 대규모 사업시행시 가급적 농지의 가장자리, 구릉지나 산지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농지전용 허가심사를 강화하여 우량농지의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가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농림부, 시·도 및 시·군 합동으로 전국적인 농지불법전용단속을 실시하였다.

5<표 2-2> 2002년도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내역

(단위 : 건/천㎡)

구 분	계	고 발	원상복구명령	성실경작지시 등
건 수	3,370	1,075	2,215	80
면 적	3,968	1,528	2,291	149

자료 : 농림부 농지과

1996년 농지법시행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취득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해 나가고 있다. 2002년도에는 2,144명의 소유 농지 468ha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농지보전운동을 추진하고, 농림부 홈페이지의 ‘농지보전 사이트’에 불법전용신고센터 운영, 농지의 공익적 기능 및 세계 각국의 농지보전정책 홍보 등을 통하여 농지의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다만, 2002년 농지전용면적은 13,275ha로서 2001년 10,209ha보다 30%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2002년말 현재 1,149.3천ha로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지정 당시 1,008.4천ha보다 13%(140.9천ha)가 증가하였다.

6<표 2-2->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단위 : 건, ha)

구 분	1999	2000	2001	2002
건 수	55,395	56,499	57,524	70,557
면 적	12,017	9,883	10,209	13,275

자료 : 농림부 농지과

(농지과 행정사무관 이성원)

다. 영농규모화사업 실적

우리농업의 근본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등을 통하여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고 경작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1988년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업인,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연리 3.0%,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무이자로 5~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임대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총 4조 3,410억원을 투입하여 128천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1988년에 1만호 정도이던 논 경영면적 3ha이상 농가수가 2002년에는 4.1만호로 310% 증가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쌀산업 구조개선을 촉진시켰다

2002년도에는 대규모 농가 육성을 위해 2~3ha 미만농가를 선택적으로 집중지원하여 3ha이상 규모화된 농가 비율이 34.8%로 1995~2001년간의 20.1%보다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1988년 이전 20여년간 논 경영면적이 3ha 이상되는 농가수가 1만호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또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쌀전업농의 경우 2002년말 현재 평균 경영규모가 지원전의 2.04ha에서 지원후에는 3.73ha로 확대·집단화되어 연간 쌀생산비를 6.3% 절감하는 한편 농가 호당 약 1천3백만원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안정적 영농계층인 40~50대 경영주가 79.0%를 차지하여 젊고 능력 있는 우수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하였다.

7<표 2-2>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사업별	건수	면적	금액	지원조건
계	240,737	128,435	4,341,025	
농지매매	97,678	50,790	2,798,627	연리3.0%, 20년상환
구입자금	78,082	31,317	655,415	'94년 폐지
임대차	52,367	44,869	834,915	무이자, 5~10년상환
교환분합	12,610	1,459	52,068	연리3.0%, 10년상환

※ 쌀전업농 육성('95~'02) : 44,414명, 69,446ha, 2조 4,007억원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서기관 임정빈)

라. 수매가 동결

2002년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협상과 2004년도 쌀 재협상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폭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추곡약정 수매가격은 2001년도와 동일한 가격 167,720원/80kg원으로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60%의 선금(7,436억원)을 420천농가에 지급하였다.

또한, 10.1~11.15(46일간)까지 실시한 RPC 산물수매는 2001년보다는 다소 적은 양이지만 196만석을 실시하여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RPC 물벼 수매량 : ('99) 209만석 → ('00) 246 → ('01) 223 → ('02) 196)

2002년도 보리 수매가는 추곡과 마찬가지로 2001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수급여건은 지난해 보리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24천ha) 특히, 쌀보리 위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농협의 일반보리 재고량이 예년수준(90~100천톤)의 2배(188천톤/조곡)정도로 누증되어 재고처분 문제도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신중히 고려하게 되었다.

* 연도별 보리생산량 : ('00) 226천톤/조곡 → ('01) 383 → ('02) 299

재배면적 : ('00) 67천ha → ('01) 91 → ('02) 79

따라서 일반보리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산 부터는 수매방식을 농가희망물량 전량 수매하던 것을 농가와 농협간 약정체결 물량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정부는 보리 수확기의 잦은 비와 다습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수확과 건조에 어려움이 많고 이모작 지역의 영농기와 겹쳐 농가의 일손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도 보리주산지를 중심으로 18개 RPC가 4,420톤에 대해 보리 산물수매를 실시하였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마.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의 쌀생산·가공·유통혁신

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총 7,836억원(국고보조 2,479, 국고융자 2,245, 지방비 77, 자부담 3,035)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328개소의 신규 RPC를 설치하였다.

가공시설능력이 충분함에 따라 1999년 이후 가공시설 지원을 중단하고,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건조·저장시설은 2002년까지 524개소를 설치하였다.

2002년도 건조·저장시설의 지원기준은 개소당 총사업비 위성시설 7억원, 증설시설 4억5천만원중 생산자단체의 경우 보조 50%(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20%, 민간인 경우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하였으며, 지원금리는 연리 5%,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RPC의 원료비 매입자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2002년도에 운영자금 5,904억원(12개월지원), 특별자금 5,000억원(10개월지원)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여 RPC의 자체매입량을 확대하였다.

- RPC 농가자체매입량 : ('00) 7,048천석, ('01) 7,622천석, ('02) 8,640천석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쌀 주산지 중심으로 설치된 RPC는 벼 수확후 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을 일관 처리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미질 향상은 물론, 유통단계 단축과 유통마진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8<표 2-2>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구 분	관행방식 (A)	RPC (B)	증△감 (C=B-A)	절감율(%) (C/A)
처리비용(원/톤)	262,254	178,980	△83,274	31.8
노동시간(hr/톤)	33.72	12.17	△21.55	63.9
양곡손실율(%)	6	1	△5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9<표 2-2> RPC 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단위 : 원)

구 분	최종소비자가격	농가수취가격	유통마진
RPC유통	156,000(100%)	148,700(95.3%)	7,300(4.7%)
도매상	160,000(100%)	147,555(92.2%)	12,445(7.8%)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유통비용 : 건조·가공비,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이윤

주 : 김제 → 서울, 쌀80kg

뿐만 아니라, RPC는 정부수매량 감축을 보완하여 산지민간유통의 중심체로 성장하고 있다. 2002년에는 쌀 총생산량 3,422만석의 25.8%인 1,060만석(공매벼 제외)을 RPC에서 매입·처리하였는데 이중 RPC가 자체적으로 매입한 물량이 864만석으로서, RPC 자체 매입량이 정부수매량 550만석 보다 314만석 초과하고 있다.

한편, 정부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RPC의 공매곡 의존률은 1995년의 62%(총 282만석)에서 2002년에는 8.0%(총 98만석)로 크게 감소하였다.

10<표 2-2->

RPC유통비율

(단위 : 천석)

년도별	생산량(A)	정부수매량	RPC유통량		산지쌀값(12월기준)
			(B)	B/A(%)	
1994	35,134	10,500	2,462	7.0	105,508원/80kg
1995	32,601	9,550	4,550	14.0	130,670
1996	36,959	8,618	7,107	19.2	136,110
1997	37,842	8,500	7,952	21.0	137,396
1998	35,397	6,445	8,633	24.4	147,660
1999	36,550	6,082	11,248	30.8	155,103
2000	36,742	6,291	10,890	29.6	158,206
2001	38,299	5,753	10,492	27.4	150,100
2002	34,216	5,496	11,589	33.9	159,62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RPC 유통량은 자체매입 + 산물수매 + 공매벼 매입 + 농가수탁물량임

반면, RPC의 농가벼 자체매입량은 1995년 140만석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864만석으로 급증하였다. 산물처리시의 경제성과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산농가의 산물출하 희망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RPC들은 건조·저장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품종을 통일하고 공동 농작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의 원료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유통계열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학주)

바.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현행 정부수매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 추가로 감축되는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수매물량은 30만석 정도 줄어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이로 인해, 풍작시 수매량을 확대하거나 작황부진시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정부수매제도의 당초 취지인 수급조절기능과 농가소득증진 효과에 대한 한계 대두와 더불어 향후 추가적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양곡관리제도의 개편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비자를 중심으로 고품질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차별화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수매 또한 단순 수매규격으로 전국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풍작 등에 따른 공급과잉과 재고누적으로 민간유통이 위축되어 RPC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조정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고품질쌀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증산 요인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정부수매규격을 강화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면서 쌀 유통의 민간시장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고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유통여건 조성을 위해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운영자금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하였다.

또한 RPC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늘어나는 수확기 산물벼 매입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고품질쌀의 차별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양곡에 대한 표시사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WTO/DDA협상 및 2004년 쌀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수매 중심의 양곡관리제도를 공공비축과 민간유통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3.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연간 2~3만ha 규모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 국고 50%, 지방비 30%, 농업인부담 20%이던 보조율을 지방비 및 농업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19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농업인부담을 없애고 국고 80%, 지방비 20%로 하여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봄마무리사업까지 총 소요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1993년 가을착수사업부터는 사업비 상승 억제에 위하여 시행면적 기준으로 예산단가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지원하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였다.

1995년 가을착수분부터는 예산단가의 10%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방식을 제한적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수준을 다소 향상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정부는 실제 소요 사업비 수준으로 예산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표 2-2->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2002봄까지	2003계획	2004년이후
사업량(천ha)	1,138	800(915)	716(821)	3(3)	81(91)
- 진흥지역	771	665(760)	630(721)	3(3)	32(36)
- 진흥지역밖	367	135(155)	86(100)	-	49(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은 논면적에 농로, 용·배수로 등 시설부지를 포함한 구역면적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경지정리사업은 쌀뿐만 아니라 채소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자급향상에 기여하였고,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일련의 영농과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2002년 봄까지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실적은 논면적 1,138천ha의 63%인 716천ha로서 국고 4조5,689억원, 지방비 1조9,993억원, 농업인부담 2,711억원 등 6조8,393억원을 투자하였다. 2002년에는 국고 1,504억원과 지방비 373억원 등 총 1,87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가을에 착수한 7천ha를 5월에 완료하였고, 2002년 가을에 3천ha를 착수하여 2003년 봄에 마무리 하였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에 경지정리된 지역중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 농지이나 당시의 영농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지 규모를 3천평 규모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를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1.5~4m을 4~7m으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12<표 2-2->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200	83	4	113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0천ha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2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1조6,324억원, 지방비 3,941억원 등 2조 265억원을 투자하여 83천ha를 완료하였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다.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연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밭에서 마을, 양파, 양배추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고, 시설 유지관리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경우 밭관정 시설이 100%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에서는 주민 유지관리조직 미구성 또는 미흡한 운영, 농업인의 밭관정 이용시설 사용 미숙 및 고장시설물 방치 등으로 용수이용 시설(관정)의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밭기반정비사업의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에는 발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발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 등 품질이 우수한 발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3<표 2-2>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년이후
사 업 량	730	110	52	6	52
사 업 비	-	25,794	11,946	1,149	12,699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인데 따른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4<표 2-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35	12.68	1.20	21.12
사 업 비	37,071	12,876	1,253	22,942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권총희)

마. 배수개선사업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는 2,252 억원을 투입하여 약 8천ha를 준공함으로써 총 대상면적 23만5천ha중 11만9천ha를 완료(51%)하였다. 호우시 하루 이상 침수되는 지역에는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습기가 많은 지역에는 흡수관 등 지하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15<표 2-2->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	%	%	%			
지표배수	188	100	116	62	8	4	64	34
지하배수	47	100	3	6	-	-	44	94
계	235	100	119	51	8	3	108	46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이성홍)

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02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흠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3,636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2,863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345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428억원이 투입되었다.

16<표 2-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	%	%	%			
공사관리수리시설	7,716	100	5,257	68.1	89	1.2	2,370	30.7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91	44.2	7	3.4	108	52.4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810	24.7	92	2.8	2,382	72.5
저수지준설(백만m)	101	100	36	35.6	3	3.0	62	61.4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또한,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120억원을 투입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시설관리과 시설서기관 김주호)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대규모 농업용수개발로 경북 성주, 전북 동화 2개 지구에 296억원을 투입하였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는 130개 지구에 3,451억원을 투입하여 20개 지구 7,460ha를 준공하는 등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17<표 2-2->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총논면적	개발대상면적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1,138	1,100	881	4	215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와 토목사무관 김길영)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총22지구 27만8천ha를 추진하여 그중 금강·평택·계화도 등 15지구 16만2천ha를 완공하고 7지구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12만2천ha를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이며, 2003년에는 국고 918억원, 농지관리기금 2,285억원 등 총3,193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지구 등 7지구를 계속 추진하였다.

18<표 2-2>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계	22지구	283,227	75,807	38,662	3,193	33,952	
준 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 행 중	7지구	121,560	62,040	24,895	3,193	33,952	
	금강II	43,000	6,144	2,609	385	3,150	'89~'06
	미호천II	4,430	2,292	1,810	200	282	'89~'05
	홍 보	8,100	3,100	1,909	183	1,008	'91~'05
	영산강III-1	13,160	6,870	2,771	410	3,689	'85~'06
	영산강III-2	7,840	3,929	1,328	260	2,341	'89~'07
	새 만 금	28,300	32,570	14,258	1,625	16,687	'91~'11
	영산강IV	16,730	7,135	210	130	6,795	'00~'07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 토목사무관 전경구)

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을 자동화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용수절약 및 물관리비 절감 등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2002년도에는 11개 지구에 국고 53억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19<표 2-2->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	%	%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371	100	2 (11)	0.5 (11)	1 (11)	0.3	368 99.2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시설서기관 김주호)

4.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가. 농업기계화

(1) 기본방향

농업여건의 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기계공급제도개선 및 사후관리강화 방안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농기계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농기계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농업기계화정책 개선

첫째, 농기계공급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개선하였다. 업체통보가격을 상한으로 하였던 농기계가격을 완전 자율화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모델의 합리적인 관리와 우수성능 농기계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기계모델에 대한 형식명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구조, 성능·안전성 등이 기존 공급모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형식명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중단모델, 소량판매로 경제성이 없는 모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작물생육, 환경조절용기기, 새로 개발된 농기계 등은 국가공인 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협·연구기관의 시험평가 및 검증의무를 부여하여 성능이 검증된 농기계만을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신규 진입토록 하였으며, 품질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농기계는 자유진입기종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진입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저비용 기계화의 실현과 농가부담 경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였다. 2001년부터 지역농협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7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에는 개소당 1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등 50%)씩 총 20개소의 상설판매장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중고농기계의 용자지원제도 개선방안과 품질보증 방안을 강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농기계 매매, 알선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저비용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 모델이나 공급중인 모델 중 기술개발, 국산화 등으로 생산원가를 10%이상 절감한 경제형 농기계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구입자금 용자지원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농기계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농기계 A/S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조업체 및 사후봉사업소의 책임있는 A/S를 위해 제조업체가 최고 3회이상 부품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모델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후봉사업소도 최고 3회이상 부품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회수와 함께 신규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또한, 대리점과 제조업체간 전산망을 구축하고 대리점의 부품전산화도 유도하였으며, 권역별 부품 종합판매점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신규로 부품 확보자금을 용자지원 하여 2002년도에는 239억원을 지원하였다.

수리용 부품·장비에산의 적기확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기계생산의 원활한 지원과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비축자금의 적기 공급,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넷째, 밭작물, 축산, 고품질벼생산기계화 촉진을 위해 밭작물·축산전용 농기계와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쌀품질인증을 3,300㎡이상 받은 농업인)가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기계 가격의 90%까지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율로 농기계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용성 있는 농기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며 신기술농기계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해 2002년도에 경운기 1.7천대, 트랙터 10.5천대, 이앙기 9.2천대, 관리기 4.3천대, 콤바인 3.6천대 등 총 71천대분의 농기계구입 자금으로 총 3,707억원을 연리 4%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지원실적은 <표 2-2-20>와 같다.

20<표 2-2->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구입자금지원

(단위 : 대,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기계공급	278,990	116,719	98,471	121,169	99,979	70,496
- 경운기	79,171	10,077	7,501	7,808	3,894	1,652
- 트랙터	22,652	25,377	17,919	22,716	14,198	10,494
- 이앙기	46,108	15,719	15,695	15,920	12,666	9,190
- 바인더	3,731	1,058	326	866	246	100
- 콤바인	8,091	9,275	7,907	11,767	5,811	3,555
- 곡물건조기	7,467	4,144	3,674	2,553	2,614	2,508
- 관리기	41,058	7,190	5,602	7,325	4,679	4,292
- 기타	70,712	43,876	39,847	52,214	55,871	38,705
○자금지원	819,138	710,723	634,406	780,117	472,648	370,655
- 보조	311,425	55,240	27,167	-	-	-
- 융자	507,713	655,483	607,239	780,117	472,648	370,655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2002년말 주요 농업기계의 보유량은 341만5천대로, 농기계 보급률은 경운기 65.9%, 트랙터 15.2%, 이앙기 25.2%, 콤바인 6.5%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연도별 농업기계보유현황은 <표 2-2-21>와 같다.

21<표 2-2->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단위 : 천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3,331.5	3,348.7	3,365.5	3,386.9	3,430.7	3,415.3
경운기	945.8	960.0	953.7	939.2	922.7	891.7
트랙터	131.4	157.9	176.1	191.6	201.1	206.4
이앙기	302.9	325.1	335.8	342.0	342.6	340.8
바인더	68.9	73.0	73.3	72.3	70.3	68.2
콤바인	74.3	78.1	84.0	87.0	87.8	87.4
관리기	315.9	348.7	369.2	378.8	379.9	379.3
방제기	703.4	640.9	624.9	628.9	642.9	643.4
양수기	397.4	345.0	309.1	292.9	325.3	320.7
탈곡기	95.8	78.2	65.6	58.8	54.4	49.8
곡물건조기	44.1	49.8	53.2	55.6	58.2	60.7
기타	251.6	292.0	620.6	339.8	345.5	366.9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과 행정사무관 임신탉)

(4) 농업기계 사후관리 강화

(가) 사후봉사 및 기술훈련

농업기계의 공급확대에 따라 이미 공급된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하여금 공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용 부품공급과 신속한 수리봉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1981년도부터 일정 기준의 수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읍·면, 시·군, 시·도 단위로 구분, 육성하여 2002년말에는 3,234개소의 사후봉사업소를 설치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또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에서 수리기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수리기사 126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점검 수리할 수 있도록 기계화영농사 1,246명을 양성하였다.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용 부품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수리용 부품을 신속히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봉사업소에 대해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에도 240억원을 용자 지원하였다.

22<표 2-2>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 단 위	34	37	34	45	48	44
군 단 위	948	992	1,050	1,120	1,127	1,154
면 단 위	2,099	2,130	2,079	2,117	2,038	2,036
계	3,081	3,159	3,163	3,282	3,213	3,234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또한, 봄철(3~4월)과 가을철(8~9월) 년 2회 전국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토록 하여 167.3천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봉사 해 주고 1,276백만원 어치의 부품을 무상 교환해 줌으로써 수리불편을 덜어주고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기계의 운전조작과 정비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기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교관요원 및 수리기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교육하고,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계화영농사와 시·군 지도사를 중심으로 대형기종을 포함한 기종별 전문훈련을 실시하며,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는 부녀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조작훈련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약 198.1천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부녀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운행요령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 생산업체에서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정밀기종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기계 기술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훈련시설 및 장비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만 6,916백만원을 보조지원(국고 3,458백만원, 지방비 3,458백만원)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훈련용 농업기계 558대와 순회수리차량 25대 등 훈련장비를 확보함으로써 2002말 현재 4,621대의 훈련용 농업기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23<표 2-2>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단위 : 천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94.8	214.4	217.8	194.6	202.6	198.1
전문기술인력	3.0	3.6	2.6	2.7	2.8	3.0
부녀자	5.2	5.2	5.6	3.4	3.1	1.8
실수요자	186.6	205.6	209.6	188.5	196.7	193.3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나)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업기계는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고장발생빈도와 사용가능연수가 크게 달라지고 있어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도에는 용자70%의 조건으로 지원하여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8개소, 사후봉사업소 농기계보관창고 9개소, 일반농가 농기계보관창고 18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농가경제 악화 등에 따른 수요감소로 155개소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까지 총 8,514개소(마을공동 7001, 농업회사법인 1,228, 사후봉사업소 44, 일반농가 241)의 농기계보관 창고를 설치하였다.

(다)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1994년 11월 11일자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을 1995년 7월 6일자로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이 미흡한 경우도 있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및 관리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신기술 농기계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2000-79호('00.12.30)로 개정 고시하였다.

24<표 2-2>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농 기계 명	제조업체명	형 식	주 요 특 성
무인자동방제기	중앙공업(주)	배터리 구동형	온실내부 또는 노지에서 유도선을 따라 무인자동주행하면서 방제작업 실시
원 거 리 용 고 성능 방 제 기	(주)한성농산 기계제작소	견인 및 탑재형	농약살포장치의 상하, 좌우 등을 원격조절하여 과수, 벼, 감자 등의 방제작업 실시
채소자동접목기	(주)유풍기연	호접형	수박 등 채소류를 자동으로 접목하고 클립핑
과 수 형 승 용 관 리 기	아 세 아 산업공사	4륜구동형무한궤도형	전·후방의 동력취출축과 작업기 부착장치를 이용, 여러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병해충 방제 등 10여가지의 과수원 관리작업 실시
벼 섯 자 동 천 공 접 종 기	(주)한농정공	4조식	원목을 이용한 벼섯재배시 천공, 종균접종, 마개봉합작업을 일관자동화
벼 품 위 자 동 판 정 기	쌍용기계 산업사	탈망정선식	소량의 벼를 이용 제현율과 설현미율을 정확히 자동계측하여 벼 품위 판정의 정밀도를 향상
승 용 관 리 기 (논용, 밭용)	아세아종합기계(주) 중앙공업(주)	승용형	승용관리기 본체에 여러 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논농사와 밭농사에 이용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농 기계 명	제조업체명	형 식	주 요 특 성
자동관수분배기	보경산업	무 인 자동형	양수기에 연결하여 관수예약일, 관수시간, 관수주기 및 관수 토출구를 작목과 생육 상태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여 무인 자동형으로 급수 가능
종 자 봉 입 기	화성농산	공 기 흡입식	작은 종자를 종이테이프로 봉입하여 파종 함으로써 50% 종자 절감 가능
유도케이블식 과수무인방제기	아 세 아 산업공사	무한케 도무인 자주식	지하에 매설된 유도케이블을 따라 무인 주행하면서 방제 작업할 수 있어, 농업인을 농약중독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센터를 이용하여 정상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주행 및 방제작업이 자동정지
벼 도 정 수 율 자 동 판 정 기	쌍용기계 산업사(주)	종합판 정 식	제현율, 현백율 및 도정수율을 자동으로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 현미기, 정미기, 선별기 등의 단위기계를 농산물검사표준계측법의 기준에 맞게 개발·개량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사용하여 고품질의 쌀생산 의욕 고취, 도정수율관리에 따른 양곡손실 예방이 가능
레이자동식 정전대 전방제기	태인테크 (주)	호스전인 형 고정 경로 주행식	온실내에서 무인주행하면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어 농업인을 농약중독위험에서 보호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분무입자를 정 전대전시켜 작물의 잎뒷면에 잘 부착되도록 한 정전살포기술을 실용화
승용경운기	동양물산 (주)	승 용 견 인 구동식	발동사 전용형 농기계로 기체높이가 낮 아 온실·과수원등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소형 경량이므로 부녀자나 노약자도 손쉽게 운 전할 수 있으며, 로타리 등 여러 가지 작 업기를 부착 사용 가능
원심회전충격분무 방식온·습도 조절기	태인테크 (주)	상 온 연 무 정치식	회전판과 충돌 핀에 의해 물을 미립화하므로써 불순물에 의한 노즐 막힘이나 노즐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아 내구성이 크며 온실냉방 및 습도조절용 등으로 사용가능
승용감자수확기	신흥공업사	자주식	감자의 굴취, 이송, 선별, 수집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승용자주식 감자수확기이며, 선별작업은 보조인력이용 수동선별가능
벼 직 파 기	(주)광산 mTc	트랙터 부착형 조파·점파 검용식	경운·배토작조, 파종 복토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파·점파검용식 벼직파기이며, 보리파종도 가능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2002년까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는 승용감자수확기 및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등 16종이다. 그중 승용관리기, 원거리용고성능방제기,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등 몇 개의 기종은 보급이 확대되어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인하 등 농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기계는 구입자금의 90%를 2년간 용자지원해 주며, 생산비축자금도 5억원 이내에서 2년간 우선 용자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지원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5)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계절성 사용 농기계의 사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기계의 수급원활 및 대농업인 판매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녀자 및 노약자가 운전하기 쉬운 농기계 등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자금과 자본기술집약형 농업 촉진을 위한 첨단농업기자재의 생산·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다.

25<표 2-2->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사 업 량	35	39	38	28	27	19
지 원 액	635	630	420	400	400	20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6) 농업용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사용 유류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3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제세금을 면제하여 공급해오고 있다. 면세석유류 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농에 많이 사용하는 기종 중심으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등 38개 기종이며, 농업인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농협에 농가당 보유 농업기계를 신고하면 농가의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영농에 필요한 량의 면세석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26<표 2-2-> 면세유 공급실적 및 농가부담경감액

(단위 : 천kl,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공급물량	2,489	1,959	2,449	2,300	2,440	2,652
공 급 액	8,159	6,656	7,412	9,069	9,047	10,018
면 세 액	3,141	4,399	5,773	5,579	6,654	8,733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나.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1) 농약의 수급관리

전체 농약품목수는 2002년에 약효·약해·독성·잔류성 등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신규농약 10개 품목을 추가 등록함으로써 2001년 1,017개에서 1,027개로 늘어났다. 농약사용량은 1999년 이후 2001년까지 3년간 증가하여 왔으나, 2002년은 25,844천톤으로 전년보다 8.4%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수도용의 경우는 재배면적 감소, 품종개량 등으로 년차별 변동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원예용의 경우는 원예·과수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시설원예작물의 년중 생산, 생력재배 등으로 농약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27<표 2-2> 연도별 농약소비 상황(공장출하량 기준)

(단위 : 성분량, 톤)

연도별	계	수도용	원예용	제조제	기타
1991	27,476	9,254	9,719	5,631	2,872
1994	26,282	5,512	12,606	5,506	2,658
1997	24,814	6,526	9,967	6,043	2,278
1998	22,103	6,749	8,559	5,116	1,679
1999	25,837	7,255	10,371	5,596	2,615
2000	26,087	6,292	11,301	5,822	2,672
2001	28,218	6,492	12,782	6,380	2,564
2002	25,844	5,763	12,087	5,494	2,50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약의 공급은 농약시장 자율화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농약제조업체가 연간 수요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농약을 생산·공급해오고 있다. 2002년 총 수요량의 40% 정도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이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수요량 전량을 제조업체와 일괄 구매계약을 맺어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0%정도는 시판상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2002년도에도 당면 영농시기별 병해충 발생 및 농약수급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돌발병해충 대비 농약비축 및 전수매 체계 유지로 농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생산에 기여하였다.

(2) 비료의 수급관리

(가) 농업용 비료 소비량

2002년의 농업용 비료 총소비량은 성분량 기준 690천톤으로 이는 2001년 717천톤의 96.2% 수준이며, 비료 소비량을 성분별로 보면 질소질 364천톤(53%), 인산질 146천톤(21%), 가리질 180천톤(26%)으로 나타났다.

ha당 비료사용량은 친환경농업의 확산,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질소소비 감축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28<표 2-2->

비료 소비량 추세

(단위 : 성분량 기준,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3요소별	질 소 질	447	444	423	375	364
	인 산 질	187	179	171	153	146
	가 리 질	226	219	207	189	180
계		860	842	801	717	690
단복비별	단 비	232	225	207	172	161
	복 비	628	617	594	545	529
ha당 소비량(kg)		406	398	382	343	341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2002년 농협취급 비료의 공급량은 637천톤으로 전체 비료공급량 690천톤의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7%(53천톤)는 일반시판상을 통해 공급되었다.

(나) 농업용 비료가격 안정시책 추진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1962년부터 1987년까지는 정부가 비료가격을 결정하고 비료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차손을 비료계정에서 부담하였으나, 1987년 『비료산업개선대책』에 따라 1988년부터 비료 판매 자율화를 실시하고 비료의 생산 및 판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비료의 품질개선을 유도하였고, 비료판매원가절감을 위하여 1989년 10월부터 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료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비료 판매가격은 1988년부터 자율화되었으나 1990년 8월에 발생한 걸프전으로 비료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비료가의 대폭 인상요인(25%)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 부담경감과 비료 공급가격 안정을 위하여 1991년부터 농협취급 비료는 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판매하고 판매가격 차손을 매년 재정에서 보전해 오고 있다.(’91~2002년 지원액 : 9,347억원)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9<표 2-2-> 2002년 주요 비종별 비료가격(20kg당)

(단위 : 원, %)

비종별	구매가격(A)	판매가격(B)	차액(C)	보조율(C/A)
요소	6,633	5,300	1,333	20.1
용성인비	5,966	3,650	2,316	38.8
이모작복합비료	6,577	5,800	777	11.8
일모작복합비료	6,527	5,500	1,027	15.7
유기질(퇴비)비료	2,500	1,800	700	28.0
평균	5,338	4,344	1,004	18.8

주 : 평균은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공급하고 있는 전체비종(29종)의 평균임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이상혁)

5.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충

가. 논농업직불제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가) 도입배경

논농업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대다수 농가가 논농사를 짓고 있으며,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논농업이 가져다 주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WTO 협정에서도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소득지지는 물론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비료·농약 적정사용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나) 추진경위

1999년 9월 21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농업인의 날(1999.11.11), 통합협동조합 출범식(2000.7.1) 등에서 논농업직불제를 2001년에 도입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누차 표명한 바 있다.

1999년 12월에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교수,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기획단」이 구성되고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2001년 도입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관으로 조세연구원 및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도 병행하였으며, 도입방안 검토시 학계, 언론계,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정책토론회(3.22, 5.12)와 공청회(6.27)를 개최하여 농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일반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입방안에 반영하였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농업직접지불제 기획단」에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 2000년 8월 24일 최종회의를 갖고 2001년부터 전체 논에 대하여 전면적인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사업시행

<2001년>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2월말까지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3월말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수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행지침을 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대상 선정농가를 대상으로 이중·중복신청 여부와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고 논외의 형상과 기능유지 점검과 토양검사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가(농지)에 대해서 11~12월중에 1,910억원(816천ha, 1,023천농가)을 지급하였다.

<2002년>

2002년에는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으로 전년 보다 2배 인상하였다.

당초에는 논직불제 신규신청을 2001년 한해만 받을 계획이었으나, 처음 시행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2002년에도 신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논외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중 담수의무를 해제하고 논외의 벼 이외의 채소, 콩, 사료작물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논외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 관상수, 약용작물 등 영년생 작물은 계속하여 제외하고 있다.

토양검사는 8,250점에서 61,500점으로 잔류농약검사는 798점에서 2,250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기장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기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영농실천의무를 강화하였다. 지급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 총 3,983억원(852천ha, 1,050천농가)을 지급하였다.

한편, 논직불제 대상자의 이중·중복선정, 실경작, 필지분할 여부 등에 대한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앞으로 남은 과제

논농업직불제의 지급상한 면적 확대, 누락농지에 대한 신규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논농업직불제가 WTO의 허용보조 기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서기관 김원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나. 경영이양 직불제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쌀전업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산성이 낮은 65세이상 고령농가의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경우에 ha당 일정금액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통하여 고령은퇴농업인 47천명에게 848억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 1인당 179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고, 고령은퇴농업인의 32천ha 소유농지를 쌀전업농 31천명에게 경영이양토록함으로써 1인당 1.03ha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고령은퇴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의 효과를 가져왔고, 쌀전업농에게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쌀생산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0<표 2-2>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사업별	건수	면적	금액	지급단가
계	49,283	31,779	84,801	ha당 지급기준(만원)
농지매매	8,019	3,506	9,416	: ('97) 258, ('98~'99) 268,
임대차	41,264	28,273	75,385	('00이후) 281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서기관 임정빈)

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영농 이행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까지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파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영농 이행단계에서의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종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ha당 524천원)을 지원하도록 하되, 농가당 최소 1천㎡이상 농지를 경작(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등은 제외)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금액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시행전인 1999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약 14% 줄어 들었으며, 농약 사용량은 논벼는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등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31<표 2-2->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ha, 호)

	1999~2001실적	2002 실적	비고
보조지원액	17,112	3,033	ha당 524천원지급
사업량	31,208	5,274	
참여농가수	54,939	6,58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서기관 김원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 추진방향

(가) 도입 필요성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감소가 심화되면서 급속한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지역사회 및 농업기반유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에 따라 밭농업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나) 추진과정

2001년 3월 이후 농림부는 3차례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기본추진방향을 수립하고(2001.4.8),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읍·면별 통계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6.2~12.31). 시범 구역도를 가지고 강원도 홍천군(5.28), 충북 진천군(6.1) 현지조사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구역도를 통해 경사도 경계 구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1,423개 읍·면중 399개 오지면의 밭을 대상으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농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02년에 399개 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작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였다. 2002년에는 정책토론회를 농림부, 지자체, 농경연,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충북(2.26)·서울(3.5)에서 개최하였고, 도상연습을 실시(2002.4~6)하여 직불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였다. 황성군 강림면, 무주군 적상면, 봉화군 재산면 3개 면의 2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실시한 도상연습은 경사도 14%이상의 밭과 초지를 대상으로 구역도 및 지번조서를 작성하고 마을대표 및 마을주민의 협조로 마을협약 작성 및 보조금 신청과정까지 실시하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인 399개 오지면의 밭경사도 조사 및 대상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지 구역도 작성을 4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완료하였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구역도를 작성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일부 수치지형도가 미구축된 군사보호구역 등에서는 지자체의 지가전산도면을 활용하였다.

(2) 선진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가) EU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EU에서는 1975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①고도 600~1000m 이상이거나 경사도 18% 이상인 산악지역과 ②생산성이나 농가소득이 국가평균의 80% 이하이거나 인구밀도가 평균의 50% 이하이고 인구 감소율이 연평균 0.5% 이상인 일반조건불리지역 ③또는 해안·도서지역 등 특수불리지역의 경종 및 축산농가에게 향후 5년간 경작을 조건으로 25~200ECU/ha(약 2.5~20만원/ha)를 지급하고 있다. EU는 EU집행부에서 25%를 기본으로 최고 75%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회원국 사정에 따라 독일·이태리처럼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분담을 하기도 한다. EU는 전체 농경지의 56%인 78백만 ha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중 약 124만농가가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EU 전체농가의 약 17%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나) 일본의 중산간 직접지불제

일본은 2000년에 중산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특정 농산촌법, 산촌진흥법, 과소법 등 8개 지역진흥법에서 지정하는 시정촌(市町村)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용지 약 200만ha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평야지와는 생산비 격차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농지는 ①경사도가 논 1/20, 밭 15도 이상인 단지화된 1ha 이상의 급경사지 ②소구획·부정형 농지 ③초지비율이 70%이상인 지역의 초지나 급경사 채초 방목지를 대상으로 하고 ④기타 논 1/100~1/20, 밭 8~15도의 완경사 농지나 고령화율(40%이상), 경작포기율(논 8%, 밭 15% 이상)이 높은 지역 중 시정촌장이 판단하여 지정한 농지 등이며, 전체 5%의 범위내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사가 지정하는 특례지역을 인정하고 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논은 80~210만원/ha, 밭은 35~115만원/ha, 초지는 15~30만원/ha을 지원하되, 호당 1,000만원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지급조건으로서 향후 5년간 계속하여 대상밭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마을협약(集落協定)을 체결하여 수로·농로 관리 및 기타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고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중산간 직불제는 시행 첫째 2,158개 대상 시정촌의 80%인 1,687개 시정촌이 참여하여 25,621개의 마을협약과 498개의 개별협정을 체결하여 총 대상면적의 70%인 541천ha의 면적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교부금 지급실적은 2000년 예산 700억엔의 60%인 419억엔이 지급되었으며, 예컨대 飯山市 柳原集落의 경우 101명이 참가서명하고, 공동비와 개별보조금을 합하여 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스위스의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스위스는 직불제가 가장 잘 운용되고 있는 나라로서 1959년부터 처음 실시하였으며, 농업지대를 경지의 고도, 기후, 일조량, 토질 및 농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야지역, 중간지역, 광의의 중간지역, 구릉지역, 1급~4급 산악지역의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구릉지역과 산악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이나 여름철 방목축산 및 경사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지원대상별로 다양하게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가축 사육에 대해 230~1,500프랑/LU(Livestock Unit, 가축환산 단위), 경사지에 370~510프랑/ha, 하기 방목에 대해 10~300프랑/LU을 지급하되, 대상농가는 세가지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1996년기준 총지원금은 4억 3,200만프랑이며, 총가구수 79천호보다 많은 87천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윤원섭)

6. 농의소득원 확충

DDA협상 등 개방확대로 인해 UR때보다도 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1995년에는 95%에서 2002년에는 73%까지 확대되었고, 농가의 교역조건도 1995년대비 2001년에는 83.5%로 축소되는 등 농가소득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의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로 농외취업을 통한 소득증대도 제약을 받아 농외소득이 1999년이후 53% 수준에서 정체되어 일본의 87%, 대만의 82%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정책 등 전통적 의미의 농업정책 이외에 지역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촌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가와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 그린투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주5일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 관광형태도 기존의 단체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등을 선호함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농촌관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정비를 통해 침체된 농촌의 기능과 활력회복의 전기로 활용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높은 관심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도에 녹색농촌체험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에 시범적으로 녹색농촌체험 18개 마을을 선정, 주민 생활 편의시설 및 여가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일부 마을의 지난 한해동안 운영실적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형태의 농촌관광모델로서의 성공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서도 농촌체험관광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여 녹색농촌체험관광이 개방화시대 농촌회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제1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촌관광 붐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촌관광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농촌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를 구축하였으며, 농촌관광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관광발전방향 및 방안”, “농촌관광프로그램개발”,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농촌진흥과 서기관 김홍우)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나. 농공단지 활성화

농공단지개발의 활성화와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1994년 5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 지방비 용자재원에 대한 여신을 재개하는 한편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 조림비 납부를 면제시켰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1994년 9월과 1996년 5월, 1997년 12월, 1999년 4월, 2001년 2월 및 2001년 10월에 개정하였다. 특히, 2000년 중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2월 『농공단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①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증액(추가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 조성시 부지조성비 지원 55천원 → 80천원/평), ②부적지에 조성하지 않도록 입주업체를 3/4이상 사전확보하게 하는 등 신규지정기준 강화, ③지역 특화 산업단지·전문단지 조성제도 신설 등이다.

또한 10월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간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부지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도에는 농공단지 위치를 경사지에 선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입지선정 기준인 “농업진흥지역밖 논편입비를 60%이하” 규제규정을 삭제하고, 농촌에 건설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2003.9.3개정)하는 등 수차에 걸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통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32<표 2-2->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목표(1984~2014)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400	295	19(1)	104

주 : ()는 완공지구

(농촌진흥과 시설서기관 조홍제)

다. 농촌휴양자원의 개발

과수, 화훼, 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재배시설과 식당,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편의시설 등을 겸하여 설치·운용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도·농간 교류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등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민박마을 10개소(9억원)를 지원하였다. 농어촌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을 개정(2002.12.26), 2003년부터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종합자금(연리 4%)으로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3<표 2-2>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실적('84~'02)

구 분	합 계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촌민박마을
사업량(개소)	629	9	334	286
지원액(백만원)	167,447	16,600	123,380	27,467

주 : 자부담개발 사업량은 제외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병태)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은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농산물가공공장 신규건설, 기존 운영중인 가공업체의 시설개보수·현대화, 포장개선(디자인, 용기), 운영(가공원료수매자금, 판매·홍보)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이 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그 동안 농산물가공공장은 1989년 이후 1,099개소를 건설하였으며, 2,888억원을 국고보조·융자 지원하여, 623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476개소는 관리해제(퇴출 202, 관리기간 경과 274)되었다.

한편, IMF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가공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1998년에는 관리중인 업체(1,00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51.5%의 업체가 경영부실·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1999년부터는 경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가공공장 건설 목표를 2,000개소에서 1,200개소로 하향 조정하여 신제품개발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신규 가공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기존 운영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현대화지원 및 포장개선비(디자인, 용기개발), 운영비(가공원료수매자금, 판매·홍보) 지원 확대, 가공업체 경영주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업비 지원방식도 1998년까지는 국고 보조·융자 지원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참여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하여 국고융자(70%), 자부담(30%)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농산물가공공장 경영활성화대책 추진 결과, 2002년에는 업체의 운영상황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산물로만 유통되던 농산물을 가공처리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가공품의 수출확대를 가져왔고, 가공공장과의 계약재배 및 직거래, 유통단계 축소 등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2002년도의 사업 추진실적은 가공공장 신규건설 8개소 38억원, 기존 운영업체의 시설개보수·현대화 19개소 23억원, 포장개선(디자인, 용기개발) 14개소 3억원, 가공원료수매자금 241개소 799억원을 국고융자 지원하였으며, 가공업체에 대한 판매·홍보지원 11억원을 보조 지원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34<표 2-2-> 농산물가공공장 연도별 운영상황

구 분	단 위	1999(A)	2000	2001	2002(B)	대비(B/A)
○ 매출액	억원	5,304	5,691	5,970	6,670	25.8% 증
- 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692	762	906	1,140	64.7% 증
○ 수출액(업체수)	억원(개소)	385(157)	319(127)	358(128)	337(114)	12.5% 감
○ 원료농산물구입액	억원	3,006	3,115	3,290	3,649	21.4% 증
○ 연간 고용인원	명	8,700	8,500	9,153	8,399	3.5% 감
- 연간 지급임금	억원	702	746	767	858	22.2% 증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35<표 2-2-> 농산물가공산업 추진현황(2002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가공공장 건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판매·홍보	합 계
	신규	시 설 개보수	포장 개선	소계			
읍자	개소수	8	19	14	41	241	282
	지원액	38	23	3	64	799	863
보조	개소수					-	-
	지원액					11	11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서기관 이강호)

제 2 절 농업전문경영체 및 여성농업인 육성

1. 후계농업인 육성

가. 개 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국내 농업이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차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까지 총 120,294명을 선정하고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2002년도 추진상황

2002년에는 후계농업인 2,500명을 선정하고 1인당 평균 4,000만원을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기술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다. 평 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2년까지 2조1,11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0,294명의 후계농업인을 확보하였으며, 후계농업인으로 지원받은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36<표 2-2->

2002년 후계농업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후계농업인	2,500	1,764	736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2. 법인경영체 육성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1991년 25개소를 시작으로 2002년에 4,315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리하며,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법인설립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요건의 강화로 최근에는 설립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지의 소득은 출자조합원당 1,2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교육세 감면으로써,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은 면제하고 농지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둘째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중심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력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시·군, 농촌지도소 등에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1991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써,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1990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2002년에 1,283개소가 운영중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에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농기계의 확대 보급에 따른 영농대행 물량의 감소로 설립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내용을 보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 농업경영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 법인경영체 육성시책 평가

법인경영체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산업기능을 포괄하는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의 중심체로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경영체의 경우 치밀한 사전 준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경영체 운영 경험 및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출자금 및 자기자본금의 최저한도와 운영실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은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 위주로 지원을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법인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경영장부 기장을 의무화하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인명의의 등기여부를 확인하며,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을 설치하여 마케팅, 회계, 세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경영의 혁신을 위해 법인경영체가 민간 컨설팅공급업체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20%를 포함하여 50%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2002년에는 최초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를 도입하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경영체가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배정받아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2년 7월에는 「기타생산자단체의범위(농림부고시 제2002-36호)」를 제정하여 농업인 5인이상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이상인 우수 농업법인 2,200여개소가 생산자단체의 지위를 갖도록 함으로써 법인경영체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3. 신지식 농업인 육성

가. 개 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농업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132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여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이들의 노하우와 신지식기술 등을 확산하여 지식농업시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신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홍보용CD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나. 신지식농업인 육성 방안

지식기반사회의 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확대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신지식농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미래의 농업세대에 대한 신지식농업인 농장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신지식농업인 경영체 견학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양성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농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다큐멘터리 영상물 및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을 지식농업의 확산 주체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오은하)

4.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가. 농업인교육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식농업 실현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0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영농기술, 농업기계, 농촌생활과학, 4-H회원,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습득은 물론 수입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1)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중앙에서는 수출유망품목 또는 고소득작목에 대한 새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539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농업인으로써 역량을 증진토록 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2) 선도경영농가 전문기술교육

품목별 선도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과 경영개선에 대한 토론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식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육성하였다.

(3) 전문농업인교육

농촌과 지역농업 발전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하여 품목별 전업농가 및 전문농업인 조직체 회원 등 52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영농공개강좌

세계화·개방화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역특화품목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전국 25개 지역에서 5,569명을 대상으로 영농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5) 농업인정보화교육

체계적인 농장관리와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희망자 26,603명(도 6,846, 시군 19,757)에게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과 영농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6)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지역별 주력품목의 전문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군별 3개 이상 품목을 선정, 70,392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 및 유통기술을 연 4회에 걸쳐 품목별 조직중심으로 상설교육을 실시하였다.

(7) 새해영농설계교육

1~2월중 전국적으로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실정에 맞게 품목별 115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총 581,996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영농현장 애로기술과 새기술·정보 및 농정시책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새해 영농계획수립과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8) 농기계교육훈련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안전운행 등 기계화영농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에서는 전국 202명의 농기계교관을 대상으로 신 기종의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전문기술을 4일간씩 2회 교육시켰다. 또한 농기계정비 기능사양성교육은 농업인, 귀농인, 수리업소요원 등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영농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였다.

전국 농과대학생 64명에게 농기계 운전, 포장작업 등에 대한 교육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었다.

전국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323명을 대상으로 현장실기 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과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계 교사 17명에 대해 점검·정비기술을 2일간 교육했으며, 외국인(아세안)28명에게 취급조작 및 작업기술에 대해 2~3일씩 2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 단위교육은 기계화영농사 1,246명과 신규 취농인 287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등의 기종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2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군에서는 소형기종 구입농가 중심으로 23,353명에게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도로주행형 기종 보유농가 148,839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적극 실시하였는데 19,534회에 걸쳐 오지 마을 29,347개를 대상으로 234,322대의 고장농기계를 수리하였고 228,443명에 대한 개별 기술지도로 농업인의 자가정비수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다.

(9) 여성농업인교육

농촌생활에서 요구하는 생활과학기술과 영농기술교육 실시로 능력 있는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배양과 합리적인 생활 실천으로 지역발전에 주체로 육성하고자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313,078명(중앙 223, 도 5,849, 시군 307,006)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 농촌지도관 가형로)

나. 농업계학교 교육 활성화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지역 농림업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국립 농림계 14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첨단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대 농민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별 특성화 분야(표 2-2-37 참조)별로 연구·개발·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1994년 이후 총 투자계획(675억원) 대비 91% 수준인 총 614억원을 지원하였다. 특성화 목적에 맞는 연구를 위해 대학별로 기본적인 시설·장비·기자재를 완비해 가고 있으며 그 성과는 <표 2-2-38>과 같다.

37<표 2-2->

대학별 특성화분야

학 교 명	특 성 화 분 야	학 교 명	특 성 화 분 야
강원대 농생대	고냉지 환경보전형 농업개발	전남대 농생대	수도, 맥류, 배
강원대 산림과학대	산림자원의 생산, 이용 가공 및 환경자원개발	순천대 농생대	조미 채소류(마늘, 파, 양파, 고추, 생강, 부추)
한경대	낙농분야	안동대 자연과학대	유용자생식물(약용 등), 고추
서울대 농생대	농업생물환경과학	경북대 농생대	과수(사과, 복숭아)
충북대 농 대	포도, 버섯, 잎담배	경상대 농생대	시설원예, 한우
충남대 농생대	인삼, 과채류(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진주산업대	양돈
전북대 농 대	수도, 양계	제주대 농생대	감귤, 화훼

자료 : 농촌진흥청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2004년에 종료되는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이 지금까지의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결과평가와 아울러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38<표 2-2> 대학별 사업성과

대 학 별	사 업 내 용
서 울 대	· 유리온실, 목장현대화 · 농업연구정보시스템, 실험기자재 · 실험농장, 농업환경오염방제시설, 종합농업공작시스템 구축
강원대농생대	·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신축, 연동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첨단한우생산 기 반시설 정비, 실험기자재, 온향습실, 축산물 가공 공장
강원대산림대	· 첨단유리온실 · 산림자원 개발 첨단 실험기자재 · 온실부속시설 · 농업과 학기술센터 장비 보완
한 경 대	· 낙농기술지원센터 신축 · 실험 기자재 · 실험동물 사육실
충 북 대	·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첨단유리온실, 생명공학실, 버섯재배사, C/타 우스, 실험 기자재
충 남 대	·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인삼 · 과채류 시설, 망실 · 실험기자재, 인공토 양제조시설
전 북 대	· 농업과학기술개발센터 신축, RPC시스템, 정보시스템 · 환경제어시설, 축산물가공공장, 실험기자재, 양계시설
전 남 대	· 농업기술특성화사업센터 신축, 배과수원 포장, 실험 기자재 · 첨단유리온실, 온실냉난방시설, 세대단축온실
순 천 대	· 조미채소기술센터 신축, 실험기자재, 농업인 교육관, 플러그 육묘시설
안 동 대	· 농업특성화연구센터 신축, 유전자보존하우스, 조직배양실, 다목적기계실 표본실, 식물생장조절실, 실험기자재,
경 북 대	· 사과연구센터 신축, 사과원 조성 및 부대시설, 실험기자재 · 사과원 선과시설 등 시설보완
경 상 대	· 첨단시설, 유전자원개발실, 유리온실, 한우사 보완, 실험기자재 · 경연질제 실험온실, 수확처리실, 농업과학기술센터 신축
진주산업대	· 실험기자재(양돈특성화기자재), 모델돈사, 육가공공장, · 양돈과학관
제 주 대	·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신축, 환경조절온실 등 온실(3종) · 저장고, 실험기자재, 농업정보화시스템 구축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기획과 농업연구사 안종웅)

5. 농업벤처 육성

가. 개요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제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분야, 농업투입재분야, 식품가공분야, 유통분야 등에 진출하여 비용절감,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 관련산업의 발전 및 농업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농업벤처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지원 등 관련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2002년도 추진상황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농업벤처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83억원)와 민간(97억원)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 100억원에 이어 2002년 8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 우수한 기술력과 농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아이템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분야 벤처기업 평가기관 설치,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및 투자박람회 개최 지원, 기타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 농업벤처 활성화시책을 추진하였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6.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가. 추진배경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동일한 영농조건이라도 경영체의 기술, 경영능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 및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타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나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경영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진단, 경영 및 정보화 교육실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농촌현장밀착형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기술·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경영여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예·특작·축산분야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유료(자부담 50%)의 전문·상업적 농업컨설팅 서비스기반을 구축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주요품목 60개의 경영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 기술·경영상의 문제점을 확인·보완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계통 조직에 학계, 컨설팅업계, 관계기관,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전문가팀을 구성·운영하였고, 2002년에는 5,586백만원(국고 1,676, 지방비 1,117, 자부담 2,793백만원)을 투자하여 759개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9<표 2-2-> 2002년 컨설팅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 개소)

계	원예·특작	축산	가공
759	119	585	55

그리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에 대한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의 경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토록 보급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아울러 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과 다른 농가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 평 가

농촌지도계통에 의해 수행된 농가 경영컨설팅은 60개 품목의 경영표준 진단표를 개발보급하고 68천여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처방 및 기술상담·지도 등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민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사업초기로서 컨설팅에 대한 인식부족 및 컨설팅결과에 대한 확신결여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참여농가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컨설팅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7. 농업종합자금제 확대 추진

가. 추진개요

농업종합자금제는 사업별·품목별로 세분화된 농업자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보수·운전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종합지원하는 선진적인 농업자금지원제도로서 대출기관이 행정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하는 지원체계이다.

정부는 1998년에 농업경영자금제 도입을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999년 전국 34개 지역(농협 시·군지부 17개소, 지역축협 17개소)에서 원예특작과 축산분야를 대상으로 총 15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0년도에는 원예·특작분야의 채소, 화훼, 과실, 인삼 등 품목별 생산유통시설사업과 축산분야의 한우, 젓소, 돼지, 닭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전업농육성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원예·축산분야의 재배·생산에 종사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지원조건은 연리 4%, 상환기간은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이며,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에만 20백만원을 하한으로 하고 있다.

40<표 2-2->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기존지원체계	종합지원 제도
지 원 방 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농협)
자 금 지 원	년1회 일괄 선정·지원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후 추가지원
사 후 관 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나. 종합자금제의 주요 특징

첫째, 사업추진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대출기관이 일괄 담당하고 대출위험도 부담토록 하여 대출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농가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농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농업인의 편의(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를 위해 연중 수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지원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사전·사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품목별·지역별·사무소별로 자금을 사전 배정(할당)하는 공급자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위주의 자금공급방식을 지양하여 경기 등 여건변동과 사업성을 반영하는 신속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 2002년도 종합자금 지원실적

(1) 품목(축종)별 특징

축산분야의 한우(25%), 양돈(18%)부문과 원예특작분야의 채소(12%), 과수(12%)부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화훼(5%), 양계(5%)부문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002년부터 전업 축산경영자금이 종합자금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농가당 평균지원규모는 26백만원이며 분야별 평균지원규모는 축산분야가 32백만원, 원예특작분야가 21백만원으로 축산분야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금용도별 특징

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이 15.3%, 개보수자금 8.6%, 운영자금 76.1%로서 운영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2001년부터 운영자금의 별도 지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41<표 2-2-> 농업종합자금 추진 현황('02년)

분야	세 품목·축종	사업량 (호)	자금용도(백만원)				평균 지원금액 (백만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합계	
원예 특작	채 소	3,612	5,365	1,388	69,710	76,463	21.2
	과 수	2,987	26,242	2,272	44,124	72,638	24.3
	화 훼	1,169	2,774	623	26,666	30,063	25.7
	특 작	3,681	6,850	1,095	48,647	56,592	15.4
	소 계	11,449	41,231	5,378	189,147	235,756	20.6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분 야	세 품목·축종	사업량 (호)	자 금 용 도(백만원)				평 균 지원금액 (백만원)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합 계	
축 산	한 우	5,458	24,825	23,852	106,922	155,599	28.5
	젓 소	2,216	15,892	13,671	28,564	58,127	26.2
	돼 지	2,518	6,131	1,510	103,655	111,296	44.2
	닭	871	6,094	2,571	20,892	29,557	33.9
	기 타	506	123	520	11,741	12,384	24.5
	소 계	11,569	53,065	42,124	271,774	366,963	31.7
기 타	1,338	1,210	6,360	13,973	21,543	16.1	
합 계	24,356	95,506	53,862	474,894	624,262	25.6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라. 추진성과

(1) 종합자금지원시스템의 안정화 및 추진체제 확립

1999년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이후 5년차에 이르는 종합자금제는 그간 사업 계획 수립상담, 경영능력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경영실태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등 기본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제도정착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2) 정책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충분한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으로 농업분야의 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품목별·지역별·용도별 구분 없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경직성을 탈피하였다.

(3)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사업성공률 제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만을 선별지원하여 사업과 경영체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시설·운영·개보수자금을 농업경영체의 사업발전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단계별로 종합지원함으로써 경영체가 스스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자금지원 이후에도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기초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농가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경영컨설팅과의 연계를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백철우)

8. 여성농업인 육성

가. 개 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정책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의 14,422천명이 2002년에는 총인구의 약 7.5%인 3,59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이 2002년에는 1,843천명(농가인구의 51.3%)으로 감소하였다.

42<표 2-2>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단위 :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전체	14,422	7,497	10,827	6,641	6,661	4,240	4,032	2,795	3,933	2,785	3,591	2,623
남성 (%)	7,164 (49.7)	3,666 (48.9)	5,415 (50.0)	3,331 (50.2)	3,279 (49.2)	2,123 (50.1)	1,972 (48.9)	1,372 (49.1)	1,902 (48.4)	1,370 (49.2)	1,748 (48.7)	1,292 (49.3)
여성 (%)	7,258 (50.3)	3,831 (51.1)	5,412 (50.0)	3,310 (49.8)	3,383 (50.8)	2,117 (49.9)	2,060 (51.1)	1,423 (50.9)	2,031 (51.6)	1,415 (50.8)	1,843 (51.3)	1,331 (50.7)

자료 : 통계청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이와 같은 농가인구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가인구의 51.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도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 즉, 「여성농업인력의 주류화」의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2001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고, 2002년에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의 추진 두번째 해로서 추진사업이 정착되어 가는 해였으며, 여성농업인육성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육성법령을 완비한 뜻깊은 한해였다.

나. 주요 추진시책

(1)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전문적인 농업인력화를 위해 농진청과 농협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과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도 경영을 해야 하는 오늘의 농업 현실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해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교육을 24,000여명,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전파하는 영농기술교육을 30,000여명, 영농경력이 풍부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도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여성농업경영자교육 36명, 축산 및 환경분야 전문농업경영교육 29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2002년에는 현장출신의 여성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여성농업인 교관훈련을 실시하여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전문강사 확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농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정책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여성농업인은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가 적어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다른 계층의 교육과 달리 여성농업인 눈높이 교육훈련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눈높이 교육훈련은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전문직업의식을 고양시키고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2002년도에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농협대학에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훈련을 위하여 8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각종 단체 및 위원회에 여성위촉 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각종위원회 및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참여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율은 1997년말 5.1%에서 1998년 10.1%, 1999년말 20.8%, 2000년말 24.2%, 2001년말 30.2%, 2002년말 35.6%로 확대되었으며,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에 있어서도 여성조합원 비율은 ('01) 19.6%→('02) 21.2%, 여성대의원수는 ('01) 1,924→2,225명, 여성임원수는 ('01) 94명→('02) 181명으로 확대되었다.

(3)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전체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인구중 여성이 51%에 달하지만 농업·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층·자녀보육·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열악한 실정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방과후 자녀학습지도와 전문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전국 4개 도 4개 지역(영동, 서천, 안동, 진주)에서 시범운영에 이어 2002년도에는 전국 9개 도에 2개소씩 총 18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발된 자가 운영토록 하고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센터당 연간120백만원 기준으로 국고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비율로 지원하였으며, 사업수행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2003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지침에 반영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43<표 2-2->

2002년도 센터별 운영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고충 상담	보 육	방과후 학습 지도	여성농업인				개소일
					교 육	단체 활동	도농 교류	기 타	
경 기	용 인	175	8,204	6,530	2,543	189	288	-	'02.3.2
	여 주	289	2,948	8,874	1,142	501	387	341	'02.4.1
강 원	횡 성	301	1,008	6,234	1,501	2,243	430	-	'02.4.1
	양 구	241	1,717	6,148	1,982	147	257	128	'02.4.8
충 북	청 주	186	717	1,162	606	112	125	253	'02.9.2
	영 동	138	7,307	5,227	640	366	1,105	221	'01.3.19
충 남	홍 성	365	1,935	7,104	2,240	392	200	992	'02.3.20
	서 천	182	2,479	4,666	417	607	725	889	'01.3.12
전 북	진 안	161	2,965	3,312	173	118	94	-	'02.4.19
	부 안	331	3,029	7,055	1,218	151	305	199	'02.4.15
전 남	나 주	207	1,551	7,989	2,625	504	140	241	'02.3.15
	장 성	109	4,010	545	83	3,172	750	-	'02.3.10
경 북	안 동	322	3,625	14,845	2,145	540	320	151	'01.3.15
	영 양	140	2,851	3,642	666	105	8	-	'02.5.2
경 남	진 주	127	11,650	15,600	634	2,717	163	514	'01.3.2
	거 창	478	7,125	13,580	755	672	350	-	'02.3.1
제 주	북제주	312	2,923	2,534	2,387	115	62	-	'02.3.15
	남제주	247	568	485	1,269	546	64	76	'02.9.28
계		4,311	66,612	115,532	23,026	13,197	5,773	4,005	
평 균	년/센터	240	3,700	6,418	1,279	733	321	223	
	월/센터	27	411	713	142	81	36	25	
	일/센터	1	17	30	6	3	2	1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일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의 피해를 줄이고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조건을 고려한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농가도우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00년 농가도우미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1일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율도 50%에서 80%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까지 높였으며, 사업지역도 68개 시·군에서 8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2002년에는 163개의 농촌지역 전체 시·군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2,452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하였다.

(5) 여성농업인 정책연구 사업추진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개발로 성(性) 인지적(gender sensitive) 농업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고자 여성정책담당관실 출범과 함께 여성농업인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2001년간 매년 3개 과제 연구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도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등 3개 과제를 선정, 공모를 통해 과제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결정 및 추진에 반영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단체에도 동 자료를 배포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토록 하였다.

다. 평 가

1998년 3월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한 이후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하여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농업인대표가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각종 농정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농업인단체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농업인정책 형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1일 시행된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00년에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2002년에는 여성농업인육성법령을 완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하고 있다. 농가도우미제도 및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한발 다가서는 중요한 시책이라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가 개척단계로서 여성농업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채륙)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44<표 2-2->

여성농업인육성 사업추진 현황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 정보화교육	명	-	-	160	21,450	24,325
○ 영농기술교육	명	-	-	-	30,594	30,801
□ 여성농업인 교육시스템 구축	종	-	프로그램개발연구	-	눈높이교재개발/4	-
○ 여성농업인교육 워크숍 개최	회	-	-	-	1	-
○ 여성농업인 교관반 운영		-	-	-	수요조사	24
□ 여성농업인 해외선진농업연수	명	-	-	28	5	26
□ 후계여성농업인육성	%/명	12.9/1,011	20.3/980	18.4/859	15.3/435	20.6/294
□ 각종위원회 여성위촉 확대	%	10.1	20.8	24.2	30.2	35.6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 여성조합원	%	-	-	-	19.6	21.2
○ 여성대의원	명	-	-	-	1,924	2,225
○ 여성임원	명	-	-	-	94	181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국민안전식생활교육·홍보	백만	503	359	205	200	200
○ 도·농교류사업	개/백만 워크숍/회		11/200	9/150	8/150	9/145
□ 여성농업인 단체활동 지원	백만	20	40	60	80	80
□ 여성농업인 전문직업의식 고양						
○ 여성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백만	20	20	20	27	10
○ 여성농업인 표창	명	-	-	30	17	22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개소/씩만	-	-	-	4/300	18/1,445
□ 모·부자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명/백만	-	-	-	540/350	574/413
□ 농가도우미제도 정착	시군/명/ 백만	-	도입연구	68/730 /257	87/1,692/ 1,061	163/2,452/ 1,555
□ 여성농업인정책과제개발연구						
○ 농림부	과제	-	3	3	3	3
○ 농진청	과제	-	-	3	3	5
□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여농정책기본계획	-	여농육성5개년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정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규칙제정
○ 여성정책 특강 실시	회	수시	수시	수시	10회	15회
○ 여성정책반 운영	회/명	-	-	평등의식확산연구	1/38	1/44

제 3 절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촉진

1. 농업기술 혁신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21C 농업과학기술을 주도할 기초기술 및 실용화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목표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핵심 기반기술과 농업정책 지원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에는 소속 시험장·연구소 자체로 추진하는 경상연구사업과 시험장·연구소 및 대학 등 외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연공동연구사업이 있다.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2002년도 시험연구사업은 ①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 ②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③원예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④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개발, ⑤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⑥새로운 소득자원 개발 및 산업화, ⑦농업 생명공학 기술의 농업적 이용 및 실용화 기술개발, ⑧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⑨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⑩농축산물의 생산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기계화·자동화 기술개발, ⑪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소득화 기술 개발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경상연구사업 1,248과제, 공동연구사업 333과제 등 총 1,581과제를 수행하여 품종육종 190건, 시책건의 249건, 영농활용 729건, 산업재산권 113건 등 총 1,487건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2002년도에 도출한 연구성과 가운데 시책건의는 농림부, 환경부 등 14개 중앙부처, 15개 지자체 및 2개 단체에 건의하였으며, 영농활용자료는 농업인이나 지도직 공무원들이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육성한 190품종의 신품종은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물별로는 식량작물 38, 특용 및 약용작물 11, 사료작물 4, 원예작물 132, 벼섯 5품종 등이다.

45<표 2-2->

2002년도 주요연구성과

(단위 : 건)

품종육성	시책반영건의	영농활용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기 타	계
190	249	729	113	126	80	1,487

자료 : 2002년도 시험연구사업결과활용 목록집(농촌진흥청)

46<표 2-2->

2002년도 육성 신품종 현황

(단위 : 품종)

계	식량작물	특용·약용작물	사료작물	원 예 작 물	벼 서
190	38	11	4	132	5

자료 : 2002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원회 결과(농촌진흥청)

가.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생력 재배기술 개발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식량공급이 불가능하다거나 불안정적일 경우에는 국민의 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의 지출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제적 발전에도 장애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육성 보급된 벼 품종의 수량성과 밥맛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며,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 수요 감소와 MMA(최소시장접근)물량 도입으로 쌀 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증산위주에서 고품질로의 전환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 또한 2004년 WTO 재협상 이후 쌀 수입 자유화 등에 대비한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적 생력저비용 고품질 쌀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밥맛이 좋고 고품질인 품종 개발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생력 안정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2년에는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벼 10품종을 새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주요 신품종으로는 밥맛이 좋고 내도복성이며 10a당 쌀 수량이 532kg인 “금안”을 비롯하여 “태성”, “대평”, “서간”, “삼덕” 등이 있으며, 소득작물을 재배한 후에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단기생육성 품종인 “만호”를 개발하였다. 또한 가공·특수용 품종으로 아밀로스과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당뇨환자식 및 다이어트식에 적합한 “고아미2호”와 아밀로스 함량이 적은 중간찰성으로 식은 밥의 밥맛이 좋아 김밥을 만드는데 적합한 “만미” 등 기능성이 높은 품종을 육성하였다. 남북통일과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한 초다수성 품종으로는 흰잎마름병과 줄무늬마름병에 강하고 수량성이 753kg/10a에 이르는 통일형 품종인 “한아름”과 자포니카 초다수 품종으로 쌀수량이 662kg/10a인 “남일”을 개발하였으며, 국제미작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도열병에 강하고 등숙률이 향상된 신초형 벼 “수원490호”를 육성하였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밥쌀용 96품종에 대하여 미질 등급을 재분류하여 고품질 37품종을 선정, 2003년 지대별 적응품종으로 추천하였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개발에서는 지대별 적정 이앙시기를 제정립하였으며, 적정 질소시비량은 10~11kg/10a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완전미 생산을 위한 도정기술 체계확립 연구로는 기존 도정체계에 색채선별기와 입형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착색립, 피해립, 싸라기 등을 제거한 완전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쌀 생산비절감을 위한 친환경 생력재배기술 개발에서는 경운+이앙+시비+제초제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부분경운기계이앙 방법을 개발하여 중묘기계이앙대비 16.3%의 노력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노력절감형 벼 이앙동시 축점시비 기술은 시비횟수를 줄이고 질소시비량을 20~30% 절감하였다. 또한 종자매트를 이용한 직파재배 연구를 통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95%이상 방제할 수 있도록 종이매트를 깔면서 동시에 범씨를 점파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기술과 이앙후 상자세척 및 보관관리가 필요없는 1회용 종이육묘상자 개발 등 노력절감 기술을 개발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수확후 관리기술연구로는 벼 적정 건조온도를 구명하였으며, 도정시 적정 벼 수분함량을 16%로 하였을 때 완전미율이 가장 높음을 밝혔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일품쌀 완전미”, “신동진쌀”, “주남쌀” 등에 대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산업화 시켰으며 품종별 재배기술과 완전미 생산을 위한 수확후 관리기술 등을 지자체에 기술이전 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김홍열)

나. 소득증대를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밭작물은 기반시설의 미비로 수량의 안정성이 낮고 생산비가 수입대상국의 5~10배 높아 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며, 원예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아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밭작물의 재배면적은 1970년대에 비하면 1980년대에 50%, 1990년 28%, 2000년에는 16%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되어 왔다. 반면에 밀, 옥수수, 콩의 도입량은 2000년 13,734천 톤으로 1,749백만불에 달하여, 이들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품종육성과 생산성 제고 및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도의 신품종개발은 맥류에서 보리, 밀 등 3작물에서 8품종, 전작물에서 콩, 옥수수, 감자 등 7작물에서 20품종, 특용작물은 3작물에서 6품종 그리고 약용작물에서는 5작물에서 5품종을 육성하였다.

보리는 내한성이 강하여 중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쌀보리 “새한쌀”과 호위축병에 강하고 총체수량 및 영양가치가 높아 가축 사료용으로 적합한 사료용보리 “영양” 등 6 품종, 밀은 국내최초의 찰성밀로 숙기가 빨라 이모작이 가능하고 생면용으로 적합한 “신미찰”을 개발하여 국산밀의 이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호밀은 답리작 및 옥수수 앞그루 청예조사료용으로 “윈터그린”을 개발하여 겨울철 유희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으로 자급을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콩은 두부수율이 높고 불마름병 및 모자이크바이러스병에 강하며 특히 내습성과 내도복성이 강하고 수량이 높아 논재배에 적합한 "대콩" 등 8품종, 팥에서 적색종피로 통팥 및 앙금수율이 높은 "경원", 완두에서 밀식적응성이 높고 숙기가 빨라 다양한 작부체계에 적합한 "다청"을 육성하였다. 옥수수에는 후기녹체성이 좋아 사일리지용으로 적합하며 종자채종이 용이하여 농가확대보급이 기대되는 "청안옥" 등 4품종을 육성하였다.

감자는 괴경 육색이 황색으로 칩가공 품질이 우수하고 역병에 저항성인 '가황'과 가을재배용으로 괴경 육색이 흰색으로 식용선호도가 높고 내재해성인 '추강'을 육성하였고, 고구마는 엽병(葉柄)이 자색이며 괴근과 엽병의 품질이 우수하여 식용 및 엽병나물용인 "하얀미" 등 3품종을 육성하였다.

특용작물에서 참깨는 종피가 검고 역병 및 도복에 강한 착유 및 조미용 "만혹" 등 3품종, 들깨는 잎채소 전용으로 종피색이 회백색으로 농가에서 파종작업이 편리할 뿐 아니라 마디가 많아 수량도 높은 "대신"을 육성하였고, 땅콩은 종실의 균일도가 높고 양질의 지방산함량이 높으며 도복에 강한 "아광" 등 2품종을 육성하였다. 약용작물에서는 조사포닌 및 Spicatoside 함량이 높은 맥문동 "성수"와 엑스함량이 높고 근특성이 양호한 길경 "장백" 및 연황색 근피를 지니고 수량이 높은 지황 "대경"을 육성하였다.

작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하여 콩나물에서 숙취해소의 효과를 가진 아스파라진과 항암 및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아이소플라본의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유용성분 고함유 품종육성 및 재배조건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헛개나무 등에서 항산화, 항고혈압, 항치매 및 숙취해소 활성물질과 오디 및 지치로부터 천연색소, 석창포 및 후박 등에서 기능성 방향성분을 분리 동정하여 식물함유 유망 기능성 및 신소재 물질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밭작물의 재배기술개발에서는 콩 논재배기술 확립에 노력하여 태광콩 등 4품종의 적응품종을 선발하고 적정재식밀도(단작:60×20cm, 이모작:70×15cm), 작휴방법(고휴재배 20%증수)과 점파식 파종기와 줄뿌림 파종기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이용한 파종방법 및 적정제초제 선발 등 재배기술체계를 확립하였다. 보리에서는 답리작 보리 대단위 기계화 연구를 통해 관행에 비해 43%의 노력 절감효과와 벼 단작에 비해 87%의 소득증대효과를 거두었고, 풋땅콩을 도입한 고소득 작부체계 실증연구를 통해 알타리무+풋땅콩+알타리무 작부체계에서 땅콩 단작대비 288%의 소득증대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잇들개 안전재배기술개발 연구에서는 재배방법별 적정파종시기를 구명하여(노지재배-5.1, 축성재배-8.15, 반축성재배-1.20) 발작물의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인삼 재배기술 현황분석 및 문제점 기술발굴을 통해 주산지인 금산 등 4개소에서 현지실태조사 결과 염류집적 및 생리장해가 극심하였고, 파종 및 이식, 수확 작업에서 기계화율이 26%로 저조하였으며 농약과다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병성 품종과 청정인삼 생산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망 약용작물의 국내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감초, 지황, 당귀에서 안전재배방법을 구명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김홍열)

다. 원예작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따른 소비의 대중화 및 다양화로 원예산업이 확대되었으며, 소비량도 크게 증가되었다. 원예산물에 대한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990년 132.6kg에서 2001년 164.8kg으로 24% 증가하였고, 과실은 41.8kg에서 59.2kg으로 42% 증가하였으며, 화훼류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5,600원에서 14,700원으로 2.6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농업 총생산액의 18%에 불과하던 원예산업의 비중이 2001년에는 31%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 동남아, 남미 등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와 우리 농산물시장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분야에서는 2002년도에 감자, 자두, 국화 등 23작목 101품종을 육성하였다. 채소류는 8작목에서 18품종을 육성하였는데, 수박은 탄저병에 저항성이며 과형이 단타원형으로 과피 두께가 얇으며 당도가 높은 ‘강타꿀’ 등 3품종과 덩굴마름병에 저항성이며 과형이 원형으로 당도가 높은 ‘강건1호’ 등 2품종을 육성하였다. 토마토는 무한성장형으로 TMV와 위조병에 강하고 기형과 발생이 적은 ‘탐나라’ 등 2품종, 멜론은 당도가 높고 덩굴쪄짐병과 덩굴마름병에 강한 ‘온누리3호’와 과육색과 육질이 우수하고 하우스 생산이 가능한 ‘부원’ 등 2품종을 육성하였다. 그리고 딸기는 대과(18g)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수량이 높은 ‘조홍’, 부추는 시설재배용으로 저온신장성이 양호하고 수량이 많은 ‘해돋이’ 등 5품종, 상추는 엽색이 회녹색으로 식미가 양호하고 추대가 늦은 ‘천상’ 등 2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이밖에도 무와 배추의 교배를 통해 육성된 새로운 식물로 90일 이상 재배하면 배추와 같이 통이 얇으며 속잎이 노랑고 소형무 정도 비대한 뿌리를 가지는 특성이 있는 ‘배무채’를 개발하였다.

과수에서는 조생종으로 과피색이 적색으로 당도가 13.5°Bx로 식미가 좋으며 극조생종으로 7월상순에 수확이 가능한 ‘하니레드’ 자두를 육성하였다. 참다래는 과육색이 밝은 노랑색으로 과육이 연하고 과즙이 많으며 당도가 14.8°Bx로 식미가 우수하며 수확기가 10월 하순으로 기존 ‘헤이워드’보다 빠른 ‘제시골드’와 과육색이 녹색으로 연하고 과심이 적은 ‘제시그린’ 등 참다래 2품종을 육성하였다.

화훼류에서는 13작목에서 80품종을 육성하였는데, 국화는 주년재배가 가능하고 흰녹병에 강한 황색 스프레이형 ‘황매’ 등 2품종을, 나리는 조생종이고 꽃잎 기부에 반점이 약간 있는 나팔모양의 화형으로 측향으로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요’ 등 2품종, 장미는 백색에 가까운 연분홍색의 절화용으로 향기가 우수한 ‘핑크펠’ 등 2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카네이션은 꽃잎이 과형으로 화려하며 절화수명이 길고 백색의 스프레이형인 ‘드림별’ 등 2품종, 거베라는 황색 바탕에 흑색의 화심이 있고 홑꽃으로 줄기가 튼튼하며 엽수가 적어 생력형인 ‘댄서’ 등 3품종을 육성하였다. 이밖에도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선인장 7품종, 아마릴리스등 3품종, 팔레놉시스 등 3품종, 꽃도라지 등 2품종, 페튜니아 22품종, 팬지 22품종, 무궁화 3품종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소재배 분야에서는 고추 직파재배시 파종노력을 줄이고 발아율을 높이기 위한 블록 이용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일시수확형 고추 무지주 재배시 40일 어린묘를 이용할 경우 노력시간을 77%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고랭지 적응 사계성 딸기품종인 ‘페치카’ 품종을 선발하였고, 고랭지 양파 직파재배 기술, 양파 팻렛팅 종자 파종기술 및 조생 양파 무가온 하우스재배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과수 재배분야에서는 ‘후지/M9’ 과변무 사과원의 유인 방법으로 지상 1.4m 이하 주지를 하수 유인함으로써 수평유인 대비 꽃눈수를 18% 증가할 수 있었으며, 사과원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미세 살수방법을 개발하였다. 수출용 황금배의 생리장해 원인 구멍 및 방지대책을 위해 토양물리성 개선 및 결과지 유인으로 돌배 발생율을 2~7%로 경감할 수 있었으며, 봉지씌우기 전 봉소 3회 엽면시비로 과육붕괴율을 3%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복숭아 동해 위험온도를 -21°C 이하와 -25°C 이하로 분류하고, 지난 30년 간의 기상청 최저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20년, 30년간의 복숭아 동해 위험지대를 구분함으로써 과수 기상재해 경감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감귤 풍상과 재해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감귤원 생력 기계화 적응 재식 수형 개발 및 밀식 감귤원의 기계화 적응 간벌 방법을 구명함으로써 생력 기계화 재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감귤 주산지 기상에 따른 온주밀감의 발아, 개화시기 예측식을 개발하여 생육단계의 정확한 예측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화훼류 재배기술 개발에서는 국화 고온기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해 여름철에 오전 7~9시에 탄산가스 1,200ppm 시용함으로써 수출 규격품 수량이 32% 증가하여 연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름철 고온과 강광으로부터 절화장미의 생육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온기에 외부 일사량이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400Wm⁻² 이상시 30% 자동 차광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절화장미의 색도가 높아져 상품성이 향상되고 13% 증수되었다.

기존 1중 비닐 온풍덕트 사용시 시설의 전후면 온도편차(±2~3℃)와 작물 생육차이가 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시설내 온도분포를 균일화할 수 있는 2중덕트를 개발하여 오이재배시 17% 증수되었고 연료비가 13% 절감되었다. 내부온도 변화폭이 큰 기존 온풍 난방기의 단순 on/off 방식을 개선한 온풍난방기 정밀 온도 조절장치를 개발하여 하우스내 목표치 온도를 ±1℃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시설내 안개 감지와 제거장치 및 순환식 수경재배시 배액의 재사용량 결정 소프트웨어와 배액 자동혼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원예작물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양배추의 절단면의 갈변, 연화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양배추를 세절 후 염소(100ppm) 처리 및 PE필름이나 플라스틱 용기 이용시 유통기간을 4일에서 10~12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신선편이(fresh-cut) 양배추의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김영철)

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국민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70년 5.2kg, 1980년 11.3kg, 1990년 19.9kg에서 2002년 33.4kg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업 총 생산액 33.6조원 중 축산업 생산액이 8.3조원으로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로의 변화와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및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국민 건강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축산기술의 지속적 개발·보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동물생명공학연구의 기초기반 구축 및 산업화 추진, 축종별 가축개량기술 개발 및 사양체계 개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확립,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 및 사육환경 개선, 양질조사료 자급기반 확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보 및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등을 2002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최초로 동물생명공학분야(한우)에서 EST(발현유전자단편) library를 구축하여 GeneBank(NCBI)에 등록함으로써 기능성 유전자 확대 발굴 및 가축개량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기초기반기술을 구축하였으며, 사람 조혈촉진유전자를 보유한 형질전환 돼지에서 생산된 EPO(조혈촉진제)를 분석한 결과 적혈구 용적 증가 및 사람 EPO와 아미노산 구조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 형질전환 가축의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종돈단계에서 물돼지고기 유발 유전자를 제거한 한국형 우량 종돈 2계통을 7년간('95~'02)에 걸친 계통조성을 통하여 개발함으로써 2003년 하반기부터 종돈장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입종돈 대체에 따른 연간 90만불의 외화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초음파처리서비스시스템(CUPID)”을 확립하여 한우 및 돼지 생축(生畜)의 육질과 육량을 인터넷에서 신속히 판정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국가개량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소비자 기호도와 육질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한 결과 연도(軟度)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쇠고기 “맛인증 중점관리기준(PACCP)”을 설정하고 돼지 육질예측을 위한 Proteomics 기술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 품질평가의 객관화 기술 개발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립을 위하여 사육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기준을 설정하고 소 사육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다.

축산물 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별 사양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데, 2002년에는 한우 품질고급화를 조기실현하기 위한 대농민 지침서인 「한우사육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가축 사양지침인 「한국 가축사양표준」을 제정하고,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양표준 지침서와 사료급여량 계산 프로그램을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 축산물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쇠고기 불포화지방산 조절 기술을 개발하여 1등급 출현율을 67%에서 82~91%까지 높였으며, 거세한우에 비타민 A의 급여를 조절하여 육질 및 육색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하여 한우 전문경영체에 종합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국형 젓소 개체관리서비스(DIMS)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 농가에서 개체별 유도사양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02년 농업과학기술상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환경보전형 가축분뇨처리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돈분뇨(액비) 저장조내 폭기장치 설치 및 공기 주입량(2.5m³/톤/시간)을 결정하여 균일한 액비생산과 악취를 획기적으로 감소(암모니아 농도 168ppm → 5)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오존을 이용한 축산 노오수 정화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BOD를 98.2%, SS를 97.5% 제거하는 정화처리 효과를 얻었다. 또한 가축관리 생력화 및 사육환경 개선 연구를 통하여 축사 환기체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육계사의 연료비가 22% 절감되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조사료 자원의 개발과 이용효율 증진을 위하여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2품종과 오차드그라스 2품종 등 한국형 사료작물 신품종 4종을 개발함으로써 양질 조사료의 자급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국내 육성 목초종자(화산 102호, 화산 103호)의 해외판매 계약을 네덜란드 Joordens사와 체결하여 종자판매시 톤당 100\$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총채보리(barley whole crop) 사일리지를 이용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고급육 출현율을 증진시켜 양축농가의 소득을 30%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논을 이용한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이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축산연구관 서 성)

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현재 국내에서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개방화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수입 농산물, 묘목, 종자 등으로부터 외래 병해충의 유입과 이상기온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에 의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많은 농약이 사용됨에 따라 환경오염 및 농산물 중에 농약이 잔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기술 및 병해충 방제기술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연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병해충의 정밀예찰을 위한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업과학기술원,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46기관이 참여하여 벼, 사과, 고추, 감귤 등 4작물 31종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이를 분석·정리하여 전국적인 병해충 발생정보를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2.rda.go.kr/ipsm/>)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는 천적을 포함한 병해충 종류·생태·방제자료 등이 177,343건, 병해충 진단·방제기술이 16작물 5만건 등이며, 농작물 병해충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 예찰시스템은 농작물 병해충·잡초의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적기에 방제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이용될 것이다.

최근 벼재배시 벼줄무늬잎마름병의 피해가 늘어가고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수출용 착색단고추의 바이러스병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 병해충·발생생태 및 방제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사과 ASSVd(Apple scar skin viroid)의 조기 정밀진단 기술로 유목기의 수피조직에서도 검출이 용이한 새로운 ‘핵산증폭전자화학발광법(NASBA-ECL)’을 개발하여 10배 이상 민감하고 휴면지의 수피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과점무늬낙엽병균의 침입 및 발병과 온도, 엽면 습윤 지속시간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감염속도, 발생확률 및 병반수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천적보호 방제약제로 디클로르포스(살충률 90% 이상, 천적 독성 30%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이하)를 선발하였으며, 배 과수원 꼬마배나무의 월동성충 최적 방제적기를 구명하였다. 이외에도 곤충병원성 선충 대량증식 기술, 박과작물 종자 전염 바이러스 진단용 ELIZA 키트, 멜론괴사반점바이러스(MMSV)의 RT-PCR 진단기술 및 사과 ACSLV, ASGV 동시진단기술을 이전하였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에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적 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고자 우수천적인 칠레이리움에 등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23개소 214ha, 성페로몬을 사과 IPM시범 등에 79개소 250ha에 보급하였다.

작물에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근권균(*Bacillus amyloliquefaciens*, EXTN-1)의 실용화를 통해 상토형, 입제형, 수화제형 등 3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포장에서 시제품의 작물병 발생억제효과를 시험한 결과, 오이노균병과 토마토폏마름병에 대하여 80% 이상의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여 주었다.

한편, 농산물 및 농업환경 중 농약잔류량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현미에 대하여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isoprothiolane 등 3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검출 농약의 식이안전성 평가 결과는 최대 잔류허용농도 대비 1/67~1/2로 안전하였으며, 농약잔류량도 1999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원토양 중의 농약잔류량은 살충제 endosulfan 등 26종이 검출되었으나, 농약잔류량 평가결과 토양환경에는 우려할 정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약살포시 비산, 휘산에 의한 주변의 유용생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누에, 꿀벌 등에 농약의 독성 및 살포방법에 따른 안전격리지대(Buffer zone) 설정시험을 수행하였다. 사과 과수원에서 SS기를 사용하여 농약 비산거리별 누에 및 꿀벌의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농약살포 지점으로부터 100m 지점에서 대조와 비슷한 피해율을 보여 안전격리거리로 100m를 설정하였다.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신청 및 등록농약의 독성 및 작물잔류성을 평가한 다음 총 1,027농약품목 중 649품목에 대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험을 추진하여 2001년도에 10작물 16품목에서 2002년도에는 들깨, 취나물, 상추 등 25작물 50품목을 직권등록과 동시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출용 사과, 배의 병해충 방제에 적용 가능한 농약 4종을 개발하였으며, 적용농약의 안전사용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수출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고현관)

바. 새로운 소득자원 개발 및 산업화

실크단백질은 인체에 대한 친화성이 우수하고 피부 트러블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뛰어나 실크와 양모의 복합단백질을 사용하여 두발용 염모제를 개발한 결과 손상된 모발을 윤기있는 머리결로 만들어줌과 동시에 염색 친화력이 강하여 기존의 염모제보다 색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박벌을 화분매개 곤충으로 대량공급하기 위하여 대량생산 pilot plant를 설치하여 연중 수시보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량생산 시설내 호박벌의 산란율을 10%, 봉군형성율을 30%정도 증진시켰으며, 호박벌을 이용한 시설내 호박 및 시설복숭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착과노동력이 90%정도 절감되었고, 착과율 및 과형 향상으로 상품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주어진 계통내에서 우수한 형질을 갖춘 여왕벌을 선발하여 후대를 번식시켜 꿀벌의 잡종열세화를 극복하는 품종을 개량하고자 미세현미경하에서 인공수정기로 수필의 정액을 채취하여 여왕벌 난관에 삽입하는 임의 교배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인공수정한 결과, 산란 여왕벌의 비율이 84%까지 향상되었다.

건전 산림 생태계에서 버섯 종 다양성 및 분포상을 조사한 결과 전북 무주 등 56개 지역에서 총 1,258점을 수집하여 150속 355종 (617점)을 분류동정하였으며, 수집 버섯중 국내 신종으로 털보눈물버섯(*Psathyrella koreana* sp. nov.)과 서리눈물버섯(*Psathyrella utriformcystis* sp. nov.)을, 한국 특

산종으로 털마개눈물버섯(*Psathyrella pervelatoid* sp. nov.)이 있었으며, 또한 종형눈물버섯(*Psathyrella maculata*)은 한국미기록종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축산연구관 서 성, 농업연구관 고현관)

사.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농업의 생산환경 기반 조성으로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종전의 목표를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목표를 수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의 생산환경 자료의 모니터링 및 DB구축을 통하여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정밀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건전한 농업생태계의 유지보전 및 친환경 농업체계 구축과 아울러 국제농업협상에 대응하는 농업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토양환경 정보망 운용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토양도 총 16,620도폭 중 93%에 해당하는 15,469도폭을 작성하였고, 이 중 13,071도폭에 대하여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61개 시군에 웹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농경지 토양특성 정보, 토양의 이화학적 및 재배적지, 적성등급, 토지이용추천 및 토양관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편집지적도 및 행정자치부 농촌행정시스템의 농지원부 자료와 연계하여 2003년부터 웹서비스할 계획이다.

농업환경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과수원 토양에 대한 화학성분 및 중금속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옥도는 4년전에 비해 유기물과 유효인산함량이 감소하였으나, pH와 친환성 양이온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과수원 토양의 평균 중금속 함량은 카드뮴 0.084, 크롬 0.378, 구리 3.04, 니켈 1.00, 납 2.20, 아연 10.12, 비소 0.659 mg/kg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기준보다 낮게 검출되어 안전한 수준이었고, 심토는 표토보다 중금속함량이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농경지 이용형태별 중금속 함량은 논토양에서는 납, 밭에서는 카드뮴, 구리, 아연, 그리고 시설채소 재배지에서는 크롬, 니켈함량이 다른 농경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인근 취약농경지 60지역 600지점의 중금속함량을 조사한 결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모든 지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기준보다 낮았으며, 분포비율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5수준 이하가 95% 이상 분포되어 안전한 수준이었다.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술을 개발하였다. 『밭작물 물관리 지침서』를 개발하여 작물별, 지역별 및 시기별로 용수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농업용 지표 500지점에서 SS, DO, N, P, 중금속 등 1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편 논농사용 대체용수의 한계수질 구명 연구를 통하여 한밭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30일간 논농사용 대체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수를 이용하여 벼 생육시기에 따라 희석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경을 고려한 저투입·고효율 양분관리 체계 구축과 국제기준(Codex)에 부합된 유기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작물양분의 종합관리(INM) 기술을 개발하고자 양분공급량 실태조사 결과, 연간 화학비료는 717천톤, 가축분은 435천톤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가축분은 인산함량이 많아 연용시 토양 중 인산축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을단위의 비료자원에 대한 활용실태를 4개 마을에서 평가한 결과 벼농사 대비 질소투입량이 시설재배지에서는 2.98배, 복합영농지에서는 1.86배가 증가하였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논에서 이모작시 후작물의 대기정화기능은 호밀>보리>자운영 순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기성 폐자원의 환경친화적 재활용을 위하여 액비제조, 저장 및 운송, 액비살포기 개발, 가축분뇨와 환경영향평가, 액비살포시 주의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액비(가축분뇨)사용 지침서를 작성하여 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였으며, 평야지, 곡간지, 토성에 따라 논토양 특성별 액비 이용기준을 설정하였다. 한편, 가축분뇨 Biogas로 부터 전기발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외국기술에 의존해오던 Biogas plant를 완전국산화 하게 되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황사는 중국 및 몽고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여 흙먼지로 강한 편서풍을 타고 해마다 우리나라로 이동해 음에 따라 시설원예작물 및 축산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황사는 1998년 이후부터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4월에 주로 많이 발생하여 왔으나, 2002년에는 3월 하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황사연구를 위하여 2002년 3월 18일 토양, 미생물 분류, 안전성, 시설원예, 가축위생 분야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황사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시설원예작물과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또한 국내에 도착하는 황사는 중국의 발원지 토양보다 세균은 43배, 곰팡이는 314배 증가하였고, 황사시 비닐하우스의 시설내에 투광률이 감소되어 애호박, 오이 등 시설재배 작물의 수량이 감소하였으며, 한우의 호흡기질병 발생은 평상시보다 1.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호르몬이나 잔류성 유기화합물 등은 황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고현관)

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신소득자원 발굴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국내 부존 농산물의 식품학적 특성 및 영양생리효과를 구명하고, 농산물의 수요창출을 위한 식품소재화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천연 식품소재로써 신육성 국산장미(미향, 노을, 레드퀸, 핑크레이디, 화이트레이디), 유색감자, 지치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조사하였다. 장미 색소함량은 35~50 mg/g 수준이었고 항산화력은 미향, 노을, 레드퀸 품종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향기가 우수한 미향에서 총 54개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동정하였다. 또한 유색감자 33계통 중 우수 15계통을 선발하여 육종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전통식품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지치 뿌리 추출액이 발색 기능뿐만 아니라 항산화성, 항균성 등의 효과가 뛰어나 식품첨가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입증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가공기술을 연구하였다. 천연색소를 이용한 쌀가루 프리믹스를 개발하여 빵류, 과자류, 면류 등 가공용도별 프리믹스 조건을 구명한 결과 밀가루 대체 쌀가루의 적정 첨가비율이 빵류 30%, 도넛 60%, 쿠키 40%로 나타났으며, 고아밀로스 쌀의 제면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고 아밀로스 쌀의 경도 및 용출 고형분량이 122.4 g/ 5 mm, 4%로 밀가루 대조군의 113.7 g/ 5 mm, 0.8%에 비해 제면성이 뒤떨어지지 않으며 기호도도 일반 밀가루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고령화 및 성인병 유병율의 증가에 대비하여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인 당뇨병에서 고식이섬유 쌀(작물시험장 육종)의 생리조절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재료로 일품 및 고아미2호(고식이섬유쌀)의 백미와 현미를 영양성분 분석 후 옥수수전분을 대조군으로 하여 만든 실험사료 5종을 KK 당뇨마우스에게 8주간 급여하여 당뇨병과 관련된 혈당 및 지질대사 변화를 비교하였다. 식이섬유 함량은 고식이섬유쌀이 일품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식이섬유량 및 최종 체중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식이섬유 현미군에서 대조군보다 비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준이 34%, 41% 각각 낮은 경향을 보였고, 내당능이 개선되었다. 고식이섬유쌀 섭취군에서 혈액의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수준이 대조군보다 각각 22%, 12% 이상 낮았고, 간의 총지질,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수준도 대조군보다 40% 이상 낮았으며, 변으로 배설되는 총지질,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40% 이상 많이 나타남으로써 고식이섬유쌀의 당뇨병 개선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밥의 우수성을 구명하고자 “실시한 식습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학생이 수학능력점수가 높았고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전국 고등학교 각 학급에 “아침밥 먹으면 왜 좋을까?”라는 제목의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일반인의 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청국장을 이용한 혼합장 및 소스 등 청국장 소재 편의식을 개발하였으며 한국 전통 민속음식 조사·발굴 연구를 통하여 주식류로는 순창뽕잎비빔밥 등 49종, 부식류로는 붕어찜 등 196종, 기호식류로는 콩깨자 등 48종에 대한 전북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함으로써 소중한 전통민속음식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고현관)

자. 농축산물의 생산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자동화 기술 개발

21세기는 첨단과학기술과 정보 지식 시대이다. 어쩌면 21세기는 상상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상일지도 모른다. 5천년 농경사회의 수평적 정체기에서 3백년 산업사회의 단계적 발전기로, 그리고 미래첨단기술사회는 수직적 상승기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 요체는 농축산물의 생산성, 품질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농업기계화·자동화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청은 농산물의 비파괴 품질판정 등의 첨단공학과 농촌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계화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계화기술의 실용화촉진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농업기계 이용기술분야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260개 기관과 해당지역내 53농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의 유형, 이용 및 유지관리, 운영 수지 등에 관한 현황을 종합 조사·분석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면세유 공급 및 공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영농규모와 사용목적에 맞는 적정 농업기계의 선택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작업가능면적, 기계이용비용, 이용규모의 하한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바이오엔지니어링분야는 공정묘 사용의 증가에 따른 공정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결주 및 불량묘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장치, 인식된 결주 및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불량묘를 제거하고 우량묘를 보식하는 핸드 및 매니퓰레이터로 구성된 채소 육묘의 보식 로봇과 우량묘의 압면 이식작업의 로봇화를 위하여 트레이에 있는 우량묘를 압면에 이식하는 압면 이식용 로봇을 개발하였다. 또 식물조직 배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식물조직의 배양공정에서 기계화 요구도가 높은 배지의 분주 및 배양용기의 밀봉작업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식물배양용 배지의 분주 및 용기 밀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농업에너지 분야는 보온터널 재배에서 가장 문제시되던 개폐의 어려움과 덩굴작물이나 엽채류 등 키작은 작물에만 제한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겹의 비닐을 온실 중앙에서 권취하여 보온터널을 개폐할 수 있는 중앙권취식 보온터널개폐장치를 개발하였다. 또 펠라이트를 양액배지로 이용하는 양액재배는 작물의 근권부 온도를 주년 적정온도로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공기-물방식의 열펌프를 이용한 양액베드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풍난방기의 열효율 향상기술 개발을 위하여 온풍난방기 20대를 대상으로 온풍난방기의 배기가스 중 탄산가스농도, 온풍온도차, 배기가스온도 및 열효율을 조사하여 사용연수별 온풍온도, 온풍량 측정에 의한 열 이용효율산정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2중관형 비닐덕트를 이용한 온풍분배 구조개선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낙도, 오지지역의 독립전원으로 이용되던 태양광 발전을 이용 태양광 발전 온실 천측창 개폐시스템을 개발하여 무전원지역의 온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전시 비상용 전원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업시설구조 분야는 여성에게 취급조작이 용이한 최적의 의자 위치와 클러치행정을 구명하였으며, 클러치 페달의 답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클러치 링크시스템 메카니즘을 최적 설계하였다.

과종·이식기계 연구분야에서는 개발된 경운기 부착형 마늘과종기는 마늘을 세워서 과종되는 비율이 난지형 마늘은 58.0%, 한지형 마늘은 71.7%이며, 과종성능은 20시간/ha으로 인력대비 노동력은 93%, 소요경비는 56% 절약할 수 있으며, 손익분기 규모는 1.5ha임을 밝혔다. 벼 부분경운건답직파기는 작업상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동륜 위치를 직파기 양단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에서 중앙으로 변경하면서 개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였으며, 직경을 30cm에서 40cm로 키웠다. 그리고 안정적인 파종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파종위치와 시비위치를 교환하였으며, 파종프레임 폭을 50cm에서 60cm로 확대하여 종자도관의 꺾임 현상을 방지하였다.

재배관리기계 분야에서는 농약살포자가 먼 거리에서 리모콘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분무기용 호스자동권취장치를 개발하였다. 사용전원은 DC12V 또는 AC 220V 최대제어범위는 200개 정도임을 밝혔다. 벼 산파묘 육묘상자는 육묘상자 밑면의 개공률을 줄이고 구멍 모양을 새롭게 개량하여 모의 생육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수확기계분야에서 시금치 수확기는 뿌리절단과 동시에 이송하여 흙은 분리하고 시금치만 상자에 담을 수 있는 보행형 자주식 수확기로 인력에 비해 96%의 노력절감과 85%의 경비절감효과를 얻었다. 굴취형 고구마수확기는 트랙터부착형으로 굴취날로 고구마를 한 줄씩 캐서 컨베이어로 이송도중 흙은 털고 고구마만 손상없이 한쪽 고랑에 가지런히 수확되는 기종으로 작업능률은 인력에 비해 23배가 높고, 소요비용도 75%절감되었다. 배추 재배일관기계화 시스템 연구를 통해 개발한 두둑성형기, 배추정식기, 중경제초기, 볏방제기, 배추수확기(상자수집형, 트럭수집형), 운반적재기를 농가 현장에 투입한 결과 노력은 관행에 비하여 81%가 절감되었다.

조제가공기계분야에서는 마늘 생산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줄기를 절단한 통마늘을 공급하면 뿌리가 절단되어 배출되는 통마늘 뿌리절단기 개발로 작업성능은 인력의 18배, 소요경비는 90%절감 되었으며, 기 개발된 통마늘 줄기절단기와 연계하여 줄기를 절단함과 동시에 뿌리까지 절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참깨재배 일관작업기계화 실현을 위하여 트랙터에 장착하여 이동작업이 용이하고, 다발로 공급하여 탈곡하므로 작업이 편리하며, 탈곡률도 98%인 참깨탈곡기를 개발함으로써 작업성능이 관행인력작업의 10배 향상되고 소요경비를 45%절감할 수 있었다.

건조기계분야에서는 곡물 건조비용 절감과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원적외선과 열풍 복합건조로 기존의 순환식 열풍건조기보다 건조속도를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23%향상시킬 수 있고 건조비용을 14%절감할 수 있는 원적외선 건조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양파를 수확한 후 파렛트단위로 예건과 저온저장을 겸용할 수 있는 양파 예건·저온저장 겸용장치를 개발하여 비용을 36%절감할 수 있었다.

저장유통기계는 저온저장고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냉각부하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등록하였으며, 저온저장고내 저장물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유세균 및 에칠렌 제거기를 개발하였다. 느타리 버섯의 유통기간연장을 위해 포장재별 저장효과를 시험 한 결과 0.05mm LDPE필름이 저장 중 품질유지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김정곤)

차.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소득화 기술 개발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는 21세기 농촌지역의 고용과 부, 관련산업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가치재(價値財)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농촌어메니티를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하여 그 가치를 증진시키느냐에 따라 농업·농촌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산업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농촌어메니티의 109개 자원 1,385종에 대한 위치, 속성,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이를 7개 영역 37분야로 분류하였으며, 35종의 국내외 농촌어메니티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여 8지역에 농촌생태·문화자원 GIS웹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GIS웹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보존·활용토록 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으로 농촌방문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농외소득원 발굴 및 농촌활력화를 위하여 경기 이천, 충남 홍성, 전북 완주, 경남 남해 등 4개 테마마을을 대상으로 민박경영 및 녹색관광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개발에 기여하였다.

한편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을 정서함양,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지, 녹지공간제공기능 등 4개 분야로 범주화하였으며, 주요 기능으로 고향정서, 혈족정서, 농촌생활체험 등 17개의 소기능을 제시하여 이들을 하나의 복합체로서 평가하였다.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에 대한 존재인식의 결과 녹지공간제공기능에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녹지공간이 제공하는 여가, 보건, 휴양기능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총 가치는 8조 3,386억원/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당 월 지불의사금액을 46,843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적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농촌주거환경 실태분석 및 환경친화형 농촌마을의 모형을 전국 187개 지역 1,870호에서 분석한 결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의 요구가 주택개량에서 마을복지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촌마을 환경친화성 평가 지표(50지표)와 환경친화수준별 농촌마을 모형(4유형)을 개발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농촌화장실 연구를 통해서 마을공동 화장실의 분뇨조 구조와 교반장치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경기도 광주 등 14개 마을에 현장실증 시공이 실시되었으며, 영농 현장에 보급된 농가용 보급 화장실의 농업인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사용현황, 냄새발생 및 위생성에 있어서 평점 5점 만점에 4.2점 이상의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단독 정화조 수세식 화장실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 보다 오히려 개소당 약 2,457천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농업연구관 고현관)

2. 유용 유전자원의 종합 관리

농업유전자원은 신품종개발, 신물질 탐색 및 생명공학연구를 위한 기본 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보존에 필수적이거나 현존 유전자원은 지구역사 45억년의 진화 산물로 한번 소실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체계적인 탐색·수집과 국가적 보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세계 각국에서는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수집·평가 보존 및 활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될 종자전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우량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자원의 종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후 자원주권, 농부권, 지적재산권, 품종육성권 등 다양한 배타적 권리 주장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자원보호정책 강화로 분양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자원 보유국가로 부터 다양한 유용 유전자원을 조기 수집·확보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정보망을 통한 국가 유전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가. 국내외 유전자원의 탐색·수집·보존·정보화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전자원의 종 다양성 확보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유용 유전자원 수집은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각국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통하여 유전자원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유전자원 수집은 작물별 집단 서식지 및 지리적 격리지역을 대상으로 탐색·수집을 하였고 농과대학, 종자회사, 품종육성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종과 육성종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2002년말 현재 수집·보존 유전자원은 종자가 1,777종 149천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도 과수, 채소, 화훼 등 영양체 996종 13천점, 미생물 632종 14,008점, 누에 321점, 가축 19종 17,567마리 등 총 19만여점을 보존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세계 6위 수준이나, 질적으로는 종 다양성 확보 및 이용성 증대 등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이 요구되고 있다. 수집된 종자자원은 특성평가 및 증식을 거쳐 보존 및 분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성 중심의 질적 특성평가 및 유전공학적 선진 평가기법 개발을 위하여 벼 및 두류에 대한 수집단 연구와 작물별 재래종 DNA profile 작업을 추진하여 우리 재래 자원의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47<표 2-2> 유전자원 보유현황(종자, '02. 12 현재)

(단위 : 점)

구 분	작 물 수	보존자원수	비 율(%)
벼	1	25,264	17
맥 류	10	47,138	32
두 류	51	28,374	19
잡 곡 / 서 류	12	12,008	8
식 량 작 물 소 계	74	112,784	76
특 용 작 물	151	18,174	12
원 예 작 물	281	13,503	9
기 타	626	4,516	3
계	1,132	148,977	100

자료 : 농촌진흥청 종자은행

특히, 유전자원의 영구 안전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자원의 활력 유지 및 감자, 마늘 등 영양체 자원의 초저온 보존 실용화 연구를 수행중이며, 보유자원 기초정보의 내실화, 표준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국가 농업유전자원 정보 종합 네트워크 구축·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2002년 6월 우리의 보유자원중 재래종, 육성종 23,000점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단계적으로 보유자원 전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미생물 자원은 국내 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분류기법 개발, 국내 특허균주 수탁 및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염기서열 및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전자원 국가관리를 위하여 중앙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 시험장을 작목별 영양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90작목 18,170자원(중복관리자원 포함)을 보존·관리함으로써 국가 보존체계를 확충하고 있으며, 민간을 포함한 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농림부령을 제정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과장 김창영)

나. 주요작물의 Genome 연구확대 및 유용유전자 개발

주요작물을 포함한 농업유용자원에 대한 유전체분석 연구는 최근의 컴퓨터 및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급속한 발전은 주요 농업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한 후 무차별적으로 특허화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는 기술 종속국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이다.

1999년부터 벼 게놈분석국제컨소시엄(11개 국)에 참여하여 1번('01. 3)과 9번('02. 12) 염색체의 염기서열 정보를 일본과 공동으로 완전해독함으로써 작물로서는 첫 번째인 벼 유전체 완전해독에 기여하였고, 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신젠타, 몬산토 등의 다국적기업이 유전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 벼 유전체 해독정보를 바탕으로 고품질, 재해저항성 등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용유전자의 개발이 획기적으로 촉진되고, 옥수수, 보리, 밀 등 다른 작물의 유용유전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벼에서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돼지와 배추 등 우리나라의 중요 작목에 대한 유전체 해독연구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배추의 유전체 해석을 통한 효율적인 분자유종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향후 염기서열 분석을 주도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으로 발전시켜 10년 내에 분석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미생물의 경우 벼 흰잎마름병원균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2001년 7월에 착수하여 단기간내에 세계최초로 완료함으로써('02. 5) 산학연 연구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4,701개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애기장대의 게놈분석이후 포스트 게놈시대로 접어들면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수만개의 유전자에 대한 기능을 분석하여 특허화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10년내에 벼, 돼지 등 11종의 주요 농생물에 대한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기본이 되는 많은 신규 유용유전자를 특허화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내 농업여건에 맞는 형질전환 동·식물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태산)

다. 생물정보의 D/B화 및 활용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에서는 생명공학 원천기반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및 유전체 분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3월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설립과 더불어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http://www.niab.go.kr>)를 12월에 개소하였으며,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에 필요한 식물 및 미생물 유전자원, DNA 정보 등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지원시스템 등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식물 및 미생물 유전자원 중 약 2만 3천여 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농업유전자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이 보유한 약 20,000개의 유전자 클론에 대한 검색 및 인터넷 분양신청이 가능한 농생물 유전자 클론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농생물 유전체 정보서비스에는 벼, 배추 등 주요 농생물의 유전자 지도 정보, 유전자 마커 정보, 초고속 유전자 상동성분석 시스템(WebBLAST), 유전자색인 데이터베이스(Gene Index)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손쉽게 유전자 지도를 작성 또는 검색할 수 있고, 유전체 정보 분석의 기본이 되는 BLAST 분석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유전자색인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주요 생물정보센터의 유전자 정보와 자체 보유 유전자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염기서열 정보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정보와 기능분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농생물 바이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안전성 정보는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의 국내외 개발동향, GMO 관련법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슈퍼컴퓨터급(SMP형 16CPU, 83Gflops)의 유전체분석 서버와 초고속 병렬시스템의 유전자검색 서버(72 node Clustering Server) 등 7대의 고성능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 전산 설비를 갖추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농생물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농생물 유전체 자동화 분석 시스템, 농생물 DNA 칩 발현정보 분석시스템 등 핵심 분석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정보분석과장 한 장호)

3.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과 유용물질 생산

가. 형질전환된 작물의 조기 품종화 추진

농촌진흥청은 2002년말 현재 18작물 45종과 2가축 5종의(총 20작목 50종) 형질전환 동·식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용화된 작물이나 가축은 없고 현재 선발과정이나 안전성평가 단계에 있다. 이들 작목중 8작목 20종에 대해서는 형질전환 확인단계를 거친 후 온실에서 기능 검정 중에 있으며, 제초제저항성 벼와 바이러스저항성 감자에 대해서는 격리포장에서 안전성을 검증 중에 있어 앞으로 3~4년 후면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벼와 감자에 대한 안전성연구는 환경 및 생물 위해성 검정연구를 수행하여 도입유전자의 이동성 조사, GMO재배에 의한 생태계 변화조사(토양미생물, 곤충상의 변화 등), GMO의 독성검정 및 영양성분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재배품종과 비교하여 환경 및 생물위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벼는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1대 잡종을 개발하여 현재 수량이 980kg/10a로서 획기적인 수확량이 증대된 품종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밀은 멕시코의 국제 옥수수·밀연구소(CYMMIT)와 공동으로 녹병저항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성 형질전환체를 개발하였는데, 실용화될 경우 세계적으로 연간 4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의 경우는 빈혈치료제 생산 유전자(erythropoietin : hEPO)를 도입한 돼지(새롬이)를 생산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람의 EPO와 돼지유즙 중의 EPO가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조혈촉진물질의 발현 검정 및 분리·정제를 추진 중에 있어 4~5년 내에 상품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중인 50종의 형질전환 동식물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조기에 품종화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태산)

나. 곤충·미생물 자원에서의 유용물질 대량생산

가장 다양하고 방대한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곤충자원은 농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생리활성물질과 유용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생명공학 연구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누에는 물질대사기능이 고등동물과 유사하며 취급이 용이하고 연중 사육이 가능함에 따라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생명공학기법을 도입하여 누에로부터 버섯갈반병균 등 동식물의 병원성 세균에 저항력이 우수한 새로운 '누에신' 단백질 유전자를 개발하여 특허등록하였으며, 한편으로 재조합 누에신을 생물농약이나 식품·사료첨가제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생산연구를 수행한 결과 단백질의 고차구조형성 및 이황화 결합촉진에 관여하는 PDI(protein disulfate isomerase, 이황화 결합촉진 효소)유전자를 이용하여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고효성 재조합 누에신 생산에 성공하였다. 또한 재조합 누에신을 생물농약으로 개발하고자 이들 기술을 응용하여 누에 유충을 통한 경제적인 대량생산법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효력검정 등 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동부한농(주)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연구관 강석우)

다. 동물자원 유용물질의 대량 생산기반 구축

형질전환가축을 이용한 고가의 생물학적 의약품 생산기술은 21세기 대표적인 지식산업 분야이다. 농촌진흥청은 인간의 조혈촉진유전자(hEPO)를 수정란에 미세주입하여 돼지를 형질전환 시킨 후 고가 의약품인 사람의 조혈촉진제(빈혈치료제)를 젖으로 분비하는 돼지인 「새롬이(Saerom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가축에서 EPO를 생산하게 한 세계 최초의 성공사례이다.

형질전환 돼지 「새롬이(Saerome)」를 이용하여 일반돼지와 인공수정을 시킨 결과 319두의 자돈이 생산되었으며, 생산된 자돈을 검정한 결과 121두(유전자 전이율 : 37.9%)가 사람의 조혈촉진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 40두의 형질전환돼지를 보유하고 있다. 「새롬이(Saerome)」 후대의 젖에서 분비되는 빈혈치료제의 생산량은 한 마리당 년간 평균 8.8g정도였고, 생산된 빈혈치료제(EPO)의 아미노산 구조가 사람의 천연 조혈촉진인자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빈혈치료제(EPO)는 급만성신부전증, 빈혈증, 암치료, 에이즈치료 등 중증의 환자치료에 이용되며 세계시장은 57억불(6조원 이상, 2002년 기준) 정도이고, 1g당 가격은 84만불(한화 11억원)인 고가의약품으로 상업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형질전환가축을 산업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빈혈치료제를 상업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생리활성유전자를 동물세포에 도입하여 배양한 후 의료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백혈병치료제(G-CSF) 등 사람 및 가축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16종의 유전자를 확보하여, 이들 중 일부는 국내외에 특허출원하는 등 첨단기술개발의 실용화를 위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가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우의 게놈프로젝트(유전자 분석)는 2020년까지, 돼지는 2010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대형국책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가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등 고유의 원천기술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응용생명공학과장 장원경)

라. 체세포복제소 안정생산 및 수태율 증진기술 확립

농촌진흥청에서는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우량가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축의 복제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1999년에는 한우 복제송아지 「새빛」 생산에 성공하였다. 2000년부터 농림부의 지원사업으로 생명공학기술인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우량한우(K9849, 전국 육질 4위, 육량 82위)의 귀 세포로부터 유래한 체세포 복제란을 생산한 후 2001년 9월 7일부터 2002년 8월 2일까지 1년 사이에 각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대리모(238두)에 이식하여 능력이 유사한 복제한우를 1년간 10두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울트라 한우(2001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 보도)의 귀세포를 채취하여 복제란을 생산한 후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한우 대리모에 이식(2001년 7월 19일)한 결과 2002년 5월 10일 29kg의 정상적인 복제소를 생산함으로써 앞으로 능력이 좋은 소 또는 멸종위기의 품종 보존 및 복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복제소 쌍둥이(복제소 2마리 동시 생산)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체세포 핵이식기법에 의한 복제가축 생산은 높은 태아사망, 높은 유산 및 사산, 거대산자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이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강화하였다. 한편, “복제소 및 생산물 사후관리 요령”을 관련기관 및 각 도에 시달하였고 복제소의 사후관리와 생산능력 조사 및 생산물의 안전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응용생명공학과장 장원경)

4.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 및 지원체계 정비

21세기는 첨단분야에 대한 국가간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래에는 농업도 적은 농지와 노동력으로 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요구되기에 우리의 농업도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바이오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생명공학 연구부문에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농촌진흥청은 2001년 2월 「바이오그린21 사업단」을 출범시켜 2001년부터 10년간 7,000억원(연간 600~800억)을 투자하여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를 세계 5위 수준의 농업생명공학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을 마련하였다.

가. 농업생명공학 연구 전담기구 설치

국가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자원부를 농업생명공학연구원으로 독립시켜 식물생명공학분야의 기초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작물시험장, 원예연구소 등 작목연구기관에도 생명공학 실용화를 전담할 조직(과, 팀)을 신설하였고, 축산기술연구소에 기초 및 응용생명공학과를 설치하였다.

나. 농업생명공학 연구 지원체계 정비

「바이오그린21 사업단」은 대규모 국가단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연구개발 사업의 진도관리, 세부 투자계획 수립, 타 부처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학·연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단에서는 국내 대학, 국공립연구소, 산업체 등 모든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할 5대 핵심분야 즉,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농업생명공학실용화 촉진,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로 3~5개씩 총 20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계획상의 충분한 예산 미확보로 2002년에는 우선적으로 3대분야 14개 프로젝트에 대해 123억원을 투자하여 대학, 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등 92기관 292명이 87과제를 수행하였다.

분야별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컨소시엄 체제를 형성토록 유도하여 투자한 연구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내외 고급 인력을 적극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유치 활용하는 동시에 과학재단의 Brain Pool제도, 해외 명예연구원제도, 국제공동연구 등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농촌진흥청 생명공학기획조정과 농업연구관 김태산)

5. 농업정보화 촉진

2001년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기단계 정보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은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정보격차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IT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한편, 농업·농촌분야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의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의 추진실적 중간점검 및 보완대책을 수립('02.6)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조기 확충, 정보화교육의 체계화, 출하지원시스템 확대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확산을 추진하였다.

가.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충

농촌지역의 수요검증과 소형장비 적용을 위한 초고속통신(ADSL)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다. 농촌지역에 적합한 소형 ADSL 장비의 국산화 성공에 따른 가격하락, 농촌지역 정보수요 확산 등으로 농촌지역의 초고속통신망은 2001년에 전체 읍 지역과, 875개 면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전 읍·면지역에 ADSL이 보급되었다.

나. 농업인 정보화교육 확대

도·농간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2001년 75천명에서 80천명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중급·전문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교육효과를 높여 나갔다.

읍·면단위 회원농협에 정보화 기초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터넷 농업정보 활용 등에 대한 중급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전문 정보화교육 과정은 전국 22개의 농과대학 및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였다.

농촌현장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정보화교육 버스 2대를 운영하였으며, 농과대학생이 농가를 방문하는 농업정보 119서비스 대학도 전국 22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교육신청과 교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교육관리 시스템(edu.affis.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의 반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원격교육의 콘텐츠를 확충하였다.

48<표 2-2->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0	2001	2002
총 계	241,356	85,361	75,738	80,257
읍·면 기초교육	97,596	23,247	38,437	35,912
시·군 중급교육	28,512	-	14,351	14,161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1,688	8,949	1,093	1,646
농업정보 119서비스	43,102	12,899	15,077	15,126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5,388	998	2,102	2,288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6,508	4,678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정보화선도자	1,374	-	-	1,374
자체교육	9,750	-	-	9,750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다. 인터넷 콘텐츠 확충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NET) 기능 개선으로 정보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농업관련 전문기관·단체·업체 및 전문가 등 정보제공자(IP) 발굴, 농촌생활정보 전문사이트와 제휴확대 및 각종 농업정보사이트 링크 연계를 통해 농촌생활과 복지관련 정보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농업정보의 경우 품목중심으로 정보를 분류하여 이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은 26개 공영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분석정보 및 유통전문가의 시황·전망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인 출하시기·시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2년에는 부류별로 11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추가 : 닭·계란·배·감귤, 내용보강 : 호박·파·당근·토마토·수박·참외·단감·감자)으로 서비스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품목별 핵심요약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위주로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도매법인을 대상으로('02년 12개 시장 26개 법인) 속보형태로 경락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통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106농가 지원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총806농가에 대해 구축지원을 하였으며, 2002년에는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개발비의 50%에 대해 농가 자부담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1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고 주 소비 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조규표)

라.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농림부, 소속기관 및 농림유관기관에 농림관련 지식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식포털 서비스로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차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확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 확대구축사업시 농림지식관리 시스템을 대국민서비스 수준으로 확장하여 농업인에게 기존 농림지식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주요 농업관련사이트에 대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서비스와 강력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연계사이트 확대에서 기존 농림지식관리시스템에 연계된 농림부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13개 기관외 농업관련 학회, 단체, 기업, 대학, 농업매체 등 140여개 기관을 추가로 연계하여 농림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농업관련 지식정보를 획득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기존에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 및 보강하고 주요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콘텐츠 중 사용자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인 사이버교육코너 등은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교육코너는 부내 뿐만 아니라 외부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3차확대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부내 행정정보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정호진)

마. 「농촌PC보내기 운동」 추진

농업·농촌 정보화의 초기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기회 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PC의 보급률이 도·농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PC보급의 확대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업인의 지식·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촌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이 사용하던 중고PC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PC보급률을 2005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기증받은 중고 PC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대당 9만원씩 지원하여 성능을 개선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시켜 보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증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pc2farm.org)를 개설하고 사은행사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법인이 농촌 정보화를 위하여 기증하는 PC등의 금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종현)

제 4 절 수급안정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신유통체계 구축

1. 농업관측 강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관측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동락 폭이 크고 생산액이 많은 주요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사육동향, 재고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미래의 가격을 전망한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생산계획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인들이 자율적인 영농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농업관측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농업관측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2002년에는 주요농축산물 24개 품목에서 2개(딸기, 복숭아) 품목을 추가하여 총 26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생산·제공하였다.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지정보의 기초자료 수집원인 표본농가(10,000 → 10,700호)와 모니터(1,000→1,200명)를 확대·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정보의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중국 산동성에 고추, 마늘, 양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과, 당근 품목에 각 2명씩 8명의 현지모니터를 위촉·운영하였고, 북경 및 산동성의 농업경제연구소와 정보교류를 통해 주요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제공하였으며, 2001년도에 구축된 “관세청의 수출입정보 실시간 활용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생산 및 수집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지원사업(정보통신부)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On-Line상에서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수요자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정보센터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하였다.

농업관측정보는 매월 생산된 부류별 관측정보를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정책부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관측보(월, 분기)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모니터,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하였고, 농업전문지, 농업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E-mail회원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호재)

2. 농·축산물 수급안정

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크고,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배추·마늘·양파·파에 대해서는 재배의향 파종실적, 작황, 가격동향 등 농업관측 정보를 조사하고 동 관측자료를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심의 분석한 후 농업관측월보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전산정보화하여 이용자들이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 6,300억원을 조성하여, 2002년에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양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파, 대파·고추·당근 등 노지채소에 대하여 산지농협과 농업인 간에 551천톤을 계약재배하고,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토마토 등 시설채소 189천톤에 대해 출하약정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성출하기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생산증가에 따라 가격이 낮았던 월동배추 22천톤, 조생종 양파 35천톤, 대파 4천톤을 산지폐기하여 시장격리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켰다.

49<표 2-2->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219.0	60,470	387.4	215,559	416.5	301,858	487.9	324,782	588.7	394,875	740.0	504,707	813.9	673,845
정 부 수 비	8.9	17,914	57.6	24,982	1.1	16.7	22,623	26.4	25,914	1.7	2,512
고 추	3.5	15,204
마 늘	1.1	1,602	14.6	16,832	1.1	16.7	22,623	16.0	23,298	1.6	2,489
양 파	4.3	1,108	43.0	8,150	10.4	2,616	(96톤)	3
민 간 수 매	42.3	8,805	76.6	17,969	44.6	38,006	33.9	19,367	59.3	22,483	45.6	20,848	56.8	25,028	11.5	33,460
마 늘	20.2	8,093	14.1	11,566	16.6	14,245	8.2	13,721	13.1	13,683	14.9	14,079	17.8	17,123	19.0	26,298
양 파	22.1	712	62.5	6,403	18.0	4,199	25.7	5,646	46.2	8,558	30.7	6,769	39.0	7,905	2.5	7,162
고 추	10.0	19,562	.	.	0.04	242
정 부 출 조	22.8	1,753	3.8	217	98.0	353	25.6	1,491	24.6	2,299	28.4	1,404	56.8	3,765	60.7	7,873
계 약 재 배	.	.	81	17,302	233.0	177,200	357	281,000	408	300,000	498	350,000	639	510,000	740	630,00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이원희)

나. 과실류 수급안정 지원

2002년도 과실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과수 면적 증가와 감귤풍작 등으로 2001년에 비해 12천톤이 증가한 2,500천톤이 생산되었다. 공급량 증가와 전반적인 소비부진으로 과실 가격은 약세를 보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이에 따라 주요과실의 정부비축사업 및 민간수매지원을 통해 수급안정 및 산지가격 지지와 단경기 출하조절을 통한 소비지 가격 안정에 노력하였다.

50<표 2-2->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합 계	73,724	22,942	48,046	18,847	102,747	28,607	82,703	15,964
정부수매	1,885	2,274	4,415	3,837	22,349	13,750	50,000	3,250
- 사 과	1,885	2,274	1,440	1,222	6,348	4,732	-	-
- 배	-	-	2,975	2,615	7,828	7,433	-	-
- 감 귤	-	-	-	-	8,173	1,585	50,000	3,250
민간수매	71,839	20,668	43,631	15,010	80,398	14,857	32,703	12,714
저장용	5,592	5,092	4,550	3,796	4,355	3,881	3,753	3,507
사 과	2,637	2,251	2,120	1,529	1,438	1,524	1,483	1,574
배	1,391	1,511	782	796	461	490	464	504
단 감	1,564	1,330	1,648	1,471	2,456	1,867	1,806	1,429
가공용	66,247	15,576	39,081	11,214	76,043	10,976	28,950	9,207
(농 협)	41,591	11,280	31,555	9,579	68,371	9,058	24,870	8,703
사 과	19,023	3,957	21,200	3,180	17,088	3,050	13,837	2,470
배	1,330	797	920	460	505	89	-	-
감	3,016	1,508	3,606	1,803	510	238	4,889	1,858
복숭아	3,047	1,231	2,000	900	307	207	2,708	1,626
포 도	2,829	1,416	2,840	1,420	214	134	-	-
감 귤	11,356	557	-	-	48,375	3,870	-	-
대 추	215	860	181	725	75	578	-	-
매 실	186	464	247	614	123	313	542	1,220
머 루	71	50	-	-	-	-	320	200
유 자	518	440	561	477	1,174	579	2,574	1,330
(유통공사)	24,656	4,296	7,526	1,635	7,672	1,918	4,080	504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다.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정부에서는 민간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하여 양돈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 하반기 소비위축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시 양돈수급안정자금 및 자조금을 활용하여 소비확대를 위한 TV광고 및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요리축제,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산지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도시민의 소비문화 계도 및 양돈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하철 테마열차를 2002년 12월부터 3개월간 운행하였다.

양계는 사육수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수매비축, 노계전문도계장 시설 보완자금 지원, 신문광고·요리강습회 개최 등을 통한 소비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닭고기는 계절적 수요변화, 짧은 생산주기, 사육농가들의 입·출 용이성 등에 따른 구조적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협 및 협회를 통한 닭고기의 내수·수출 촉진, 입식자제 등 민간 수급 조절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51<표 2-2->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1998	1999	2000	2001	2002
쇠 고 기	5,438	7,028	7,414	8,284	9,127
돼지고기	2,539	2,982	2,474	2,572	2,604
닭 고 기	2,602	2,453	2,356	2,528	2,149
계 란	926	859	774	981	858
우 유	538	586	603	611	608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가격임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정래,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3. 유통협약·명령제 추진

계약재배·수매비축 등 정부 주도의 가격안정시책 만으로는 '농산물 채값받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수급안정 프로그램으로서 유통협약·명령제가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유통협약은 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화되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품질이 나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생산자·유통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인·소비자 등의 대표간에 맺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유통명령은 유통협약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이 물량·품질기준 규제 또는 시장지원 등의 유통활동을 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는 양파에 대해서 유통협약을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하였다. 양파는 생산과잉 예상물량의 50%(35천톤)의 품위저하품을 산지 폐기하고, 품위 저하품 25천톤 출하 및 거래제한, 조생종 양파 소비확대 추진으로 약 91억원의 소득지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김정희)

4.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정부는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하고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산물유통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등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도매시장은 1개소(경남 마산)가 추가 개장되어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30개소가 개장·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200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2년말 현재 10개소가 개장·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7개소를 추가 건설하여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단계적으로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보화산업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한 확충 노력으로 유통경로별 거래량은 종합유통센터,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체제의 거래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유통단계의 축소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유통경로별 거래물량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은 48.5%를 점유하여 전년대비 1.1%p 증가에 머물렀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의 비율은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각각 11.2%와 10.8%를 점유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2.4%P와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망 증설과 소비자들의 선호에 대응한 소포장 확대, 브랜드제품 홍보강화 및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일괄구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 등의 거래비율은 29.5%수준으로 전년보다 5.1%P 감소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으로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신유통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부응, 건설중인 도매시장과 유통센터의 조기개장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 유통업체에 대한 직거래 농산물 매입자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정현출)

5.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소비자 유통주체간 경쟁이 격화되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도 소비자의 유통수요 및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농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주체의 계열화·조직화를 통한 산지유통사업의 규모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우수조합을 중심으로 중기·저리(3년, 3%)의 운전자금을 종합 지원하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생산·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결성을 추진하여 2002년말 현재 6개 품목(참다래, 파프리카, 고랭지 채소, 겨울배추, 시설포도, 사과)에 대한 생산자 조직이 활동중에 있으며,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중심으로 연합판매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공동브랜드화 등 마케팅 기능의 강화와 시장교섭력의 제고로 유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산지유통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선별·포장·직거래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2002년까지 204개소를 확충하고, 운영실태 평가 및 경영컨설팅 실시 등 발전단계에 적합한 지도·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운영자금 확대지원을 통해 시설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산물의 품질등급 및 포장규격의 표준화,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포장재비, 지게차 등 물류기기 구입비, 파렛트 등 물류기기 임대료를 지원하였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김정희)

6. 농산물 물류 효율화

2002년말 현재 소비자 구매패턴 및 시장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포장 단위의 표준규격이 개편(127개 품목 643 포장규격)되었다. 농산물 규격포장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여 오던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은 2001년 626억원이 정점이었다. 2002년말 포장화율이 90% 이상으로 일부 무, 배추 등 특수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완전 포장화 되었으며, 규격포장화율도 50%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아 2002년(516억원)부터 포장재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통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기기·설비를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기·장비를 지원('01 : 106억원 → '02 : 82억원)하였다. 그리고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대폭 확대('01 : 35억원, '02 : 62억원)하여 물류이동의 규모화, 복합운송, 하역기계화가 촉진되도록 하였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의 최종 목표는 농산물 파렛타이징으로 선진 외국은 물론 이웃 일본의 경우, 시장 출하 농산물의 90%이상이 파렛트로 출하되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고 있어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다.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유통 물류비는 7.5조원으로 농업총생산액 24.1조원의 31% 수준이다. 이는 선진 미국 9.5%, 일본 9.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정부는 2002년말 현재 5% 수준인 농산물 파렛 출하율(하역기계화율)을 2007년까지 5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 하에 물류표준화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표준규격농산물에 대한 바코드 도입을 통한 품질의 신뢰성 확보, 농산물 표준규격화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등 지식기반·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디지털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격년제로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 인지도의 세계적 확대와 품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정연호)

7. 전자경매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전자경매시스템은 2000년부터 도매시장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다.

농산물 전자경매는 1994년 11월 개정된 농안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일부 도매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입기반을 넓혀왔으며, 2000년부터 도매시장법인에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본격화하였다.

2002년말 현재 28개 도매시장 72개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중 4개를 도입하는 등 2004년까지 개장·운영중인 전체 도매시장법인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된 농산물 가운데 전자경매로 처리된 농산물도 첫해인 2000년에는 전체 거래량의 4%에 불과했으나 2001년 32.8%, 2002년말 현재 55.5%까지 높아졌다. 외형적으로 불과 3년만에 전자경매가 수지식 경매를 누르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장 주요한 거래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이러한 전자경매는 도매시장 농산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경매결과 입력요원, 경매사 감축 등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중·상급품에 대한 경락가격을 높게 형성시키고 있어 상급품의 출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전자경매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자경매는 경매현장에서 경락값이 즉시 공개되는 특성으로 그 동안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거래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도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정현출)

8.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확대

인터넷 및 IT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신속히 전환되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총인구의 54.7%인 2,627만명이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1,041만명으로 전년대비 33.3%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002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는 5,630억원으로 전년대비 90.9% 증가

52<표 2-2>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억원)

거 래 유 형	2001년	2002년	증가율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1,717	2,230	29.9%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1,232	3,400	176.0%
합 계	2,949	5,630	90.9%

자료 : 통계청,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하였다.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2,230억원으로 주요 거래품목은 축산물이며,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3,400억원으로 주요 거래품목은 곡류, 꽃 등이다.

농업인과 소비자간 전자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농산물 통합쇼핑몰(www.a-peace.com)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은 1,300여개의 농업인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웹호스팅·결제·보안시스템 등을 갖추어 공동 이용하고 있다.

2001년에는 웹로그분석(웹사이트방문객정보분석)·공동구매·경매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는 등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였고, 2002년에는 라디오와 TV자막광고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경영능력 배양 및 책임경영인을 육성하였다.

또한, 회원조합과 소비자간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 인터넷 하나로클럽(shopping.nonghyup.com)을 운영 중에 있다. 인터넷 하나로클럽은 2002년 707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농산물 B2C 거래규모의 20.8%를 차지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부터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운영활성화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결과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유통인에게는 유통비용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53<표2-2->

농산물 전자상거래 효과

구 분	기업-소비자간 농산물 전자상거래(B2C)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농업인 이익	소비자 이익	
효 과	도매가격보다 18.1% 높은 가격에 판매	소매가격보다 17.8% 낮은 가격에 구매	B2B사이트의 67%가 오프라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서운주)

제 5 절 축산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1.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001년 4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2조 4천억 원 을 집중투자, 한우산업 육성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우번식기반을 확보·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도 등 20ha이상 집단화 된 초지를 보유한 번식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우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량한 송아지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정착, 다산장려금 지급, 송아지 공체가입 월령 단축[('00) 6개월령 → ('01) 3 → ('02) 2], 농협 번식우 시범목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경지정리된 집단농지 등을 이용,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1단지 20ha이상)를 조성하여 조사료를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하여 거세장려금(두당 20만원)을 지급 하고,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으로 우량한 송아지와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 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사육농가를 조직화하여 한우 브랜드화의 내실화를 촉진시켜 왔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한우개량사업 강화를 통한 우량한우 개발을 위해 한우 등록사업을 확대하여 개량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도별 보증씨수소 선발지원 등 지역별 자율적인 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LPC 기능활성화와 부분육 상장경매제를 실시하여 냉장·부분육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식육판매업소 등 소매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바코드 도입 및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도입 등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유통 단속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서기관 이상수)

2. 양돈·양계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 추진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하여 양돈·양계 수급안정위원회에 Seedmoney 1,000억원(각 500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이자발생액으로 소비홍보사업 및 사육두수 조절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양돈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민간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기 위하여 TV광고, 지하철테마열차 운행,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등 소비홍보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양계는 수급안정위원회 Seedmoney 수입금(25억원) 중 11억원을 활용하여 계란수매비축 및 육용종계 도태 등 수급조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양계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리후렛 및 요리책자를 배부(500천부, 1억원)하고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할인판매 행사(1억원)를 실시하는 등 국내 소비기반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수출확대 등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돼지고기의 품질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교육 및 육질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닭고기 및 계란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등급제를 도입하고자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정래)

3. 우유수급안정 대책 추진

원유와 유제품의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생산자와 수요자가 참여한 낙농진흥회를 설립('99.1.1)하고, 수급조절의 기초수단인 집유일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낙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민간자율의 수급조절 대신 정부정책자금에 의해 잉여물량을 구입함에 따라 생산과잉현상이 나타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원유의 생산감축을 위해 2개월('02.4.22~6.22)에 걸쳐 젖소도태(24천두)를 추진하였고, 낙농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유축진제 사용을 억제하였다.

또한, 분유 재고소진을 위해 농촌지역 복지시설에 전지분유를 무상공급하고 분유 대량사용업체에 국산분유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 총 246억원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TV 공익광고, 기획프로그램 제작, 우유요리 강습회 실시 등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 대대적인 우유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였다.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체세포등급을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원유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낙농가의 유질개선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잉여원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를 시행하였다.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낙농가의 반대로 원유기본가격의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잉여량에 대해 낮은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원유가격이 시장수급상황을 반영토록 한 의미가 있다.

(축산경영과 서기관 박병홍)

4.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축산물 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관체계 확립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육류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LPC)건설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9개소의 LPC(경기 안성, 강원 원주, 충북 제천, 충북 청원, 충남 홍성, 전북 익산, 전북 김제, 경북 포항, 경북 군위)가 완공·운영중이다. 건립된 LPC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에 228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리를 당초 5%에서 4%로 인하 조정하여 LPC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우리축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식육거래의무제』를 도입하여 식육의 종류·원산지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 보관토록 하였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민간인을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90,380개 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902건, 과태료 990건, 고발 538건, 경고 1,274건 등 총 3,704건의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적발 처리하여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였다.

우리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축산물브랜드 육성을 위해 브랜드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과 가맹점 설치자금 14,72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 11월 1일부터 3일간 “우리축산물브랜드전”을 개최하였다.

축산물에 대한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거래기회 제공을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 품목을 소·돼지에서 쇠고기부분육·계란·닭고기까지 확대하였다.

2002년도에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개 도매시장(서울 농협공판장, 안양 협신)에 부분육을 상장하였고, 계란등급판정 시범사업을 4개 계란집하장에 시행하였으며, 닭고기는 등급판정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54<표 2-2-> 브랜드활성화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2000	2001	2002	2003계획
계		37,892	12,206	14,729	25,000
브랜드 가공시설	사업량	9	9	7	10
	사업비	6,917	7,318	4,506	5,250
브랜드 가맹점	사업량	313	40	56	100
	사업비	28,615	4,020	9,877	18,600
가맹점 운영자금	사업량	8	12	13	33
	사업비	2,360	868	346	1,15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또한 13개 도매시장에 소·돼지도체의 경매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출하자와 구매자의 시간·경비 절감 및 출하·구매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경매상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축산연구관 이상철)

5. 가축개량 추진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2002년에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한우개량은 한우개량농가 50,236호에서 등록된 약 198천두를 대상으로 혈통·능력이 우량한 암소집단을 집중적으로 육성 관리함으로써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을 위한 당대 및 후대 검정용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능력검정을 거쳐 한우 보증종모우 12두를 선발하였으며, 한우의 우량정액 1,068천두분을 생산하여 번식농가에 1,023천두분을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우 예비등록제의 도입 시행과 함께 한우 유전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축장에 바코드귀표 출현우의 도체성적조사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55<표 2-2->

2002년도 가축개량 성과

축종	형질	1992	2002			
			목표(a)	실적(b)	진척도(b/a)	
한우	18개월령 체중(kg)	486	453	427	94	
	등심면적(cm ²)	79.0	88.6	76.0	86	
젖소	산유량(kg)	5,639	7,460	7,017	94	
	유지율(%)	3.64	3.62	3.77	104	
돼지 (요크셔)	일당증체량(g)	907	954	1,018	107	
	등지방두께(mm)	17.7	11.7	13.0	111	
	사료요구율	2.30	2.26	2.13	94	
닭	산란계	산란지수(개)	266	289	297	103
		사료요구율	2.58	2.31	2.26	98
	육용계	육성율(%)	97	98	99	101
		6주체중(g)	2,513	2,213	2,285	10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축산서기관 최염순)

제 6 절 농축산물 안전성제고 및 친환경농업기반 마련

1.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1996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성 부적합비율이 1999년도 1.6%에서 2002년도에는 1.1%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부적합 비율이 높은 껌·상추 등 30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 전체 조사 물량 중 70%에 해당되는 39,411건을 조사하였으며, 우리농산물의 수출지원을 위해 35품목 2,346건을 수출 전에 조사하여 국산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였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2.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감축 추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1992년 28천톤(성분량)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이며 2002년에는 2001년의 사용량 28천톤 보다 약 2천톤이 줄어든 26천톤이 사용되었는데 기상여건이 유리하여 병충해 발생이 경감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0년 1,104천톤(성분량)을 고비로 연차적으로 그 사용량이 감소하여 2001년도에 717천톤(성분량)에서 2002년도에는 689천톤(성분량)으로 28천톤이 감소되었다.

우리의 농업을 환경과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와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1999년 대비 2005년까지 30%, 2010년까지 최고 4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2년도에 병해충 관찰포 1,403개소, 예찰포 150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지도도 강화하였다. 또한 생물농약 등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개발·보급도 병행하여 화학합성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 14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을 2001년도에 123만톤에서 2002년도에는 146만톤으로 확대하여 비료 사용량 및 유실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경지토양의 특성을 D/B화하고 2005년까지 농업토양 환경정보망(GIS)구축을 완료하여 인터넷웹서비스 등을 통해 필지별로 시비 처방, 토양개량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나. 농업자원 유지·개량시책 추진

농업의 기본적인 자원은 토양과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져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용수 또한 점차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성토양 개량 및 논 토양의 규산 성분 공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1997년부터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살포도 지역농협 주관하에 공동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2001년에는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필요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 5년 1주기, 규산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하였으며, 2002년에는 석회 4년 1주기, 규산 4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질토양 등 생산성이 낮은 토양에 대한 객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흙살리기운동”과 “푸른들가꾸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료·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조사료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면서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흙살리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에 공급된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토양검정기의 이용률을 높여 농업인 스스로 토양을 진단,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 등의 토양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푸른들가꾸기 운동을 통해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해 나가는 동시에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이 증진되도록 하고 있다. 자운영 등 사료·녹비작물을 과중면적 기준으로 2001년에 115천ha에서 2002년에는 126천ha로 확대 재배하였다.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 기술을 수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사업(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은 중산간지의 중소농가 등 규모화가 어려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성면에서 고품질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630개소 조성을 목표로 1개소당 250백만원씩 총 1,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5~2002년까지 1,345억원을 투자하여 538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업대규모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지구당 10억원씩, 총 2,100억원을 투자하여 200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1998~2002년에는 500억원을 투자하여 40개 지구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80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IPM과 INM 기술지도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체에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73억원, 2002년에 84억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993년 12월부터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31천호,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8천ha,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03천톤으로 매년 10%이상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 자율신고로 운용되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를 정부 등 인증기관에 의한 '표시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2001년도에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Codex기준에 맞도록 설정하고 수입 친환경농산물도 인증을 받도록 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최병국)

3.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체계 강화

첫째,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신규시설과 노후시설 보완 및 정착촌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속적 지원(364억원), 축분퇴비 소비활성화를 위한 판매가격 차손보전지원(60만톤, 210억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의 축분발효액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400개소, 60억원)를 지원하였으며, 평야지·시설채소·사료작물 재배지 등에 액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둘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컨설팅·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한 축산분뇨처리 공법을 선정·홍보하여 축산농가들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액비 유통을 활성화 할 액비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2003예산(40개소, 국고 32억원)과 한국형 유기축산 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003예산(국고 6억원)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나.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첫째,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성초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유휴농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작물재배지로 전환토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볏짚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베일러 및 래핑기 등 조사료재배·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다.

둘째, 조사료 수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료의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고 실수요자인 농가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목초나 사료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는 양허관세 적용 조사료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자연토지 및 농업부산물 등 부존자원의 활용과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가능한 증산간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서기관 이상수)

4.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

식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비자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축의 사양단계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단계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양단계에서 사육장의 환경, 위생 및 질병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생적인 사양관리시설 설비와 사육환경 조성,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홍보하였다. 그리고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축 출하전 비육후기 배합사료급여를 철저히 준수하여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의 잔류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주력하였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유의 생산을 위해서 젖소 사육시 수의사가 정기적인 임상관찰을 하여 질병에 걸린 가축으로부터 착유가 되지 않도록 낙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였다.

56<표 2-2-> 축산물 작업장 HACCP지정 및 대상품목 현황(2002. 12. 31 기준)

구 분	식 육 가 공 장	유 가 공 장	도 축 장
지정업체수	24	28	57
대상품목수	햄류,소세지류,포장육, 양념육류, 분쇄가공육 제품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치즈, 자연치즈	소, 돼지, 닭, 오리

자료 : 농림부 축산국

57<표 2-2->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대상확대

구 분	2001년	2002년
잔류물질	73종, 103천건	73종, 106천건
미 생 물	15종, 106천건	14종, 116천건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건강하게 사육된 가축이 도축되는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축장 등에 도입·시행중인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유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업계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하여 HACCP적용 인정서를 식육가공장 24개소, 유가공장 28개소, 도축장 57개소에 대해 발급하였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인 software부분에 대해, 축산물 위생검사 기술 및 능력제고를 위해 검역원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장비를 확보 보강하고, 시·도 검사관계자에 대한 검사기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검사관의 질적 향상을 기하였다.

축산물의 최종 유통단계인 가공, 보관, 운반, 판매 위생관리의 일환으로 축산물 가공장에 대해, 앞의 표에서 말한바와 같이 HACCP적용품목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축산물보관장과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가도록 하였다.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이상진)

5.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그 동안의 적극적인 가축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절적으로 유입 위험이 높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구제역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 강화 및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관계부처 협조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4월 16일과 4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하여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5월 2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구제역은 2002년 5월 2일 경기 안성 소재 양돈장인 율곡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6월 23일까지 52일 동안 경기 안성·용인·평택 및 충북 진천 등 2개 도 4개 시·군에서 총 16건(돼지 15건, 젓소 1건)이 발생되었다. 2002년의 구제역 발생농장은 총16건중 13건이 최초 발생농장인 안성 율곡농장 반경 10km내외 지역에만 집중됨으로써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과는 달리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500m이내 우제류 가축과, 3km이내 돼지 전두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총 162농가 160,155두) 등 강력한 살처분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위험지역 (3km이내)과 경계지역(3~10km사이)으로 구분되는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 사료 등 오염물건 소각·매몰, 가축·차량·인력 등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동통제는 6월 15일 충북 진천의 경계지역이 처음으로 해제되고 8월 7일 경기 안성 위험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모든 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추가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8월 14일 농림부장관은 전국적인 종식선언을 하였다. 구제역 발생경험을 가진 영국·대만 등 외국과 비교할 때 단기간(최초 발생후 52일)에 추가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관계부처, 군·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차단방역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2002년 7월에 우리나라 방역현장을 조사하였던 외국의 구제역 전문가들도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내용을 평가하고, 11월 29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구제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하였다.

돼지콜레라는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강화 등지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종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형인 Type 3과는 다르고, 2002년 4월 철원에서 발생한 Type 2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생활권인 김포·강화의 방역지역 내에서만 발생하다가 12월 21일 그 방역지역을 벗어난 이천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천지역은 돼지 밀집사육지역(총 31만여두)이고, 김포·강화와 달리 지형적으로 교통차단 등 이동통제가 어려운 지역이므로 살처분만으로는 효율적 방역 추진이 어려우며, 동절기 기온저하·도로결빙으로 소독효과가 떨어져 효율적 방역추진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막대한 살처분 비용은 물론, 더 이상 매몰지 확보가 지난하고 수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 반대가 대두된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때 조기 근절을 위해서는 발생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긴급 예방접종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23일 긴급 예방접종을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 2월까지 1백만여두의 돼지에 대해 1·2차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구제역 종식이 성공함에 따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재발방지를 위해 2002년 8월 1일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 질병유입 경로별 및 전파위험도별 방역조치를 추진하였다. 그 주요한 조치로는 공·항만 검색·소독 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조치의 지속 유지, 시·군단위 「방역대책」 수립·추진, 「전국일제소독의 날」 매주실시, 공동방제단 운영내실화 등 민간방역 활성화를 위한 국내방역 체계개선 등이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2002.12.26일 공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농가자율방역 책임을 명문화하고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도입, 가축전염병 신고지연농가 사육장시설 폐쇄 및 생계비 지원 근거 명시 등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을 추진하였다.

한편,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작업반을 지속 운영하고 돼지 오제스키병 및 닭 뉴캐슬병 등 기타 가축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강화 등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이수두)

제 7 절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농산물수출진흥대책

가. 개 요

농산물 수출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한 경쟁력강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개척활동에 힘입어 1995년 이후 16~17억불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2002년에는 WTO에 가입한 중국의 저렴한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대만시장으로의 수출재개 및 월드컵영향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제고,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 등으로 과실, 김치 및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 비해 3.8% 증가한 16억 4천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본적으로 풍흉 등 자연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제약은 수출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 양국이 동시에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드는 경우에는 수출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수출업자들이 수출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여 외국 바이어 등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수출계약 당시보다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수출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외국바이어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가 다같이 영세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고 국내 수출품의 규격화, 등급화 및 디자인과 포장 등 상품경쟁력이 뒤지는 것도 수출증대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은 단기간내에 극복되기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2002년에도 정부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규격을 표준화하고 포장을 개선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물량공급의 원천인 전문생산단지 102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세계경기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심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틈새시장 발굴조사를 강화하고, 수출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컨설팅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신속전

과체계 구축과 국제농업박람회참가 및 특별기획전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나. 해외시장 개척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박람회 참가는 제품판매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 정보수집, 바이어 확보 등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업활동을 한자리에서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장기적인 수출기반 조성, 신규바이어 발굴 및 세계 시장정보 입수 등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의욕도 크게 고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람회 참가사업은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1988~1992년 기간에도 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부터이며, 지난 10년간('93~2002) 참가실적은 총 150회에 달한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대상지역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유럽, 일본, 미주지역에 국한되었으나 2002년에는 유럽 4회, 일본 4회, 미주 3회, 중국 3회, 싱가포르 1회, 베트남 1회, 필리핀 1회, 호주 1회, 홍콩 1회, 대만 1회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2년에는 386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품목수도 1,327개로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 외국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계약액은 1993년 3,311만 달러에서 2002년 2억 2,745만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박람회 참가규모와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에 필요한 사업비도 2002년에는 총 35억원이 되었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58<표 2-2->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참가회수(회)	17	11	12	13	16	19	20
참가업체(수)	508	287	399	365	395	359	386
출품 품목수(개)	1,828	1,333	1,435	1,476	1,616	1,299	1,327
수출계약액(1천달러)	140,691	163,149	159,199	194,302	215,086	232,184	227,451

자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 수출계약액은 1998부터 수산부류 제외

(2) 해외홍보

한편,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효능 등 우수한 이미지를 외국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알려 수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홍보를 하고 있다. 해외홍보사업은 전문성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영세한 농산물 수출업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 대만, 홍콩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김치, 인삼, 신선농산물 등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효과가 큰 TV광고를 비롯해 빌보드, 전광판 등 옥외광고, 전문지 및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WTO에 가입하고 거대 잠재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시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TV CF 광고와 한국식문화를 소개하는 특집물을 제작·방영하였고, 특히 대만의 과실류 수출재개에 발맞춰 사과, 배, 단감 등 주 수출품목을 타이페이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공항광고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및 전문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행사인 월드컵을 우리농산물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홍보데스크 설치·운영, 서울시내 가로등 배너광고 실시, “김치와 퓨전요리” 시연·시식행사 개최, 코리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아 꽃차 퍼레이드 행사 등의 다각적인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은 2002년도 농산물 수출이 전년에 비하여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농산물 수출업체의 자금압박요인 해소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활성화 자금, 시설자금 등을 2001년의 3,150억원에서 2002년에는 3,927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수출업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해 자금지원시 금리, 자금배정 및 담보 등에서 우대지원 하는 등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촉진을 유도하였고, 가공식품자금 신규지원 및 대환제도 시행을 통한 실질적인 대출기간 연장 등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5년 3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처음 실시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는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이내인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위험(가격상승, 수출불능, 대금회수불능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농가가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제도시행이후 가격상승위험보험의 보험요율인하(보험금액의 1% → 0.5%), 보험청약조건완화와 대금회수(수출)불능위험보험의 보험금 지급시한 및 수입자 신용조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가격상승위험보험의 보험부보율 및 보상비율을 상향조정(부보율 : 계약금액의 70%→ 80%, 보상비율 : 90% → 95%)하고 보험금 지급시한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수산물수출보험의 계약체결 실적은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국인 일본, 미국, 홍콩 등으로 수출불능위험이 낮으며,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근 거리에 위치하여 수출에 따른 위험 등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아 2002년도 가입실적은 126억원(33업체)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강신복)

2. 수입관리

가. 개요

UR농산물 이행계획서상에 시장접근물량이 책정되어 있는 품목은 총 190개 세번(63개 품목군)으로 이들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양허관세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의 근거를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등 6개 개별법률에 신설하고,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관세 추천방법을 농림부장관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위 개별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농림부고시로 제정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수입관리하고 있다.

나.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접근물량 63개 품목군중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17개 주요 품목군은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하고 있고, 연유, 분유, 참기름, 밤, 대추 등 6개 품목군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관리를 하고 있으며, 종우, 맥주맥, 옥수수, 감자전분 등 40개 품목군은 실수요자 추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영무역 또는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국내 생산시기, 생산량, 유통가격 등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 탄력적으로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함으로써 국내 농업보호와 WTO농업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으로 발생한 수입이익금은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각 품목 관련 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관련 품목의 경쟁력제고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옥수수, 대두, 참깨, 감자·변성전분, 사료용근채류 등 16개 농업용원자재 및 국내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요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토록 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다.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입관리 운용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과다한 수입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관세상당치(TE)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대두, 고구마전분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땅콩, 메밀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수입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이미 UR협상 이전부터 단일관세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등 8개 품목에 대하여는 최고 60%까지 관세를 인상조정(조정관세 부과)하여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한편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 농축산물(176개), 국내산(145개) 및 가공품(121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등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최정록)

제 8 절 농촌활력 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국 1,220개 면 중 오지·도서면을 제외한 758개 면을 대상으로 면지역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복지시설과 주택을 정비하고, 면지역내의 중심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기존 마을 정비는 물론 택지를 조성하여 마을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04년까지 전국 758개 면에 대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제1단계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당 1개소 수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190개소의 선진화된 농어촌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마을 정비는 면당 4~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45억원(보조 30, 용자15),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지구당 3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30~50억원(보조 20~30, 용자 10~2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지구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는 총예산 2,966억원(국고 34, 지방양여금 2,616, 용자 316)을 투입하여 정주권개발은 303개 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66개 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마을조성은 신규 19개 지구를 포함한 50개 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조성을 추진하여 16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개발면과 기반시설이 완료된 문화마을지구에 1,291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 정비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하여 12개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59<표 2-2->

도로포장 현황

(2002년말 현재)

구 분	총 연 장(km)	포 장 도(km)	포 장 륜(%)
고속도로	2,778	2,778	100
일반국도	14,432	13,788	96.9
특별시·도	18,224	17,079	93.7
지방도	17,084	13,330	78.0
시도	20,017	14,757	73.7
군도	23,702	11,924	50.3
농어촌도로	61,833	16,963	27.4

자료 : 2003년 도로현황조사(건설교통부, 농어촌도로는 행정자치부 자료)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농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1년말 29%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의 산재된 자연마을은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이 비교적 적다. 대부분 마을은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0<표 2-2->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톤/일)	급수량 (천톤/일)	1일 1인당 급수량(L)
○ 특광역시	23,095	22,720	98.4	15,625	8,755	374
- 시지역	15,570	15,024	96.5	9,223	5,561	352
- 읍지역	3,857	2,986	77.4	1,865	1,007	333
- 면지역	5,767	1,672	29.0	1,037	533	309
계	48,289	42,402	87.8	27,750	15,856	361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1년말 현재)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암반지하수개발)을 1994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까지 3,83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3년에는 816억원을 투자하여 480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61<표 2-2->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사업량(개소)	5,000개소	3,831	480	689
사업비(억원)	8,000억원	6,287	816	897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시설서기관 조홍제)

2.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자녀중 실업계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또한,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사업으로 42천명에게 265억원,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사업으로 2,050명에게 16억원을 지원하였다.

62<표 2-2-> 2002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사 업 명	인 원	지 원 액	비 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42	26,541 (7,958)	국 고 30% 지방비 70%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2.1	1,599 (320)	국 고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농촌의 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에 편모농업인에 이어 2002년도에는 편부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제2장 2002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63<표 2-2->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1999	상 동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포함.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2001	편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2	편부·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임업인·어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편부·모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02년도까지 총5,726억원(1,453천명)을 지원하였다.

64<표 2-2->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1990~1992		1993~1996		1997~2002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626	148,179 (148,179)	400	173,806 (57,466)	427	250,583 (75,226)	1,453	572,568 (280,871)

주 : () 내서는 국고지원액('90~'92 100%, '93~'96 1/3, '97년이후 30%부담)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제2편 2002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 11개 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총157억원(28천명)을 지원하였다.

65<표 2-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1986~1992		1993~1997		1998~2002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9,446	4,135 (827)	6,235	3,050 (610)	12,132	8,524 (1,705)	27,813	15,709 (3,142)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20%부담)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윤영열)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제1장 2003년도 농정방향

제 1 절 2003년도 농정목표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농산물 과잉기조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의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시장개방 폭이 넓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의의 확산과 심화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 유인효과의 증대를 위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친환경·고품질 농업육성

둘째,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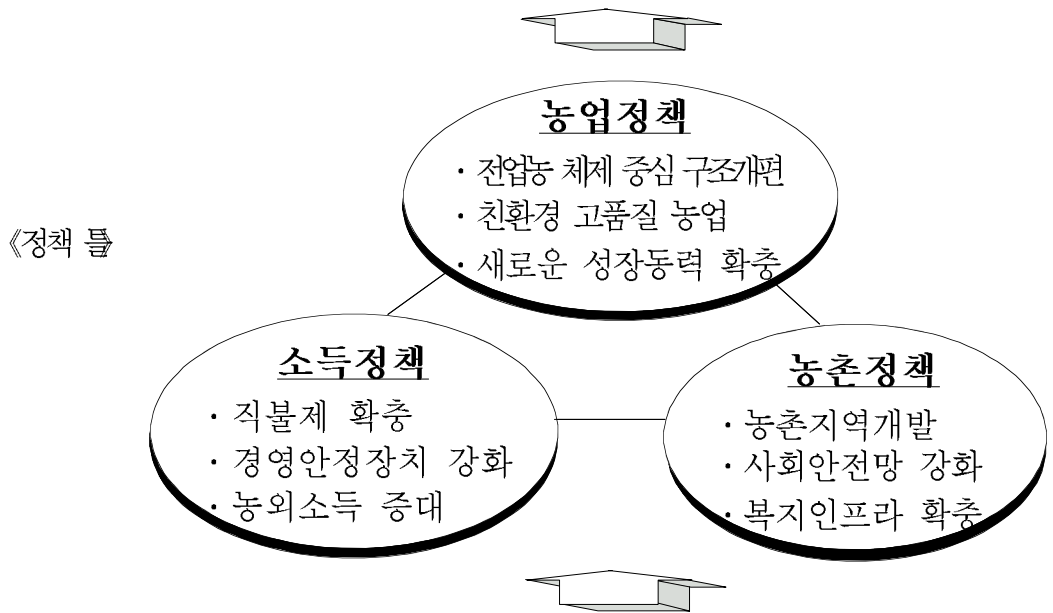
셋째,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등의 목표 아래 2003년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목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비전》

- ◇ 농업 : 지속 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육성
- ◇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 농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패러다임》

- ◇ 정책대상 : 농업중심 ⇒ **농업 · 식품 · 농촌**
- ◇ 지원방식 : 평균적 지원 ⇒ **선택과 집중**
- ◇ 정책수단 : 정부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보조**
- ◇ 농촌성격 : 농업 생산공간 ⇒ **생산 · 정주 · 휴양공간**

제 2 절 2003년도 농정시책 방향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을 위해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채택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농정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육성, 경영규모화, 수출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를 호기로 삼아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을 개발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경영상 위험요인을 줄여 농가소득 안정망을 구축하며,

셋째, 연금·의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 소득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해 「농업·농촌·농업인 정책」 간 상호보완성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내 농정기획단을 구성하여 농특위, 청와대 농어촌대책 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채대책, 직불제 확충 등 핵심과제에 대해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대책반을 운영하여 DDA 협상 이후를 감안한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전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

가. 친환경 농업 본격 육성

2002년 말 현재 친환경 인증농산물의 비중은 3% 수준으로 아직 초보단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계이다. 그러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의 조화와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과다하게 투입되는 농약·화학비료·유기물 등을 단계적으로 절감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시설농업 중심으로 천적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우선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둘째 농촌관광마을 사업과 연계할 강화를 하는 한편, 셋째 논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를 통합하고, 넷째 축산의 환경부담 요인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을 강구해 나가며, 다섯째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과 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나. 농업구조의 개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농가중심으로 농업자원이 재편되도록 하고, 경쟁취약농가에 대한 생활안정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농지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지에 대한 수요의 재추정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보전방안을 수립하고, 거래자유화 및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농업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과계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실무연수지원, 현장실습 강화 등 우수인재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제도를 창업농 위주로 개편한다.

또한 영세·고령농들에 대해서는 은퇴후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은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농업구조 개편을 유도할 것이다.

다. 안전·고품질 농산물관리체제 강화

고품질·안전농산물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상황을 보면, 안전성 조사 부적합 비율은 1.1%(2002년)로 낮고, 원산지 표시 이행율도 96%로 높은 편이지만,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배·수확·세척·포장 등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인 모범농업실천지침(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품목별로 토양, 농업용수, 비료·농약 등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당귀, 구기자 등 약용작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안전성관리 측면에서는 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자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제재를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품질 고급화는 수확후 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품질인증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산물 유통혁신

최근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유통업체, 전자 상거래 등 신유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대응능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지 유통주체의 규모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을 주도할 협동조합간 연합판매사업의 확대가 산지 유통 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정부는 산지 유통센터 등의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실적 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출하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강서 도매시장 개장에 맞춰 내년부터 시장 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소매기능을 갖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확대하며, 농산물 통합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디지털 유통을 확산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규격화, 파렛트화, 하역기계화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 농산물 수출확대

일본에 집중(36%)되어 있는 농산물수출은 미국, EU,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별로 특성화된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시장을 목표로 신선채소와 화훼류를 특성화하고, 중국시장에는 김치·인삼 등에 주력하며, 유럽이나 미주지역은 현지인 중심으로 저장성이 있는 단감이나 인삼, 배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유망 수출업체를 육성하며, 수출물류비 등 수출관련 정책대상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가. 직접지불제 확충

직접지불제는 시장가격지지보다 소득효과가 높고, 생산왜곡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WTO 체제하에서 선진국들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지불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예산의 직불금 비중을 현행 7%수준에서 임기내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직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직불제도를 체계화·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직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친환경농업확산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직불제는 확대해 나가고, 무차별적이거나 증산을 유인하는 직불제는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직불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과 실무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직불제 확충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나.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WTO체제에서는 정부에 의한 개입이 제약된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방식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등을 위한 생산자 자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인데, 이를 위해 축산물 자조금 조성에 관련협회와 농협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조금 조성요건을 완화하여 포도·단감·마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조금 조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채소류는 규모화된 농협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품목별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면 수급예측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

농업분야는 자연재해 등 경영상 위험요인이 매우 높아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 등의 피해로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348억원) 손실(241억원)을 입은 보험사들이 금년부터 재보험에 불참함에 따라 거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품목별·지역별 피해통계축적 등 품목별 보험성립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100%까지 지원해 농가의 보험가입부담을 완화하고 시범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확대 등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또한 재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및 용자금리 인하 방안 등을 강구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그 동안 농공단지·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 확충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외소득원 확충에 대한 기존 사업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산업들을 연계한 농촌관광 산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몇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과 고유축제 등을 관광상품화하여 농촌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농공단지 추가 조성 및 특산단지 등을 활성화해 농촌소득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식품 등 유통·가공업에 농업인·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가공공장에 대해 시설현대화와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고 관련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3.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부처별로 분산된 농어촌 복지업무의 종합조정체제 구축을 위해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에는 총리산하에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농특세를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근거, 농어촌 사회복지 강화 및 새로운 농촌개발방식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소농가에 대한 경제·사회·복지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촌복지정책의 개선과제를 도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작금의 어려워진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농특위 등 범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으로 끝나는 농특세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들을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현행 최저등급 보험료를 기준으로한 보험료 지원체계를 소득수준별로 정률 또는 정액방식으로 개편하고, 농촌의료서비스 수준을 감안하여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경감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농작업 상해공제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입율을 제고하고 보장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8%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언급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 개선

농촌사회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인구가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큰 불편없이 자녀교육, 의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우수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농촌의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농촌출신 학생들의 대학입학기회 확충 등 농촌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장비·인력 보강 및 군(郡)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농어촌 영유아 보육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및 노인복지를 향상 시켜나갈 것이다.

라. 농촌지역개발 및 활성화

우리나라는 도시중심의 불균형 성장의 영향으로 농촌내부자본과 정부지원만으로는 농촌의 자생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농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투자유치노력을 적극 지원해 외부자본의 농촌투자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농촌주택의 신·개축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지원 용자한도를 확대하고 용자조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상향식·종합적 접근으로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가능성 및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앞서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부처간 농촌개발을 위한 유기적 협조·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김정주)

제 3 절 2003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1. 2003년 농림예산 편성 방향

2003년도 농림예산은 농산물 가격하락, 재해 등 소득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체질 보강과 기술향상·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생활여건개선과 농촌투자유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첫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수매 등 양특회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벼매입 여력 확보와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쌀 수급불균형 조기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둘째,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여 고령·영세농의 탈농을 촉진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도 확대하였으며, 농외소득원 확충 일환으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확대 반영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유통개선부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유통의 하드웨어(시설) 부문은 신규투자 보다는 보완과 기능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관측사업 및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 농식품의 품질·안전성관리 등 소프트웨어(운영) 중심의 투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넷째, 생산기반조성부문은 재해예방·완공위주로 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 및 용수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소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선도적 경영체 육성 및 지식·기술농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농업에 BT와 IT를 접목한 첨단농업기술기반을 강화하고, 전문화·규모화 농가 중심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

2. 2003년 농림예산 규모

2003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9조 8,743억원으로 2002년 보다 6.3%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1<표 3-1> 2003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감 (B-A)	%
기능별	I. 사업성예산	62,987	65,038	2,051	3.3
	1. 생산 기반 조성	21,515	24,618	3,103	14.4
	2. 농업 기계화	1,940	1,421	△519	△26.8
	3. 생산 및 유통개선	8,341	5,810	△2,531	△30.3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2,580	2,810	230	8.9
	5. 인 력 육 성	2,774	2,347	△427	△15.4
	6. 농촌소득원개발 등	4,342	4,355	13	0.3
	7.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16,198	13,600	△2,598	△16.0
	8. 양 곡 지 원	5,297	10,077	4,780	90.2
	II. 채무상환성 예산	26,481	29,937	3,456	13.1
	1. 농특회계채무상환	19,081	22,015	2,934	15.4
	2.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4,672	5,025	353	7.6
	3. 적 자 보 전	2,728	2,897	169	6.2
	III. 기본적 경비	3,384	3,768	384	11.3
	계	92,852	98,743	5,891	6.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포함)	(94,502)	(99,743)	(5,241)	(5.5)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2,382	15,936	3,554	28.7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1,849	1,975	126	6.8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고학수)

제 4 절 농정추진 체계 개선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전체 산업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와 우리 농업·농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소·정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1장 2003년도 농정방향

그 동안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농교류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비용부담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1999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도·농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도시민들은 자연환경·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정신적 풍요와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도·농간의 문화·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금년에는 농·소·정협력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여 농협중앙회 등 농업인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녹색연합 등 환경운동단체에서 총 42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소·정협력사업은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를 농업인·소비자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정에 형성된 농업인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상생(相生)관계 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2<표 3-1> 농·소·정협력지원사업

유 형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생산현장체험·농촌문화 체험, 일손돕기 ○ 도시소비자 생산·유통 현장체험 및 자매결연 ○ 숯가꾸기 및 녹색산촌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나무 벼사랑 체험, 초등학생을 위한 농업 이야기 ○ 선농제향 ○ 인증농산물 홍보 및 소비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전운동 ○ 우리 전통떡 지키기 ○ 농업환경보호, 안전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량	30개 사업(단체)	4개 사업(단체)	8개 사업(단체)

(농업정책과 서기관 강학원)

2. 농림사업 투융자 평가 및 제도개선

가.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 자체평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주곡의 수급균형 회복” 등 9개 과제를 선정, 상·하반기 각 1회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농업인·소비자 단체의 민간전문가 24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심사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인단체와 언론단체의 임원을 추가 위촉하여 농업인 및 언론 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시행계획과 자체평가결과 심의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전체회의를 2회, 소위원회를 평균 2회 개최하였다. 하반기에는 평가내실화를 위하여 평가위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심의등을 위해 전체회의·소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특히, 평가위원과 주무과장들이 평가과제에 대해 사전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주곡의 수급균형 회복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농림부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상·하반기 대상과제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여건 변화로 계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계획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림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승민)

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평가 개선

금년에는 2002년 한해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재정집행

제1장 2003년도 농정방향

점검대상 예산사업의 추진상황, 미곡종합처리장·유리온실·산지유통센터·재해대책시설물·가공공장·축산분뇨처리시설 등 기지원된 농업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고품질쌀생산·가축방역·수출촉진·유통대책·농업정보화·친환경농업육성·농정홍보·영농조합법인·지방농정조직 등 주요 농정시책, 농업분야에 대한 자체 지방비 투입실적, 차별화된 시책 추진실적, 지역농정현안대처 노력 등 6개 분야의 농림업무를 종합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특화사업비 중 310억원을 차등지원하였다.

2004년도 농림업무평가는 참여정부 농정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요소 및 배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평가지침을 개선하였다. 지역농정 현안대처노력 평가시에는 현장 및 참여농정 실천사례 중심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농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과 친환경농업 추진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농촌투자유치 및 농촌관광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현실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고품질 쌀 대책 평가시에는 논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도와 광역시는 제외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고품질 쌀 대책과 연계하여 평가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역할이 적은 영농조합법인육성 평가는 제외하는 등 평가지침을 개선하였다. 또한 2005년도 농림업무평가는 평가대상연도인 2004년 시작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농정의 기본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에 착근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당해연도에 평가하여 지역특화 시상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비를 배정토록 하므로써 지역특화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화사업을 기존의 소규모 통합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형)

3. 농림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2003년도에는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농림분야에서도 적용해 나가기 위해 기존 규제의 일체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농식품의 안전성, 위생, 검역, 환경분야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고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개선(완화)시켜 나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민영화 등 간접규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부 소관 법 중 1개 분야를 제로베이스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2004년 1월부터 규제를 일괄 폐지토록 검토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그 필요성을 입증한 규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편의 및 공익증대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기업·집행공무원 모두가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농림분야 규제 중 2~3개를 선정, 그 순응도를 조사 분석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제출서류의 전자서식화 등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단을 전자정부와 인터넷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등 부조리와 부패의 소지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허원석)

4. 농림조직의 개편

가. 농림부

(1) 농정여건에 대응한 조직개편 단행

WTO/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농산물의 수급관리와

수출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진흥기능을 국제농업국에서 농산물유통국으로 이관 조정하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농림부와 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대통령령 제17638호, 2003. 6. 25), 농림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40호, 2003. 7. 1)>

첫째, WTO/DDA 협상, 쌀 재협상 등에 대비하여 대외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농업국에 「농업협상과」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WTO/DDA 농업협상은 「WTO 농업협상대책반」을 구성하여 T/F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정식조직으로 개편하여 「농업협상과」를 신설하고 「무역진흥과」를 폐지하고 동과에서 담당하던 수출업무는 국내 농산물 수급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로 이관하였다.

둘째, 최근 농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표시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을 위해 농산물유통국에 「소비안전과」를 신설하였고, 도매시장·공판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고정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던 「시장과」를 폐지하고 주요기능은 「유통정책과」에 통합하였다.

셋째, 식량생산국의 조직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였다.

친환경농업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유기농업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였고, 농업 경쟁력의 원천은 첨단기술 개발과 종자·생명산업육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지원과」를 신설하고 반면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화학비료, 농약 등을 담당하는 「농업기계자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농산과」를 「농산경영과」로 개편하여 통합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농축산물 소비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촉진 홍보 강화를 위해 공보관실에 홍보담당직을 신설하고 사업국별로 홍보전담 기능을 신설하였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 출장소 증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광역화 되어있는 출장소를 분할하여 4개 출장소를 증설(경기 이천·용인, 충북 영동, 전북 군산, 경남 고성)하였고, 농업통계조사의 전문 인력확보를 위하여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행정 6급 △12, 행정 또는 통계 6급 +12)하였다. <농림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34호, 2003. 1. 22)>

(3) 동·식물의 국경검역 기능강화

해외 악성가축질병과 수입식물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17인 증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1 (6급 4, 7급 3, 기능 4), 국립식물검역소 6 (6급 1, 7급 3, 8급 1, 기능 1)] 과 함께 출장소 4개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울산, 목포), 국립식물검역소 2 (구미, 김포공항)] 를 증설하였으며, 또한 수입식물의 검역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식물검역소 본소의 「조사연구과」 와 중부격리재배관리소를 통합하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40호 2003. 7. 1), 농림부령 제1442호, 2003. 7. 25)>

(4) 총무과장 직위 복수직화 및 장관 정책보좌관 신설

농업행정의 다양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직렬 공무원의 폭넓은 행정경험을 통한 직무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직만 보직이 가능하였던 총무과장 직위를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화 하였으며,

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장관정책보좌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정책보좌관 2인(2·3급 1, 4급 1)을 증원하였다.<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959호, 2003. 4. 7),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38호, 2003. 4. 15)>

(5) 농산물안전성 및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보강 요청

농산물의 안전성 및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성조사 기능강화에 필요한 인력보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소 증설, 농축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동식물의 국경검역기능 강화 등 2004년도 농림부의 소요기구 및 소요정원을 2003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원산지 관련 인원과 GMO 검증인력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소 기구증설
- 수의과학검역원의 외래성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및 축산물 탐지컨센타 등의 인력보강과 본원 광우병검사과·출장소 신설 등
- 국립식물검역소의 LMO(유전자변형 생물체)식물의 국경감시 검역인력, 공·항만의 검역인력 보강 등
- 종자관리소의 종자특수검정(DNA분석 등) 및 UPOV(국제식물품종보호동맹)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

(조직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병은)

5. 농협의 구조개선 추진

가. 중앙회 및 일선조합 개혁

(1)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000년 7월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고 경제사업장 정비, 고정자산 매각 등을 통해 중앙회 슬림화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중앙회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선조합은 구조개선법 제정으로 일선조합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틀은 마련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읍·면단위의 사업영역으로는 경제·신용사업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고, 선출직 조합장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며, 조합경영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확산과 저가농산물 수입 증가 등 유통 여건변화에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대응하여 협동조합 주도의 유통·경제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자금잉여시대의 도래로 신용사업이 더 이상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이 WTO 시장개방 및 금융시장 개방,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합 및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실정이다.

앞으로 중앙회는 신용·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이사 및 감사기능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선조합과 조합원 지원기능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경영을 전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선조합은 경영의 규모화·전문화·투명화로 경제사업 역량을 확충하여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하는 효율적 사업체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합병 여건을 조성, 촉진하고 상임이사제 도입 등 경영의 효율화·전문화를 도모하며 공정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제도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2) 추진경위

2000년 농협법 개정시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한후 2년내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구용역 보고서(한국금융연구원, 2002년 6월 국회보고)에서는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단계적 분리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로 인력·자본·회계 구분 등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지도사업비 마련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2단계로 중앙회-경제사업연합회-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하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신경분리를 위한 1단계 책임경영체제 구축은 2004년 6월까지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조합의 합병 등 일선조합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농협개혁 방안이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농협의 자율적 개혁추진의사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2003년 3월 3일 중앙회장 명예직화, 시군지부 기능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부 주도 농협개혁의 한계를 거울삼아 농협-농민단체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협개혁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협·농민단체·학계가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개혁방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3년 정기국회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농협개혁 T/F」를 구성하여 농협법 등 관련법령을 폭넓게 검토중이다.

2003년 4월 농협중앙회는 학계, 농민단체, 조합장 등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차회의(5.29)시 20개 농협개혁과제를 설정하고 8월말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9.4 농협개혁위로부터 농협법 개정사항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받아 입법을 추진중이며, 올 정기국회내 농협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1) 일선조합의 구조조정 현황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2년도에 197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고 합병(47개 조합) 또는 재무구조개선(150개 조합)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등 적기시정 조치를 한데 이어 2003년에는 10개 조합을 신규로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하고 적기시정조치(재무구조개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구조개선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한 조합은 2002년도 197개 조합, 2003년 10개 조합 등 모두 207개 조합으로 2002년말 현재 전체 일선조합 1,366개의 15.2%에 해당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207개 조합중 농업협동조합이 43.4%를 차지하는 90개 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55.1%인 114개 조합, 인삼협동조합이 1.5%에 해당하는 3개 조합이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구분하면 지역조합이 167개 조합(농협 87, 축협 80)이고 품목조합이 40개 조합(농협 3, 축협 34, 인삼 3)이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207개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2003년 9월말 현재 106개 조합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101개 조합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구조조정을 완료한 조합중 55개 조합이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부실조합을 졸업했고, 44개 조합이 우량조합과 합병하거나 신설 합병했으며, 자체회생 능력이 없고 합병추진도 불가능한 7개 조합은 사업정지(계약이전) 후 파산·퇴출 되었다.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101개 조합중 4개 조합은 합병을 추진 중에 있고, 97개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부실(우려)조합의 부실액은 해당조합에 직접 출연하여 보전하거나 무이자자금을 5년간 융자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조합의 2001년말 기준 회계상 부실규모는 5,875억원으로 이를 보전하는 데에는 약 2조원규모의 대출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실(우려)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지원적립금·조합상호지원자금 등 자체 운용자금으로 약 1조원을 조성하여 100개 조합에 5년간 무이자 대출기준으로 9,025억원(5년간 무이자대출 8,203억원, 출연 2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03년도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관련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9,000억원을 조달하고, 1,000억원을 외부차입하는 등 1조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 6월 30일과 2003년 9월 8일 등 2차에 걸쳐 기금채권 4,081억원을 발행하였다.

일선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이후 2003년 9월 30일까지 129개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5년간 무이자 대출자금 1조 3,108억원과 직접 출연금 1,774억원을 지원하였다.

(2) 2003년도 추진 방향

2002년도 이후 추진해온 부실(우려)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부분의 부실(우려)조합이 대내외적 경영여건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미흡과 자체 경영관리능력의 부족으로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실조합의 대부분은 자기자본 등 경영능력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고정투자로 결손을 확대 시켰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데다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대규모 부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는 조합운영에 소극적이고 무지·무관심한 조합원의 태도도 조합운영의 부실을 가져오는 한 요인으로 진단되었다. 조합원의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로 조합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와 이사회 등의 실질적인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조합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도 연결된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 불패신화가 깨어지고 조합을 경영체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농업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사업정지·계약이전·파산·강제합병 등을 통해 조합원과 조합경영자들에게 조합도 경영을 잘못하면 퇴출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의 특성상 퇴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 불식되어 앞으로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조합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일선조합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조합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무분별한 고정투자 방지, 신용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일선조합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일선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해 2003년 1월 3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고시하였다. 강화된 기준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되는데 2003년 현재 순자본비율 0%미만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을 2006년까지 4%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되 2004년에는 2%미만으로, 2005년에는 3%미만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강화된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여 일선조합의 부실을 철저히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일선조합의 부실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실조합 등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우선 2003년에는 퇴출 및 합병 등으로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 조합중 43개 조합에 대하여 부실원인을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한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류이현, 박범수)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제 1 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1.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 기술을 수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사업(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은 중산간지의 중소농가 등 규모화가 어려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성면에서 고품질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사업(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은 1995~2006년까지 630개소 조성을 목표로 1개소당 250백만원씩 총 1,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5~2003년까지 1,405억원을 투자하여 562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업대규모지구조성사업(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1998년~2008까지 지구당 10억원씩, 총 2,100억원을 투자하여 200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1998~2003년에는 590억원을 투자하여 49개 지구를 조성하였다.

2004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실천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 및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지구와 소규모지구를 통합하여 지역별 여건에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맞는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하한선(10ha, 10농가 이상)만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43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IPM)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INM)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IPM과 INM 기술지도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보급하고자 도시소비자 및 어린이들이 친환경농업 실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2003년에 25천명이상이 체험 기회를 가졌으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2003년에 390회 18천 여명이 친환경농업교육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농협·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에 수확기 구매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 84억원, 2003년에는 149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토양개량사업 추진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을 위한 토양개량사업은 2002년에 이어 2003년도에도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보하여 100%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779천톤(규산 444, 석회 335), 521억원(규산 315, 석회 206)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상토양개량제 확대공급을 통한 토양개량효과를 증대하고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입상규산질 비료를 대폭 확대하여 2002년도 58천톤에 이어 2003년도에는 85천톤으로 확대·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오염농경지와 사질토양 및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의 밭토양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 개량을 위해 2003년도에는 객토사업 2천ha(24억원)를 실시하고 있다.

3.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축산사료 중 조사료 비율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이 증진되도록 하는 시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가 부산물 및 곡물을 활용한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벚짳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벚짳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성 초지의 전용은 억제하고 신규 초지조성은 적극 유도하여 초지관리를 위한 임차료·종자대·비료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지 조성에 중산간 지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근교 농가가 중산간지로 이전하여 목장개발을 희망할 때에는 필요한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토록 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사료·녹비작물을 파종면적 기준으로 2002년도 126천ha의 재배에 이어 2003년도에는 140천ha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최병국,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상수)

4.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가. 축산분뇨의 자원화

축분비료는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토양개량에 의한 작물의 증수효과가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축분비료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효율적이며 우량한 퇴비를 생산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우수한 환경개선제를 선정·홍보하는 등 축산농가의 분뇨자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축분비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기존의 축분퇴비유통센터(23개소)의 운영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내 축분발효액비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축분비료유통센터(40개소)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들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을 확대('02, 400개소 → '03계획, 680개소)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동안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유기축산 세부사양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유기축산 희망 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나. 축산업등록제 추진

축산업등록제는 환경보전, 축산물 안전성확보,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발생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12월 26일 의원입법으로 축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입키로 하였으며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 각국도 축산농가별 농경지면적 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고, 대만은 1997년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1998년부터 '축목업 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제고를 위해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는 추세에 있다.

축산업등록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이내('05.12.26일)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는 현재 작성중인 시안이 한육우·젖소 및 닭은 가축사육시설이 300㎡이상인 농가, 돼지는 50㎡ 이상 이고,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천호(4.3%), 젖소 8천호(89%), 돼지 10천호(59%), 닭 3.8천호(2%)로 모두 31천호가 된다.

등록시에 종축과 일반가축 사육시설(종축업), 부화실과 병아리방(부화업) 및 계란중량 선별기(계란 집하업)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시설·장비기준 대상에서 제외)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적정사육면적 확보의무 강화, 조사료포 확보를 통한 축산분뇨처리 및 경종농업과의 유기적 순환농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축산업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고 등록농가에 두당 축사면적 확보, 축사 등 청결유지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체계 정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정책과 축산서기관 노수현)

제 2 절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도입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후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농산물 안전생산에 대한 국제공통 기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WHO(FHH:한약규격화포럼)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도 사용되는 약용작물에 대하여 GAP기준을 설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국제동향에 발맞춰 도입을 추진하는 GAP제도는 Codex기준과 WHO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① 파종 전 단계의 토양·수질의 안전관리 ② 농산물 생산시 화학비료·농약 및 유기질비료 등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관리 ③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생산이력)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처리·가공과정의 HACCP과 연계될 경우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괄된 농산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농업인들은 식품안전성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산 농산물과 차별화된 GAP농산물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GAP기준은 WTO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약용작물 5개 품목(당귀, 황기, 구기자, 작약, 맥문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채소류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윤광일)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축의 사육단계(Farm)에서 최종소비단계(Table)까지의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2003년도에 각종 축산물의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사육단계에서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자 사육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휴약기간의 준수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수농장인증제(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도축단계에서는 위생적인 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162개소)에 대한 HACCP적용을 7월 1일부터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운용하지 않을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전 도축장에서 HACCP의 적용과 운용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1<표 3-2> 도축장 HACCP 미 작성 및 운용 등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자료 : 농림부 축산국

가공장에 대해서도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리 가공, 유통, 운송, 판매단계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가공, 유통, 운송, 판매과정 중 재오염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작성·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식용란 검사기준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지켜야 할 각종제도와 병행하여, 실제 그 내용이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는 자체실험실에서 대장균 검사를 시행하여 자가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축과정에서도 축산물 검사관이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원유에 대해서도 원유검사보조원 및 자체검사원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된 축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찾을 수 있도록 HACCP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여 HACCP 적용 도축장·가공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상진)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품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도에는 56천건의 농산물을 조사하였고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795천명의 생산자와 8천명의 관계 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면적 재배작물

에 적용할 농약의 확대를 위해 직권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까지 29작물, 62품목의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였다.

2003년에는 58천건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성조사대상을 농산물의 생산 바탕인 농경지와 농업용수·농업용 자재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싹, 녹즙 등 생으로 먹는 채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의 오염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부적합품의 생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아울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GMO표시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감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GMO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2003년 502명의 상주단속반을 통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GMO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03년 교육:275천명, 홍보:756회)하는 등 GMO 표시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과학적기반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성·정량 분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등 GMO농산물의 표시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19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996년 국내가공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국산의 경우 226개 품목, 수입산의 경우 176개 품목(HS4단위)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결과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2003년 96.1%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직적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과학적 판별기법 개발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03.6.)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그 밖에 소비자단체 회원 등 2,6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표시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서운주, 농업사무관 윤광일)

4. 가축방역·검역 강화

2003년도에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였다.

2003년 3월 18일 돼지콜레라가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발생한 이후 5월 8일까지 6개 도 25개 시·군의 65개 농장에서 발생되었다.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결과, 경기도 김포 소재 상원축산 및 이곳에서 돼지를 분양 또는 재분양 받은 농가가 전체 65개 농장중 45개 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대부분 발생농장에 인접한 농장으로 파악되었다.

2<표 3-2->

돼지콜레라 발생내역

	합 계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농가수(호)	65	13	6	19	1	12	14
살처분(두)	95,822	38,889	8,964	10,263	1,150	18,733	17,82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농림부·시도·검역원 등 각 기관별로 “돼지콜레라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방역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3회) 및 전문가회의(2회)를 잇따라 개최하여 신속한 방역조치의 추진을 도모하였다.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점을 감안하여 돼지콜레라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3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2회에 걸쳐 총 22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백만두분의 예방약을 공급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전국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로 예방접종 농가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살처분 범위·기준, 이동제한 등에 대한 돼지콜레라 방역정책을 조정하여 살처분은 돼지콜레라 “발생가축” 및 “감염의심가축”에 한정하고, 발생농가에 한해 살처분 완료후 40일간(도축제한은 20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기별로 질병별 발생양상을 분석하여 사전적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방역대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자율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 따라 민간 중심의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6.27)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 등 민간자율방역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방역차량, 예방약 및 소독장비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자율방역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농장폐쇄·사육제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생계안정자금 지급 제외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질병관리 우수농장·마을 인증제를 조기 정착시켜 방역비 지원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방역의지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의 가축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성감정 제도 등을 확립하여 방역기관간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질병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이수두)

제 3 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쪼고 유능한 쌀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3%,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청장년층의 쌀전업농 참여를 촉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자금 상환 기간을 당초에 20년 균분상환에서 10년에서 30년까지 연령별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청장년층에 대한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2003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367ha, 3,121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192ha, 1,679억원, 농지임대차가 5,115ha, 1,402억원, 농지교환·분합이 60ha, 4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쌀전업농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3ha, 5ha이상 신규 농가가 80%이상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면적, 쌀전업농수, 2003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확대가 촉진될 전망이다.

3<표 3-2> 2003 영농규모화사업 추진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2 실적(A)		2003 계획(B)		증 감(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6,774	315,866	7,367	312,060	593	△3,806
농지매매	3,007	220,983	2,192	167,907	△815	△53,076
임대차	3,682	88,610	5,115	140,151	1,433	51,541
교환분합	85	6,273	60	4,002	△25	△2,271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서기관 임정빈)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여 영농한 자로서 1년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연령이 65세이상 75세이하(질병·사고 및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60세이상)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71세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상 쌀전업농에게 임대·사용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하는 경우 ha당 289만원(지원상한액 5.2ha, 1,500만원까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2003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500ha, 4,335백만원으로 이 중 농지매매가 870ha, 2,514백만원, 농지임대차가 630ha, 1,821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4<표 3-2> 2003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2 실적(A)		2003 계획(B)		증 감(B-A)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603	1,686	1,500	4,335	897	2,649
농지매매	79	215	870	2,514	791	2,299
임 대 차	524	1,471	630	1,821	106	350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서기관 임정빈)

다.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1) 개 요

농업종합자금은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하고 있다.

(2) 지원계획

2003년 종합자금지원은 5,400억원(농특자금 1,080억원, 농협자금 4,320억원)으로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농기계구입자금(3천만원이상)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의 운용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용하고,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5<표 3-2->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계획
합 계	160,500	175,716	624,262	540,000
농 특 자 금	128,500	138,716	148,000	108,000
농 협 자 금	32,000	37,000	476,262	432,000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3) 2003 지원제도 개선

2003년도에는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 관광농원개발, 농촌민박마을 조성, 농기계 구입자금(3천만원 이상)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 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04년도 부채대책에 의거 농업종합자금 중 중장기자금인 시설·개보수 자금의 2003년말 잔액을 현행 4.0%에서 1.5%로 금리를 인하하여 2004년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환기한도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 2월에 우수한 농가의 특징을 반영한 비재무적 대출심사방법을 개발·적용하여 농업경영체의 선별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분보증제 도입으로 농협의 심사·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2003년 2월에 종합자금지원농가와 취급사무소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종합자금지원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자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실적달성보다는 적격대상자 선정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정책금융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4) 향후 제도개선 방향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해야할 점들도 남아 있다.

앞으로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이라는 정책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화된 정책목적에 따라 원예·특작, 축산 등 지원 대상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용자조건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사후관리 범위를 현실화하여 사전 대출심사를 통한 부실예방을 강화하는 등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의 체계를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와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 자료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백철우)

2.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평야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평야지에서는 기반정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경사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사업여건이 열악하여 소요사업비가 정부에서 책정·지원하고 있는 예산단가보다 높아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6<표 3-2->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1,138	800(915)	716(821)	3(3)	81(91)
-진흥지역	771	665(760)	630(721)	3(3)	32(36)
-진흥지역밖	367	135(155)	86(100)	-	49(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은 논면적에 농로, 용·배수로 등 시설부지를 포함한 구역면적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2003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589억원과 지방비 146억원 등 73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가을에 착수한 3천ha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1천ha를 가을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흥)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개발목표 200천ha중, 2002년까지 83천ha를 마무리하였고, 2003년에는 과거에 소규모로 농기계 작업이 어렵게 경지정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898억원과 지방비 221억원 등 1,11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가을에 착수한 4천ha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고 새로이 4천ha를 가을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표 3-2->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200	83	4	113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흥)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다.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30천ha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를 1단계 정비목표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2002년까지 11,946억원(국고 9,374억원, 지방비 2,572억원)을 투입하여 52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밭면적 730천ha의 7%, 1단계 목표면적의 47%수준이다. 2003년에는 1,149억원(국고 925억원, 지방비 224억원)을 투자하여 6천ha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8<표 3-2>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2까지	2003계획	2004이후
사 업 량	110	52	6	58
사 업 비	25,794	11,946	1,149	12,699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김재홍)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첨단화·대형화되어 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경지정리 시행지구안에 있는 주요 농로 35,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미 1995~2002년에 12,681km의 확·포장을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도에는 1,253억원을 투자하여 1,2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9<표 3-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2까지	2003	2004이후
사 업 량	35	12.68	1.20	21.12
사 업 비	37,071	12,876	1,253	22,942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 토목사무관 권충희)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영농기반조성사업으로 최근의 연속 풍년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아직도 수리답율은 77%에 불과하며 나머지 23%는 천수답으로서 작은 가뭄에도 물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수혜면적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다. 수혜면적 3,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경북 성주, 전북 동화 등 2개 지구 7,380ha에 대해 추진중이며, 수혜면적 50~3,000ha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21개 지구 51,017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15개 지구 4,402ha를 2003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2009년까지 188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국고 2,156억원을 지원하여 107지구(28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고 이중 34지구(8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자원확보는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상습침수 해소,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이다. 2003년에는 시행 중에 있는 새만금지구 등 7개 지구에 국고 908억원과 농지관리기금 2,330억원 등 총 3,238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흙수로 현대화 등 총 7,716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국고 5,320억원을 지원하여 수리시설개보수 368지구, 저수지준설 11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하여 유지관리인 또는 수로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시설물을 조작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수리시설물상태 및 용수수급상황 등을 실시간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3년에는 국고 62억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1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20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3,284개소 등 전국 3,490개소의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많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3년에는 849억원을 투입하여 282개소를 시행, 그중 99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개발정책과 토목사무관 김일환)

3. 농업전문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인 육성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200명, 신규후계농업인 800명 등 2,000명을 선정, 9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신규취농자를 우대지원하고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였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기존농 위주에서 창업농 중심으로 개편하여 농고·농대 졸업생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영농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정착자금의 지원규모 확대와 사업 성과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나. 법인경영체의 육성

2003년 상반기에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도 제한 없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확대하여 법인경영체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하여 법인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3년에는 6개국에서 5,000명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도입하여 농업경영체에 배정하여 인력난을 덜어주는 등 농업법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다.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는 지원사업비한도를 농업인은 기존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법인은 기존 1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하여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공급업체의 자격요건을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공급업체로 강화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이루는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경천)

라. 여성농업인 육성

(1)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강화

○ 여성농업인 교육훈련 실시

여성농업육성 5개년 계획 중간 해인 2003년도는 급속하게 변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신지식·신기술 농업에의 적응력을 키우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틀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여성농업인도 정보화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은 농업협동조합회원조합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하며 각 교육기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교육대상인원의 30%이상인 24,0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농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과 초보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마케팅, 정보화, 지역사회의 역할 등 전문직업의식과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을 숙지하여 현장감 있는 눈높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 전문교육요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교관반」을 신설하여 24명을 총 6회에 걸쳐 교육할 계획이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위원회 등에 여성참여

신규후계농업인 선정시 평가점수가 360점이상인 여성에 대해서는 시·군별 선정대상 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자격 있는 여성농업인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2003년도 정부목표인 32%이상의 참여율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 구성시 일정수의 여성대의원을 포함하도록 조합정관례를 개정하는 등 협동조합운영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방과후 자녀학습지도, 교양강좌·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하도록 전국 9개 도 18개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중이다.

2003년에는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발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1,454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의 85%(개소당 80백만원 수준)를 보조한다. 2003년도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10<표 3-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시·군 현황

계	경기2	강원2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2	제주2
18개소	용인 여주	양구 횡성	영동 청주	서천 홍성	진안 부안	나주 장성	안동 영양	진주 거창	북제주 남제주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2)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체도로 2003년도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7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도우미 단가(27,000원)의 80%(21,600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지역을 163개 시·군에서 전국의 모든 농가로 확대하여 3,200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3)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1999년에 이어 2003년에 54백만원의 예산으로 외부용역과제로 수행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최근의 여성농업인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1~2005)계획의 중간평가 및 향후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현황조사, 농업생산·유통·의사결정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업종사 현황조사,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복지실태조사, 현 여성농업인정책의 인지도·수혜경험 및 정책요구사항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조사는 기한 내에 충실한 자료가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주관부서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사결과는 공표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제고 및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가 보다 중요시되어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성 및 농업관련단체 교육담당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정책반」을 11월에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채복)

마. 농업벤처 육성

2001년부터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특수농법, IT·BT 등 관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3개소) 지원, 기술평가기관 지정·운영(1개소) 및 농업분야 전문투자조합 결성(2개 조합 180억원) 등 창업인프라를 정비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농업분야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이템을 선정·지원 하는 등 벤처농업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제 4 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1. 농업관측제도 정착

농업관측사업은 가격등락 폭이 크고, 생산액이 많은 주요농축산물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사육동향, 재고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미래의 가격을 전망한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생산계획 단계부터 판매까지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에 필요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가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회수를 확대하여 관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지정보 수집을 표본농가(10,700호)는 기존 3회에서 5회이상,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농업기술센터 등의 모니터(1,200명)는 기존 6회에서 7회이상 조사하여 산지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아울러, 해외정보 수집은 중국의 품목별 현지 모니터(8명)운동을 활성화하고, 주요농축산물 국가의 생산, 유통, 수출체계와 정책에 대한 변화 및 전망 등의 정보교류를 위해 연구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선진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최신 관측기법 도입, 관세청의 수출입정보 실시간 활용,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한국어 번역) 등으로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측정보 가공·분석을 위해 수집정보를 이용하여 품목별, 시기별 재배면적 반응함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분석 등으로 전망정보를 생산하고, 현재 시범운영중인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 기능을 높여 나가고,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는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정책부서 등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신뢰성있는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민정보제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농업관측정보는 부류별로 관측보(월, 분기)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현지 모니터,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농업전문지, 농업관련기관 홈페이지,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E-mail회원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060-700-1122)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표 3-2> 주요농산물 품목별 발표시기

부 류 별	해 당 품 목 현 황	발 표 시 기	
채소류(9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3 ~ 12월	1일
과일류(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3 ~ 11월	10일
과채류(6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	"
축산류(5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2, 5, 8, 11월	25일
	육계	2 ~ 12월	"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통계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호재)

2. 산지유통의 거점화·규모화 등 경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등 소비자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의 거래 교섭력을 규모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성장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조직 290개소를 선정하여 3년거치 연3%의 금리로 유통종합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3년여 사업추진 결과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중심으로 마케팅의 규모화, 공동계산 확산, 대형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선진적인 유통방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200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의 평균매출액이 조직당 87억원이었으나 2002년 약 121억원(영농조합 83억원)까지 상승하였고, 공동계산 참여조직수도 2000년 91개소에서 2002년 23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실적도 2000년 1,907억원에서 2002년 4,979억원까지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자금운용기간이 만료된 2000년 전문조직과 신규 선정신청한 조직을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여 총 99개 조직을 새로이 선정하여 1,901억원의 유통종합자금을 3년거치 일시상환 3%저리자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외에 2002년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상위 20% 조직에 3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하위조직은 일부 자금회수 등을 실시하여 산지생산자조직간 지속적인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산지유통의 발전을 주도해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초 제1차 선발전형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집하, 예냉 등 수확후 처리, 공동선별, 공동출하의 핵심시설인 산지유통센터 지원은 2003년 기존 시설의 확장 및 전처리 생산 등 상품화 시설 보완 21개소 신규 건립 4개소 등 총 25개소에 약 85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시·군별 3개 이내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전문조직별로 2~3개 품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내 동일품목간 중복지원은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는 공동선별비, 마케팅 지원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집중하되, 공동계산율, 파렛트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출하 등 조직별 유통개선 목표관리제 실시 등 운영소프트웨어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관리사제 도입과 연계,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수확후 관리기술 교육과정 신설, 품목별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문컨설팅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매출액 등 외형의 성장뿐만아니라 상품화 기술·경영·마케팅 등 운영 소프트웨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무출하협약으로 구성원간 강한 결속력을 갖고 판매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동마케팅조직과 광역단위 연합사업체에 대하여 규모화된 APC시설 지원 및 유통사업비를 집중 지원해나가 산지 생산자조직의 판매사업 규모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APC시설 지원은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되, 신규 건립은 기존시설과의 경합정도, 운영주체의 전문성, 수익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 산지유통의 허브(Hub)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김정희)

3. 농산물물류 표준·규격화 확대

가. 농산물표준규격화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품질, 크기, 결정정도 등 등급규격과 거래단위, 포장치수 등 포장규격을 설정하여 정해진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유통하도록 하여 생산자조직의 표준규격출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와 포장출하로 인한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규격과 내용물의 크기, 중량 등 등급규격제정을 하는 표준규격출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4월에는 농협에서 농산물검사소로 이관되면서부터 표준규격출하 관리업무의 규격을 크기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개정하고 미제정 품목의 규격을 제정하는 등 규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4년도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련법률”의 제정에 따라 규격화 사업의 체계를 법령화하였고 2000년부터는 농산물 구매기준의 다양화, 농산물·유통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 등 농산물의 유통환경이 급변화함에 따라 농산물규격을 새로운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여건에 부응하는 규격으로 128개 품목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현행 128개 품목중 매년 40개 품목씩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준을 조사·반영하여 현실유통에 접근한 규격으로 지속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 최소화와 농산물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거래 정착과 쓰레기 발생억제 등을 위해 1984년도부터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체가 2002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되면서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이 일원화되었다. 2003년도에는 143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비, 공동선별비 등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의 30%수준인 546억원의 국고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선별비와 포장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규격출하율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행정사무관 김문갑)

4. 축산물시장 차별화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안전성과 고품질 위주로 변화되고 있어 유통환경에 부응하고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육주체, 위생 및 안전성, 품질이 보증되는 고부가가치 우수브랜드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내 축산물 브랜드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3년 4월 현재 700개로 늘어난 반면 브랜드 인지도는 낮고 소규모로 생산되어 공급량이 부족하며 품질 균일성이 낮아 백화점 등에 납품이 어려워 규모화된 광역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3년에는 규모화된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중심의 브랜드 규모화를 유도하고 브랜드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수브랜드 세부지침(Guideline)을 작성 보급하는 등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한 우리축산물브랜드전을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로 명칭을 변경 개최(10~11월)하여 우수 브랜드 업체의 특별시상 및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출하자, 도축일, 사양관리, 휴약기간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광역브랜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젓소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하여 식육의 종류·물량·원산지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도입('02.1)하고,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003년 6월 27일부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을 시·도, 농관원, 검역원과 합동으로 매 분기 및 설·추석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소속 직원을 축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1천명)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과학적·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전자(DNA)감별법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행정사무관 이우근)

제 5 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1. 수출여건과 전망

금년도 농산물 수출여건은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 및 각국의 검역조치강화 등에 따라 수출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WTO에 가입한 중국·대만이 세계농산물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합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중국의 비합리적인 수입장벽이 제거되고 대만으로의 과실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에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농업선진국에 비해 생산가격이 높고 품질경쟁력도 낮은 실정이다. 또한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미흡한데다 수출선의 유지·확보에도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12<표 3-2> 2003년도 농·축·임산물 수출전망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전망)	전년대비 증 감 륜
국가전체	143,685	172,268	150,439	162,471	175,000	7.7
농림축산물	1,680	1,532	1,580	1,640	1,760	7.3
농 산 물	1,003	1,133	1,252	1,375	1,475	7.3
축 산 물	408	144	118	98	105	7.1
임 산 물	269	255	210	167	180	7.8

주 : 수출전망추계 : 국가전체(산업자원부), 농축산물(농림부), 임산물(산림청)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그러나 WTO 체제 출범 이후 국내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힘입어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되었으며 농업인도 수출농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2. 농·축산물 수출진흥 대책

수입국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시장별 수출여건에 맞는 시장개척을 강화하며, 수출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 유망품목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할 계획이다.

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

채소, 과일, 화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품질 농산물 전문생산단지(2003.10현재 107개소)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전문생산단지의 지정과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단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실단지는 정비하고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문생산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농약잔류검사 및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확산시켜 농산물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물 수출에 장애가 되는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축산물 위생수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산에서부터 해외수출에 이르는 농산물수출 전과정에 국제마케팅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가브랜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나. 국가별·시장별 여건에 맞는 시장개척 추진

국가별로 소비자의 기호와 상거래가 상이하므로 해당국가의 여건에 부합하는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에 편중된(약 40%) 농산물 시장을 중화권,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우선 100억불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지리적으로 제일 인접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신선농산물의 고품질·안전성을 집중부각 시킬 계획이다. 동경박람회 등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산물박람회 참가지원시에 안전성 홍보관을 운영하고 멀티비전, 전문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며 대형유통업체에서 개최되는 판촉행사시에는 시식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시장은 우리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고객의 대부분이 일정소득이상을 확보한 중상류층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대도시에 있는 다국적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전을 확대(6회)하고 위성방송을 활용하여 중국 남부권역에 광고 및 상해식품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 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거점도시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중국 수출유망품목발굴 및 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WTO가입이후 과실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대만시장에 대해서는 사과·배와 함께 김치·인삼 등에 대한 판촉행사를 확대하고 시내버스·지하철·공항광고 등 대중매체광고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농산물 수요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홍콩·싱가폴·필리핀 등 기타 동남아 시장도 국가별 주요전략품목의 현지 수요확대를 위해 현지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등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2한·일 월드컵」이후 전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김치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본중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중화권을 중심으로 김치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동경, 뉴욕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설치·운영중인 7개의 해외농업무역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소수출업체 해외마케팅활동 지원강화, 현지적응상품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이벤트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수출안내 등의 수출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출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규모화를 유도
하면서,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수출업체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자금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자금지원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전문수출업체를 우대하고, 품목별로 운영되는 원료구매자금을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UR협상결과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여 지원되고 있는 농축산물판매촉진비(수출물류비)는 지원대상을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품목과 수출업체로 한정하여 유망품목과 전문수출업체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하에 수출유망품목 중심의 현장밀착형 컨설팅 실시를 강화하며, 기술지원단을 보강하여 재배기술, 병충해, 수확후 관리기술, 선별 및 상품화, 포장기법, 예냉 및 선도유지, 검역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애로요인의 적기·신속한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수출애로상담 전용전화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보험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가격상승위험보험의 가입대상품목 확대, 부보율 인상 및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강신복)

3.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76개 세번별 주요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16개 세번별 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 함으로서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13<표 3-2->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1994말까지	1,201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2.7%
1995. 1. 1	172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6
1996. 1. 1	3	포도, 사과주스(2)	94.8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7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4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8.9
2003. 1. 1	-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계	1,452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표고버섯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고추장 : 기본세율 8% → 조정관세 45%). 또한 관세화 품목, 즉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녹두, 메밀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땅콩, 메밀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2003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177개), 국내산(145개) 및 가공품(121)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0년까지 972억원을 투자 1~3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마무리하고, 2001~2004년까지 4개년 간 755억원을 투자하는 4단계 동식물검역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앞으로 4단계 선진화대책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기능강화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여 검역기술의 선진화를 꾀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협상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제 6 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1. 쌀 수급균형 조기 달성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최근 우리나라의 쌀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 국내외 가격차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품종개발과 생산기반 정비의 결과 1980년대 이후에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특히 1996년 이후에는 6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다. 이러한 생산의 증가 외에도 UR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최소시장접근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Minimum Market Access)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난 1995년 457만 석이던 재고는 2001년 927만석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1,040만석, 2003년 말에는 1,190만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대북지원과 주정용 공급을 추진한 결과 2003년말 재고는 842만석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태풍 등의 피해로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2004년도말 재고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평년수준만 생산되어도 매년 200만석 이상의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조정 등을 통한 적정재배면적 유지, 소비촉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주정용 공급 등 재고 특별처리도 추진하여 2005년까지는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재고를 적정수준까지 감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과 내년에 있을 쌀재협상으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고,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보완·확충 등을 통해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DDA 협상에서 큰 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 확보도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현행 수매제를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매입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등 민간유통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 소비자가 우리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나.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WTO/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쌀의 품질 고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정부는 그동안의 증산위주의 정책을 품질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 확대, 질소질 비료 사용감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생산·유통 전반에 걸쳐 고품질쌀 생산·유통체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고품질 보급종 종자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재배과정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감축은 물론 재배관리도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PC 중심의 고품질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산물벼 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중 유통되는 포장양곡에 산지·품종·도정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시중유통 쌀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 및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 쌀소비 촉진 전개

최근들어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먹기 편한 인스턴트 식품소비가 늘어나면서 쌀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정부는 도시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다. 쌀 소비기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학교급식용, 군·관수용은 신곡으로 공급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판매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고, 쌀 가공제품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가공용 수요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밥중심의 식문화를 유지하고, 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촉진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대이하 젊은층에게 밥중심의 전통식단의 우수성을 친밀감 있게

홍보하여 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Love 米”라는 로고를 개발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동 로고는 2002년 9월부터 각종 쌀소비촉진이벤트행사 및 TV-CF, 신문지면광고 등 각종홍보매체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쌀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심화를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쌀소비 촉진 TV공익광고, 심포지움, 연구발표 등 여론주도층을 통한 쌀소비촉진 행사,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라. 민간유통기능 강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미질을 향상시켜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2년말까지 총 7,836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524개소를 설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용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시설·운영자금)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03.11월)하였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04년 2~4월)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입품종을 일괄 예시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RPC를 민간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인중)

2. 쌀생산조정제 실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수급안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채협상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였다.

생산조정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 및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내용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WTO농업협정문상 허용보조 형태로 운영된다.

14<표 3-2-> 쌀생산조정제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량(ha)		26,730	26,730	26,730
사업비 (국고보조)	계	81,000	81,000	81,000
	보조금	80,190	80,190	80,190
	관리비	810	810	810

자료 : 농림부 농산경영과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사업대상 농지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 농지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논에 콩·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지 가능)이며, 사업신청 자격은 2002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 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신청자와 시장·군수·구청장간에 생산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이행시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03년도의 사업량은 26,730ha(810억)로 추진되고 있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양주필)

3.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채소·과실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는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배의향, 생산전망, 예상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관측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관측품목의 확대와 더불어, 채소와 과일 등 품목별로 관측정보 발표시기를 세분화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1995년부터 노지채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계약재배사업은 2003년까지 정부와 농협이 공동조성한 5,550억원의 자금을 활용, 채소 생산량의 12%수준인 610천톤을 계약재배하여 지역농협이 체계적으로 출하하도록 조절함으로써 가격등락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재배사업을 선도하는 핵심농협을 지난해 15개소에서 2003년에는 25개소로 확대하여 인센티브 자금 지원과 아울러 차별화된 마케팅 모델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2003년 상반기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은 중국산 마늘 S/G 종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마늘은 소폭 인상하였으나, 무·배추 등 여타 품목은 시장 개방 확대와 DDA협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가격으로 동결하였다.

또한, 생산량 증가 추세에 있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시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설채소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와 농협이 조성한 1,972억 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량의 20%수준인 240천톤을 출하약정함으로써 주요 시설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실류는 계약출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대상품목에 사과·배·단감 외에 감귤을 추가하고, 계약물량도 대폭 확대(77천톤 → 120천톤)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와 농협간 계약을 통해 일정수준 범위내에서 판매가격을 보장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저품위 과실은 가공원료 공급 등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배포도 등 주산지화가 잘된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생산자조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조금 제도를 확충하여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이원희,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이영식)

4. 양돈·양계의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 추진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강화를 수급안정위원회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생산감축 및 소비홍보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돈 의무자조금을 조기에 도입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없이 민간 스스로 소비홍보 및 사육두수 조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비 지원 및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계는 일정규모이상의 전업규모 종계 및 부화업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계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닭고기에 대한 등급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본사업 실시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조병임, 축산물위생과 축산사무관 조정래)

부록 : 원유수급 안정화 대책 추진

1. 국내 낙농산업현황

가. 원유생산 현황

국내 원유생산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3개년(1999~2001년)간 연평균 자연증가율이 4.2%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2002년도에는 연간 2,537천톤이 생산되어 2001년도 생산량 2,339천톤에 비해 198천톤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약 8.5%가 증가하여 최근 3개년간 평균 자연증가율을 2배 이상 초과함으로써 원유수급 불균형 현상은 2003년도까지 지속되었다.

15<표 3-2> 최근 5개년 연간 원유생산량

(단위:천톤)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증(△)감율	
						과거3개년	2001/2002
생산량	2,027	2,244	2,253	2,339	2,537	4.2%	8.8%

원유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1998년까지 농가에게 지원된 경쟁력제고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낙농가의 규모화와 전업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사육두수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비중이 1990년 2.0%, 1995년 5.6%에서 2002년도에는 38.4%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낙농업은 생산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전업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산유량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젖소개량 검정두수의 증가와 양질의 수입조사료 급여 확대 및 최근 수년간 동절기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젖소 두당 산유량은 2000년 6,872kg에서 2002년도에는 7,071kg으로 약 2.9%가 증가되었다. 특히, 산유량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친 조사료 수입실적은 2000년 599천톤에서 2002년 650천톤으로 8.5%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16<표 3-2-> 최근 5개년 조사료 수입실적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P)
수입실적 (천톤)	172	342	599	597	650

또한, 지난 1997년 IMF 당시 환율급등으로 인한 수입사료가격 인상 등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인해 원유기준가격은 18.4%가 인상되어 ℓ당 502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경제회복과 환란극복 등으로 인해 금리 및 환율이 안정되면서 사료비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01년도 축산물생산비조사에 의하면 원유 kg당 생산비는 423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445원으로 조사되었다. 생산비 조사결과는 원유의 기준가격 조정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의 집단반발 등으로 인해 원유기준가격의 고정화가 지속되면서, 2002년도 농가 평균 수취단가는 620원/kg 이었음을 감안하면 순수익률은 28% 수준으로 양돈, 양계 등 타 축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고정화된 수취가격으로 높은 원유 가격이 보장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보다는 생산량 증가 위주의 낙농경영 의식이 원유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된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17<표 3-2-> 축종별 소득율 및 수익률 비교(2001년)

구 분	젖 소	한 우		돼 지		닭	
		번식우	비육우	번식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소득율 (%)	44.7	44.07	37.33	14.62	12.72	12.94	24.91
순수익률 (%)	25.5	1.35	22.56	4.74	6.82	8.16	20.03

나. 원유품질 현황

원유의 위생등급제도는 지난 1993년 6월 세균수는 5개 등급, 체세포수는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차등가격을 도입한 이후 꾸준한 위생수준의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향상을 이끌어 내었다. 세균수의 경우 1993년 위생등급제 시행 당시 1등급 비율이 44.7%에서 2003년 현재 약 95% 수준으로 약 50%이상 크게 개선된 반면, 체세포수 20만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3.3%에서 2002년 25.6% 수준으로 약 2.3% 정도의 개선효과만 보이고 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유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낙농가들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목장환경 및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원유품질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다. 원유 유통현황

원유수급상황이 가장 불안정했던 2002년도에 국내에서 소비된 우유 및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면 319만톤으로, 이중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량은 254만톤이며 나머지 65만톤은 수입 유제품에 의해 충당되었다. 지난해 원유수급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유소비량은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52% 수준이었고, 치즈, 버터, 발효유, 분유 등 유제품 소비량은 48% 수준을 차지하였다. 특히, 유제품 소비량의 국산제품 비율은 58% 수준으로 42%가 수입유제품에 의해 국내 소비에 충당되었다.

18<표 3-2> 2002년도 원유환산량 기준 유제품 유통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총 계	국 내 산					수 입 유제품
		합 계	시유생산	유제품 생산			
				소 계	정상수요	순수잉여	
원 유 량	3,183	2,537	1,663	874	374	500	646
구성비율	100%	80%	52%	28%	12%	16%	20%

국내산 유제품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kg당 원유생산비는 주요 유제품 수출국가인 호주의 원유생산비 213원/kg에서 혼합분유 관세율('02년 38.3%)과 제비용을 감안할 때 약 320원/kg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2년도의 국내 원유생산비는 445원/kg이고, kg당 평균 원유단가는 620원에 달하고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있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48% 가량 절감해야 한다. 그러나 사료 자급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낙농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19<표 3-2> 2001년 주요 국가 원유생산비 및 원유가격

구 분	한 국	호 주	뉴질랜드	미 국
원유 생산비 (원/kg)	446	213		
평균 원유가격 (원/kg)	610	292	258	365

치즈, 버터, 분유 등 주요 수입유제품 품목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소비자의 고급유제품 구매심리와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및 저가의 원재료 구매를 통한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식품업체 및 유가공업체의 기대심리로 인해 유제품 수입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선진국에 비해 사료, 기자재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낙농산업의 여건상 ‘가격에 의한 국제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시유(마시는 우유)는 제품특성상 신선도 유지와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수입유제품에 비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나머지 장기보존이 가능하고 수입이 가능한 대부분 유제품은 국내 생산원가가 높아 수입유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시유 제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2002년 7월부터 시유 유통기한이 5일 이내에서 유가공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9일 이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살균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지난해 연말부터 유통기한이 14일인 ELS우유가 국내에서도 시판되기 시작하였고, 멸균 처리된 멸균유는 최장 6주까지 보존이 가능하므로 시유 역시 수입유제품의 안전지대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254만톤의 원유에 대한 소비형태를 분석하면, 66% 수준인 166만톤이 시유로 생산되었으며, 잉여원유 87만톤중 37만톤은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발효유, 자연치즈 등 국내산 유제품 원료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잉여원유 50만톤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분유로 가공되어 보관되었다. 2002년도 낙농진흥회는 연간 154만톤의 원유를 집유하여 유가공업체에 123만톤을 공급함에 따라 약 31만톤의 순수잉여가 발생하였고, 잉여물량 처리를 위해 1,387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유가공업체 역시 결손을 감수하면서 자체적으로 19만톤의 잉여원유를 처리하였다.

20<표 3-2-> 전국 원유 생산·소비 및 시유소비량

(단위 : 천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P)
생 산 량(A)	2,027	2,244	2,253	2,339	2,537	2,371
시 유 소 비 량(B)	1,401	1,292	1,672	1,729	1,663	1,690
총 소 비 량(C)	2,298	2,752	2,811	3,045	3,044	3,090
잉 여 량(D=A-B)	626	952	581	610	874	681
시 유 소 비 율(B/C)	61.0%	46.9%	59.5%	56.8%	54.6%	54.7%

라. 우유 및 유제품 소비현황

(1)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국민 1인당 시유소비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유소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소비량이 정체 또는 둔화되는 현상은 여러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4년 41.6kg을 정점으로 시유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은 지난 1997년까지 매년 약 2~3%의 꾸준한 증가율을 유지해 왔다. IMF 등 경제불안정을 겪으면서 1997년 37.1kg을 기점으로 2001년까지 우유소비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2002년도에는 34.9kg으로 크게 감소되어 전년대비 3.8%가 감소하였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21<표 3-2-> 연도별 국민 1인당 시유소비량

	1990	1994	1997	2000	2001	2002.P
한 국	31.1kg	34.7	37.1	35.6	36.5	34.9
일 본	40.8kg	41.6	40.2	39.0	38.1	

(2) 우유소비 감소 원인

지난해 우유소비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연초부터 시작된 채식열풍
- 매년 매출액이 20~30%씩 성장하는 두유·쥬스 등 대체음료 소비 확대
- 매년 감소되는 출산율 저하현상으로 우유소비 연령층 감소
-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한 레저시간 확대
- 낮은 수익으로 인한 유통업체의 우유판매 기피

22<표 3-2-> 최근 5개년 우유 대체음료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증(△)감율 (%)	
						과거3개년	2001/2002
탄산음료	8,581	10,794	10,310	11,765	12,000	11.1	2.0
두 유 류	904	921	881	1,231	1,600	10.8	30.0

(3) 유제품 소비행태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시유위주에서 수입원료 대체가 가능한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으로 꾸준히 전환되어 가지만 높은 국내산 원유가격과 수입원가간의 높은 격차로 인해 유가공업체에서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치즈 등의 유제품 생산을 기피하고 있었다. 낙농진흥회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치즈, 버터, 연유 등의 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유에 대해서는 수입유제품과 가격경쟁력이 가능한 수준까지 원유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원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23<표 3-2->

최근 5개년 유제품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증(△)감율	
						과거3개년	2001/2002
치즈	24,904	34,048	44,189	52,808	51,277	28.5	△2.9
버터	3,795	2,194	4,760	5,973	6,517	16.3	9.1
발효유	493,365	552,926	526,109	533,985	535,975	2.7	0.4
연유	3,429	3,331	4,067	4,135	3,922	6.4	△5.2

(4) 유제품 소비확대 노력

지난해 시유소비 감소현상이 소비정점에 의한 소비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낙농관련단체 및 유가공업체들과 협조하여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3년도부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 개발로 인해 2003년 6월까지의 시유소비량은 전년대비 0.7%가 증가되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유소비량 중 백색시유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반면 가공시유는 2002년 시유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4<표 3-2->

2002년도 우유소비홍보 지원내역

우유 소비홍보 지원내역	지 원 금 액
낙농관련단체를 통한 소비홍보	84억원
불우아동에 대한 학교우유급식	127억원
사랑의 우유 보내기	6억원
사회복지시설 분유 무상공급	29억원
합 계	246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특히 2003년 6월까지의 소비량은 전년 동기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홍보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도입

2002년 원유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재료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생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수요를 초과하여 생산되는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도가 일부 유가공업체에 도입이 시작되었다. 낙농진흥회에서도 비유축진제 사용억제, 저능력우 자율도태 등 농가의 자율적인 생산감축을 유도하였으나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자 2002년 11월부터 농가별로 기준원유량을 설정하고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를 시행하였다. 집유일원화에 미참여한 유가공업체에서도 농가별로 평균 9%내외의 감산목표를 설정하거나 잉여물량에 대한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등 각 업체실정에 맞는 수급조절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수급상황과는 무관하게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 전량 정상가격을 보장받던 과거와 달리 유업체의 정상수요를 초과하여 생산된 원유에 대해서는 원유가격을 최소 200원부터 최대 정상가격의 70%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 도입으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초과원유는 생산비에 미달하는 원유가격을 지급함으로써 생산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높은 원유가격으로 인해 시유이외 유제품생산을 기피하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유제품생산을 중단하려는 유가공업체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원유의 사용기반을 확대하여 유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낙농진흥회에 참여한 절반수준 농가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감산정책에 협조하여 자율적인 감산을 통해 수급안정에 기여한 반면, 나머지 절반의 농가는 생산량을 늘려 수급상황을 계속 악화시켰다. 수급안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율감산에 동참한 감산농가로부터 증산농가의 유량증가로 인해 감산효과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수급상황도 호전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표출됨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증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 지급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였다.

2. 우유수급 안정대책

가. 개요

국내 낙농산업은 높은 생산비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수년을 주기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낙농가 및 유가공업체가 반복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낙농산업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제2의 식량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1차산업 품목 중의 하나이다. 수년마다 반복되는 수급불안정은 낙농산업 종사자간에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고 발전대책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나. 원유생산감축대책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한 낙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원유생산감축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03년 3월부터 낙농조합 조합장 및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를 10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생산감축은 농가들에게 민감한 사안임에 따라 매번 수차례에 걸쳐 정회가 되면서 심야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회의가 계속되었다. 논의과정에서 감축대상 유량 및 폐업·감축지원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농가대표와의 계속된 협의 끝에 감축대상 유량은 15만톤(410톤/일)으로 하고, 폐업지원금으로 ㄹ 당 1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과 감축목표 달성농가에 대해서는 감축지원금(ㄹ 당 96원/일)을 지급키로 의견접근을 보고 생산감축 내용을 5월 12일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한 농가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납유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생산감축대책 시행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가설명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당초 6월 16일에서 7월 16일로 1개월간 연기하였다.

이 기간동안 새로이 구성된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대표들은 생산감축대책에 대한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4차례에 걸쳐 심야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2일 새벽 2시 정부와 농가대표간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추가한 생산감축대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7월 1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1) 폐업·감축목표 유량

낙농진흥회 금년도 예상잉여량 1일 810톤(연간 30만톤)중 절반수준인 일 410톤(연간 15만톤 목표)을 감축하기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농가별 일평균 생산량에서 18.4%의 감산율을 적용한 농가별 감축목표량을 부여하였다. 감축목표량은 우선 폐업신청을 받고 신청물량이 감축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감축목표물량에 대해 잔류농가를 대상으로 감축목표량 부여키로 했다. 1,2차에 걸친 폐업신청 접수결과 509농가(196톤/일)가 신청함에 따라 잔류농가의 감산율은 당초 18.4%에서 10.3%로 조정되었으나 2002년도 일반유업체 납유농가의 평균감산율과 동일한 수준인 9%로 감산율을 하향 조정하여 농가의 감축에 따른 경영부담을 최소화하였다.

(2) 폐업·감축지원금 지급방법

(가) 폐업신청농가

1,2차 폐업신청기간 동안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각각 2003년 6월 16일과 2003년 7월 16일부터 집유를 중단하고 ㄹ당 10만원의 감축지원금을 시·군을 통해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보완대책으로 1차 폐업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1,3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낙농조합 등을 통해 이자차액 수익을 폐업농가에게 지원키로 하여 ㄹ당 약 3만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나) 감축대상농가

감축농가는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감축후생산목표량' 이하로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ㄹ당 96원/일의 감축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감축

후생산목표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농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량에 대해서는 원유대를 가공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키로 하여 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유수급을 안정시키고 있다.

(3) 생산감축 추가 보완대책

그간 농가와 관련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와 '일방적 집행'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보와 타협'이라는 낙농산업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농가대표간의 합의도출 과정에서 생산감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낙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가) 농가별 감축율을 당초 18.4%에서 2002년도 일반유업체 납유농가 평균 감산율인 9%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나) 1일 원유생산량이 200ℓ 이하인 영세낙농가는 생산감축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축목표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하였다.

(다) 불가피한 사유로 감산의 충격이 큰 농가를 선별적으로 기준원유량을 조정하는 구제책을 마련하여 감축부담을 완화하였다.

- 시설투자로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
- 기준원유량 산정기간 중에 신규로 납유를 개시한 신규농가
- 가축질병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해 기준원유량 산정기간 중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기준원유량의 조정이 필요한 농가

(라)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대금 및 기준원유량 인수에 필요한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자금 지원에 있어 농가당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별도로 허용하여 신용대출한도가 초과한 농가도 대출이 가능토록 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다. 우유 수요확대

(1) 단체급식 확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우유 수요의 확대가 절실함에 따라 학교급식과 군급식 등 단체급식 우유에 대한 공급확대를 추진하였다. 군급식 우유는 국방부와 25%를 확대키로 하여 현재 200ml 우유를 4일 단위로 1개씩 추가 공급하고 있다.

(2) 사랑의 분유 보내기 운동 추진

지난 2003년 1월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북한어린이를 돕는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400톤), 굿네이버스(1,000톤), 희망의손 운동본부(100톤) 등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분유무상지원을 실시하여 2003년 9월까지 총 1,500톤의 분유를 지원하였다.

(3) 유제품 개발 지원

유제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능성 우유 등 고부가가치 유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체질에 따라 차별화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당·유지방 함량을 다양화하여 다이어트 우유와 같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의 개발·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4) 소규모 농가형 유가공 육성·지원

일본, 스위스와 같이 낙농가가 치즈·발효유 등 지역별로 특화된 유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농가유가공사업을 지원하여 낙농가가 직접 우유소비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가공시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은 지역특화 사업, 농업종합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관심있는 농가간에 자발적인 연구회를 조직하여 선진국 시찰 및 기술습득과 제조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5) 우유소비촉진 홍보 확대

(가) 우유의 주 소비계층인 어린이때부터 우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교육하기 위해 우유음용 효과 등의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와 협의중에 있다.

(나) 생산자단체의 자조금과 지원금을 재원으로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CF 등을 제작하여 TV(1일 1회), 라디오(1일 2회) 등 공중파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방송중에 있다.

(다) 2001년 연초 SBS에서 '잘 먹고 잘 사는법'을 방영하여 채식열풍을 조장한 이후 우유소비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우유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획프로그램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도록 방송사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다.

(라) 소비자단체 및 여성낙농인을 중심으로 우유요리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보급하는 우유사랑 대축제 등을 추진중에 있다.

(6) 우유소비촉진 전담 협의체 구성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낙농진흥회, 낙농가 단체, 유가공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우유소비촉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유소비 정체원인을 분석하고, 잠재되어 있는 수요계층 개발을 위해 연령별 또는 소비계층별로 적합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축산경영과 서기관 박병홍)

제 7 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가. 논농업직불제 제도 개선

논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으로 하여 4,05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추경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을 2ha에서 3ha까지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ha당 400~500천원에서 32천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757억원을 반영하였다.

지난해 논농업직불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논에 밭작물 재배가능품목을 과수·관상수의 묘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가 사료·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친환경영농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고품질 쌀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토양검사는 엽분석을 포함하여 61,500점으로, 잔류농약검사는 2,250점에서 4,500점으로 확대하여 친환경영농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다.

2003년부터 마을공동으로 논농업직불제 지급요건을 공동으로 실천할 것을 협약하는 내용으로 시행되는 마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기준을 신설하였다.

올해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논부문을 논직불제에 통합지원하기 위해 논부문 친환경직불제예산을 논직불제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으며, 재배작목 또는 경작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논 의 형상 및 기능유지·친환경영농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11~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논농업직불제의 정책목적을 재정립해 나가고 영농규모화 촉진과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서기관 김원일)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1) 도입배경

최근 연속되는 풍작과 MMA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국민의 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그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공급과잉과 정부수매물량의 감소, 정부역할의 축소, WTO/DDA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쌀값은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안정도 모호하기 위하여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추진경위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에서는 2002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쌀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특위에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지금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급균형을 도모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값하락 및 쌀농가소득의 감소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마련토록 하였다. 연구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특위의 쌀소위,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10월 22일 명목조수입 하락액의 80%를 보전하기로 하는 등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산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일단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200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9월 30일 마련하였다. 시행지침은 동 제도가 수확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농업인들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산에 대한 약정체결이 10월 15일부터 이루어졌다. 쌀소득보전직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불제 예산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500억원이 반영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은 농업인의 가입정도, 쌀가격 하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등 사전에 소요를 예측하기 불가능함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기금에는 정부출연금 및 농업인 납부금이 적립되게 된다.

(3) 사업시행

2003년도 쌀소득보전기금에 2002년산 쌀소득보전금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확기('02.10.1~'03.1.31) 쌀값 안정으로 2002년 약정체결결과 171천농가(161천ha)가 참여하였으나 기준가격(150,519원/80kg) 보다 수확기 쌀 가격이 높아(154,092원/80kg)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의 첫해이고, 시행시기가 늦어져 수급여건에 따른 산지 수확기 쌀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10월이후에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추가부담금(700원/ha)만 납부하고 재약정체결도 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안정추세에 있고, 수급균형 예상 등, 쌀값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으로 농업인들의 약정체결실적은 전년도 가입실적(161천ha) 수준인 168천농가(160천ha)에 그쳤다.

앞으로 전업농중심의 소득안정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연속가입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영환)

다.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추진

정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 5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소,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을 희망하는 일정규모의 1천여 농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시·군, 축협 등 관계기관과 참여농가의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준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가당 직접지불금 1천만원과 인센티브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이행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안을 마련중에 있다.

소의 경우 초지, 조사료포 확보 등을 통한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돼지·닭은 축산분뇨발생 억제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및 분뇨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참여농가 모두에게 분뇨처리경로 확인, 출하 전 항생제 사용금지, 친환경 프로그램 이행기록, 소독시설설치 및 소독 실시, 환경교육 이수 등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왕근)

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 준비

2003년도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대상지 구역도를 작성하였고, 강원, 전북, 경북 3개 도의 각각 1개 면의 2개 마을씩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 시행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상 연습을 실시하는 등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2003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지역균형개발시책과의 연계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조건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농어촌연구원), 농촌개발사업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농정연구센터), 강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삼척대학교) 등 3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조건불리지역 정책 방향 설정 및 직불제 시행방안 보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5월에는 금년부터 지방비(도비)를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와 해당 시·군, 읍·면의 담당자들과 3개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교수,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건불리지역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직불제 도입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도입방안에 반영하였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윤원습)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 강화

가. 농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에 의한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부채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와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장차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30~40대 농가의 호당부채가 평균부채의 2배수준으로 부채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개방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도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채경감방안 논의

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농림부차관·서울대 노재선 교

수 : 공동위원장)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위원장 : 농정국장)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 농가부채대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28일 위원회는 상호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참석자 전원서명으로 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7.2)하기에 이르렀다.

〈정책건의서 주요내용〉

- ①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되 농가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5년거치 15년 상환에 금리 1.5%를 적용하되 농업인이 4년거치 11년상환, 금리 1.0%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금리 0.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기성자금은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성자금은 상환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 ②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여 부채문제의 수시해결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운영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며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에서 3년거치 7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대상 농가 확대를 위해 전업농 중심에서 일반농가까지 대상으로 할 것을 건의.
- ③ 연대보증피해자금은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장기화하되 금리는 현행 3%를 유지할 것을 건의.
- ④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논의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현행유지와 금리인하 등 지원조건 개선방안을 복수안으로 제출.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대부분 상호금융자금을 저리대체해 준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상환이 집중도래되고 지원규모가 큰 점을 감안,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에서 3년거치 7년으로 5년간 연장(5.27, 공포)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타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과 동 자금의 수혜자가 경영상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고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 현행유지안(6.5%)과 금리를 3%로 인하해야 한다는 안이 함께 제출.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자금의 성격상 시장원리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상호금융금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과 농업수익율에 비해 이자부담이 커 상환에 어려움이 있고 단기간내 경영여건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인하 및 이차보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이 대립하여 현행유지안(6.5%)과 금리인하(3%) 및 이차보전기간 연장(5년)을 함께 건의.

- ⑤ 아울러, 농가의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부채대책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가능 농가와 지원불가능 농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보유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는자,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서 허위 기재자 등은 제외할 것을 건의.

(3) 향후 계획

정부는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금년 국회에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내년도 시행을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25 <표 3-2-〉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위원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정 부 : 4명> 농 림 부 “ 재 정 경 제 부 기 획 예 산 처	차 관 농업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산업재정심의관	김정호 정학수 박병원 신철식	공동위원장
<농업인단체 : 5명>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축산단체협의회	회 장 회 장 회 장 회 장 회 장	서정의 정현찬 김인호 최준구 김건태	
<농 협 : 3명> 농 협 중 앙 회 평 창 축 협 울 산 농 소 농 협	상 무 조합장 조합장	김용구 이석래 박기수	
<학 계 : 4명> 서 울 대 학 교 서 강 대 학 교 농 촌 경 제 연 구 원 K D I	교 수 교 수 연구위원 연구위원	노재선 사공용 박성재 설광연	공동위원장
<시민단체·언론인 : 2명>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 민 의 모 입 한 국 경 제 신 문	대 표 논설위원	김재옥 신영섭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나. 상시경영회생 지원제도 도입 추진

(1) 추진배경

농업경영이 종래 소규모 영농에서 고가의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농업은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영상 위험요인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이와 반해,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농업특성에 맞는 지원장치가 거의 없어 곧바로 농가부채문제로 귀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즉, 농업경영체들은 가격폭락이나 가축질병 등으로 경영위험에 빠지면 자금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그대로 파산할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한 경영체가 재해, 가격폭락, 가축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경우 농업경영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에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나, 지원규모·운영방법 등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운영방법

경영회생제도의 지원대상은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농업경영체 중에서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회생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군 지부)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경영체의 신청에 의하여 협동조합에서 1차 사전심사 후, 신청금액에 따라 지역본부(1억원 초과), 시·군지부(1억원까지)에서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는데, 평가방법은 농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토대로 농민단체, 금융전문가, 공무원 등 10~15명 이내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경영능력, 영농의욕, 성실성, 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한 농업경영체에게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 농업경영체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리하고, 시설 등은 타 농업인에게 인수토록 자금을 지원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우선, 2003년도에 500억원을 연리 4%,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전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상환도래할 원리금 및 시설 또는 품목 피해복구자금, 1년 이내 신규운영자금을 지원하되, 경제사업채무·비농업용·농협·산림조합 이외 금융기관·사채·일반사료 등 외상대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아울러,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농업경영체에게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체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향후 계획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의 정책건의안대로 동 사업의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부채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최재혁)

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1) 사업실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선

2003년도에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과, 배의 사업지역을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02년도에 도입한 복숭아·포도·단감·감귤은 2년차 시범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운영비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 2003년 지원계획 : 순보험료 50%, 운영비 80%, 예산액 13,043백만원

또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예시하면, 태풍의 풍속기준을 최대풍속 14m/sec·최대순간 풍속 20m/sec에서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 수준으로 완화하고, 보험료 할증·할인제 도입, 대상재해범위에 사과·배에 한하여 호우 피해 포함, 단감낙엽 피해와 수목손상 부분을 보상대상에 추가, 손해사정법인을 손해평가에 시범활용하여 손해평가의 신뢰성 제고, 보험사고전 임의해지를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가입시기도 농가가 편리하게 조정(3월초, 약 1개월 앞당김)하는 등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운영중에 있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2) 정부재보험제도 도입 및 연구용역 추진

2002년도의 경우 거대재해(태풍 루사)로 인해 민간보험사업자가 큰 손실(268억원 적자)을 입고, 2003년에는 재보험에 불참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대재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국가에서 보장하여 주는 정부재보험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재해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성립여건 분석, 보험관련 기초통계 축적방안,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단계별 확대 방안」에 대한 용역('03.4~'04.1)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득섭)

라.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인식미흡으로 양돈을 제외하고는 가입율이 낮은 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고 지원예산도 2002년 대비 46.5% 증가한 10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공제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소의 경우 송아지 가입월령을 중

26<표 3-2->

가축공제 가입율

(단위 : %)

구 분	'01년	'02년	'03년(P)
소	4.2	6.3	8
돼지	25.6	35.4	39.1
말	-	2.4	3
닭	-	8.4	2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전 3개월령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말의 경우 종빈마 외에 종모마를 추가하였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종현)

마.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농업재해지원은 농작물 및 농림시설물 등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과 생계지원을 위한 이재민구호 등 간접지원의 두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구지원단가 인상 등 재해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농업인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여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어 피해농가의 복구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 및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작물 대파대, 가축입식비, 농경지 및 농업시설 복구지원 기준단가 현실화와 농경지 및 농림시설의 보조율 상향조정 및 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지원 철폐 등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복구비중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4%에서 1.5%수준으로 인하하고 융자조건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토록 하며,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생계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도 피해면적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서기관 김후동)

제 8 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1. 농촌관광 활성화

주5일제 근무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종전의 유명명소 순례위주의 획일적인 대중관광에서 저가의 가족단위·체류형의 관광형태의 증가가 예상되며,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체증, 공해문제, 식품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민의 전원추구성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촌관광』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지역사회로서의 기능과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 농가소득증대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2002년도에 훌륭한 자연경관 또는 특산품이 있거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과의 연계가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공모하여 마을별 사업계획 발표와 현장실사를 거쳐 18개 마을을 선정·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26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2003년도에는 체험마을 대표자 교육 및 농촌관광 현장전문가 과정, 마을지도자 과정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관광 수요 창출과 관련, 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 운영 및 여름방학·휴가철과 연계한 농촌관광 지하철 홍보, 초등학교 교사초청 체험행사, 초등학생 농촌관광 체험기 공모전,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700개소, 전통테마마을 15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농촌관광의 모델마을로 육성하며, 기존의 관광농원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및 정보화마을과 관광마을의 연계방안, 농촌관광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내용의 농촌관광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농촌관광포털사이트』의 내용확충, 도·농교류 활성화방안과 농촌관광 활성화 저해요인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등의 종합적인 비전 제시로 늘어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금년도 마련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자본투자유치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촌관광을 개방화시대에 농촌활력증진과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서기관 김홍우)

2. 도시자본 농촌투자 유치촉진

가. 농촌의 현실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교육·문화 등의 복지기반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 농촌은 지난 20년간 인구(면지역)는 3.4% 감소하였고 노령화율(65세이상)도 14.7%에 달하는 등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심화되어 상업·교육 등 최소한의 자생기반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 3천명이하의 면(面)수가 1990년 152개 면에서 2000년 447개 면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UR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촌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업의 규모화,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농외소득원 창출의 한계 등으로 농촌사회가 계속 위축되고 농촌의 내부자본이나 정부지원만으로는 자생력을 회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농촌활력증진 방안 모색

한편,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 국민연금시대의 도래 등으로 레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이 보유한 생태환경,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한 체험·체류형 농촌관광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광수요 증대에 대한 농촌의 수용태세는 아직 미흡하여 다양한 농촌의 부존(賦存)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촌에 산재한 빈집, 폐교와 한계농지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전원주거시설이나 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에는 농촌의 자체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외부의 자본을 유입시켜 농촌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활력을 되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다.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추진

도시자본의 성공적인 농촌투자를 위해서는 도시자본과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농촌주민들과 융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이익을 농촌사회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2년 7월부터 농촌투자유치센터(www.riic.co.kr)를 설치하여 농촌투자 관련 정보제공·상담·알선, 농촌투자 설명회 개최, 홍보물(비디오, 팸플릿 등) 제작·배부를 통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민 등이 농촌지역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여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 소유에 한하여 양도소득세³⁾가 면제되는 것을 농촌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며, 이렇게 구입한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별장으로 간주하여 지방세⁴⁾를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과세 하도록 지방세법도 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농지법을 개정하여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농지(1,000㎡ 이하) 소유·임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한 바 있다. 그리고 민속주류 제조시설 설치기준을 종전의 1/2 수준으로 완화하였고 초지에 건립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개발정책과 서기관 이봉훈)

3.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2003년도에는 농산물가공공장의 신규건설은 최소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가능성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업체 중 회생 불가능한 부실업

3) 농촌주택 추가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003년 12월 9일 국회 통과.

4) 농촌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상시 거주치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2003년 12월 9일 국회 통과됨.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체는 조기 퇴출하고 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운영활성화(시설개보수, 현대화, 운영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7<표 3-2-> 농산물가공산업 추진계획(2003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가공공장 건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판매· 홍보	합계
	신규	시 설 개보수	포장 개선	소계			
읍자	개소수	3	17	2	22	234	256
	지원액	15	28	1	44	1,148	1,192
보조	개소수					-	-
	지원액					10	1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또한 자체 홍보능력이 부족한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의 홍보물 제작지원, 포장(용기)디자인개발, 직거래장터 행사 등을 통하여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강호)

제 9 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1.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추진

그동안 복지 등 농어촌 정책은 부처별 분산 추진과 농촌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족으로 도농간 복지여건 및 생활환경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도농간의 복지격차는 젊은층의 이농과 고령화 심화로 연결되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역불균형, 국민통합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DDA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정책을 농정의 영역안에 적극 수용하고, 농특세를 복지·지역개발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등에 집중 투입하여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따라 2002년에는 농특위를 통해 법제정이 공론화되고 대통령(3.14)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법제정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후 농특위에서 관계부처 협의('03.6.9, 7.18)를 통해 농어촌 특별지원 및 농어촌복지정책 총괄조정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부처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전문분야인 보건의료·복지를 농림부 주도의 특별법에서 제외하고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와와의 이견 사항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6.27, 농림·복지·해수·교육부)등을 통해 농림부는 종합적인 특별법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별도법을 제정하되, 총괄조정체계는 농림부의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쟁점사항은 계속 협의한다는 쪽으로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이후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03.8.14)를 통하여 부처별 이견에 대한 조정을 재차 시도하였다.

정부의 입법안은 입법공고('03.9.9~9.19)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03.10.31).

이와는 별도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한농연 회장 외 77,325인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청원 제출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법안 내용

- ◇ 부처별로 분산된 농어촌복지업무의 종합조정체계 구축
- ◇ 농촌형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호)

2. 농특세 연장에 따른 관련법 개정

농특세는 1994년 UR협상으로 인한 농·어업부문의 피해경감과 경쟁력강화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 재원이다. 10년간 15조원을 농어촌에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 6월말 종료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으로 향후 외국 농산물 수입관세 및 우리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 폭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농어민에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여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복지·교육 분야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종료될 농특세 기한을 연장하여 복지·교육, 지역개발 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지난 농특세 사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농특세 사업은 경쟁력강화 위주로 집행되어 복지·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이 없이 12개 부·청에서 분산투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요구를 예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타부처 농특세사업은 농특세회계에서 편성·집행하고, 농림·해수부와 농진·산림청 사업은 농특회계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 진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구조가 복잡하고, 농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과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간의 임의적 사업이동편성으로 농특세사업의 차별화가 미흡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되는 농특세는 농어업인의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농특세 전반에 관한 종합 조정 및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제도를 개편하는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 및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오영)

3.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의 성과로 농업생산성과 소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생활환경개선 부문도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3년에도 총 3,186억원(국고보조 36, 지방양여금 2,839, 국고융자 311)을 투융자하여 211개 면에 대한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52개 지구를 추진하여 17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신·개축 및 개량 등 1,284동의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마을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 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그간에 추진되어온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주로 관 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주택용지 조성 후 분양에 따른 입주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용지조성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중심마을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다. 다양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주택개량시 건축설계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2001년까지 47개의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였으며, 2003년에는 변화된 농촌주거생활을 반영하고 아름다운 농촌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촌경관주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농촌의 다원적기능으로서의 농촌경관 어메니티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농촌주택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주민이 주택건축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 박병태)

라.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동시에 농가 부녀자의 가사노동 절감을 위하여 농특회계 융자금 4,200백만원을 호당 4,200천원씩 1,000호에 지원하여 「부엌+목욕실」을 설치하였다. 1983년부터 농가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엌개량의 비율이 89.6%('00, 통계청)로 높아졌으나 고령·저소득농가 등 소외계층의 개량이 미흡하여 이대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1년부터 새로이 시작한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농촌수질 오염방지 등 농촌생태환경보전의 계기를 조성하는 원년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농가부담을 덜고 비닐하우스단지나 들판에 공용으로 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치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위생 면에서도 기여하였다. 화장실은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기 때문에 최종 잔류물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기순환장치와 미생물의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냄새가 없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민박농가 등을 우선 지원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120개소에 지원하여 체력단련실, 찜질방, 목욕실 등의 시설과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마을 여건에 맞게 설치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 159개소의 1,590명을 대상으로 활용 효과를 평가한 결과 93%가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을 30개 시군에 추진하여 총 2,934농가를 대상으로 수확운반차, 비료살포기 등 다양한 보조구를 보급하고, 2002년부터 새롭게 농산물선별작업장 개선 시스템을 오이, 버섯, 토마토 농가 각 20호에 보급한 결과 작업능률 향상, 작업자세 개선, 피로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 자체적으로도 농업인건강관리실 68개소, 마을공동쉼터 250개소, 선별작업장·평상 63개소를 설치하고, 농작업 보조기구 23천 점, 농작업피복장비 127천 점을 보급하였으며, 91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는 각종 농작업환경개선 시설과 보조도구, 피로회복체조를 보급하는 등 농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과 농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자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농작업보조구 보급, 농산물 선별 작업장 개선 등의 농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환경개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작업 재해관리 및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생활지도사 이금옥)

4. 농촌의 교육·의료·정보화 등 생활여건 개선

가. 농어촌 복지증진 종합대책 추진

그동안 농정은 가격지지 등 농업위주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WTO 규범하에서 가격지지 정책은 계속 축소되어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농외소득원도 취약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도·농간 복지여건 및 생활환경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젊은층의 이농이 증가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기반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DDA 이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농특세 총 투자액 약 130,660억원중 약 36%인 47,084억원을 복지 및 지역개발에 투자해 왔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여건개선을 위해 농어촌 도로·하수도·하천 정비와, 주택개량, 생활용수개발,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민복지증진을 위해 농어민연금 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보장, 대학생학자금융자, 도시유학생기숙사건립,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 농어민직업훈련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 「농촌복지증진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2002년 3월부터 관계 부처, 농어민단체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촌복지개선대책 회의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검토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주도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2002.3)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기초로 지난해 말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나. 복지지원 개선사항

정부는 농업인의 복지분야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확대 해 왔으며 2003년에는 아래와 같은 과제를 발굴하여 2004년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 ① 농어민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 ('02년) 월표준소득 220,000원 · 보험료의 1/3 지원 → ('03년) 월표준소득 220,000원 · 보험료의 1/2 (월 7,700원) → ('04년 7월) 월표준소득 370,000원 · 보험료의 1/2(월 14,800원)

②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03년) 납입보험료의 22% 경감 → ('04년~) 30% 경감
- * 이후 연차적으로 납입보험료의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

③ 2004년부터 농어촌 영유아 보육비 지원

- 1ha 미만 농어가 자녀(0세~만5세미만) 41,500명에게 1인당 월 102천원 보육비 지원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호)

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도에 도입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000년까지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편모 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에 대하여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편부 농업인의 인문계고교생 자녀까지 포함한데 이어 2003년도에는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농업인의 모든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84천명에게 5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8<표 3-2> 2003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계획

(단위 : 천명, 백만원)

사 업 명	인 원	지 원 액	비 고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4	59,053 (17,716)	국 고 30% 지방비 7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해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과 재학생에게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식 고취를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2,600명을 대상으로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9<표 3-2> 2003년도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인 원	지 원 액	비 고
○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2,600	1,767 (353)	국 고 20% 지방비 50% 자부담 30%

주 : () 내는 국고지원액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운영렬)

마.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2001년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한 2003년 농림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을 수립('02.12)하여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에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도·농간 정보격차가 점점 늘어나 격차해소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보수요자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올해 기존의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계획」을 대폭 보완한 『농업·농촌정보화 비전』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정보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사각지대 해소와 농업인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정보컨텐츠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농업인 정보화교육 내실화

도·농간 정보격차 조기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이수자, 희망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 및 과정별 전문화와 차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교육생 수준 및 교육목적에 맞게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농업정보 활용과정, 농업용S/W 활용과정 등으로 개편하였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으며, 교육희망자의 활용유형에 따라 과정내에서 기초·심화 등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컴퓨터·인터넷 활용과정, 농업정보 활용과정을 융통성있게 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여 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상하위 교육을 연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용 S/W활용 전문교육은 전국 22개 농과대학 및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촌현장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이동정보화버스 2대 및 농과대학생이 농가를 방문하는 농업정보119서비스 대학도 전국의 2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91개 읍면(7개도 40개 시군)에 정보화선도자를 선정하여 농업정보119대학과 정보화선도자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농가현장 방문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0<표 3-2>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1	2002	2003
총 계	303,856	161,099	80,257	62,500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 활용)	120,596	61,684	35,912	23,000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44,512	14,351	14,161	16,000
전문교육 (농업용 S/W활용)	14,688	10,042	1,646	3,000
농업정보119서비스	55,102	27,976	15,126	12,000
이동버스교육	7,888	3,100	2,288	2,500
생산자단체(농협) 교육	11,186	11,186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32,760	32,760	-	-
자체교육	9,750	-	9,750	-
정보화선도자	7,374	-	1,374	6,000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아울러 교육신청과 교육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관리시스템(www.eduaffis.net)을 농업인 사이버학당(www.farmedu.net)과 통합하여 농업인과 교육시행기관의 담당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의 반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원격교육의 콘텐츠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이대형)

(2)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터넷 콘텐츠 확충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NET)기능 개선으로 정보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농업관련 전문기관·단체·업체 및 전문가 등 정보제공자(IP) 발굴, 농촌생활정보 전문사이트와 제휴확대 및 각종 농업정보사이트 링크 연계를 통해 농촌생활과 복지관련 정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정보의 경우 품목중심으로 정보를 분류하여 이용자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출하지원시스템(<http://www.chulha.net>)은 28개 공영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분석정보와 유통전문가의 시황·전망정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인 출하시기·시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3년에는 부류별로 23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추가 : 젓소·쌀·백합·국화 등 21개 품목)으로 서비스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위주의 맞춤형정보서비스를 실시하며,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도매법인의 경락정보도('02년 12개시장 26개법인 → '03년 16개시장 33개법인 확대계획) 속보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통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106농가지원을 시작하여 2002년까지 총 1,306농가에 대해 구축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개발비의 50%에 대해 농가자부담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농가를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평가 후 등급화 하여 농가 수준별로 차별화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에 세번째로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우수농가를 발굴·홍보하고 주 소비 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농산물 인터넷 쇼핑물 이용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조규표)

(3) 농림지식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의 축적과 공유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마인드를 구축하여 농업·농촌경쟁력을 향상하고, 향후 지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추진되었다

2000년 1차 구축사업부터 시작하여 2002년 3차 구축사업까지 완료하였으며, 특히 3차 사업이후 접속건수가 전년대비 3.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3년에는 다양한 지식컨텐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로서 내부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지식공유를 위한 농림가족웹터코너의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1급이상 간부들의 월간, 주간, 일일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근일정코너를 개설하였고, 정책토론을 위한 agro-cafe코너를 개설하여 농촌투자활성화 등 주요농정현안에 대한 주제로 간부들의 관심속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등록된 지식 중 평가점수순으로 선정한 우수지식을 소개하는 추천지식코너, 사용자들의 지식마일리지 및 각종 평가현황을 소개하는 지식통계코너, 과천, 수원, 안양주변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정보코너, 전자결재상의 개인결재정보 상황을 요약 소개하는 전자결재코너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농림관련 해외정보를 총망라해서 제공할 수 있는 해외정보포털사이트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KMS내 해외정보는 약 6,500건 정도 축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해외정보전문업체와의 정보제공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품질의 정보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농업관련 지자체와도 연동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지식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농림부 각종하부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정책·업무지원기능을 보강하여 농림부 전자정부의 핵심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사무관 정호진)

(4) 「농촌PC보내기 운동」 추진

도·농간의 정보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정보접근 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2002년부터 「농촌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PC의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등에 있어서 도·농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의 선결과제인 정보접근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 단위의 정보이용 시설 설치지원 사업인 「디지털 사랑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1<표 3-2-> 농촌 PC보급 및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구 분	2001		2002	
	전국평균	농림어업	전국평균	농림어업
PC보급률	53.8	26.7	60.1	29.2
인터넷이용률	52.9	8.3	59.4	11.9

자료 : 통계청, 정보화실태조사

이를 위해 하반기에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농촌정보화의 허브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이 사용하던 중고PC를 수리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농촌PC보내기 사업」은 수리비 현실화를 위해 올해에는 대당 11만원씩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상향지원하여 성능을 개선시켜 보급하여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한종현)

제 10 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대응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농업협상에서 수출·입국간 팽팽한 입장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금년 2월과 3월 두차례 그동안 논의내용을 기초로 수출국과 수입국간 대립되는 입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절충안으로서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제시하였다. 동 초안은 개도국우대는 강화하였으나 UR협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감축의무를 담고 있어 농산물 수입국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고, 수출국들도 보다 의욕적으로 시장개방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금년 3월 세부원칙(Modality)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시한 내 세부원칙 수립에 실패하였다.

3월말 세부원칙(Modality) 합의도출 실패이후 국제사회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원래 칸쿤 각료회의는 DDA협상 진행상황을 중간점검하기 위한 회의였으나, 농업, 비농업 등을 비롯한 DDA 협상의 주요 분야가 사전에 정해진 세부원칙(Modality) 수립 시한을 넘김으로써 칸쿤 각료회의를 다음 목표시한으로 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 각료회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농업분야는 3월말 세부원칙 합의 실패이후 제네바에서 기술적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으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계속 평행선

을 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국들이 각각 수출국과 수입국을 대표하며 대립하고 있던 미국과 EU가 합의하여 협상진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양국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8월 13일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 입장을 절충한 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24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미국-EU간 절충안을 기초로 하여 개도국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칸쿤 각료회의 문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동 문서는 농업분야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만을 제시하고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등 구체적 수치는 칸쿤 이후의 협상과제로 남겨 놓았다. 수치까지 포함되면 각국이 이해득실을 정확히 판단하므로 협상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감축의 경우 UR방식⁵⁾과 스위스공식⁶⁾을 절충하였고 고율관세 품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도록 함으로써 관세상한 개념을 포함하였다. 민감품목의 경우 UR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대신 저율관세 쿼터를 일정 수준 증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특별품목(SP)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보조의 경우 보조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많이 감축하도록 하는 원칙을 채택하였고, 수출보조는 일부 품목만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품목중 고율관세품목이 많이 있어 관세상한 개념이 채

5) UR협상에서 채택한 관세감축방식으로서 전체 농산물 감축률의 평균만 맞추면 품목별 감축률에 있어 어느 정도 신축성을 인정하는 방식. 이 방식은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대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게 감축할 수 있는 신축성을 허용하므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수입국들이 선호함. 단, UR방식 하에서도 품목별로 최소 일정 비율 이상은 감축해야 함. 참고로, UR협상에서는 평균감축률 36%, 최소감축률 15%를 적용한 바 있음.

6)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모든 관세를 그 이하로 낮추는 방식. 이 방식은 고율관세 품목은 관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하고 저율관세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별, 품목별 관세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수출국들이 선호함. 참고로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관세상한을 25%로 하는 스위스공식을 주장한 바 있음.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택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개념 철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대응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지나친 특혜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품목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협상구도는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그룹(G-10)과 인도, 브라질, 중국 등 수출개도국그룹(G-22)이 미국-EU 절충안을 주로 반영한 각료회의 문서 초안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출개도국그룹(G-22)은 개도국우대를 강조하면서도 선진국에 대해서는 국내보조 대폭 감축 및 수출보조 철폐를 주장함으로써 각료회의의 기간중 내내 미국-EU와 강하게 대립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그룹(G-10)은 무엇보다도 관세상한 개념 철폐에 최우선순위를 각료회의의 기간중 공동제안을 제출하고 우리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각료회의의 기간중 배포된 칸쿤 각료회의 문서 수정안에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관련된 소수 품목에 대해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못해 각료회의의 자체가 결렬됨에 따라 동 초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의 목적은 3월말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DDA 농업 협상의 진전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각료회의의 결렬은 협상진전의 계기 마련에 대한 실패를 의미할 뿐 이로 인해 DDA 협상의 큰 흐름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반적인 협상일정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대로 2004년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현재 협상은 다소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은 언제든지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원칙이 합의된 이후 제출하는 국별 이행계획서(C/S) 작성에 대비하여 합의가 예상되는 세부원칙 시나리오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품목별로 관세, 가격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축적하여 이행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유지 확보 추진

DDA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개방의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개도국지위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동 지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을 이유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 개도국지위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개도국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선진국들은 수혜개도국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개도국 분류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지위는 양허협상 단계에서 주로 우리나라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협상대국별로 관심사항과 관심품목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검토 분석하여 개도국지위 유지에 있어 관건이 되는 향후 양자협상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논리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시도에 대해서는 계속 저지해 나갈 것이다.

다. 쌀재협상 대책 추진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현안이 쌀문제이다.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여부는 2004년중에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WTO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쌀 재협상은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DDA 협상과는 외형상 별개의 사안이나 내용상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될 관세감축과 TRQ 증량원칙, 그리고 우리의 개도국 지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위유지 여부는 쌀협상의 중요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원칙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대안별 유불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DDA협상에서 세부원칙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세부원칙 없이 쌀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느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 영세한 규모와 노령화된 가족농 구조,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박수진)

2. 한·칠레 FTA 추진

가. FTA 추진경위

최근의 세계경제질서를 보면 WTO를 중심으로 무역질서가 다자화 되어 가면서도, 동시에 지역경제화(Bloc화)추진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2000년 73%)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FTA협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는 FTA 경험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부담이 적으며 남미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FTA의 첫상대로 선정·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1999년 12월~2000년 12월 기간중 4차례의 실무협상이 있었으나, 관세양허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이로 금년 8월까지 추가협상이 개최되지 못하고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였다.

칠레측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10년내 관세철폐를 주장하였으며 우리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측은 국내농업에 영향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2003년 2월 LA에서 양국은 고위급협의를 계기로 협상재개를 합의하고 양측은 양허안을 금년 2월과 7월 각각 교환하였다.

5차 협상은 8월 20일~23일간 칠레에서 개최하였는데, 양국의 양허안에 대한 여전한 의견차이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5차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의 조기진전을 위해 협상의 핵심분야인 양허안에 대해 양국 실무자간 별도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양허안 별도협상이 9월11일~13일, 10월10일~11일 2차례에 걸쳐 제네바에 개최되었다. 2차례의 별도협 의 과정에서 양측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양허안과 관련하여 이견을 상당부 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6차협상은 10월 1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농산물 및 공 산품분야에서 일부 미결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양측은 협상시한을 넘긴 10월 21일 오전까지도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한 채 한 국정부의 입장을 추후 칠레측에 통보키로 하였다.

10월 24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존 미결쟁점에 대한 우리정부 의 입장을 확정하여 이를 칠레측에 통보하였으며 칠레측이 이를 수용함으 로써 사실상 한-칠레 FTA가 타결되게 되었다.

최종 타결된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쌀과 신선사 과 및 배는 FTA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포도는 11월~4월간에 적용되는 관 세를 향후 10년간 균등철폐하고 5월~10월간에는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 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관세가 높거나 국 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DDA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쇠고기, 닭고기, 유장, 기타채소(건조), 맨더린, 자두 등의 품목은 소량의 TRQ를 제 공하고 관세인하 문제 등은 DDA협상 이후 논의키로 하였다. 관세철폐계획 을 제시한 품목중 국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한 품목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은 7년~1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기로 하였으며,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협정문과 관련해서 우선 양국은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SG: safeguard)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동제도는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는 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에 제한이 없는 등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와함께 제3국산이 칠레산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축산물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여 칠레에서 도축된 것만을 칠레산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 양국은 WTO/SPS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FTA 체결로 검역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2월 15일 Lagos 칠레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외무장관간 정식 서명을 하였으며, 7월 8일 향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30일이 경과된 후 발효되도록 되어있다.

나. FTA 지원 특별법 제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FTA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FTA지원특별법(안) 주요내용>

- ①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영어규모 확대, 생산기반정비, 고품질·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②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가 희망 할 경우 폐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③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④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⑤농림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양허된 일정수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징수한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유통정책과 서기관 서해동)

다. FTA 후속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및 추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향후 7년간 총 1조원 규모(FTA기금 8천억원, 지방비 2천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과실분야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쌀·사과·배 등은 FTA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기인 11~4월에 수입되는 것에 한하여 향후 10년간 관세를 인하하고, 복숭아·과실 가공품·돼지고기 등은 향후 5~16년간 관세를 인하하는 등 최대한의 이행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WTO 규정의 세이프가드(SG)보다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도 마련하였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그러나 이러한 협상노력에 불구하고 일부 과실류를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칠레산 보다 30%이상 高價)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 품목별 피해규모 : 신선과실(사과·배 제외) 3,662억원,

가공용 과실 2,189억원

※ 연차별 피해규모 : (1년차) 104억원 → (5년차) 558억원

→ (10년차) 1,039억원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FTA 농업지원대책은 향후 7년간 9,940억원 규모를 지원하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전에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원대책의 특징은 ①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집중지원하고, ②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별도 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③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보조지원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농가의 고품질 안정생산에 집중지원하면서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 계열화 및 품질고급화, 과수수출 주산지의 생산 및 출하기반 조기구축,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과수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희망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비율을 높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특별히 감안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지원대책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TA 지원대책과 병행하여 WTO/DDA협상,

쌀 재협상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10년의 장기 농정비전을 설정하고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 차질 없는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러한 구상에 따라 우선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 부채의 획기적 경감을 추진하는 특별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 4대 특별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수화훼과 서기관 허태웅)

3.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가. 북한의 식량 농업 상황

북한 농업은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에너지 및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 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식량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료 지원, 민간단체의 농업 지원에 힘입어 북한의 2003년 식량생산량은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인 413만톤을 생산,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완전자급에는 약 114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도운다는 인도적차원에서 최근 한반도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 상관없이 비료와 식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03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비료 20만톤, 식량차관 40만톤(국내산 쌀)을 지원하고 WFP를 통하여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했다.

지난해 북한식량 사정에 대한 WFP 보고서('02.10월)에 의하면 북한의 농가에 대한 1일 배급량은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600g(년 219kg)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 주민들에 대한 1일 배급량은 필요량의 45%인 270g(전년 대비 7.5%감소)에 불과하여 가계수입의 75-85%를 식량구입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대가족(4~6명) 도시 가계들은 심각한 식량불안에 직면해 있고 그 외 도시거주 노인·임산모·아동들은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추 정 기 관	소요량 (a)	생산량 (b)	부족량 (c=a-b)	외부도입 추정량(d)	부족량 (c-d)
통일부·농진청 (정상배급기준 700g/일)	6,320	4,134	2,186	약 1,040	△ 1,146
WFP (기아해소수준 457g/일)	4,921	3,937	984	약 1,040	-

자료 : 통일부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지원

북한에 대한 정부의 식량지원은 정부 직접지원, WFP를 통한 간접지원, 식량차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직접지원으로 1995년에 국내산 쌀 15만톤(국내가격 적용 1,850억원), 1996~1998년까지 WFP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옥수수 등 10.3만톤(3년간 총 418억원)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는 대규모적인 식량지원이 이루어져 2000년 50만톤(태국산 쌀 30, 중국산 옥수수 20), 2002년, 2003년에 각각 국내산 쌀 40만톤씩을 30년 상환(거치기간 포함), 년 1% 이자의 식량차관으로 지원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매년 옥수수 10만톤(10만톤가격 : 약 2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영농기에 맞추어 1999년부터 매년 20~30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료지원은 북한의 식량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비료 : ('99년) 11.5만톤 → ('00) 30 → ('01) 20 → ('02) 30 → ('03) 30
- 식량지원
 - 정부무상지원 : ('95) 국내산 쌀 15만톤
 - 식량차관 : ('00)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 ('02) 국내산 쌀 40 → ('03) 국내산 쌀 40
 -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96~'97) 옥수수·혼합곡물 등 약 7만톤 → ('98) 옥수수 3·밀가루 1 → ('01) 옥수수 10 → ('02) 옥수수10 → ('03) 옥수수10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과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대북농업지원 민간단체는 현재 10여개로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2000년에는 5개 민간단체가 3,000백만원, 2001년에는 12개 민간단체가 6,682백만원, 2002년에는 8개 민간단체가 3,852백만원, 2003년도에는 8개 단체가 4,740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대북협력 지원사업은 소규모이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연중 적기에 지원하고 있고, 북한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간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는 1996년부터 농기자재, 젓염소, 의약품 등을,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 중에는 농자재, 의약품, 밀가루 등을 지원해 왔다. 2003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평안남도 대동군에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위하여 건설자재·장비(크레인 1대, 카고 2대, 지게차 1대), 농기계(콤바인 100대, 경운기100대)를 지원하고, 온실자재, 육묘상자, 이앙기, 파종기, 분무기, 배토기,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2001년부터 추진해온 5개 씨감자생산시설(평양, 대흥단, 정주, 배천, 함흥)과 채소사업장(평양 만경대, 두루섬)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중에는 이에 필요한 온실자재(2동 연 300평) 및 채소묘 생산·육종시설 설치 자재, 시설유지관리 자재, 비료·농약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제3편 2003년도 농정시책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부터 추진된 25개 시험농장에서 옥수수 재배 및 증산을 위한 옥수수 종자, 비료 3,500톤, 옥수수 탈립기 200대, 의류, 자전거, 옥수수 원종 20종, 옥수수 종자 53톤, 농약 15톤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평양 삼석지역에 산란종계장 건설(종계 3,000마리 사육장, 관련 시설)의 후속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손수레부품, 하우스개폐장치, 종계용 사료, 못자리용 비닐 등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는 2000년부터 씨감자 재배를 위해 씨감자 등 농자재를 공급해 왔으며 2003년 하반기에 원산에 감자종자 배양시설을 설치(연간 1,200만개 씨감자 생산시설)하기 위하여 감자 배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자재 공급 및 배양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의 숲」은 삼림용 묘목 생산을 위해 평양과 고성에 온실 양묘장을 설치하고 각종 영농기자재 등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양묘용 온실(평양 300/150평 2동, 고성 150평 2동) 및 창고용 건설자재, 트랙터, 경운기, 종자, 묘목용 포트, 비료, 기타 양묘도구를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8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북한 4개 젓소목장에 젓소 330두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중에는 서포담공장에 종란을 지원하여 생산된 우유와 달걀 등을 어린이영양 개선에 활용하고 젓소 30두, 우유생산설비, 육계용 종란 3만개 및 산란설비, 사료 100톤, 수의약품 등 지원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는 1999년 이후 젓염소 1,130두, 착유·가공설비, 건초 등을 지원하였고 2002년 5월~2003년 4월중에는 젓염소 140두, 배합사료 등 2.3억원 상당 지원하였다. 2003년중에는 젓염소를 지원하여 증식하고 생산된 우유 및 치즈 등을 영양결핍 어린이·노약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젓염소 130두, 착유설비(1식), 유가공설비(1식), 울타리자재, 목초종자, 비료, 경운기(10대), 약품 및 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2003년도 주요 농정시책

33<표 3-2-> 2003년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단 체 명	사 업 명	총사업비 (a+b)	자체재원 (a)	기금지원 (b)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1,248	818	430
월드비전	종자개량(감자,채소등)	453	233	220
국제옥수수재단	옥수수 증산	977	617	360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자재 지원	225	115	110
남북농발협	씨감자 배양·기술지원	359	209	150
평화의숲	양묘장 조성	530	420	110
굿네이버스	어린이영양지원(축산)	910	500	410
한국대학생신교회	젓염소 축산 지원	508	268	240
합	계	5,210	3,180	2,030

자료 : 통일부

34<표 3-2->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규모

(단위 : 만달러, 억원)

연도	정부차원	주요지원품목	민간단체	주요지원품목
	금 액		금 액	
1995	23,200(1,850)	쌀15만톤(국내산)	25(1.9)	담요 8천매
1996	305(24)	혼합곡물,분유,기상자재 (WFP,UNICEF)	155(12.4)	밀가루, 분유, 식용유 등
1997	2,667(240)	옥수수,밀가루 등 (WFP,UNICEF,UN기구)	2,056(182.1)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1998	1,100(154)	옥수수, 밀가루 등(WFP)	2,085(275.3)	곡물, 비료, 소, 식용유 등
1999	2,825(339)	비료 11.5만톤	1,863(223.6)	비료, 밀가루 계란, 씨감자 등
2000	7,863(944)	비료 30만톤	3,513(421)	사료, 감귤, 의류, 경운기, 양수기, 의약품 등
2001	7,045(913)	비료 20만톤 WFP 옥수수 10만톤	6,494(844)	과일 12천톤, 농자재 등
2002	8,375(1,075)	WFP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 등	5,117(641)	농기계수리공장, 산란종계시설,수경재배시설, 기타 농자재 및 식량 지원
2003 (10월말)	9,917(1,190)	WFP 옥수수 10만톤 비료 30만톤 등	4,377(586)	잣나무 묘목, 씨감자, 농자재, 종자, 비료, 농기계 등
합계	63,297(6,729)		25,685(3,187)	

자료 : 통일부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대비 체계

(1) 중장기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 모색

북한농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남북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대비 남북농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하여 북한농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은 '국제기구의 북한농업 개발사업 추진방식 분석 및 적용방안'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고 2003년에는 '북한농업 발전전략과 남북협력 연구' 등 6건을 연구용역중이다. 특히, 2003년부터는 북한농업연구 분야를 '북한농업기초연구, 남북농업협력연구, 통일대비정책연구'로 나누어 분야별 중기연구목표를 수립·추진중이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농업연구자협의회」를 두고 금년도 연구 연구방향을 심의·조정하고 지난해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 개성공업지구 검역합의서

남북한은 개성경제특구 관련 남북실무접촉('02.12.6~8, 금강산)시 「개성경제특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다. 이는 개성경제특구에 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검역문제를 협의한 최초의 검역 합의사항이며 앞으로 검역대상, 검역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남북한이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남북검역 합의서(안) 주요내용

-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접경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개성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
- 검역대상 물자·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 전까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함
 - 전염병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수송장비는 검역을 하지 않음
-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 검역절차를 신속히 수행하여 물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검역업무 협조
-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내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

자료 : 통일부

(3) 남북 원산지 증명 합의서

제2차 남북경협실무협의회시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를 채택('03.7.31)하였고 2003년 8월 28일 남북간 합의서 서명교환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을 협의하였다. 본 합의서는 그동안 중국산이 북한을 경유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남북한 물품교역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 합의서의 국내 시행에 따른 법적 장치를 마련코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통일부에서 관련 고시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확인 합의서 주요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확인기관 지정
 - 발급기관: (남측)세관,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확인기관 : (남측)세관, (북측)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일자·번호·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
-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준 제시
- 원산지 확인절차 :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확인 요청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일시반입품 등

자료 : 통일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호)